

연구보고서 2016-21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오영희 · 김경래 · 신창우 · 배혜원

【책임연구자】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전문원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21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발행일 2016년 12월 31일

저자 오영희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정가 8,000원

발간사 <<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저출산 시기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높은 출산율이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인구증가 억제 위주의 가족계획사업이 도입·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명 수준이었으나 1970년 4.5명으로 저하되었고, 1983년에는 2.1명, 1990년에는 1.6명 수준으로 낮아져 소자녀 규범화와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기존 전국 출산력 조사자료의 재분석으로 기혼여성의 출산행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며, 기혼여성의 출산행태가 인구정책과 어떤 상호작용을 맺으며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저출산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과제이다.

본 보고서는 오영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경래 부연구위원, 신창우 선임전문원, 배혜원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우해봉 실장님,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헌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발전 과정	31
제1절 인구정책의 기본 구조	33
제2절 인구정책의 전개 과정	36
제3절 인구정책과 출산율 변화	52
제4절 인구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출산력 조사	60
제3장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63
제1절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65
제2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양상	69
제3절 기혼여성의 초혼연령	78
제4절 소결	85
제4장 출산수준	87
제1절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	89
제2절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	94
제3절 소결	99

제5장 임신·출산행태 103

제1절 출산 시기 및 출산 간격 105

제2절 임신종결 형태 112

제3절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 양상 120

제4절 소결 127

제6장 가족가치관의 변화 129

제1절 결혼가치관 131

제2절 자녀가치관 158

제3절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171

제4절 소결 201

제7장 결 론 205

제1절 인구정책과 출산행태 변화와의 관계 207

제2절 정책적 제언 212

참고문헌 223

부 록 227

부록 1. 출산력 조사자료 연도별 기존변수 수정 및 신규변수 생성방법 227

부록 2. 부표 235

표 목차

〈표 1-1〉 출산력 조사(1974~2012) 기혼여성 통합파일의 연도별 세부 항목	18
〈표 1-2〉 전국 출산력 조사의 개요(1974~2012)	24
〈표 2-1〉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추이(1944~1966)	37
〈표 2-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과제(중범위)	48
〈표 2-3〉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과제(소범위)	49
〈표 2-4〉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추이(1990~2015)	55
〈표 2-5〉 동거기간별 첫째아 출산시기	58
〈표 3-1〉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교육수준의 변화	67
〈표 3-2〉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연령별 교육수준의 변화	68
〈표 3-3〉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직종의 변화	71
〈표 3-4〉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72
〈표 3-5〉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연령별 직종의 변화	74
〈표 3-6〉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76
〈표 3-7〉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교육수준별 직종의 변화	77
〈표 3-8〉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초혼연령의 분포 변화	80
〈표 3-9〉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81
〈표 3-10〉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코호트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82
〈표 3-11〉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평균 초혼연령 변화	84
〈표 3-12〉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85
〈표 4-1〉 연도별 합계출산율(TFR)의 변화	90
〈표 4-2〉 연도별 연령별출산율(ASFR)의 변화	92
〈표 4-3〉 연령별 유배우출산율(ASMFR)의 변화	93
〈표 4-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 수 분포	94
〈표 4-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출생아 수	95
〈표 4-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출생아 수	97
〈표 4-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98

〈표 4-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취업 여부 및 직종별 출생아 수	99
〈표 4-9〉 연도별 기혼여성(40~49세)의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100
〈표 5-1〉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출산 시기(1988, 2006)	106
〈표 5-2〉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출산 시기(1988, 2006)	107
〈표 5-3〉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출산 시기(1988, 2006)	108
〈표 5-4〉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출산 간격(1988, 2006)	109
〈표 5-5〉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출산 간격(1988, 2006)	111
〈표 5-6〉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출산 간격(1988, 2006)	111
〈표 5-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 및 임신종결 형태	113
〈표 5-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임신소모수	115
〈표 5-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임신소모수	115
〈표 5-1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임신소모수	116
〈표 5-1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취업 여부 및 직종별 임신소모수	117
〈표 5-12〉 연도별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소모율	118
〈표 5-1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횟수	119
〈표 5-14〉 연도별 기혼여성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이유	119
〈표 5-15〉 연도별 기혼여성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이유	120
〈표 5-16〉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	122
〈표 5-17〉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연령별 피임실천율	124
〈표 5-18〉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연령별 불임수술률	124
〈표 5-19〉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초혼연령별 피임실천율	125
〈표 5-20〉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	126
〈표 5-21〉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피임실천 목적	127
〈표 6-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133
〈표 6-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134
〈표 6-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136
〈표 6-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138
〈표 6-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139

〈표 6-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평균 적정 결혼연령	141
〈표 6-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142
〈표 6-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연령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142
〈표 6-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교육수준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	143
〈표 6-1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초혼연령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	144
〈표 6-1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144
〈표 6-1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코호트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146
〈표 6-1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이혼에 대한 태도	147
〈표 6-1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이혼에 대한 태도	148
〈표 6-1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이혼에 대한 태도	150
〈표 6-1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재혼에 대한 태도	152
〈표 6-1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재혼에 대한 태도	153
〈표 6-1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재혼에 대한 태도	155
〈표 6-1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재혼에 대한 태도	156
〈표 6-2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재혼에 대한 태도	157
〈표 6-2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60
〈표 6-2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61
〈표 6-2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62
〈표 6-2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64
〈표 6-2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166
〈표 6-2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166
〈표 6-2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168
〈표 6-2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169
〈표 6-2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이 필요한 이유 비율(복수응답)	171
〈표 6-3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173
〈표 6-3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174
〈표 6-3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이상자녀수	175
〈표 6-3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이상자녀수	178

〈표 6-3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평균 이상자녀수	179
〈표 6-3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182
〈표 6-36〉 연도별 '성별 구별 없이' 자녀를 원하는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182
〈표 6-3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183
〈표 6-3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	186
〈표 6-3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기대자녀수	187
〈표 6-4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기대자녀수	189
〈표 6-4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평균 기대자녀수	191
〈표 6-4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193
〈표 6-4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194
〈표 6-4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기대자녀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	197
〈표 6-4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 ...	199
〈표 7-1〉 한국 여성의 출산종결까지의 평균적 삶	207

부표 목차

〈부표 2-1〉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35
〈부표 2-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36
〈부표 2-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이혼에 대한 태도	237
〈부표 2-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이혼에 대한 태도	238
〈부표 2-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이혼에 대한 태도	239
〈부표 2-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재혼에 대한 태도	240
〈부표 2-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41
〈부표 2-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42
〈부표 2-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242
〈부표 2-1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243
〈부표 2-1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이상자녀수	244

〈부표 2-1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이상자녀수	245
〈부표 2-1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	246
〈부표 2-1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	248
〈부표 2-1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	249
〈부표 2-1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	250
〈부표 2-1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기대자녀수	251
〈부표 2-1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기대자녀수	252
〈부표 2-1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기대자녀수	253
〈부표 2-2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	254
〈부표 2-2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	255
〈부표 2-2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	256
〈부표 2-23〉 평균 초혼연령 추이(1990~2015)	257

그림 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진행 절차	15
[그림 2-1]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본 구조	34
[그림 2-2] 정책기별 주요 정책	36
[그림 2-3] 여성의 일반혼인을 추이	55
[그림 2-4] 여성의 연령별 혼인을 추이(1993~2014)	56
[그림 2-5]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추이	57
[그림 2-6] 가임기 여성인구(15~49세) 추이(주민등록인구 기준)	59
[그림 2-7] 14세 이하 여성인구(0~14세) 추이(주민등록인구 기준)	59
[그림 3-1]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76, 1988, 2000, 2012) ·	74
[그림 4-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출생아 수 추이	96
[그림 6-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추이 ·	200
[그림 7-1]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9
[그림 7-2]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 변화와 출산완결부인(45~49세)의 출생아 수 ·	210
[그림 7-3]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필요성 및 자녀 필요성, 아들 필요성	211
[그림 7-4]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1명 이하 비율(2012) ·	212
[그림 7-5]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	213
[그림 7-6]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결혼 필요성 및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	215
[그림 7-7] 기혼여성(15~49세)의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 횟수	217

Abstract <<

A Study of Fertility Changes in Korea: Based on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1974~2012)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changes in the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fertility rates, pregnancy and childbirth behavior, family values of ever-married women of childbearing age (15~49) using the time series on a database of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1974~2012). We examined the development of population policy over the last fifty years in Korea through literature review. Also, we analyzed how the changes in childbirth behavior of married women changed with population policy the process of fertility transition which played a key role in demographic change, and trie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policy direction for the futur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ity and education for positive changes in values of family and children. Second, there is a need for policy support to reduce the prevalence of pregnancy loss. Third, efforts are needed to narrow the gap between family values perceived by households and family values perceived by the govern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2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provide an effective incentive to resolve the issue of late marriage. Fifth, a comprehensive family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cusing on specific target groups. Lastly, population policy must be pursued consistently and continuously.

The authors are in hopes that further research attempts would be built on this research to provid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발전 과정을 문헌고찰로 정리·분석하고, 기존 전국 출산력 조사자료의 재분석으로 기혼여성의 출산행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며, 기혼여성의 출산행태가 인구정책과 어떤 상호작용을 맺으며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구변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출산력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저출산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우리나라 출산력의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맞물려 있는 만혼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혼 또는 출산 이행의 주요 시기라 할 수 있는 25~39세 연령층의 경우 2006년 이후 대학 이상 고학력 비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취업자의 직종은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혼연령은 1976년 20.4세에서 2012년 25.5세로 5.1세 증가하였다.

나. 기혼여성의 출산수준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74년 3.6명에서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이후 출산수준은 더 낮아져 1993년 1.75명, 2002년 1.17명으로 감소하고, 2008년에는 1.22명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 수(Children ever-born)는 1976년 3.48명에서 2012년 1.69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45세 이상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로 완결출산수준을 추측할 수 있는데, 1976년 5.48명에서 2012년 1.96명으로 감소하여 2006년 이후에는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함을 알 수 있다.

다. 임신·출산행태

1988년과 2006년의 출산 시기의 변화를 보면, 첫째아 출산연령은 23.5세에서 25.6세로 2.1세 상승하였고, 둘째아 출산연령은 25.6세에서 27.9세로 2.3세 상승하였으며, 셋째아 출산연령은 27.5세에서 30.4세로 2.9세 상승하였다. 2006년 자료 분석 결과, 결혼에서 첫 출산까지의 기간은 16.8개월,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의 간격은 34.1개월, 둘째 출산과 셋째 출산의 간격은 48.0개월로 출산 순위가 높아질수록 출산 간격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5~49세 기혼여성들의 총임신 횟수는 1976년 4.70회에서 2012년 2.29회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출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횟수 등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체 임신 대비 자연유산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증가하고,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감소하며, 사산 비율은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2000년 19.2%에서 2012년 17.8%로 감소한 반면 ‘하는 편이 좋다’는 선택적 인식은 같은 기간 30.5%에서 42.7%로 증가하였다. 즉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점차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가치로 이동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해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1985년 80.9%에서 2012년 46.4%로 약 34.5% 포인트 감소하여 자녀 필요성도 ‘필수적’ 인식보다는 ‘선택적’ 인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상자녀수는 2.84명에서 2.25명으로 0.59명 감소하고, 기대자녀수는 3.52명에서 1.94명으로 1.58명 감소하고, 현존자녀수는 3.19명에서 1.75명으로 1.44명 감소하였다. 즉 ‘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이상자녀수는 그 감소 정도가 미미하여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개인적인 자녀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는 기대자녀수와 ‘실질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현존자녀수는 2명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홍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결혼관 및 자녀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임신소모율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혼여성의 총 임신 횟수가 감소하고 전체 임신 중 정상출산 비율은 증가하고 임신소모율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높은 피임실천에도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가 존재하고, 총임신수 대비 자연유산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임신 전 및 산전 관리로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측면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보편적 가족가치의 발굴을 통한 가계와 정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정책과 가계 지향성을 동일한 방향으로 맞추어 국민에 대한 지속적 노출로 심리적 각인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만혼화 해소를 앞당길 수 있는 실효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의 향상, 결혼의 효용 감소, 초혼연령 상승, 출산 간격 확대, 자녀 필요성 감소, 두 차례의 경제위기 등이 모두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하는 것들이고,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점 정책대상 기반의 포괄적인 가족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가족가치관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회제도를 확충·실행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의 일관성·지속성 확보가 요구된다. 인구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일관

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여 문제를 풀어가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주요 용어: 인구정책, 출산수준, 임신종결,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저출산 시기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높은 출산율이 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인구증가 억제 위주의 가족계획사업이 도입·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명 수준이었으나 1970년 4.5명으로 저하되었고, 1983년에는 2.1명, 1990년에는 1.6명 수준으로 낮아져 소자녀 규범화와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었다.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출산억제정책을 펼쳐온 1960년대 초부터 1995년까지는 출산억제정책추진기라고 할 수 있고, 1996년에는 인구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인구자질향상정책기로 전환하였다. 1996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이었으나 2002년 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하여 저출산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1.08명으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다.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가 더욱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대로 지속된다면 사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정책이 추진되었다. 2004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규정 제정에 이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한 사회의 출산율은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와 혼인연령 및 유배우율의

영향을 받고, 최근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발전 과정을 문헌고찰로 정리·분석하고, 기존 전국 출산력 조사자료의 재분석으로 기혼여성의 출산행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며, 기혼여성의 출산행태가 인구정책과 어떤 상호작용을 맺으며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구변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출산력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저출산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우리나라의 50년간 인구정책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정리·분석하고, 전국 규모의 표본조사로 매 3년 간격으로 실시된 「출산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출산수준, 임신·출산행태, 가족가치관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정책과 출산력 변화가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 인구정책의 발전 과정에서는 인구정책의 기본구조, 인구정책기별 추진 배경과 주요정책 내용을 분석·정리하고, 국가통계의 출산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출산력 조사의 목적을 살펴보았다.

제3장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일반특성에서는 15~49세 기혼여성 응답자의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 양상, 초혼연령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4장 출산수준에서는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출산율,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

등을 분석하였다.

제5장 임신·출산행태에서는 1988년과 2006년의 생애임신력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시기(자녀출생 당시 모의 연령)와 결혼 시점부터 셋째 자녀 출산까지의 출산 간격을 분석하였고, 출산력 통합파일을 이용하여 임신중결 형태 및 피임실천 상태를 분석하였다.

제6장 가족가치관에서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인구정책과 출산행태의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출산력 조사는 196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까지는 조사자료가 대부분 IBM카드를 매체로 보존되었고 보관상의 문제 등 카드 폐기에 의해 자료가 유실되었거나 보관매체의 호환성이 없어 복원(복구)이 어려웠다(신창우 등, 2011).

1960년대 전국 출산력 조사는 가족계획사업 평가를 목적으로 피임에 관한 지식·태도·실천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었고, 1970년대 조사는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출산수준 및 행태 변화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980년대 조사는 피임 및 출산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모자보건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조사는 출산력 전환과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2000년대 조사는 지속적인 저출산의 원인규명과 대책강구 및 원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가족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었다(김승권 등, 2009). 2012년 조사는 기존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출산력 조사 내용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한 욕구 등 정책개발에 필요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2. 연구 방법

문헌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정책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수집·복원된 출산력 조사자료(raw data)와 해당 연도 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출산력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그림 1-1 참조).

먼저 1974~2012년 13차례의 횡단면적 조사결과를 통합한 DB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15~49세 기혼여성 조사자료의 비교·검토로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였다. 2012년에 이미 작성된 12차년도(1974~2009년) 가구단위 출산력 통합파일에 대한 빈도표를 검토하고, 이상치 등에 대한 재부호화 작업, 추가 필요변수에 대한 보충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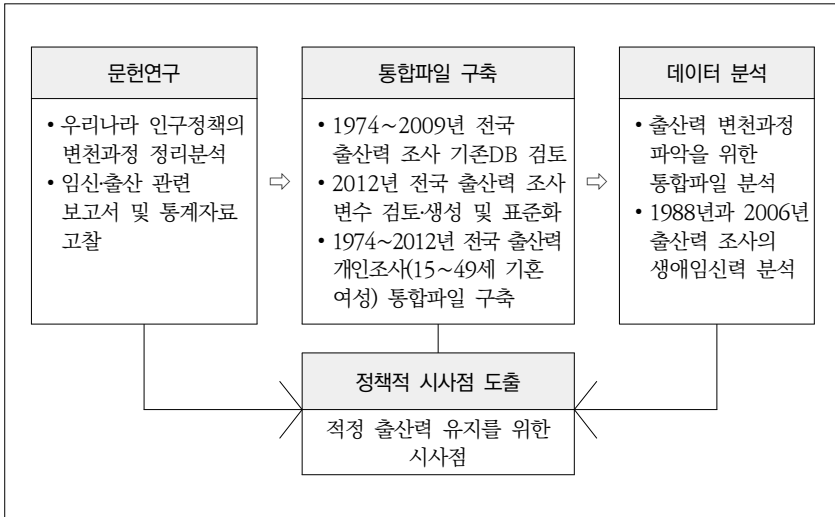
그다음 2012년 출산력 자료에 대한 조사내용 및 변수의 비교·검토를 실시하여 변수의 생성 및 표준화 등의 작업을 실시한 후, 본 연구를 위하여 13차년도(1974~2012년) 기혼여성(15~49세) 통합파일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출산력 변천에 관한 시계열적 분석이 주목적이므로 2012년 출산력DB 모듈에 포함되었던 조사 당시 2년간의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 관련 사항, 자녀양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되었다.

출산행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혼인·임신·출산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나, 생애임신·출산력에 대한 내용은 통합파일로는 충분히 분석되지 않아 생애임신력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1988년과 2006년의 임신력 파일을 이용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생애임신력에 대한 조사는 예산 및 조사상의 어려움 등으로 매 출산력 조사에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년도 자료만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출산력 조사 기혼여성(15~49세) 통합파일은 총 6개의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듈은 응답여성 및 가구 일

반사향, 결혼에 관한 사항, 피임실천에 관한 사항, 임신·출산 및 임신소모에 관한 사항, 가족 및 자녀 가치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그림 1-1] 본 연구의 진행 절차



출산력 통합파일의 모듈에 포함된 연도별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조사 연도는 출산력 조사가 실시되었던 연도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구분자로 활용되어야 한다.

첫 번째 모듈은 응답자인 부인과 남편의 일반사항 영역으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인 출생지,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모듈은 부인의 결혼에 관한 영역으로 결혼상태뿐만 아니라 사별, 이혼 및 별거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모듈은 가구 관련 영역으로 응답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 모듈은 피임실천 영역으로 피임 경험, 사용 피임방법, 피임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모듈은 부인의 종합적 임신·출산 관련 영역으로 임신·출

산 및 임신소모 등에 관한 사항, 인공임신중절 순위별 행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모듈은 가족 및 자녀 가치관 영역으로 결혼의 필요성, 자녀 필요성 및 자녀 성선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 설명된 문항들이 연도별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출산력 조사 당시 사회적·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일부 모듈(혹은 모듈 내 일부 사항들)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파일은 매 조사에 대해 표준화된 항목배열(layout)을 설계하였으므로 조사되지 않은 항목들의 값은 ‘공백(blank)’으로 처리하고, ‘부인 승수(weight)’는 항목배열(layout)에서 가장 끝에 포함되어 있다. 부인 승수는 특정지역집단에 속한 표본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일정 비율로 표본을 추가 조사한 후 분석시 모집단상 비중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이다(신창우 등, 2012).¹⁾

또한 임신 및 출산 행태, 가치관 등은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피임실천 행태는 당시 조사가 주로 피임실천이 필요한 15~44세 유배우부인에 한정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응답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기혼여성 개인조사 자료 이용시 가중치가 제시된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표를 작성하였으나 1988년에는 분석대상자 수가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한 모수이므로 당해 연도 보고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표본수(N)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국 출산력 조사자료는 종단면적인 조사와 달리 동일한 표본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조사항목은 조사마다 분류체계 등이 통일되

1) 본 연구를 위한 출산력 통합파일(1974~2012년)은 2012년에 작성된 출산력 시계열 자료(1974~2009년)를 기반으로 2012년 출산력 자료가 추가되고, 일부 변수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신창우 등(2011)와 신창우 등(20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지 않은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2015년 출산력 조사결과는 2016년 7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국 출산력 조사(1974~2012)에 대한 개요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인구정책 및 출산력 관련 문헌을 검토하면, 1980년대까지는 출산억제 정책 시행과 맞물려 정책평가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인구동향 및 정책대응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시행으로 출산력 회복을 위한 해법모색 차원의 정책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단편적인 정책평가 또는 정책방안 위주로 추진되어 본 연구와 같이 종단적 접근하에 출산·임신행태의 변화를 인구정책·가치관·사회환경 등의 변천 과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찰·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전국 출산력 조사 보고서의 경우 당해 연도의 조사결과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당시의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자의 연령이나 결혼상태의 기준 설정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4~2012년 출산력 조사자료에 대하여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합파일을 구성하여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혼 및 출산 등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

하나, 장기간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인구정책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혼여성의 주요 인구·사회적 특성별 임신·출산행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 1-1〉 출산력 조사(1974~2012) 기혼여성 통합파일의 연도별 세부 항목

변수 설명 항목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조사구 번호	○	○	○	○	○	○	○	○	○		○	○	○
총 조사대상 부인 수				○	○		○						○
I. 응답부인의 일반특성													
부인의 가구원 번호	○	○	○			○		○	○	○	○	○	○
부인의 출생지	○	○		○	○	○							
부인의 출생 연도	○	○	▲	○	○	○	○	○	○	○	○	○	▲
부인의 출생월	○	○		○	○	○	○	○	○	○	○	○	
부인의 만나이	○	○	○	○	○	○	○	○	○	○	○	○	○
부인의 교육수준	○	○	○	○	○	○	○	○	○	○	○	○	○
부인의 직업	○	○	○	○	○	○	○	○	○	○	○	○	○
남편의 가구원 번호	○					○		○	○	○	○	○	○
남편의 출생지	○					○							
남편의 출생 연도		○			○	○		○	○	○	○	○	▲
남편의 출생월		○			○	○		○	○	○	○	○	
남편의 만나이		○			▲	○	○	○	○	○	○	○	○
남편의 교육수준	○	○		○	○	○	○	○	○	○	○	○	○
남편의 직업	○	○	○	○	○	○	○	○	○	○	○	○	○
II. 부인의 결혼에 관한 사항													
부인의 결혼 당시 연령(만나이)	○	▲	○			○		○	○	○	○	○	○
부인의 결혼 연도(양력)		○	▲			○		○	○	○	○	○	▲
부인의 결혼월		○				○		○	○	○	○	○	
부인의 현 결혼상태	○	○	○	○	○	○	○	○	○	○	○	○	○
부인의 초혼 연령	○	○	○	○	○	○	○	▲	○	○	○	○	○
부인의 현 결혼의 초혼 여부	▲	○	▲	▲	▲	○	▲	○	○	○	○	○	○
부인의 초혼 연도	○	○	▲	○	○	○	○		○	○	○	○	▲

변수 설명 항목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부인의 초혼월	○	○		○	○	○	○		○	○	○	○	
부인의 결혼 횟수	○		○	○	○		○						○
해혼시 부인 연령	▲					○		○	○	○	○	○	○
부인의 종교	○	○	○	○	○	○	○	○	○			○	○
부인의 혼전 최장 거주지		○		○	○		○	○	○				
부인의 총 결혼 기간		▲	○	○	○	▲	○	▲	▲	▲	▲	▲	
남편의 결혼 당시 연령(만나이)						○			○	○	○	○	○
남편의 초혼 당시 연령	○			○	○		○	○	○	○	○	○	○
남편의 초혼년도									○	○	○	○	▲
남편의 초혼월									○	○	○	○	
남편의 현 결혼의 초혼 여부								○	○	○	○	▲	○
남편의 해혼시 남편 연령								○	○	○	○	○	○
남편의 종교		○				○		○	○			○	○
남편의 혼전 최장거주지								○	○				
사별-이혼 당시 연도	○					○		○	○	○	○	○	○
사별-이혼-별거 당시월	○					○		○	○	○	○	○	○
사별-이혼-별거 당시 부인 만연령		○				○							○
사별-이혼-별거 당시 자녀 수						○							
이혼-별거 이유						○		○	○	○	○	○	○
이혼-별거시 학대 또는 폭력 대상자								○	○				○
이혼-별거시 가족 부양의무 불이행자								○	○				○
이혼-별거시 가족 간 불화 대상자								○	○				○
이혼-별거를 제외한 사람									○	○	○	○	○
이혼-별거 당시 만18세 미만 자녀 유무									○	▲	▲	○	○
이혼-별거 당시 만18세 미만 자녀 수									○	○	○	○	○
이혼-별거 당시 막내 연령						○						○	○
현 18세 미만 자녀 수									○	○	○	○	○
첫째 자녀와의 동거자									○	○			
둘째 자녀와의 동거자									○	○			
셋째 자녀와의 동거자						○			○		○	○	
Ⅲ. 가구 일반사항													
주택 유형	○	○			○			○	○	○	○	○	○
주택의 소유형태	○	○		○	○	○		○	○	○	○	○	○
주택의 소유자								○	○	○	○	○	○
주택의 평수		○							○				
가족 소유의 주택 유무								○	○	○	○	○	○
자가용 소유 여부		○			○				○				
부채의 원인										○	○	○	○

20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illegible]

변수 설명 항목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피임 무경험 이유	○	○		○	○	○	○	○	○	○	○	○	○
최소 1년간 불임 경험 유무									○	○	○	○	○
항후피임 사용의향		○	○	○	○	○	○	○	○	○	○	○	○
항후 사용할 피임방법		○	○	○	○	○	○	○	○	○	○	▲	○
(계속)피임하지 않으려는 이유				○	○		○	○	○	○	○	○	○
V. 임신·출산·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사항													
현존 자녀 수(계)	○	○	▲	○	○	○	○	○	○	○	○	○	○
현존 자녀 중 남아(아들)수	○	○	○	○	○	○	○	○	○	○	○	○	○
현존 자녀 중 여아(딸)수	○	○	○	○	○	○	○	○	○	○	○	○	○
총임신 횟수(현재 임신 포함)	○	○	○	○	○	○	○	○	○	○	○	○	○
정상분만 횟수(쌍생아 분만은 1회로 간주) _정상출산 횟수	○			○	○	○	○	○	○	○	○	○	○
쌍생아 출생 횟수					○	○	○	○	○	○	○	○	○
삼태아 출생 횟수										○	○	○	○
정상출생아 총수	○	○	▲	▲	○	○	○	○	○	○	○	○	○
정상출생아 중 남아(아들)수	○	○	▲	▲	○	○	○	○	○	○	○	○	○
정상출생아 중 여아(딸)수	○	○	▲	▲	○	○	○	○	○	○	○	○	○
사망자녀수	○	○	○	○	○	○	○	○	○	○	○	○	○
사망아들수	○	○	○	○	○	▲	○	○	○	○	○	○	○
사망딸수	○	○	▲	○	○	▲	○	○	○	○	○	○	○
임신소모 경험 유무	▲	▲	▲	▲	▲	▲	▲	○	○	○	○	▲	○
임신소모 경험 횟수	▲	▲	▲	○	○	▲	▲	▲	○	○	○	○	○
인공임신중절 횟수	○	○	○	○	○	▲	○	○	○	○	○	○	○
첫 인공임신중절의 임신순위				○	○		○	○	○	○	○	○	○
첫 인공임신중절시 현존 자녀수				▲					○	○	○	○	○
첫 인공임신중절시 현존 남아수				○					○	○	○	○	○
첫 인공임신중절시 현존 딸수				○					○	○	○	○	○
첫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	○	○	○	○
자연유산 횟수	○	○	○	○	○	○	○	○	○	○	○	○	○
사산 횟수	○	○	○	○	○	○	○	○	○	○	○	○	○
첫 인공임신중절시 부인 연령				○				○	○	○	○	○	○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				○	○	○			○	○	○	○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순위									○	○	○	○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시 부인 연령				○					○	○	○	○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시 현존자녀수				▲					○	○	○	○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시 현존아들수				○					○	○	○	○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시 현존 딸수				○					○	○	○	○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시 성감별여부									○	○	○	○	○

22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변수 설명 항목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마지막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			○	○	○	○	○	○	○	○	○	○	○
현재 임신 여부	○	○	○	○	○	○	○	○	○	○	○	○	○
현 임신의 출산 예정 여부				○	○				○	○	○	○	○
현 임신의 출산 예정 연도									○	○	○	○	○
현 임신의 출산 예정월									○	○	○	○	○
남아 출산을 위한 노력의 수									○	○	○	○	○
노력_자연요법					○				○	○	○	○	○
노력_양수검사							○		○	○	○	○	○
노력_용모막검사					○		○		○	○	○	○	○
노력_초음파검사					○		○		○	○	○	○	○
노력_기타			○		○		○		○	○	○	○	○
현재 임신기간	○				○	○							
양자녀 유무/수					○	○	○						
최초결혼~불임신까지 기간					○		○						
Ⅶ. 가족 및 자녀 가치관													
결혼 필요성(추가)									○	○	○	○	○
이혼에 대한 의견(추가)									○	○	○	○	○
재혼에 대한 의견(추가)									○	○	○	○	○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추가)				○	○		○				○	○	○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추가)											○	○	○
자녀의 필요성				○	○	○	○	○	○	○	○	○	○
이상자녀 수	▲	○	○	○	○	○	○	○	○	○	○	○	○
이상자녀 성별				○	○	○	○	○	○	○	○	○	○
이상자녀 남아수	○	○	○	○	○	○	○	○	○	○	○	○	○
이상자녀 여아수	○	○	○	○	○	○	○	○	○	○	○	○	○
아들의 필요성		○		○	○	○	○	○	○	○	○	○	○
아들이 필요한 이유_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	○		○	○	○	○	○	○	○
이유_노후의 생활을 위해				○	○		○	○	○	○	○	○	○
이유_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	○		○	○	○	○	○	○	○
이유_경제적인 도움				○	○		○	○	○	○	○	○	○
이유_심리적 만족				○	○		○	○	○	○	○	○	○
이유_가정의 행복과 조화				○	○		○	○	○	○	○	○	○
이유_기타				○	○		○	○	○	○	○	○	○
한 자녀에 대한 단산 의견			○	○	○	○							
한 자녀에 대한 성별 선호				○	○	○							
인공임신중절 수용_피임방법 중 하나						○	○						
수용_건강에 영향						○							
수용_허용 여부						○							

변수 설명 항목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수용_건강에 해로움		○		○		○	○						
수용_성폭행, 강간시						○							
수용_혼전 임신시						○							
수용_불원 임신시		○	○	○	○	○	○						
수용_태아 감별시						○	○	○	○				
수용_경제적 이유		○					○						
수용_여성의 경제활동							○						

주: ○ 표시는 해당변수 있음, 공란은 해당변수 없음, ▲ 표시는 추가 생성한 변수임.
 자료: 신장우 등(2012). 출산력 시계열 자료 구축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연구를 위한 통합파일에 맞도록 재구성함. 본 연구는 출산력 변천에 관한 내용으로 모자보건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2012년도 출산력 조사자료를 추가함.

24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통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표 1-2〉 전국 출산력 조사의 개요(1974~2012)

조사 연도	조사 명칭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내용	보고서명
1974년	한국 출산력 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20,932가구) - 동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5~49세의 기혼여성(5,417명) - 표본조사가구의 지역특성 조사	9.16. ~ 12.5.	1) 가구 현황 - 가구원, 주택, 소유권 현황 등 2) 개인조사(15~49세 기혼여성) - 출산 및 임신기록, 피임 지식 및 실천 - 결혼력, 출산계획 및 가족 크기 가치관 - 취업경력 및 기회, 현/전 남편의 배경 3) 지역사회 특성	경제기획원·가족계획 연구원(1977),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First Country Report」
1976년	가족계획 종합평가를 위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8,160가구) - 동 가구에서 15~49세의 기혼여성 (6,020명) - 이 중 15~44세 유배우부인 (5,008명)	9.20. ~ 11.10.	1) 가구원 조사 - 가구원, 최근 2년간의 출생 및 사망력, 생활환경 등 2) 개인 조사(15~49세 기혼여성) - 출산력 및 피임력 - 가족계획 실태 및 수용성(15~44세 유배우부인 대상) - 가족계획 및 피임 지식과 실천, 인공유산 및 가치관 - 경제 사회적 배경	가족계획연구원 (1978),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계획 평가조사」
1982년	전국 가족보건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7,375가구) - 동 가구 15~49세의 기혼여성 (5,371명) - 이 중 15~44세 유배우부인 (4,351명)	4.11. ~ 5.23.	1) 가구사항, 인구동태(출생, 사망) 사항 2) 모자보건 임신력, 산전후관리,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및 실천 3) 출산력, 피임 지식 및 실천 4) 가임상태 및 자녀수에 대한 태도 5) 사회적 배경, 보건교육 홍보매체 활용도 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 조사 보고」

조사 연도	조사 명칭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내용	보고서명
1985년	전국 출신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7,415가구) • 15~49세의 기혼여성(8,421명)	5.2. ~ 6.9.	1) 가구사항 • 가구원, 인구동태, 일반적 특성 2) 가족계획 실태 및 피임실천 양상 3) 임신, 출산, 피임력 4)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 및 수유 5) 결혼 및 자녀관(성 선호) 6) 홍보교육 및 사회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988년	전국 출신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11,864가구) • 15~49세의 기혼여성 (7,792명) - 이 중 15~44세 유배우부인 (6,515명)	5.9. ~ 6.30.	1) 가구사항 • 가구원, 인구동태, 일반적 특성 2) 가족계획 실태 및 피임실천 양상 3) 임신, 출산, 피임력 4)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 및 수유 5) 결혼 및 자녀관(성 선호) 6) 홍보교육 및 사회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1991년	전국 출신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11,540가구) • 동 가구 15~49세의 기혼여성 (7,462명)	5.6~ 6.5. 6.24~ 7.27.	1) 가구조사 • 가구원, 인구동태 등 2) 15~49세 기혼여성 조사 • 결혼력, 임신 및 출산력, 피임 및 인공유산 실태 • 자녀 가지 및 태도, 취업활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4년	전국 출신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10,613가구) • 동 가구 15~49세의 기혼여성 (6,060명) - 이 중 15~44세 유배우부인 (5,183명)	5.16. ~ 6.4.	1) 가구사항 • 가구원, 인구동태 등 2) 가족계획실태(피임실태 및 경험) 3) 임신, 출산력 4)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 및 수유 5) 결혼, 자녀관 및 노년부양노후생활에 관한 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조사 연도	조사 명칭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내용	보고서명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11,216가구) - 동 가구 15~49세의 기혼여성 (6,450명) - 동 가구 65세 이상 노인 (2,207명)	4.30. ~ 7.7.	1) 가구사항 • 가구원, 인구동태, 가족생활 등 2) 부인의 일반특성, 결혼 및 가족 주기에 관한 사항 • 결혼 및 가족주기, 임신 및 출산, 피임력 • 가족계획실태(유배우 동거, 별거부인 대상) • 모자보건 및 수유 3) 가족복지 관련 • 부인과 남편의 취업 상황, 보육 상황, 자녀가치관 및 노후생활에 대한 태도 4) 노인의 지능평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조사 (11,388가구) • 동 가구 15~64세의 기혼여성 (8,935명) - 이 중 15~64세 유배우부인 (6,408명)	6.19. ~ 8.31.	1) 가구사항 • 가구원, 출생, 거주현황 등 2) 응답부인 및 남편의 특성 • 일반적 특성, 결혼 특성 3) 임신, 출산 피임 사항(15~49세 기혼여성 대상) • 임신 및 출산력 • 가족계획 및 피임 실태(15~49세 유배우부인 대상) 4) 모자보건 • 산전관리 및 분만, 산후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5)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15~64세 기혼여성 대상) • 가족주기: 자녀출생 및 결혼 • 부인과 남편의 취업, 자녀양육(보육) • 정모화 관련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관계 관련 사항 6) 가족가치관에 관한 사항 • 결혼이혼재혼,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 가족관계별 가치관, 호주상속, 제사 및 가사역할 분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조사 연도	조사 명칭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내용	보고서명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15,758가구) • 동 가구 15~59세의 기혼 가구 (11,111명) - 기혼여성(10,078명) - 기혼남성(1,033명)	5.12. ~ 8.16.	1) 가구사항 • 가구원, 출생, 거주현황 등 2) 가족복지(15~59세 기혼가구 대상) • 일반 특성 및 혼인상황, 취업상황 • 가족부양, 가치관 및 가족관계, 가족생활의 질, 가족정책 3)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15~49세 기혼여성 대상) • 임신력 및 출산력 • 가족계획 및 피임실태(15~44세 유배우부인 대상) 4) 모자보건 5) 자녀양육 및 교육 • 보육, 가구소비지출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14,497가구) • 동 가구 15~59세의 기혼 가구 (10,132명) - 기혼여성(8,774명) - 기혼남성(1,358명)	6.5. ~ 8.24.	1) 가구사항 • 가구원, 출생, 거주현황 등 2) 가족복지(15~59세 기혼가구 대상) • 응답자 및 배우자의 일반특성, 혼인사항 • 가족주기, 가치관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비용, 출산 및 가족정책 3) 임신·출산·피임·취업(15~49세 기혼여성 대상) • 임신, 출산사항 및 임양, 불임실태 및 치료 • 가족계획 및 피임 실태(15~49세 유배우부인 대상) 4) 모자보건 • 산전관리 및 분만, 산후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조사 연도	조사 명칭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내용	보고서명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 조사 (13,883가구) • 동 가구 15~64세의 기혼 가구 (10,777명) - 기혼여성(9,806명) - 기혼남성(971명)	6월 ~ 9월	1) 가구사항 • 가구원, 출생, 가구사항, 가족생활의 질 등 2) 결혼 및 가족주기(15~64세 기혼가구대상) •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 응답자 및 배우자의 혼인 관련 사항, 가족주기 3) 임신·출산·피임에 관한 사항(15~49세 기혼여성 대상) •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 임신출산 및 임양관련 태도 • 가족계획 및 피임실태(15~49세 유배우부인 대상) • 불임실태 및 치료 4) 모자보건(15~49세 기혼여성 대상) • 산전관리 및 분만, 산후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5) 가족관계(15~64세 대상) •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6) 기혼여성의 취업(15~64세 대상) • 생애단계별/현 취업 사항 7) 자녀양육(15~64세 대상) • 자녀양육 태도 및 비용, 결혼비용 8)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15~64세 대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 전국 표본지역 내의 가구조사 (14,970가구) • 동 가구 15~64세의 기혼 가구 (10,071명) - 기혼여성(8,179명) - 기혼남성(1,892명)	4.23. ~ 7.30.	1) 가구사항 • 가구원, 출생, 가구사항, 가족생활의 질 등 2) 결혼 및 가족주기(만 15~64세 기혼가구) •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 응답자 및 배우자의 혼인, 가족주기 3) 임신·출산·피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조사 연도	조사 명칭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내용	보고서명
				•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 • 임신·출산 및 입양 • 가족계획, 불임실태 및 치료 4) 모자보건(만 15~49세 기혼여성) •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 수유 5) 가족관계(만 15~64세 기혼가구) • 가족여할, 가족관계, 동거 및 비동거 가족지원, 가족생활의 질 6) 취업(만 15~64세 기혼가구) • 기혼여성의 생애단계별/현 취업에 관한 사항 7) 자녀양육 및 결혼비용(만 15~64세 기혼가구) • 자녀양육, 비용, 본인 및 자녀의 결혼비용 8) 출산정책 및 가족정책(만 15~64세 가구) • 출산정책, 가족정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함.

제 2 장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발전 과정

제1절 인구정책의 기본 구조

제2절 인구정책의 전개 과정

제3절 인구정책과 출산율 변화

제4절 인구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출산력 조사

2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발전 과정

제1절 인구정책의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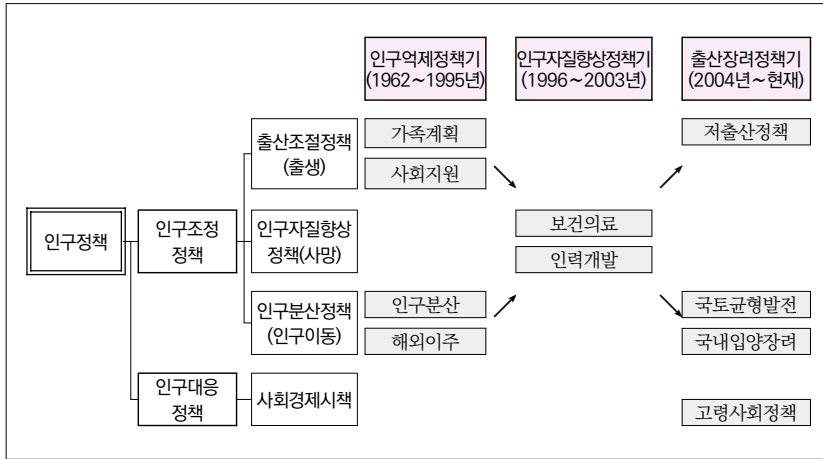
인간으로서의 개인은 출생과 사망이라는 필연적 과정을 거친다. 국가 역시 기본적 구성요소인 개인들, 즉 인구(人口)의 변화과정을 통해 생성·소멸되며 국력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출생과 사망에 극히 사적인 속성이 있음에도 모든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인구를 직·간접적으로 조정 내지 관리를 해온 것이다. 결국 국가는 인구가 당시 사회와 상황에 적합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인구를 조정·관리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는 완전히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에 입각하여 추진된다. 인구조정정책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으로서 출산조절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 인구분산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대응정책은 인구의 변동양상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인구와 관련된 사회경제시책이라 할 수 있으며 주택, 식량, 교육시설, 사회보장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를 거쳐 출산장려정책기로 진행되어 왔다. 출산억제정책기는 가족계획, 사회지원, 국내인구 분산, 해외이주 장려 등의 정책을 주로 시행하였고, 인구자질향상정책기는 보건의료 향상과 인력개발 정책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기는 저출산정책, 국토균형발전, 국내입양 장려 등의 정책과

함께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조남훈 등, 2006).

[그림 2-1]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본 구조



출산조절정책은 출산력 감소 또는 증대를 통한 직접적 인구관리를 위한 정책이며, 정책의 내용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달리 선택된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과잉 인구증가에 직면한 관계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증가 억제대책에 치중하였으나, 근래에는 이와 반대로 세계 각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출산조절정책은 국민의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통한 출산을 증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족계획과 홍보·교육 위주로 추진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 및 출산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및 보상제도가 수반된다. 그리고 사회경제시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는 자녀 수가 적은 가정에,²⁾ 출산장려

정책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인구자질향상정책은 주로 보건의료 및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전개되나 이는 간접적으로 인구의 질적 및 양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교육수준이나 보건의료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나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공공 및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시혜의 확충으로 영아사망을 포함한 사망률이 대폭 감소한 바 있으며, 영아사망률(1천 명당)의 경우 1960년 55.6명에서 1998년 6.6명으로 하락하였다(조남훈 등,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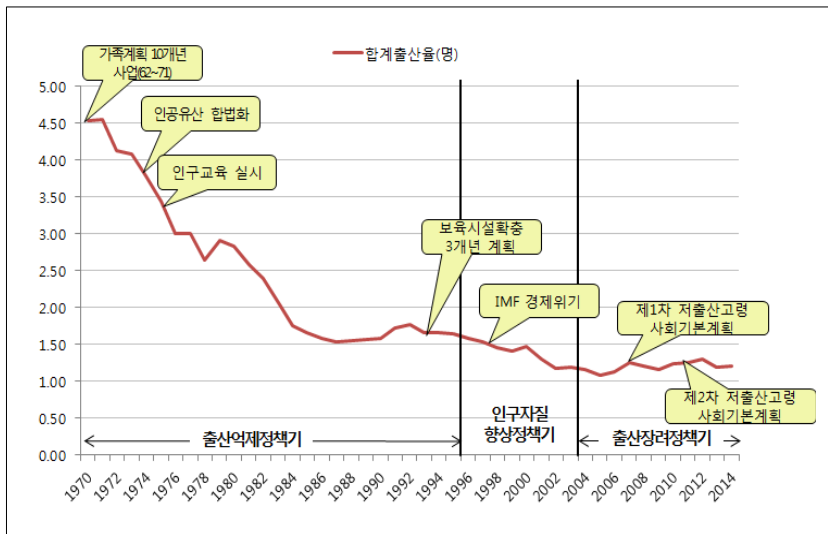
인구분산정책은 국내 인구분산정책과 국제 인구이동으로 구분된다. 국내 인구분산정책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조남훈 등, 2006). 1983년 7월 1일에 시행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제 인구이동은 해외이주법과 입양특례법을 토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이주(1962년) 및 해외입양(1961년) 장려에서 국내입양 우선추진(2012년) 등 인구유출 방지와 외국인고용 촉진(2003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출산억제정책기는 1962~1995년, 인구자질향상정책기는 1996~2003년, 출산장려정책기는 2004년~현재에 해당한다. 각 정책기별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억제정책기는 가족계획 10개년사업(1962~1971년), 인공유산 합법화 및 인구교육 실시이고, 인구자질향상정책기는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이며, 출산

2)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회지원시책은 크게 소자녀 가치관과 피임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상 및 규제시책, 남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 시책, 그리고 학교인구교육 등임(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장려정책기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규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 등이다.

[그림 2-2] 정책기별 주요 정책



제2절 인구정책의 전개 과정

1. 출산억제정책기(1962~1995년)

가. 배경

1960년대는 사상 유례없는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해 높은 인구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이는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하는 사망률에 기인한

것이다. 1944년에 1,590만명에 불과했던 남한의 인구는 1949년에는 26.7%가 증가된 2,020만명으로 연평균 4.7%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1948년의 8·15해방과 더불어 해외동포의 귀환, 북한주민의 월남 등 사회적인 증가에 기인하였다(조남훈 등, 2006).

한편 1944~1949년 기간 중의 급격한 인구증가와와는 달리 1949~1955년 기간 중에는 6·25전쟁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은 1.0%로 감소되었다가 1953년 휴전과 더불어 부인의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5~1960년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2.9% 수준으로 급증하였다(조남훈, 1983).

〈표 2-1〉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추이(1944~1966)

(단위: 천 명, %)

연도	총인구	연평균 증가율
1944년	15,923	-
1949년	20,167	4.73
1955년	21,502	1.01
1960년	24,989	2.84
1966년	29,160	2.65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 보고서자료: 조남훈(1983) 재인용.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산업사회가 정착되기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63년 당시 실업률은 8.2%에 이르렀으며, 산업구조는 1차산업 63.1%, 2차산업 8.7%, 3차산업 28.2%로 잠재적 실업까지 합치면 당시 한국사회의 과잉노동력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김태현 등, 2005). 이와 같이 당시 한국사회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주요 부분으

로 통합되었다(김태현 등, 2005). 한편 대규모 이촌향도 현상은 도시지역에서의 사회적 불안과 빈곤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보건복지 70년사, 2016).

정부가 최초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높은 인구성장을 규제하는 정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경제개발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1961년 11월 13일 가족계획 위주의 출산억제정책을 공식 채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효시로 인정받고 있다.

나. 가족계획모자보건

1) 가족계획사업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1962~1966년) 중의 가족계획사업은 전국의 보건소 조직망을 통한 사업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으며 자궁내 장치, 정관수술, 제리 및 콘돔 등의 피임방법 보급이었다. 1962년 보건소법을 개정하여 전국의 시·군 단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건소에는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교육과 상담은 물론 피임약제 및 기구 등의 보급업무를 담당하였다. 아울러 읍면장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홍보·계몽교육을 실시하고 1964년에 읍면에 배치된 가족계획요원(약 1,500명)에 대한 훈련도 병행하였다(조남훈 등, 2006).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율을 1960년 2.9%에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까지 2.0% 수준으로 둔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60년 당시 거의 부재했던 20~44세 부인의 피임실천율을 1971년까지 45% 수준으로 증대시키고 이 중 31.5%는 정부사업에 의해

서, 그리고 나머지 13.5%는 자비부담에 의해서 달성할 계획이었으며, 같은 기간 중 자궁내장치 100만건, 불임(정관)수술 15만건, 그리고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제기구의 월평균 사용자 15만명에 대한 피임보급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2) 모자보건사업

1967년부터 모자보건사업은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매년 강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60~70명으로 매우 높았는데, 부분적으로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부실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가족계획사업이 잘 추진되는 데에는 출산된 자녀의 건전한 양육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자보건사업에도 역점을 두었다. 안전분만 개조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읍·면에 415명의 조산원을 배치하여 요원들이 직접 분만개조를 행하도록 하였고, 임신부나 분만을 도와줄 부인들을 대상으로 분만세트를 이용한 분만 개조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보건복지 70년사, 2016).

1972년에는 읍·면의 모자보건교육요원 993명이 증원되었고, 1973년 2월 8일 모자보건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각종 피임시술의 무료보급을 포함한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인공임신중절의 법적인 허용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되었고, 당시 입법업무를 대행한 비상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1973년 2월 8일에 법률 제2514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공포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도 우생학적 및 유전학적 이유, 특수 전염성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내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건강

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였다.

3) 출산억제정책 강화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82~1986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8명 수준에서 정제되어 있던 합계출산율 저하를 위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49개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① 피임기술비의 인상 등 가족계획사업 관리제도 개선 ② 새마을사업을 통한 사업 강화 등 피임 보급의 확산을 위한 시책 ③ 피임실천 및 소자녀 가치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④ 자비 피임실천의 촉진 ⑤ 남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제도 개선 ⑥ 홍보·교육활동의 강화방안 등이다.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대책에 힘입어 인구대체수준(2.1명)의 합계출산율 목표는 1988년보다 5년이 빠른 1983년에 실현되었다(조남훈 등, 2006).

한편 1986년 3월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87~1991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계출산율을 1984년의 2.05명에서 1995년까지 1.75명으로 감소시키고 그 이후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는 인구부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와 같은 합계출산율 목표도 이미 1985년에 조기 달성한 바 있다.

다. 해외이주 지원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국외입양을 적극 장려하였고, 1958~2011년 기간 중 국외입양인은 16만 4,000명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 통계자료). 그리고 1962년 해외이민법을 제정하여 해외이민을 장려

하고 이주민의 해외이주를 지원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자는 1962~2003년 기간 중 약 77만 9,000명에 이르렀다(보건복지 70년사, 2016).

라. 홍보·교육 및 인센티브 지원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범국민운동 차원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다자녀관 및 남아선호사상이 확고한 상태에서는 출산억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하였다. 1960년대에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덜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등의 슬로건으로 다자녀관 불식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1970년대에는 ‘한 가정 두 자녀’ 갖기 캠페인 및 남아선호사상 불식을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다. 1970년부터 시행되어 온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슬로건으로 인하여 남아선호에 대한 부인들의 인식·태도가 크게 완화되어 2자녀 규범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편 인구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목적으로 1974년 학교 교육과정에 인구교육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가족계획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교육수련기관이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1970년대 중반 이후 기업 및 가게를 대상으로 소자녀관 확립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민간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가족계획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비용을 조세에서 공제하고, 2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과 은행융자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며, 정부 불임시술 수용자의 시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

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2자녀까지만 부여하였다(보건복지 70년사, 2016).

마. 기타

출산억제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직의 강화도 동반되었다.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 내 관련 조직의 변천과정을 들여다보면 1963년 12월 보건사회부 보건국에 모자보건과 신설, 1970년 2월 보건국 모자보건담당관으로 승격, 1972년 2월 모자보건관리관 신설 등이 이뤄졌다.

한편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971~1983년 매년 한 차례 각 시도 가족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시도 지방 간 사업 경험에 대한 소통과 행정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등 해결책 모색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보건복지 70년사, 2016). 또한 가족계획사업 요원당 월 목표량을 정하여 관리하였는데, 1970년 말 기준 가족계획사업 종사자는 총 3,356명으로 지도원 810명, 계몽원 1,404명, 지정시술의사 1,342명이며, 1971년 3월 기준 요원당 월중 평균목표량은 264명으로 루프 13명, 정관수술 1명, 콘돔 80명, 먹는피임약 170명 등 구체적인 수치로 관리하고 있었다(국립가족계획연구소, 1971).

바. 정책 추진의 한계점

출산억제정책은 당시 정책 환경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성비 불균형, 과도한 출산율 저하 등 부작용을 가져 왔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전통

적 의식구조인 남아선호관,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학기술의 발전, 인공 임신중절 이용의 보편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출생시 성비불균형이라는 새로운 인구문제가 야기되었다.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 감별을 제공하는 의료인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994년에 다시 개정하여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출산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인구학적 경제·사회적 변화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율이 과도하게 급속히 감소한 측면이 있다.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실시와 급속한 경제사회발전은 다자녀관을 소자녀관으로 이행시키는 동시에 실제 출산율을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자녀 수 감소는 소득증가와 함께 자녀 1명에게 할당되는 교육, 보건, 영양 등에 관한 자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보건수준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 감소도 소자녀관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브레이크 없는 출산율 저하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2.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년)

가.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력 수준은 가임기 여성 구조의 영향으로 인한 변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1.5~1.7명 수준에서 안정되었다(김태현 등, 2005).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존폐 여부에

관한 두 전문가 집단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폐지 측의 주장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즉시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되어도 출산행위의 속성상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고, 유지 측 주장은 한국과 같이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하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중단할 경우 피임실천율은 감소되고 동시에 출산율은 증가하여 그간의 정책성과가 무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요지였다(조남훈 등, 2006).

1995년 정부는 인구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를 포함하여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와 인구정책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년에 걸친 연구 결과, 당시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예견되는 노동력의 감소,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의 가중과 노동생산성의 감소,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성비불균형의 심화, 청소년 성문제 및 높은 인공임신중절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즉시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종래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나. 신인구정책

신인구정책의 기본목표는 인구자질의 향상과 노인 등 복지증진에 역점

을 두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현 수준의 출산유지와 유병률 및 사망수준의 개선 ② 가족보건 및 복지증진 ③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회복 ④ 여성취업 및 복지증진 ⑤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 ⑥ 지역별 인구분산의 균형유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신인구정책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의 확충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적정 출산율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재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1996년 당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할 경우 많은 학자들은 출산율 상승을 우려했고,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이 미약했던 면이 있기도 하다(조남훈 등, 2006).

인구자질향상정책기에는 영유아 보육을 강화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단순 '탁아' 사업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켰고,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1995~1997년)을 수립하였다. 3년 동안 보육시설 확충에 매진하여 1990년 1,919개소에서 1997년 1만 3,315개소로, 보육아동은 같은 기간 4만 8,000명에서 45만 6,000명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이주 장려정책은 폐기하였고, 인구정책 전환을 계기로 해외이주 장려에서 편의 도모로 해외이주법의 목적조항을 변경하였다. 1962년 제정 당시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1999년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전면수정되었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출산율 급감이 발생했던 시

기이기도 하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1.3명으로 낮아져 초저출산 국가 상태에 처해지게 되었다(김태현 등, 2005).

다. 정책 추진의 한계점

인구자질향상정책은 인구의 자질과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등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였으나 인구의 양적 변화에 대한 기본 정책이나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정책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김태현 등, 2005).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1.5~1.7명 수준에서 안정되던 합계출산율이 다시 급속히 저하되게 되는데, 이는 출산율 안정화 작업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출산장려정책기(2004년~현재)

가. 배경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2000년 고령화사회(7%), 2017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 인구비율이 세계 최고수준(37.3%)에 이를 전망이며, 빠른 고령화 속도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새로마지플랜 2010).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

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2001년생 이후 출생한 초저출산 세대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가 가속되는데,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사회적 부양부담 완화 등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나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 상승, 자녀출산 기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자녀 수 감소는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결혼관 및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4년에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규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추진기구로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장관 및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다(새로마지플랜 2010).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를 설치·지정하거나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였다(오영희 등, 2008). 2008년 기준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 단체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두고 있으며, 1개 시도만 총괄담당자 1명을 지정하였고,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총괄부서를 설치·지정한 곳은

24개(10.3%), 총괄담당자만 지정한 곳은 184개(79.3%)였다.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등의 4개 대범위 영역과 13개 중범위 영역, 27개의 소범위 영역, 74개의 세부영역, 그리고 2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5년간 42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표 2-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과제(중범위)

구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일·가정의 양립 일상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미래성장동력 확보	여성·고령인력 활용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 2010, 새로마지플랜 2015.

〈표 2-3〉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과제(소범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가정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가족형성 여건 조성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임산·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산·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일·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학교·사회교육 강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개선
	가족생활 문화여건 조성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공적연금제도 내실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평생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일자리 확충 및 제제화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확대
	활동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여건 조성		의료보장내실화 및 의료비 지출적정화 방안 마련
여성·고령인력 활용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인력 활용 시스템 구축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외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력 손실 방지 역모기지제도 도입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자산운용산업 육성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장기국채시장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고령친화 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인프라 조성	고령친화 산업 육성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및 클러스터링		고령화에 따른 주택 및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 2010, 새로마지플랜 2015.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사회 각 부문에 확산하고,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을 지속하고, 고령화에 따른 거시적 변화에 대응,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회 각 부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제1차, 제2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영유아 보육 내실화라 할 수 있다.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으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로 육아지원사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평가인증제 실시, 영아기본보조금 도입, 차등보육료 확대 등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차원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는데, 2005년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010년 맞벌이가구 소득산정기준 완화, 2012년 0~2세아 전 계층 지원과 5세 누리과정 시행, 2013년 3~5세 누리과정 확대 등을 통해 소득구분 없이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하였다(보건복지 70년사, 2016).

라. 기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유출 방지노력을 기하고 있다. 입양정책은 해외입양 장려에서 국내입양 우선추진으로 전환하였는데,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였다(동법 제7조 및 제8조). 또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보건복지부 내 정책추진조직 변천과정은 보육기능을 여성부로 이관(2004년), 가정 및 모부자복지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2005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2008년), 인구정책실로 개편(2013년) 등이다(보건복지 70년사, 2016).

마. 정책 추진의 한계점

출산장려정책은 일부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새로마지플랜 2015).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와 연관된 인구정책의 특성상,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성과는 제대로 도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저하, 특정영역 편중, 민간의 참여부족 등 한계에도 직면해 있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정책성과도 존재한다.

제3절 인구정책과 출산율 변화

1. 출산율의 변화³⁾

인구정책에 따른 출산율 변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정책의 영향 아래 출산율 저하, 가속, 둔화, 안정, 초저출산 진입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960~1966년은 출산율 저하가 시작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처음으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전국의 보건소와 읍면에 가족계획요원이 배치되고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설립되어 홍보활동을 개시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합계출산율은 6.0명에서 5.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때의 출산율 저하는 주로 15~19세 내지 20~24세 연령층에서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3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피임에 의한 출산율 감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66년 당시 20~24세 연령층 혼인율은 48.4%로서 1960년의 66.4%에 비해 18.0% 포인트 감소하였다.

둘째, 1967~1976년은 출산율 저하 가속을 경험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유례없는 가속도의 감소 추세를 경험한 시기에 해당한다. 경제적으로는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였고 가족계획사업도 본격화되어 대량적인 홍보·교육사업⁴⁾과 루프피임법에 의한 가족계획사업이 전개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5.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어 한국가족계획사업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이 기간에는 혼인율 감소로 인한 출산율 저하보다는 피임에 의한 유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연도.

4)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 표어를 내놓고 홍보사업을 전개한 시기에 해당함.

배우부인의 출산율이 크게 감소되었다.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효과로 2자녀만을 희망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출산기간은 단축되고 30대에서 단산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현상이 34세 이하 연령층으로 옮겨와서 이 기간에 우리나라 30대 부인의 출산율이 반감되었다.

셋째, 1977~1981년은 출산율 저하가 둔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0년 동안 급격하게 저하되어 오던 출산율이 합계출산율 3명에 접근함에 따라 그 저하 추세가 완만해진 시기로 합계출산율은 3.2명에서 2.7명으로 저하 추세가 둔화되었다. 합계출산율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는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는 어렵게 되었다. 종래 추진해 온 가족계획사업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의 출산력 억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지원시책이 요구되었다.

넷째, 1982~1995년은 출산율이 안정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시책⁵⁾에 의하여 출산율은 단기간에 다시 급속히 저하된 이후 소폭 등락하던 시기이다. 정부는 1981년 12월에 새로운 인구증가억제시책을 발표하였으며, 동 시책을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시급한 시책으로 인식하여 당시까지 보건사회부 중심에서 범정부 차원의 가족계획사업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시책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와 노력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던 합계출산율 3명에서 2.1명으로의 전환을 1984년에 조기에 달성하는 결과

5) 출산억제를 위한 사회지원시책이 강화되어 불임시술을 한 영세민에게는 특별생계비를 지급하고, 불임시술을 받은 2자녀 가정에 대하여 1차진료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였고, 소자녀 규범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소득세법의 교육비 공제 대상자녀도 2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출산시 의료보험혜택도 세 번째 출산부터는 혜택에서 제외시켰음. 아울러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정부지원에 의한 불임시술을 확대하여 시술비가 대폭 인상되었음. 한편 내무부가 직접 인구증가억제시책에 참여하여 각 시도, 시·군·구 단위로 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각 지방단위로 시장·군수 책임하에 인구증가억제시책이 강력히 추진되었음.

를 가져 왔으며,⁶⁾ 이후 출산율은 소폭 등락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다섯째, 1996년~현재는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97년 IMF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출산율 급감이 발생한 이후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기이다.

2. 혼인·출산주도 연령층의 변화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며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다. 그리고 이는 유배우출산율(Ba/MWa)과 혼인율(MWa/Wa)의 곱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혼외출산이 미미한 우리나라에서는 유배우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거의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TFR = \sum_{a=15}^{49} \frac{Ba}{Wa} = \sum_{a=15}^{49} \frac{Ba}{MWa} \cdot \frac{MWa}{Wa}$$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주도 연령층, 출산주도 연령층, 가임기 여성인구 등에 대한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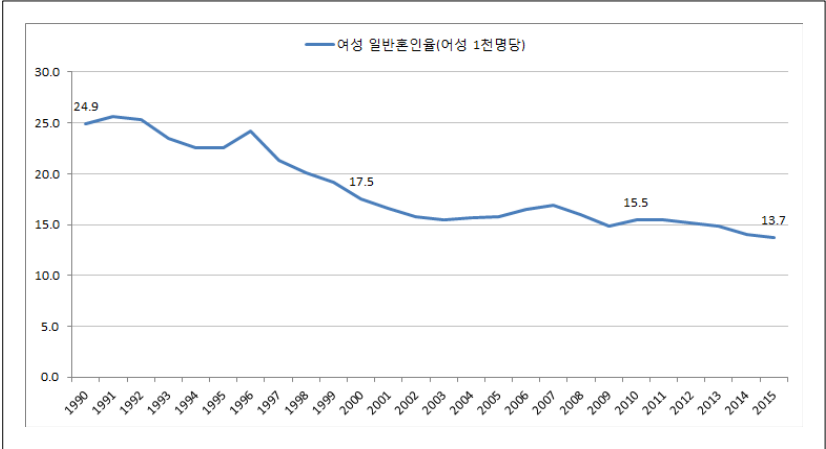
가. 혼인주도 연령층의 이동(20~24세→30~34세)

여성 일반혼인율(1천 명당)은 2015년 13.7명으로 1990년 24.9명에서 45% 감소하여 여성의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

6) 제5차 5개년경제·사회발전계획 인구부문의 계획목표는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것임.

다. 외국과 달리 혼외출산이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미혼여성의 비혼선택 경향 강화는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림 2-3] 여성의 일반혼인율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평균 초혼연령도 2015년 29.96세로서 1990년 24.78세에 비해 5.18세 상승하였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다자녀 출산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고령임신의 부작용과 불임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표 2-4〉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추이(1990~2015)

(단위: 세)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평균 초혼연령	24.78	25.32	26.49	27.72	28.91	2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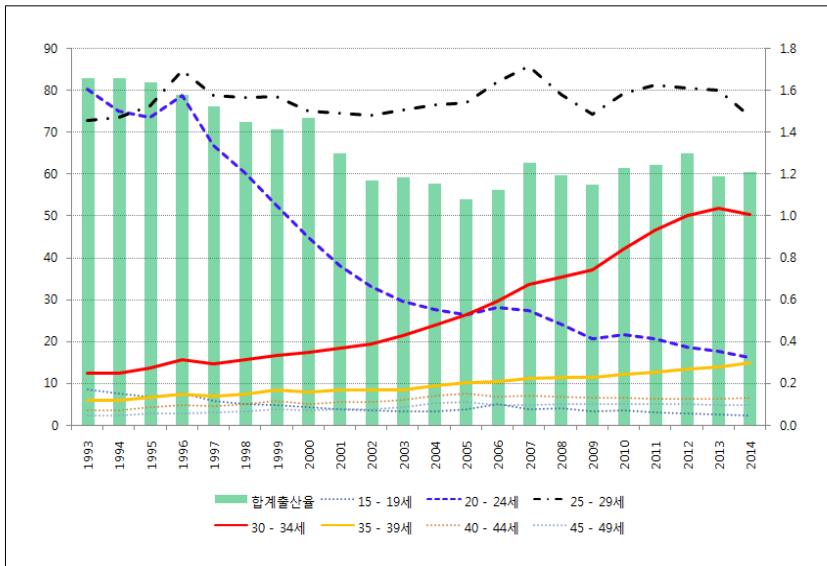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연령별로 구분하여 혼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여성 20~24세와 30~34세 사이에는 혼인율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만혼화

경향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5~29세 여성혼인율은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4세 여성혼인율은 급격한 하락 추세, 30~34세 여성혼인율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 추이(1993~2014)

(단위: 가임기여성 1천 명당)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나. 출산주도 연령층의 이동(30~34세→35~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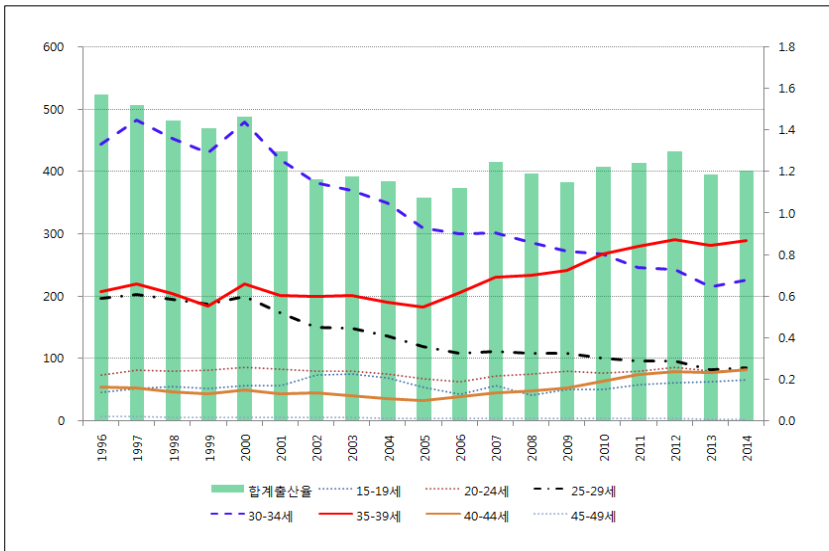
유배우여성 중 출산주도 연령층은 2010년을 기점으로 30~34세에서 35~39세로 전환되어 만혼출산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29세, 30~34세 여성 유배우출산율은 지속 하락 추세이며 35~39세 유배우출산율은 점진 상승 추세임을 [그림 2-5]를 통해 알 수 있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라 생리적 기능까

지 동반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령 임신·출산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출산주도군이 고령임신부로 옮겨간 것은 인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다.

[그림 2-5]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추이

(단위: 가임기 유배우여성 1천 명당)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첫째아 출산 시기 역시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3~2014년 기간 중 각 동거기간별 첫째아 출산 시기가 전 기간 평균 대비 1년 이내 출산 1.7% 포인트 감소, 2~3년 0.5% 포인트 감소한 데 반해 4년 이후부터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 결혼 후 출산 시기를 늦추는 계획 출산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만혼에 따른 생식능력의 저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표 2-5〉 동거기간별 첫째아 출산시기

(단위: %)

동거기간별	1993~ 1995년	1996~ 2000년	2001~ 2005년	2006~ 2010년	2011~ 2014년	전체 평균	평균대비 (‘11~’14)
1년 이내	44.6	43.4	40.4	41.1	40.3	42.0	-1.7%p
2~3년	28.5	27.9	27.7	26.4	27.0	27.5	-0.5%p
4~5년	14.6	15.0	16.8	15.8	16.6	15.7	0.9%p
6~7년	6.1	6.9	7.8	8.3	8.0	7.4	0.6%p
8~9년	3.0	3.4	3.7	4.2	3.9	3.6	0.3%p
10년 이상	3.3	3.4	3.6	4.1	4.2	3.7	0.5%p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다. 현재 및 미래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

가임기 여성인구는 현재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출생아 수에 포함된 여아인구는 미래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출생한 여아는 향후 가임여성으로 편입되어 인구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 자체가 급감하는 상황이라면 미래의 인구구조의 왜곡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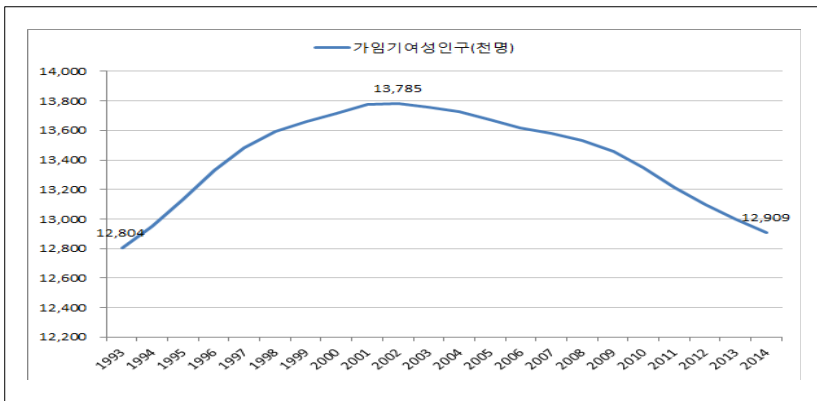
합계출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출생아 수는 가임기 여성인구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가임기 여성인구가 증가하면 출생아 수 역시 증가하고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면 출생아 수 역시 감소하게 된다.

$$\overline{TFR} = \sum_{a=15}^{49} \frac{Ba \uparrow}{Wa \uparrow} \quad \text{또는} \quad \overline{TFR} = \sum_{a=15}^{49} \frac{Ba \downarrow}{Wa \downarrow}$$

이미 가임기 여성인구 및 14세 이하 여성인구는 감소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인구는 2002년 1,378만 5,000명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2014년 1,290만 9,000명 수준이다(그림 2-6 참조).

한편 향후 가임기 여성인구로 편입될 14세 이하 여성인구 또한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감소 폭도 상당히 큰 수준이다. 주민등록기준 14세 이하 여성인구는 1993년 514만 2,000명에서 2014년 354만 1,000명으로 약 20년 동안 31.1% 감소하였다(그림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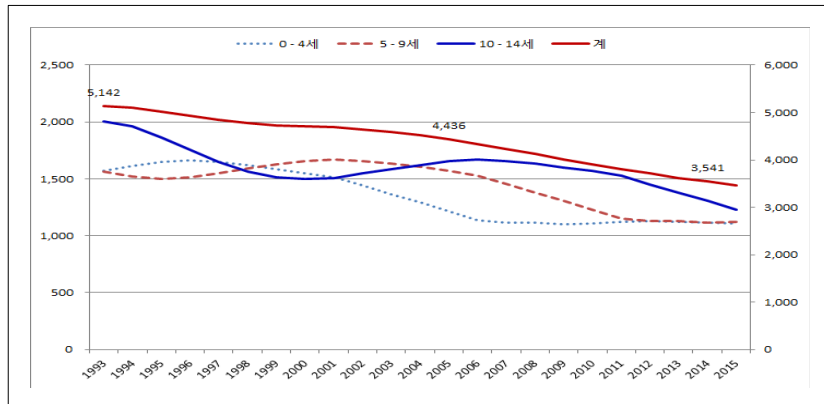
[그림 2-6] 가임기 여성인구(15~49세) 추이(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2-7] 14세 이하 여성인구(0~14세) 추이(주민등록인구 기준)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출생아 수의 지속적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향후 가임기 여성인구가 지속 하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출생아 수의 감소는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

$$\overline{TFR} = \sum_{a=15}^{49} \frac{Ba \downarrow}{Wa \downarrow}$$

가임기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가임기 여성인구에 편입될 출생여아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제4절 인구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출산력 조사

전국 출산력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구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고, 부가적으로 가족복지 증진방안 모색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승권 등(2012)은 출산력 조사의 목적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부인의 임신, 출산, 피임, 난임 등 임신·출산 관련 요소의 행태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기 인구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둘째,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양육, 결혼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 셋째, 산전·산후관리, 저체중출생아, 모유수유

등 모자보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가족생활의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고,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전국 출산력 조사의 명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왔으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변동 및 인구정책적 요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즉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조사의 초점이 변화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구억제정책기 초기에는 ‘출산력’ 단어만 제목에 포함되었다가 ‘가족계획’ 단어가 병기되었고, 이후 ‘가족보건’만 사용한 바 있다. 1985년부터는 국가지정통계가 되면서 ‘출산력 및 가족보건’이란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인구자질향상정책기의 마지막 해에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급격한 출산을 저하에 대한 우려로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다 폭넓은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출산장려정책기인 현재까지도 동일한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다.

인구억제정책기에 사용하던 ‘출산력’, ‘가족계획’, ‘가족보건’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출산력 및 가족보건’은 가족계획사업이 목표달성을 하면서 인구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결부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출산력 조사의 명칭 변화는 인구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한편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정책기별로 변화하여 왔다(표 1-1 참조). 인구억제정책기 조사항목 중 인구자질향상정책기와 출산장려정책기를 거쳐 삭제된 설문은 다음과 같다. 남편 및 부인의 출생지, 현 피임 관련(시

작 연도 및 월, 채택 이유, 만족도, 불만족 이유, 피임실패 임신경험 유무, 피임실패 임신경험 횟수, 이전 피임방법, 피임중단 연도 및 월, 과거 피임 중 실패 임신경험, 과거 실패 임신경험 횟수, 피임도구 구득처, 정/난관 및 IUD 시술 연도 및 월, 시술 장소, 시술비 부담상태), 한 자녀에 대한 단산 의견 및 성별 선호, 인공임신중절 수용 여부 관련(건강에 영향, 허용 여부, 혼전 임신시, 불원 임신시, 태아 감별시, 경제적 이유 등) 등이다. 주로 피임,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항목들로 가족계획사업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에 추가된 설문조항은 남편의 초혼 관련(초혼 연도 및 월, 현 결혼의 초혼 여부, 해혼 시 연령), 이혼·별거 관련 제반사항(사유, 학대·폭력 대상자, 부양의무 이행, 자녀 유무, 자녀 수, 자녀와의 동거자), 가계경제 관련 사항(가계 부채의 원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경제적 자립 정도), 최소 1년간 불임 경험 유무, 첫 인공임신 및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관련(순위, 연령, 현존 자녀 수, 현존 아들 수, 성감별 여부), 결혼 필요성,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의견 등이다. 주로 가족해체와 건전가정에 관한 항목들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출산장려정책기에 신설된 조사항목은 정부의 정책지원시 자녀계획 및 희망자녀수, 입양 고려 여부, 출산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려는 이유, 여성 및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 등이다. 결혼·출산 저해요인 파악과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문항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국 출산력 조사는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변동과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조사의 목적이 변화되고 조사 항목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제 3 장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제1절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제2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양상

제3절 기혼여성의 초혼연령

제4절 소결

3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

우리나라 출산력의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맞물려 있는 만혼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률혼과 부부간 출산 중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가임기간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5~49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 양상, 초혼연령 등 일반적 특성의 주요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일반적으로 결혼연령의 상승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용찬 등, 2010; 우해봉, 2012; 이상립, 2013).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취업 욕구가 강해지고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두섭, 2007; 이상립, 2013). 따라서 본 절에서는 1974~2012년 출산력 조사의 자료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도별 교육수준

출산력 조사를 다년도로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범주를 구성하는 것이다. 교육수준의 범주는 조사 연도에 따라서 보다 세분

화되거나 단순화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수준의 범주를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대학 이상에는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범주에 따라 기혼여성의 연도별 교육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 크게 감소하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 계층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계층은 1974년 70.5%에서 2012년 0.9%로 급감한 반면 대학 이상의 고학력 계층은 1974년 2.6%에서 2012년 47.1%로 급증하였다.⁷⁾ 또한 1985년을 기점으로 중학교 학력 계층과 고등학교 학력 계층의 분포가 역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85년에는 중학교 학력 계층(30.2%)이 고등학교 학력 계층(25.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1988년에는 고등학교 학력 계층(31.1%)이 중학교 학력 계층(28.5%)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984년 2.1명에서 1987년 1.6명으로 급감한 현상과 관련지어 볼 때 여성의 고학력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표 3-1 참조).

2. 연령별 교육수준

〈표 3-2〉는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변화를 연도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기혼여성의 연령구분은 5세 단위로 범주화하였으나 각 연도별로

7)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 기혼여성(15~49세)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3.1%, 고졸 41.1%, 대졸 51.5%, 대학원졸 4.0%임(이삼식 등, 2015).

15~19세 기혼여성이 30명 미만의 적은 케이스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15~24세로 구분하였다. 본 분석에서 결혼 또는 출산 이행의 주요 시기라 할 수 있는 25~29세, 30~34세, 35~39세 연령 집단의 교육수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학력 계층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 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연령 집단에서는 점진적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계층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교육수준의 변화

(단위: %)

구분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계 (명)
1974년	70.5	15.3	11.5	2.6	100.0 (5,249)
1976년	66.1	18.6	12.3	3.0	100.0 (6,020)
1982년	49.9	26.5	19.3	4.2	100.0 (5,371)
1985년	37.7	30.2	25.9	6.1	100.0 (5,091)
1988년	32.1	28.5	31.1	8.3	100.0 (7,789)
1991년	22.9	26.0	41.1	10.0	100.0 (7,376)
1994년	15.8	22.9	45.9	15.5	100.0 (6,055)
1997년	12.4	18.8	48.1	20.7	100.0 (6,446)
2000년	9.3	15.8	50.0	24.9	100.0 (6,345)
2003년	8.5	14.0	49.8	27.8	100.0 (7,183)
2006년	3.9	9.5	52.1	34.5	100.0 (7,273)
2009년	2.7	7.5	49.0	40.8	100.0 (6,226)
2012년	0.9	4.6	47.4	47.1	100.0 (7,266)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3-2〉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연령별 교육수준의 변화

(단위: %)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초등 이하	63.7	51.4	28.4	15.2	12.4	3.4	1.9	0.8	-	0.8	0.8	6.4	2.9
중학교	23.3	29.4	44.1	41.7	30.5	18.9	9.5	3.8	3.7	9.4	7.0	14.1	15.9
고등학교	11.6	16.2	26.0	36.5	50.6	69.0	79.1	82.0	77.8	62.5	58.9	59.0	59.4
대학 이상	1.5	3.0	1.6	6.6	6.5	8.7	9.5	13.4	18.5	27.3	33.3	20.5	2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99)	(636)	(574)	(441)	(524)	(372)	(307)	(251)	(181)	(111)	(125)	(74)	(65)
25-29세													
초등 이하	52.8	47.8	27.1	19.0	12.7	5.1	1.7	1.2	0.3	0.2	0.5	0.2	0.2
중학교	27.6	28.8	37.9	36.9	30.8	19.8	8.9	4.7	1.9	1.2	0.9	2.3	2.8
고등학교	16.2	18.2	29.4	37.2	44.8	59.3	63.4	63.2	59.7	58.4	42.8	34.8	34.5
대학 이상	3.5	5.2	5.6	6.9	11.7	15.8	25.9	30.9	38.1	40.2	55.8	62.7	6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95)	(1,231)	(1,154)	(1,153)	(1,845)	(1,438)	(1,095)	(1,073)	(946)	(724)	(638)	(527)	(483)
30-34세													
초등 이하	61.6	58.7	39.1	28.4	21.0	13.3	6.4	3.2	1.4	0.5	0.3	0.3	0.1
중학교	20.1	20.4	29.2	35.1	33.6	28.6	20.6	12.6	6.1	3.4	1.3	1.3	1.1
고등학교	13.6	16.3	24.0	30.6	36.5	46.6	50.2	55.2	58.0	57.2	49.8	39.9	34.7
대학 이상	4.7	4.5	7.8	6.0	8.9	11.5	22.8	29.0	34.4	38.8	48.6	58.5	6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82)	(1,149)	(1,014)	(1,012)	(1,812)	(1,803)	(1,467)	(1,414)	(1,264)	(1,466)	(1,458)	(1,046)	(1,336)
35-39세													
초등 이하	76.8	72.5	57.4	40.1	33.3	23.3	16.2	9.3	5.2	2.8	0.7	0.5	0.2
중학교	12.6	14.3	21.2	29.2	31.7	31.7	30.1	24.1	17.0	8.8	3.5	2.9	0.8
고등학교	8.2	10.7	16.8	23.5	25.7	36.3	41.9	46.9	51.2	54.6	57.4	52.7	44.5
대학 이상	2.5	2.4	4.6	7.1	9.2	8.7	11.8	19.7	26.5	33.8	38.5	43.9	5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7)	(1,184)	(857)	(854)	(1,399)	(1,537)	(1,404)	(1,584)	(1,474)	(1,708)	(1,765)	(1,556)	(1,708)
40-44세													
초등 이하	83.4	80.7	69.4	58.2	50.7	38.0	29.7	21.3	14.1	10.2	3.5	1.3	0.8
중학교	5.0	11.8	17.3	22.8	25.2	27.9	32.4	28.3	25.1	22.3	12.4	6.6	4.2
고등학교	10.5	6.3	10.7	13.5	17.6	26.9	30.6	36.2	44.8	47.5	57.1	56.4	52.2
대학 이상	1.0	1.2	2.6	5.5	6.5	7.1	7.3	14.1	16.0	20.0	27.0	35.7	4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99)	(1,024)	(921)	(820)	(1,137)	(1,270)	(988)	(1,222)	(1,393)	(1,768)	(1,652)	(1,508)	(1,983)
45-49세													
초등 이하	89.7	88.2	79.8	71.3	72.7	55.5	43.2	36.8	28.9	26.3	12.7	8.9	2.5
중학교	1.7	6.8	11.4	14.5	14.3	21.3	29.1	27.5	28.8	27.3	24.1	19.2	11.2
고등학교	7.8	4.1	7.4	10.2	10.1	18.5	22.7	27.8	31.2	33.7	46.5	48.4	57.4
대학 이상	0.8	0.9	1.4	4.0	3.0	4.7	5.0	7.8	11.1	12.6	16.7	23.5	2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07)	(796)	(851)	(811)	(1,072)	(956)	(794)	(902)	(1,087)	(1,406)	(1,635)	(1,515)	(1,691)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제2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양상

결혼행태를 논의함에 있어서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취업 여부, 직종 등을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수준은 주요 이슈로 다뤄져 왔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는 결혼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만혼화 현상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직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직종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비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에서 취업자는 다시 직업분류에 의해 세분화된다. 직업분류는 고용 관련 통계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직업정보를 분류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이다(통계청, 2007).

출산력 조사에서는 이를 위해 1963년 최초로 도입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비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권고분류체계(SCO)를 근거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라 하더라도 출산력 조사의 다년도 분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KSCO가 6차(2007년)를 최종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기에 조사 연도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사무직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직종 등 4종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기타 직업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 종사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종이 분류되지 않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비취업상태로 분류하였다.

〈표 3-3〉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직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6년 38.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53.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비취업자는 1976년 61.1%에서 2012년 47.0%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

구체적으로 취업자의 직종 변화를 살펴보면 관리자 및 전문 기술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즉, 관리자 및 전문 기술직은 1976년 0.9%에서 2012년 11.8%로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 사무직 종사자 또한 0.3%에서 12.5%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은 서비스산업의 급증이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다른 직종의 변화에 비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전문기술직, 사무직 종사자와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와의 갭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6년 관리자 및 전문 기술직은 0.9%, 서비스 및 판매직은 11.3%로 이 두 직종 간의 갭은 10.4% 포인트였으나 2012년에는 각각 11.8%, 18.2%로 그 갭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위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기타 직종은 다양한 직종들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농수산업 및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8)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 기혼여성(15~49세) 중 취업여성은 56.5%, 비취업여성은 43.5%로 나타남(이삼식 등, 2015).

〈표 3-3〉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직종의 변화

(단위: %)

구분	비취업 (무직)	취업자의 직업					계 (명)
		소계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1976년	61.1	38.9	0.9	0.3	11.3	26.3	100.0 (6,020)
1982년	64.6	35.4	1.0	0.7	13.7	20.0	100.0 (5,372)
1985년	69.6	30.4	1.4	1.1	8.3	19.6	100.0 (5,093)
1988년	58.9	41.1	1.9	1.5	14.3	23.4	100.0 (7,791)
1991년	65.0	35.0	2.0	1.7	14.8	16.4	100.0 (7,377)
1994년	56.3	43.7	4.5	2.7	14.6	21.9	100.0 (6,055)
1997년	55.3	44.7	6.4	3.2	17.3	17.9	100.0 (6,448)
2000년	54.6	45.4	7.1	3.9	17.7	16.6	100.0 (6,345)
2003년	47.4	52.6	7.9	6.1	20.8	17.9	100.0 (7,180)
2006년	47.1	52.9	10.7	7.4	20.7	14.1	100.0 (7,282)
2009년	50.0	50.0	9.5	9.0	14.6	16.9	100.0 (6,226)
2012년	47.0	53.0	11.8	12.5	18.2	10.5	100.0 (7,272)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3) 1974년 자료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직종

경제활동참가율과 직종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령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4〉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91년을 제외하고는 15~24세 연령층에서 취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연구의 M자형 경제활동참가 패턴과는 구분된다.

우리나라 여성은 일정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다가 결혼하면서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을 중단하고, 원하는 수의 자녀를 출산·양

육한 후 재취업하는 M자형 경제활동참가 양상이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M자 구조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 외에 일본이 유일하다.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성별 차이 없이 남성과 유사한 역U자형으로 나타난다(이혜원, 2014). 그러나 출산력 조사의 시계열상으로 이러한 양상보다는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출산력 조사가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5세 미만의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도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률이 56.5%인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63.4%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삼식 등, 2015).

〈표 3-4〉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취업	38.8	21.9	18.3	13.1	24.0	27.9	24.4	25.0	26.9	29.5	30.2	27.3	33.4
비취업	61.2	78.1	81.7	86.9	76.0	72.1	75.6	75.0	73.1	70.5	69.8	72.7	6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99)	(636)	(574)	(441)	(524)	(371)	(307)	(251)	(181)	(111)	(125)	(74)	(65)
25~29세													
취업	41.3	27.9	22.3	21.7	29.8	24.2	29.0	31.9	30.6	40.6	43.0	41.4	37.6
비취업	58.7	72.1	77.7	78.3	70.2	75.8	71.0	68.1	69.4	59.4	57.0	58.6	6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95)	(1,231)	(1,155)	(1,153)	(1,845)	(1,437)	(1,095)	(1,073)	(946)	(722)	(638)	(527)	(484)
30~34세													
취업	54.3	35.5	31.4	30.7	39.6	32.2	38.9	40.3	38.0	41.8	41.6	35.4	45.0
비취업	45.7	64.5	68.6	69.3	60.4	67.8	61.1	59.7	62.0	58.2	58.4	64.6	5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82)	(1,149)	(1,014)	(1,013)	(1,813)	(1,803)	(1,468)	(1,414)	(1,264)	(1,464)	(1,458)	(1,046)	(1,337)
35~39세													
취업	69.9	44.8	42.1	36.8	48.1	36.7	50.0	49.7	48.6	50.6	52.6	45.1	52.4
비취업	30.1	55.2	57.9	63.2	51.9	63.3	50.0	50.3	51.4	49.4	47.4	54.9	4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7)	(1,184)	(857)	(854)	(1,400)	(1,539)	(1,403)	(1,588)	(1,474)	(1,709)	(1,766)	(1,556)	(1,708)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40~44세													
취업	72.1	51.0	48.1	41.2	51.0	44.5	55.2	53.2	55.9	61.1	61.2	58.7	56.0
비취업	27.9	49.0	51.9	58.8	49.0	55.5	44.8	46.8	44.1	38.9	38.8	41.3	4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99)	(1,024)	(921)	(822)	(1,136)	(1,270)	(989)	(1,221)	(1,394)	(1,771)	(1,657)	(1,509)	(1,986)
45~49세													
취업	78.8	49.9	49.0	35.5	52.0	44.2	57.8	51.9	53.0	63.3	60.8	60.2	61.5
비취업	21.2	50.1	51.0	64.5	48.0	55.8	42.2	48.1	47.0	36.7	39.2	39.8	3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11)	(796)	(851)	(810)	(1,073)	(956)	(794)	(901)	(1,086)	(1,403)	(1,638)	(1,514)	(1,692)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그림 3-1]은 12년을 주기로 하여 1976년부터 2012년까지 4차년도 기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임기가 완료되는 45~49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주출산연령층을 포함하는 34세 이하 연령층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초혼 및 초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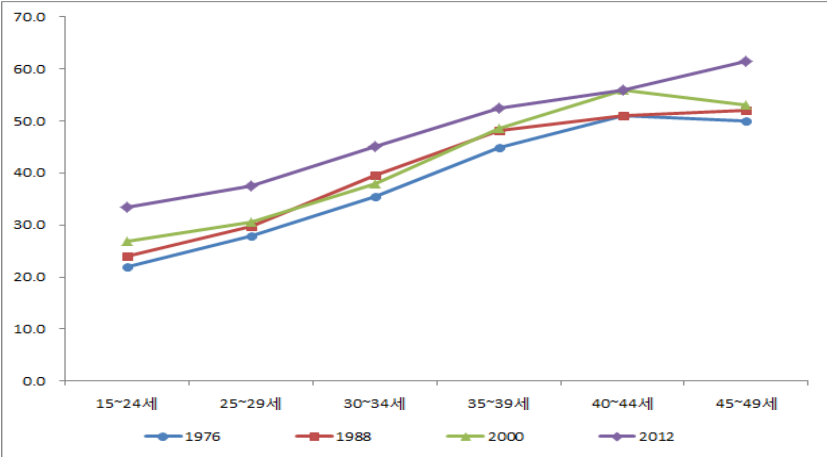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양상의 변화는 경제활동참가율뿐만 아니라 직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24세 연령층과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시기와 무관하게 서비스 직종과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5~39세 연령층에서는 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집단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다.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가 10%를 넘어서는 기점을 관찰해 보면 25~29세 연령층은 2003년, 30~34세 연령층은 2006년, 35~39세 연령층은 2009년이 기점으로 나타난다. 즉 고위직의 사회적 지위를 갖는 여성이 만혼화의 흐름과 함께 결혼적령기의 연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74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을 확인할 수 있다(표 3-5 참조).

[그림 3-1]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1976, 1988, 2000, 2012)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3-5>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연령별 직종의 변화

(단위: %)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무직	61.2	78.1	81.7	86.9	76.0	72.1	75.6	75.0	73.5	70.5	69.8	68.4	68.6
관리직전문직	1.0	0.5	0.5	1.5	1.0	2.1	3.5	5.4	4.2	1.6	7.0	0.0	2.9
사무종사자	1.8	0.8	0.5	1.6	3.2	4.7	5.1	7.5	7.0	11.6	8.5	7.9	5.7
서비스 및 판매직	8.3	2.8	5.7	2.8	3.1	8.4	7.6	8.8	7.9	12.4	7.0	5.3	11.4
기타	27.8	17.8	11.5	7.2	16.8	12.6	8.3	3.3	7.4	3.9	7.8	18.4	1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99)	(636)	(574)	(441)	(524)	(372)	(307)	(251)	(181)	(111)	(125)	(74)	(65)
25~29세													
무직	58.7	72.1	77.7	78.3	70.2	75.8	71.0	68.1	69.4	59.3	57.0	58.6	62.6
관리직전문직	1.3	1.4	1.8	1.7	2.4	3.3	7.3	9.3	8.4	11.1	15.2	12.6	12.1
사무종사자	0.8	0.1	1.0	1.7	2.5	2.7	4.1	6.5	8.5	13.9	15.8	15.7	13.0
서비스 및 판매직	12.9	9.4	10.0	4.6	7.9	9.1	8.2	9.6	10.6	10.0	8.7	6.5	6.7
기타	26.3	17.0	9.6	13.7	17.0	9.0	9.4	6.6	3.1	5.7	3.4	6.6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95)	(1,231)	(1,155)	(1,153)	(1,845)	(1,437)	(1,095)	(1,073)	(946)	(722)	(638)	(527)	(484)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30~34세													
무직	45.7	64.5	68.6	69.3	60.4	67.9	61.1	59.6	62.0	58.3	58.4	64.6	55.0
관리직·전문직	2.7	1.2	1.2	1.8	2.2	2.6	5.5	8.6	9.3	9.5	14.6	10.1	14.4
사무종사자	0.5	0.2	0.7	1.0	1.8	1.9	3.0	2.9	4.9	8.5	10.3	11.4	17.8
서비스 및 판매직	15.7	10.9	14.6	7.6	15.0	13.9	12.1	15.4	14.3	14.0	11.5	7.9	10.0
기타	35.5	23.2	14.9	20.2	20.7	13.8	18.3	13.4	9.5	9.8	5.2	6.0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82)	(1,149)	(1,014)	(1,013)	(1,813)	(1,803)	(1,468)	(1,414)	(1,264)	(1,464)	(1,458)	(1,046)	(1,337)
35~39세													
무직	30.1	55.2	57.9	63.2	51.9	63.3	50.0	50.4	51.4	49.4	47.4	54.9	47.6
관리직·전문직	1.5	0.8	0.7	1.2	2.4	1.4	3.3	6.4	8.6	10.0	13.4	10.2	14.3
사무종사자	0.5	0.6	0.7	0.9	0.7	1.7	2.5	2.6	3.3	6.1	7.7	10.5	14.0
서비스 및 판매직	17.7	13.6	18.1	10.9	19.4	16.1	18.4	21.1	19.4	20.8	19.7	11.0	16.2
기타	50.2	29.7	22.6	23.9	25.7	17.5	25.9	19.5	17.2	13.6	11.8	13.4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7)	(1,184)	(857)	(854)	(1,400)	(1,539)	(1,403)	(1,588)	(1,474)	(1,709)	(1,766)	(1,566)	(1,708)
40~44세													
무직	27.9	49.0	51.9	58.8	49.0	55.6	44.8	46.8	44.1	38.9	38.8	41.3	44.0
관리직·전문직	1.6	0.9	1.3	1.0	2.0	1.6	3.5	4.4	5.9	6.3	8.2	10.7	11.1
사무종사자	0.8	0.2	0.5	0.7	0.7	0.5	1.4	2.1	2.0	3.3	4.8	8.1	12.2
서비스 및 판매직	17.5	14.1	18.2	12.8	19.0	21.0	19.2	21.4	24.1	26.5	28.6	19.2	20.4
기타	52.3	35.8	28.0	26.8	29.3	21.4	31.1	25.3	23.8	25.0	19.7	20.8	1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99)	(1,024)	(921)	(822)	(1,136)	(1,270)	(988)	(1,221)	(1,394)	(1,771)	(1,657)	(1,509)	(1,986)
45~49세													
무직	21.2	50.1	51.0	64.5	48.0	55.8	42.3	48.1	47.0	36.7	39.1	39.8	38.5
관리직·전문직	1.0	0.4	0.2	0.8	0.4	0.4	2.1	2.1	3.1	4.4	5.5	6.6	8.6
사무종사자	0.3	0.1	0.4	0.6	0.3	0.6	0.7	1.0	1.3	2.8	3.9	4.2	7.4
서비스 및 판매직	19.7	14.9	13.9	10.7	18.3	17.6	19.7	19.3	19.5	26.4	27.9	21.5	27.4
기타	57.8	34.4	34.5	23.4	33.1	25.6	35.2	29.5	29.1	29.7	23.5	27.9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11)	(796)	(851)	(810)	(1,073)	(956)	(794)	(901)	(1,086)	(1,403)	(1,638)	(1,514)	(1,692)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
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3.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만혼현상은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6>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경제활

동참가율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전 연도에 걸쳐 다른 학력층에 비해 초등 이하 저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6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 수준에 불과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학력층의 취업률이 점차 상승하여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50% 이상 수준을 보인다. 1976~2012년 동안 각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정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32.3% 포인트), 중학교(29.3% 포인트), 대학 이상(25.9% 포인트), 초등 이하(16.2% 포인트) 순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연령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일정한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부표 2-1 참조).

〈표 3-6〉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취업	45.9	46.3	38.0	54.9	53.4	65.3	69.5	65.6	71.4	68.9	63.9	62.1
비취업	54.1	53.7	65.9	45.1	46.6	34.7	30.5	34.4	28.6	31.1	36.1	3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978)	(2,682)	(2,248)	(2,502)	(1,761)	(1,160)	(946)	(733)	(661)	(295)	(175)	(59)
중학교												
취업	27.8	28.1	27.9	42.1	36.5	52.0	54.5	60.4	67.3	67.3	60.7	57.1
비취업	72.2	71.9	72.1	57.9	63.5	48.0	45.5	39.6	32.7	32.7	39.3	4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20)	(1,424)	(1,452)	(2,219)	(1,919)	(1,409)	(1,247)	(1,065)	(1,031)	(705)	(460)	(262)
고등학교												
취업	21.0	18.9	22.4	28.4	24.4	34.4	36.2	39.2	49.1	51.6	51.2	53.3
비취업	79.0	81.1	77.6	71.6	75.6	65.6	63.8	60.8	50.9	48.4	48.8	4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39)	(1,037)	(1,142)	(2,421)	(2,972)	(2,648)	(3,015)	(3,098)	(3,608)	(3,792)	(2,974)	(3,251)
대학 이상												
취업	26.2	27.6	29.2	32.5	32.1	37.3	40.6	40.5	45.6	49.1	45.6	52.1
비취업	73.8	72.4	70.8	67.5	67.9	62.7	59.4	59.5	54.4	50.9	54.4	4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3)	(228)	(248)	(646)	(719)	(836)	(1,236)	(1,445)	(1,873)	(2,481)	(2,616)	(3,694)

주: 1)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2) 1974년 자료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양상의 차이는 <표 3-7>과 같이 직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976~2012년 전 기간에 걸쳐 초등 이하 계층과 중학교 계층의 대다수는 농업을 포함하는 기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계층은 서비스직, 대학 이상 계층은 관리직 및 전문직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각 교육수준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학 이상 계층의 관리직 및 전문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 계층에서 기타 직종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학 이상 계층에서 관리직 및 전문직은 1976년 18.0%에서 2012년 22.2%로 증가하여 4.2% 포인트만이 증가하였다. 반면 중학교 계층에서 기타 직종은 14.9%에서 43.2%로 상승하여 28.3%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교육수준의 변화 양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저학력 계층의 증가율이 고학력 계층보다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과의 상관성은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고학력 직종 비율의 증가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표 3-7>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교육수준별 직종의 변화

구분	(단위: %)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무직	54.1	53.7	62.0	45.1	46.6	34.7	30.5	34.54	28.6	31.0	36.3	37.9
관리직·전문직	0.2	0.0	0.0	0.2	0.1	0.4	0.3	0.3	0.5	0.0	0.0	0.0
사무종사자	0.1	0.0	0.0	0.1	0.0	0.1	0.3	0.4	0.3	0.0	2.7	0.0
서비스직	11.6	13.3	9.4	14.7	15.1	16.3	20.3	16.3	19.3	25.1	12.1	17.2
기타	34.0	33.0	28.6	39.9	38.2	48.5	48.8	48.7	51.2	43.9	48.9	4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978)	(2,682)	(2,248)	(2,502)	(1,761)	(1,160)	(946)	(733)	(661)	(295)	(175)	(59)

78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중학교												
무직	72.2	71.9	72.1	57.9	63.5	48.0	45.5	39.6	32.7	32.7	39.3	42.9
관리직·전문직	0.4	0.1	0.0	0.3	0.2	0.7	0.1	0.2	0.9	0.3	0.0	0.3
사무종사자	0.1	0.4	0.3	0.3	0.3	0.7	1.2	0.5	1.0	0.9	0.6	0.3
서비스직	12.4	15.9	7.8	15.6	17.7	18.0	22.2	24.7	27.2	26.9	21.2	13.2
기타	14.9	11.7	19.8	25.9	18.3	32.6	31.1	35.0	38.2	39.3	38.9	4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20)	(1,424)	(1,452)	(2,219)	(1,919)	(1,409)	(1,247)	(1,065)	(1,031)	(705)	(460)	(262)
고등학교												
무직	79.0	81.1	77.6	71.6	75.6	65.6	63.8	60.8	50.8	48.4	48.8	46.7
관리직·전문직	1.8	1.3	0.5	0.4	0.4	1.8	2.4	2.2	2.1	2.8	2.2	2.8
사무종사자	1.6	1.9	3.2	3.3	2.7	3.9	3.9	4.8	6.5	7.5	8.2	9.3
서비스직	9.9	13.7	8.5	14.8	14.6	14.8	18.4	20.3	24.8	26.0	19.2	26.3
기타	7.7	2.0	10.3	9.9	6.7	13.9	11.5	11.9	15.8	15.4	21.6	1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39)	(1,037)	(1,142)	(2,421)	(2,972)	(2,648)	(3,015)	(3,098)	(3,608)	(3,792)	(2,974)	(3,251)
대학 이상												
무직	73.8	72.4	70.6	67.5	67.9	62.8	59.4	59.5	54.5	50.9	58.0	47.9
관리직·전문직	18.0	17.5	20.6	19.8	17.6	22.2	25.1	23.9	24.1	26.9	20.6	22.2
사무종사자	0.5	3.9	3.3	3.9	5.5	4.8	5.0	5.6	9.7	10.1	11.8	17.1
서비스직	4.9	5.3	2.9	7.1	7.7	7.2	8.4	8.8	10.6	10.4	7.9	10.6
기타	2.7	0.9	2.5	1.7	1.3	3.0	2.1	2.3	1.1	1.7	1.6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3)	(228)	(248)	(646)	(719)	(836)	(1,236)	(1,445)	(1,873)	(2,481)	(2,616)	(3,694)

주: 1)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2)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3)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4) 1974년 자료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제3절 기혼여성의 초혼연령

출산력은 여성의 초혼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결혼을 통한 부부간 출산이 중심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초혼연령의 증가는 가임기간의 감소를 가져 오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은 결혼 당시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 산출하는 초혼연령과는 차이점이 있다. 통계

청의 초혼연령은 당해 초혼을 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동태적인 자료인 반면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당시의 연령을 조사하는 정태적인 자료(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SMAM)이다. 즉 SMAM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15~49세의 출산 가능한 여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왜냐하면 각 연령그룹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은 각 코호트의 과거 초혼 이행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MAM은 현재의 출산 가능한 여성의 초혼 이행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다(Kye, 2015). 즉 특정 연도를 기점으로 산출하는 동태적 초혼연령의 경우 혼인신고 시기에 따라 초혼연령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반면, 출산력 조사에서 사용하는 정태적 초혼연령의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산력과 결혼 시기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1. 연도별 초혼연령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초혼연령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점차 만혼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8년까지는 22세 이하의 연령대에 초혼을 하는 여성이 50% 이상 수준이고, 25세 이하에 초혼을 경험한 여성이 약 90%에 이를 정도로 초혼연령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22세 이하는 점차 감소하고 23~25세에 초혼을 경험한 여성이 34.8%로 증가한다. 또한 26세가 넘어 초혼을 하는 여성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약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점은 초혼연령에 있어서 23~25세(40.8%)의 비율은 이미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6~28세 또한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29세 이상 비율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초혼연령은 점차 고령화될 것으로 추측된다(표 3-8 참조).⁹⁾

〈표 3-8〉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초혼연령의 분포 변화

(단위: %)

구분	19세 이하	20~22세	23~25세	26~28세	29~31세	32세 이상	계 (명)
1976년	40.5	35.9	18.7	4.3	0.5	0.1	100.0 (6,020)
1982년	29.0	37.8	25.7	6.4	0.7	0.4	100.0 (5,372)
1985년	21.2	39.5	30.8	7.2	1.2	0.2	100.0 (5,094)
1988년	17.0	37.3	34.8	9.3	1.1	0.4	100.0 (7,792)
1991년	13.5	34.8	38.0	11.1	2.0	0.5	100.0 (7,383)
1994년	10.2	31.8	40.0	14.5	2.6	0.9	100.0 (6,060)
1997년	9.3	28.3	43.5	15.4	2.5	1.0	100.0 (6,370)
2000년	8.7	25.5	40.8	19.4	3.8	1.8	100.0 (6,349)
2003년	8.3	24.7	39.2	20.6	5.0	2.2	100.0 (7,190)
2006년	6.6	21.7	38.2	23.6	6.9	3.0	100.0 (7,255)
2009년	4.2	15.5	33.9	29.8	11.1	5.4	100.0 (6,227)
2012년	4.5	14.4	34.0	27.9	12.7	6.4	100.0 (7,250)

주: 1974년 자료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3-9〉는 기혼여성의 연도별 평균 초혼연령을 분석한 것이다.¹⁰⁾ 동태적 초혼연령과 정태적 초혼연령(SMAM)의 비교 차원에서 통계청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출산력 조사에서 나타나는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6년 20.4세에서 2012년 25.5세로 5.1세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임기 여성의 평균 가임기간이 약 5년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통계청의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를 살

9)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은 27~29세(25.2%), 25~26세(24.4%), 23~24세(18.4%), 30~34세(14.7%), 21~22세(9.1%), 20세 이하(4.9%), 35세 이상(3.4%) 순으로 높게 나타남(이삼식 등, 2015).

10) 초혼연령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임. 첫째, 미혼자를 분석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둘째, 연령분포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임.

해보면 1991년 24.9세에서 2012년 29.4세로 4.5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출산력 조사와 통계청 자료는 2.2~3.9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출산력 조사가 15~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통계청 조사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에 초혼연령이 다소 높게 측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통계청의 여성 초혼연령이 30.0세로 증가한 것을 감안했을 때 (통계청, 2015), 당분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가임기간의 단축, 난임 또는 불임 위험성 증가,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3-9〉 기혼여성(15~49세)의 연도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단위: 세)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²⁾
출산력조사(SMAM)	20.4	21.3	21.6	22.2	22.6	22.9	23.2	23.5	23.8	24.4	25.4	25.5	26.8
통계청 ¹⁾	-	-	-	-	24.9	25.1	25.7	26.5	27.3	27.8	28.7	29.4	30.0

주: 1)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는 1990년 이후부터 제공됨.

2) 이삼식 등(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2. 출생코호트별 초혼연령

결혼행태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출생코호트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출산력 조사의 초혼연령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각 출생코호트가 가임기 초기에 도달했던 시기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초혼연령이 낮은 연령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혼연령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면 가임기가 거의 완료되는 시기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초혼연령이 높은 연령대의 유입으로 인하여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임기가 거의 완료되는 45~49세의 초혼연령을 관찰하는 것은 결혼행태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더 유용하다.

〈표 3-10〉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코호트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단위: 세)

출생코호트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25~1933년	18.0	19.0	-	-	-	-	-	-	-	-	-	-
1934~1936년	19.5	19.4	19.8	-	-	-	-	-	-	-	-	-
1937~1939년	20.4	20.2	20.1	20.6	-	-	-	-	-	-	-	-
1940~1942년	21.3	21.0	21.0	21.0	21.8	-	-	-	-	-	-	-
1943~1945년	21.7	21.7	21.6	22.0	21.8	22.0	-	-	-	-	-	-
1946~1948년	22.0	22.2	22.1	22.1	22.2	22.0	21.9	-	-	-	-	-
1949~1951년	21.7	22.3	22.3	22.3	22.3	22.5	22.3	22.4	-	-	-	-
1952~1954년	20.5	22.2	22.3	22.5	22.6	22.5	22.7	22.4	22.6	-	-	-
1955~1957년	18.8	22.2	22.1	22.7	22.9	23.1	23.0	23.0	22.9	22.9	-	-
1958~1960년	*	20.8	22.1	22.8	23.1	23.3	23.2	23.5	23.1	23.6	24.0	-
1961~1963년	-	19.1	20.8	22.5	23.3	23.7	23.7	23.6	23.9	24.2	24.5	24.4
1964~1966년	-	*	18.3	20.8	22.7	23.9	24.0	24.2	24.5	24.5	25.1	24.6
1967~1969년	-	-	*	18.6	21.0	22.8	23.8	24.4	24.6	24.8	25.6	24.9
1970~1972년	-	-	-	*	18.9	21.0	23.1	24.4	24.7	25.1	26.1	25.7
1973~1975년	-	-	-	-	*	18.4	21.0	23.2	24.2	25.2	26.4	25.9
1976~1978년	-	-	-	-	-	*	*	20.7	22.8	24.8	26.1	26.4
1979~1981년	-	-	-	-	-	-	*	*	20.8	23.1	25.7	26.3
1982년 이상	-	-	-	-	*	-	-	*	*	20.3	23.0	25.0

주: 1) “*”는 해당 출생코호트의 사례수가 30개 미만인 자료이며, “-”는 사례가 없는 경우임.

2) 음영 처리가 된 셀은 해당 출생코호트의 가임기가 거의 완료된 시기를 표시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1933년 출생코호트 이전과 1949~1951년 출생코호트의 여성은 평균 초혼연령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제외하면,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임기가 거의 완료되는 45~49세 시점에서의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1970~1980년대 1925~1933년 출생코호트의 여성은 평균 18.0~19.0세에 초혼을 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 가임기 완료시점에 도달한 1961~1963년의 기혼여성은 24.4세에 초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출생코호트에 진입할수록 초혼연령은 증가하고 있으며 만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3.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상태별 초혼연령

〈표 3-11〉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평균 초혼연령의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1974년 조사는 「세계 출산력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이후 진행된 조사들의 추이와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이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1976년부터 2012년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평균 초혼연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2012년에는 1976년보다 5.1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 이상(2.6세), 초등 이하(2.3세), 고등학교(1.9세), 중학교(1.2세) 순으로 초혼연령의 증가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11) 이는 통계청(2013) 자료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줌. 여성의 경우 1956~1960년 출생코호트는 30~40세 도달 시 미혼율이 5.3%에 불과했으나 1966~1970년 출생코호트는 10.5%, 1976~1980년 출생코호트는 29.1%로 미혼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a).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의 향상이 만혼화 현상을 어느 정도 견인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3-11〉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평균 초혼연령 변화

(단위: 세)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76~2012 증감
전체	20.4	21.3	21.6	22.2	22.6	22.9	23.2	23.5	23.8	24.4	25.4	25.5	5.1
초등 이하	19.5	20.1	20.4	20.8	21.0	21.2	21.1	21.3	21.2	21.3	22.6	21.8	2.3
중학교	21.5	21.8	21.9	22.1	22.1	22.3	22.0	22.1	22.3	22.1	22.8	22.7	1.2
고등학교	22.7	23.0	23.0	23.2	23.3	23.4	23.5	23.6	23.9	24.1	24.8	24.6	1.8
대학 이상	23.9	24.3	23.9	24.4	24.6	25.0	25.0	25.4	25.4	25.8	26.6	26.5	2.7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3-12〉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의 초혼연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현 취업상태를 조사하는 출산력 조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결혼 전 취업상태와 직업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각 연도별로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직종 순으로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업 간 평균 초혼연령의 갭이 점차 감소해 고령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12〉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단위: 세, 명)

구분	비취업 (무직)	취업자의 직업					전체 (대상자 수)
		취업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1976년	20.8	19.7	24.1	22.3	20.1	19.4	20.4 (6,020)
1982년	21.7	20.6	24.0	23.3	21.3	19.9	21.3 (5,372)
1985년	21.7	21.3	23.9	23.5	21.5	21.0	21.6 (5,094)
1988년	22.4	21.9	24.7	24.2	22.1	21.3	22.2 (7,785)
1991년	22.8	22.2	24.7	24.2	22.4	21.5	22.6 (7,380)
1994년	23.2	22.6	24.6	24.6	22.6	22.0	22.9 (6,057)
1997년	23.6	22.7	25.2	24.2	22.7	21.8	23.2 (6,367)
2000년	23.8	23.1	25.5	24.6	23.1	22.0	23.5 (6,333)
2003년	24.2	23.4	25.4	24.7	23.3	22.4	23.8 (7,174)
2006년	24.7	24.1	26.0	25.2	23.5	22.9	24.4 (7,253)
2009년	25.7	25.1	26.6	26.2	24.6	23.9	25.4 (6,225)
2012년	25.7	25.3	26.4	26.0	24.7	23.7	25.5 (7,242)
1976~2012 종합	4.9	5.6	2.3	3.7	4.6	4.3	4.0 -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제4절 소결

1974~2012년 우리나라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적 특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 크게 감소하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 계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5년을 기점으로 중학교 학력층과 고등학교 학력층이 역전되어 점차 고학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984년 2.1명에서 1987년 1.6명으로 급감한 현상을 볼 때 여성의 고학력화와 결혼 및 출산 행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둘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사무종사자 등의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6년 38.9%에서 2012년 53.0%로 증가하였고, 2015년 출산력 조사(이삼식 등, 2016)의 결과에 따르면 56.5%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별로도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가입기가 완료되는 45~49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평균 결혼연령에 해당하는 34세 이하 연령층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의 여성이 만혼화의 흐름과 함께 결혼적령기 주변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은 1970년대 20대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2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2015년 현재 26.8세로 점차 만혼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만혼화 현상은 고학력, 고위직(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의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참가율 및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어느 정도 만혼화 현상을 견인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 4 장

출산수준

제1절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

제2절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과 개인조사가 완료된 15~49세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으로 출산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1절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

1.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그 값이 높을수록 1명의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가능한 연령인 15~49세를 기준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합쳐서 구한다.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표 4-1>에서 보면, 1974년 3.6명에서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출산수준은 더 낮아져 1993년 1.75명, 2002년 1.17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다가 2008년에는 1.22명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1970년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계획사업에 의한 홍보·교육과 피임 보급에 의해서, 1980년대는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의식 및 생활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자녀 규범 형성을 위한 각종 사회지원정책 등 인구증가억제정책의 강화에 의해서 출산율

의 급격한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분석되었다(조남훈 등, 2006).

한편 1996년도에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었으나 1999년 합계출산율이 1.43명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대는 1.2명 수준으로 저출산 행태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 연도별 합계출산율(TFR)의 변화

(단위: 명/가임여성 1명당)

연도	1974	1976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전체	3.6	3.2	2.7	2.1	1.6	1.6	1.75	1.71	1.43	1.17	1.09	1.22
도시	2.9	2.8	2.4	2.6	1.5	1.5	1.75	-	-	-	-	-
농촌	4.3	3.6	3.3	2.3	2.0	1.9	1.75	-	-	-	-	-

- 주: 1) 본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결과로 시계열 변화 파악을 위하여 각 연도 조사보고서 내용을 재정리하였고,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부록 참조)와 차이가 있음. 출산력 조사보고서에서 합계출산율 산출은 전체 조사가구의 가구원 사항에서 15~49세 여자 인구를 5세 간격별로 파악하고, 그 가구에서 출생한 출생아 수와 출생아 모(母)의 연령을 파악하여 계산함. 연령별 출산율(fa)=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Ba)/연령별 여성인구(Pfa)
- 2) 전국 출산력 조사는 표본조사인 관계로 출생아 한 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즉, 조사가능한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 감소로 인하여 가구조사에서 파악되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표본오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통계청의 2008년 정기 통계품질진단에서 유사통계와의 혼란가능성 등이 제시되어 2012년 전국 출산력 조사부터는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유배우출산율을 산출하지 않고 통계청 지표를 사용함.

자료: 1) 경제기획원·가족계획연구원(1977).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First Country Report.

- 2) 박병태 등(1978). 1976년 출산력 및 가족계획 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3) 문현상 등(1982).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4) 문현상 등(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5) 문현상 등(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6) 공세권 등(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홍문식 등(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조남훈 등(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김승권 등(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김승권 등(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김승권 등(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김승권 등(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증대, 소득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활난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이 야기되었고,

이는 결혼 및 출산의 연기 또는 기피로 이어졌다. 즉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와 악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이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김승권 등, 2009).

한편 도시·농촌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차이를 비교하면 1974년의 경우 도시지역(TFR 2.9)에 비하여 농촌지역(TFR 4.3)이 1.4명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1984년에는 0.5명 정도로 줄어들고 1993년에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에 올수록 도시·농촌지역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좁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96년 정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시와 농촌의 지역구분이 동부와 읍·면부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지역이 확대되고 읍·면지역은 축소되어 지역별 시계열 비교가 어렵게 되었으며, 교통의 발달 등으로 지역 차이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전국 출산력 조사 결과에서는 1996년 이후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산출되지 않았다(김승권 등, 1997).

2. 연령별출산율

출산율은 전체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연령계층별 감소가 전체 출산율 감소를 유도한다. 연령별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은 특정 연도 15~49세 출산모(母)의 연령별(5세 연령계층별) 출생아 수를 당해 연령의 여자(미혼 및 기혼) 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연령별 출산 비중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1974년 이후 연령별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연령층에서 출산율의 저하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20대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0대 연령층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

다. 한편 출산수준이 인구대체수준까지 떨어질 때에는 출산을 자체가 높은 연령층인 25~29세, 30~34세, 35~39세 연령층에서의 감소 폭이 컸다고 할 수 있다(표 4-2 참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1970년대는 25~29세 출산율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고, 20~24세와 30~34세는 비슷한 수준이다. 1980년대는 30~34세와 35~39세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피임실천율의 증가와 소자녀 규범 형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이후는 20~24세 출산력 저하가 특징인데, 이는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에 의한 결혼연령의 증가로 해석된다. 2000년대는 30~34세 및 35~39세 출산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08년부터는 30~34세 출산율이 25~29세 출산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 등으로 주출산연령층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 연도별 연령별출산율(ASFR)의 변화

(단위: 명/여성 1천 명당)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74년	11	159	276	164	74	29	3
1976년	10	147	275	142	49	18	1
1981년	12	161	245	94	23	3	-
1984년	7	162	187	52	8	1	-
1987년	3	104	168	39	6	3	-
1990년	3	62	188	50	7	1	-
1993년	3	71	195	64	15	1	-
1996년	3	62	181	83	10	4	-
1999년	2	50	142	75	13	3	-
2002년	1	24	110	83	13	2	-
2005년	1	19	94	87	14	4	-
2008년	1	16	89	104	30	3	-

주: 〈표 4-1〉과 동일.
자료: 〈표 4-1〉과 동일.

한편 <표 4-3>에서 연령별 유배우출산율(age-specific marital fertility rate, ASMFR) 변화를 보면 연령별출산율(ASFR)과는 다르게 20~24세, 25~29세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 비중이 높다. 유배우출산율은 결혼한 부인만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출산 패턴과 출산 시기를 알게 해주는 지표이다. 20~24세, 25~29세의 유배우출산율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30세 이상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이다.

<표 4-3> 연령별 유배우출산율(ASMFR)의 변화

(단위: 명/부인 1천 명당)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1974년	356	306	167	74	29	3
1976년	391	272	136	54	20	1
1981년	440	279	97	23	3	-
1990년	306	234	53	7	1	-
1993년	320	237	65	15	1	-
1996년	377	264	88	11	4	-
1999년	386	224	86	14	4	-
2002년	313	250	106	16	2	-
2005년	202	231	108	17	4	-
2008년	128	188	133	34	4	-

주: 1) 본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결과로 시계열 변화 파악을 위하여 각 연도 조사보고서 내용을 재정리함.

2) 유배우출산율은 전체 조사가구의 가구원 사항에서 15~49세 기혼부인 수를 5세 간격별로 파악하고, 기혼부인이 출생한 출생아 수와 출생아 모(母)의 연령을 파악하여 산출함.

3) 1984년에는 유배우출산율이 제시되지 않았고, 1987년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제시하지 않음.

자료: <표 4-1>과 동일.

제2절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

출산수준은 합계출산율 외에도 출생아 수(children ever-born)에 의한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다. 출생아란 응답 부인이 출산한 모든 아이를 말하는 것으로, 결혼 전의 출생아뿐만 아니라 재혼 부인인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출생아로 포함된다.

출생아 수 분포를 보면 1970년대는 5명 이상의 비율이 약 30%로 가장 높았으나 1980년대부터는 2명과 3명의 비율이 높아졌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2명인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즉 출생아 수 5명 이상의 비율이 1974년 30.3%에서 1985년 12.1%, 1997년 1.5% 등으로 감소한 반면 2명 비율은 1974년 15.7%에서 1985년 30.4%, 1997년 54.2%, 2012년 53.8% 등으로 증가하였다(표 4-4 참조).¹²⁾

〈표 4-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 수 분포

(단위: %, 명)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명)	평균
1974년	6.7	13.5	15.7	17.8	16.0	30.3	100.0(5,256)	3.50
1976년	5.4	12.8	17.7	18.1	16.2	29.9	100.0(6,020)	3.48
1982년	6.4	14.9	24.3	21.2	14.2	19.0	100.0(5,372)	2.95
1985년	6.4	15.3	30.4	22.9	12.9	12.1	100.0(8,420)	2.66
1988년	7.4	18.2	38.1	20.2	9.2	6.9	100.0(7,792)	2.30
1991년	7.2	18.6	42.7	19.4	7.8	4.3	100.0(7,460)	2.17
1994년	7.7	21.0	49.2	15.0	5.0	2.0	100.0(6,056)	1.95
1997년	7.3	19.0	54.2	14.3	3.6	1.5	100.0(6,450)	1.93
2000년	7.6	20.9	55.7	12.9	2.3	0.5	100.0(7,970)	1.83
2003년	6.8	17.8	59.4	13.5	1.8	0.6	100.0(8,593)	1.88
2006년	7.9	20.5	59.2	11.1	1.1	0.2	100.0(7,332)	1.78
2009년	7.8	21.3	58.8	10.8	1.1	0.2	100.0(6,720)	1.77
2012년	8.7	26.0	53.8	10.3	0.9	0.2	100.0(6,260)	1.69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12)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아 수 분포는 0명 7.1%, 1명 24.4%, 2명 55.9%, 3명 11.6%, 4명 이상 1.0%이고, 평균 출생아 수는 1.75명임(이삼식 등, 2016).

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변화를 보면 1974년 3.50명에서 1985년 2.66명, 1994년 1.95명, 2003년 1.88명, 2012년 1.69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출생아 수의 변화를 보면 모든 조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완결출산 시기가 가깝고 저연령층은 가임기간이 남아 있어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표 4-5, 그림 4-1 참조).

〈표 4-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출생아 수

(단위: 명)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대상자수)
1974년	0.84	1.73	3.01	4.17	4.94	5.64	3.50	(5,256)
1976년	0.99	2.02	3.23	4.08	4.87	5.48	3.48	(6,020)
1982년	0.94	1.78	2.64	3.25	4.11	4.69	2.95	(5,372)
1985년	0.87	1.65	2.37	2.98	3.68	4.41	2.66	(8,421)
1988년	0.76	1.39	2.08	2.60	3.13	3.87	2.30	(7,792)
1991년	0.65	1.29	1.88	2.37	2.81	3.46	2.17	(7,461)
1994년	0.68	1.24	1.78	2.10	2.50	2.97	1.95	(6,056)
1997년	0.71	1.19	1.82	2.02	2.20	2.79	1.93	(6,450)
2000년	0.74	1.06	1.73	1.98	2.04	2.39	1.83	(7,970)
2003년	0.63	1.06	1.69	1.97	2.05	2.26	1.88	(8,592)
2006년	0.64	0.92	1.56	1.90	2.00	2.04	1.78	(7,333)
2009년	0.74	0.90	1.47	1.86	1.99	2.01	1.77	(6,719)
2012년	0.90	0.80	1.35	1.79	1.87	1.96	1.69	(6,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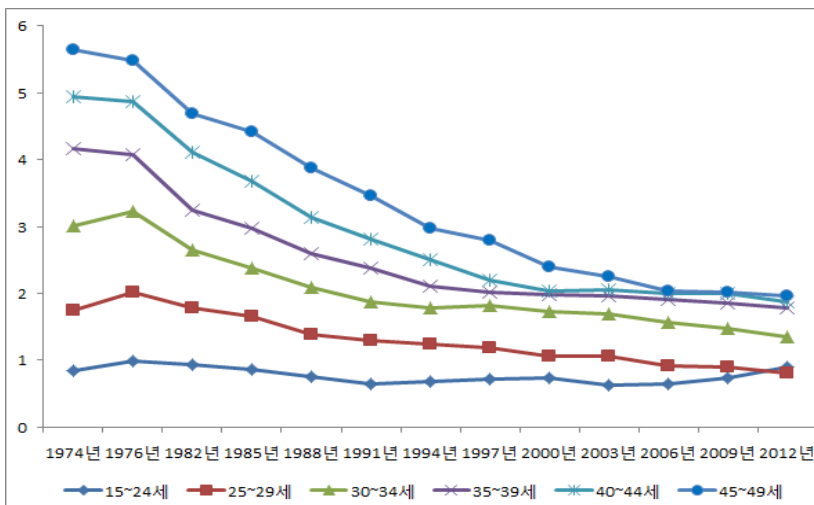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연령별 출생아 수의 감소 정도를 보면 1970년대는 연령별 출생아 수가 각각 약 1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연령계층 간 출생아 수의 차이가 차츰 줄어들고 있고, 2000년의 경우 30~34세 1.73명, 35~39세 1.98명, 40~44세 2.04명, 45~49세 2.39명 등으로 연령층 간의 출생아 수 차이는 매우 줄어들고 35세 이후부터는 완결출산력에 근접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이 거의 완료된 40~44세의 경우 1974년 4.94명에서 1985년 3.68명, 1997년 2.2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2명 이하로 고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출생아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별 출생아 수의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다(표 4-6 참조). 이는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부터 완결출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출생아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초혼연령 23~25세의 경우 1974년 2.54명에서 1985년 2.09명, 2000년 1.8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증가하여 2012년 1.89명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 29~31세의 경우 1974년 1.83명에서 1985년 1.77명, 2000년 1.23명, 2012년 1.24명 등으로 거의 고착화된 수준이다.

〈표 4-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출생아 수

(단위: 명)

구분	19세 이하	20~ 22세	23~ 25세	26~ 28세	29~ 31세	32세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74년	5.03	3.47	2.54	1.98	1.83	1.00	3.50	(5,252)
1976년	4.59	3.03	2.34	2.09	1.93	1.30	3.48	(6,020)
1982년	4.07	2.83	2.16	1.89	1.69	1.83	2.95	(5,372)
1985년	3.74	2.70	2.09	1.95	1.77	1.60	2.66	(8,421)
1988년	3.37	2.44	1.95	1.52	1.16	0.93	2.30	(7,785)
1991년	2.91	2.40	1.93	1.54	1.32	1.01	2.17	(7,458)
1994년	2.68	2.20	1.82	1.50	1.13	0.81	1.95	(6,054)
1997년	2.61	2.17	1.83	1.54	1.24	0.83	1.93	(6,378)
2000년	2.36	2.09	1.82	1.47	1.23	0.90	1.83	(7,947)
2003년	2.38	2.10	1.89	1.61	1.27	1.07	1.88	(8,581)
2006년	2.09	2.00	1.86	1.61	1.24	0.99	1.78	(7,305)
2009년	2.11	2.00	1.94	1.67	1.40	1.09	1.77	(6,715)
2012년	1.97	1.99	1.89	1.60	1.24	1.06	1.69	(6,233)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의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이 상승하여 가임기간은 짧아지고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 이하의 경우 1974년 출생아 4.01명에서 1988년 3.26명, 1997년 2.78명, 2012년 2.03명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대학 이상의 경우 1974년 1.95명에서 1988년 1.65명, 1997년 1.57명, 2012년 1.56명으로 감소하여 고학력일수록 연도별 출생아 수의 차이는 적은 편이다(표 4-7 참조).

〈표 4-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구분						(단위: 명)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74년	4.01	2.24	2.39	1.95	3.50	(5,249)
1976년	4.05	2.57	2.22	1.96	3.48	(6,020)
1982년	3.77	2.29	1.95	1.95	2.95	(5,371)
1985년	3.62	2.30	1.89	1.82	2.66	(8,416)
1988년	3.26	2.20	1.73	1.65	2.30	(7,789)
1991년	3.11	2.26	1.72	1.57	2.17	(7,452)
1994년	2.83	2.22	1.68	1.48	1.95	(6,051)
1997년	2.78	2.20	1.76	1.57	1.93	(6,446)
2000년	2.51	2.16	1.75	1.53	1.83	(7,965)
2003년	2.53	2.11	1.84	1.64	1.88	(8,585)
2006년	2.20	2.04	1.83	1.57	1.78	(7,323)
2009년	2.10	2.00	1.87	1.58	1.77	(6,718)
2012년	2.03	1.97	1.80	1.56	1.69	(6,255)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취업 여부 및 직종에 따른 출생아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취업자(무직)와 취업자 간의 출생아 수 차이는 일정하지 않다. 즉 1974년부터 2006년까지는 비취업자(무직)보다 취업자의 출생아 수가 더 많았으나 2009년과 2012년은 취업자의 출생아 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종별로는 연도별 분석결과에서 관리자 및 기술직, 사무직 종사자 등 고학력 직업종사자의 출생아 수가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직종의 출생아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보다는 직업에 따른 차이가 더 뚜렷하다(표 4-8 참조).

〈표 4-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취업 여부 및 직종별 출생아 수

(단위: 명)

구분	비취업 (무직)	취업자의 직업					전체	(대상지역)
		소계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1974년	2.72	4.03	2.05	1.80	3.40	4.37	3.50	(5,253)
1976년	3.18	3.97	2.25	1.61	3.57	4.23	3.48	(6,020)
1982년	2.65	3.50	1.96	1.74	3.04	3.95	2.95	(5,372)
1985년	2.55	2.92	1.50	1.71	3.01	3.05	2.66	(8,421)
1988년	2.15	2.51	1.69	1.12	2.47	2.72	2.30	(7,792)
1991년	2.05	2.39	1.33	1.26	2.22	2.79	2.17	(7,461)
1994년	1.82	2.13	1.45	1.23	2.11	2.40	1.95	(6,056)
1997년	1.84	2.04	1.46	1.21	2.04	2.38	1.93	(6,450)
2000년	1.78	1.90	1.54	1.23	1.88	2.24	1.83	(7,970)
2003년	1.83	1.92	1.65	1.43	1.96	2.18	1.88	(8,592)
2006년	1.75	1.80	1.54	1.45	1.91	2.03	1.78	(7,332)
2009년	1.80	1.73	1.59	1.43	1.87	1.91	1.77	(6,719)
2012년	1.70	1.69	1.56	1.52	1.74	1.93	1.69	(6,260)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제3절 소결

1974~2012년 기혼여성(15~49세)의 특성에 따른 출산수준의 변화를 요약하면, 부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임신노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많고,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부터 완결출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출생아 수는 적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연령 상승과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출생아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자(무직)와 취업자 간의 출생아 수 차이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직종별로는

관리자 및 기술직, 사무직 종사자 등 고학력 직업종사자의 출생아 수가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직종의 출생아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4-2>의 연령별출산율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은 45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5세 이상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로 완결출산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표 4-9 참조).

<표 4-9> 연도별 기혼여성(40~49세)의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단위: 명)

연령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40세	4.71	4.50	3.83	3.50	2.97	2.62	2.35	2.03	1.93	2.01	1.99	1.97	1.83
41세	4.68	4.92	3.87	3.36	3.02	2.76	2.42	2.20	1.99	1.98	2.01	1.94	1.87
42세	5.23	4.81	4.24	3.51	3.10	2.78	2.42	2.28	2.09	2.10	1.99	1.97	1.92
43세	5.07	5.09	4.32	4.02	3.34	2.88	2.62	2.21	2.08	1.99	1.99	2.01	1.83
44세	5.03	5.06	4.38	4.04	3.31	2.99	2.76	2.32	2.16	2.18	2.02	2.05	1.89
45세	5.76	5.26	4.26	4.02	3.56	3.32	2.97	2.60	2.26	2.13	2.00	1.99	1.99
46세	5.42	5.23	4.59	4.28	3.88	3.43	2.91	2.60	2.33	2.19	1.94	2.07	1.89
47세	5.79	5.68	4.91	4.56	3.95	3.50	2.87	2.84	2.40	2.21	2.06	1.98	1.99
48세	5.44	5.77	4.83	4.54	3.90	3.49	2.91	2.98	2.47	2.38	2.08	1.99	1.96
49세	5.73	5.50	4.99	4.79	4.09	3.60	3.27	2.97	2.56	2.43	2.14	2.02	1.96
40~49세	5.25	5.13	4.39	4.03	3.48	3.09	2.71	2.44	2.19	2.14	2.02	2.00	1.91
(대상자수)	(1,612)	(1,814)	(1,772)	(2,500)	(2,209)	(2,245)	(1,700)	(2,121)	(3,036)	(3,816)	(3,311)	(3,259)	(3,206)
45~49세	5.64	5.48	4.69	4.41	3.87	3.46	2.97	2.79	2.39	2.26	2.04	2.01	1.96
(대상자수)	(712)	(794)	(851)	(1,204)	(1,073)	(967)	(754)	(879)	(1,286)	(1,677)	(1,648)	(1,612)	(1,502)

주: 조사 당시 출산이 거의 완료된 40세 이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별 출생아 수를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완결출산수준 감소는 정부 가족계획사업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1970년 중반부터 피임 보급활동의 다원화 등으로 1976년 5.48명에서 1982년 4.69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새로운 피임방법인 미니랩 및 카파티(자궁내장치), 난관수술(여성불임시술)과 월경조절술(MR) 등이 가족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출산수준의 감소로 이어졌는데, 1985년 4.41명에서 1991년 3.46명으로 감소되었다.

1991년 새로운 인구증가억제대책의 보강으로 소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지원시책이 강화되면서 1994년에는 2.71명으로 감소하였고,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어 정부 차원의 피임 보급은 극히 일부 계층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임실천이 보편화되고 소자녀 가치관이 정착되어 2003년에는 2.26명으로 감소하였다. 2006년 이후부터는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어 기혼여성 1명당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5 장

임신·출산행태

제1절 출산 시기 및 출산 간격

제2절 임신종결 형태

제3절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 양상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임신·출산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1988년 및 2006년 조사의 생애임신력 자료를 이용하여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부터 세번째 출생아까지의 출산 시기와 출산 간격을 비교·분석하고, 1994~2012년의 출산력 통합파일을 이용하여 15~49세 기혼여성의 임신종결 형태와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 상태를 분석하였다.

제1절 출산 시기 및 출산 간격¹³⁾

1. 출산 시기

제3장 응답자 일반특성에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혼인 시기가 늦추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영향으로 출산 시기도 늦추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첫째아 출산 당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을 보면, 연령계층 간은 비슷한 수준이고 연도별 비교에서는 최근에 출산 시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출산 시기를 보면, 1988년 조사에서 첫째아 출산 시기는 25~29세는 평균 23.6세, 30~34세는 평균 23.6세, 35~39

13) 본 절에서는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 생애임신력에 관한 내용이 조사된 1988년과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15~49세 기혼여성의 출산 시기 및 출산 간격을 분석함. 단, 통합파일 분석에서 1988년은 출생아가 없는 부인 비율이 7.4%, 1명 18.2%, 2명 38.1%, 3명 이상 36.2%이고, 2006년은 출생아 없음 7.9%, 1명 20.5%, 2명 59.2%, 3명 이상 12.4% 등으로 세 명의 비율이 1988년에 비하여 23.8% 포인트 더 낮음(표 4-4 참조).

세는 평균 23.7세, 40~44세는 평균 23.4세, 45~49세는 평균 23.3세 등으로 연령계층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2006년 조사에서 첫째아의 경우 25~29세 연령층의 평균 출산연령은 25.0세, 30~34세 및 35~39세 연령층은 각각 평균 26.2세, 40~44세 연령층은 평균 25.6세, 45~49세 연령층은 평균 24.7세 등으로 30대 연령층의 출산 시기가 다른 연령(20대 또는 40대)에 비하여 0.5세 정도 더 늦추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기의 변화를 보면 1988년 첫째아 출산연령은 23.5세에서 2006년 25.6세로 2.1세 상승하였고, 둘째아 출산연령은 1988년 25.6세에서 2006년 27.9세로 2.3세 상승하였으며, 셋째아 출산연령은 1988년 27.5세에서 2006년 30.4세로 2.9세 상승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등으로 기혼여성의 출산 시기가 2.1~2.9년 더 늦어졌음을 알 수 있다(표 5-1 참조).

〈표 5-1〉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출산 시기(1988, 2006)

(단위: 세, 명)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대상자수)
1988년								
첫 번째	23.4	23.6	23.6	23.7	23.4	23.3	23.5	(7,224)
두 번째	25.4	25.7	25.7	25.7	25.6	25.4	25.6	(5,884)
세 번째	2.77	27.4	27.6	27.5	27.5	27.3	27.5	(2,980)
2006년								
첫 번째	21.2	25.0	26.2	26.2	25.6	24.7	25.6	(6,728)
두 번째	22.3 ¹⁾	25.8	28.1	28.5	28.3	27.1	27.9	(5,207)
세 번째	-	26.2 ¹⁾	29.7	31.2	31.5	29.1	30.4	(871)
1988~2006년 증감								
첫 번째	-2.2	1.4	2.6	2.5	2.2	1.4	2.1	-
두 번째	-	0.1	2.4	2.8	2.7	1.7	2.3	-
세 번째	-	-	2.1	3.7	4.0	1.8	2.9	-

주: 1) 사례수가 20명 미만임.

2) 출생 당시 모의 연령=(출생아의 출생 연·월 - 출산 모(母)의 출생 연·월)/12.

자료: 1)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재분석임.

2)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재분석임.

초혼연령별 출산 시기는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첫째아 출산 당시 연령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의 경우 초혼연령 20~22세 계층은 첫째아 출산연령이 22.5세, 23~25세 계층은 25.0세, 26~28세 계층은 27.9세, 29~31세 계층은 30.7세 등으로 나타났고,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2006년 조사에서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5-2 참조).

〈표 5-2〉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출산 시기(1988, 2006)

(단위: 세, 명)

구분	19세 이하	20~22세	23~25세	26~28세	29~31세	32세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88년								
첫 번째	19.8	22.5	25.0	27.9	30.7	35.4 ¹⁾	23.5	(7,213)
두 번째	22.4	24.9	27.2	30.0	32.9	37.4 ¹⁾	25.6	(5,833)
세 번째	25.2	27.3	29.7	32.3	34.4 ¹⁾	39.0 ¹⁾	27.5	(2,973)
2006년								
첫 번째	19.8	22.7	25.4	28.1	31.2	35.0	25.6	(6,728)
두 번째	22.6	25.5	28.1	30.6	33.6	36.7	27.9	(5,207)
세 번째	25.8	29.2	31.5	33.7	36.2 ¹⁾	39.0 ¹⁾	30.4	(871)
1988~2006년 증감								
첫 번째	0.0	0.2	0.4	0.2	0.5	-	2.1	-
두 번째	0.2	0.6	0.9	0.6	0.7	-	2.3	-
세 번째	0.6	1.9	1.8	1.4	-	-	2.9	-

주: 1) 사례수가 20명 미만임.

2) 출생 당시 모의 연령=(출생아의 출생 연월 - 출산 모(母)의 출생 연월)/12.

3) 출생 당시 모의 연령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출산 시기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둘째 및 셋째 출산의 포기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이 점차 선택적으로 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자료: 〈표 5-1〉과 동일.

교육수준별 출산 시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째아 출산 연령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의 경우 초등 이하 계층은 22.6세이고, 중학교는 23.1세, 고등학교는 23.5세, 대학 이상은 23.9세로 계층 간 최대 1.3세 차이를 보였고, 둘째아와 셋째아의 출산 시기도 동일한 경향이고, 둘

째아 출산 시기의 경우 학력계층 간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2006년 조사 결과도 비슷한 경향이지만 학력계층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첫째아 1.0~4.5세, 둘째아 1.4~5.2세, 셋째아 1.4~6.1세)(표 5-3 참조).

1988년과 2006년의 학력계층 간 첫째아 출산 시기 변화를 보면, 초등 이하(22.6세→22.5세)와 중학교(23.1세→23.5세) 계층은 비교적 변화가 적은 반면 고등학교(23.5세→25.3세)와 대학 이상(23.9세→27.0세) 계층은 약 2~3세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이상 계층에서 둘째아 출산(26.9세→29.6세)과 셋째아 출산(27.8세→32.3세)에서 약 3~5세로 그 격차가 상승하였다. 이는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의 확충으로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3〉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출산 시기(1988, 2006)

(단위: 세, 명)

구분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88년						
첫 번째	22.6	23.1	23.5	23.9	23.5	(7,222)
두 번째	24.8	25.1	25.6	26.9	25.6	(5,843)
세 번째	27.0	27.1	27.6	27.8	27.5	(2,980)
2006년						
첫 번째	22.5	23.5	25.3	27.0	25.6	(6,719)
두 번째	24.4	25.8	27.7	29.6	27.9	(5,201)
세 번째	26.2	28.8	30.9	32.3	30.4	(871)
1988~2006년 증감						
첫 번째	-0.1	0.4	1.8	3.1	2.1	-
두 번째	-0.4	0.7	2.1	2.7	2.3	-
세 번째	-0.8	1.7	3.3	4.5	2.9	-

주: 1) 사례수가 20명 미만임.

2) 출생 당시 모의 연령=(출생아의 출생 연·월 - 출산 모(母)의 출생 연·월)/12.

3)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표 5-1〉과 동일.

2. 출산 간격

1988년 분석결과에서 결혼시점에서 첫 출산까지의 기간은 16.4개월로 나타났고, 첫 번째 출산~두 번째 출산의 간격은 29.1개월, 두 번째 출산~세 번째 출산의 간격은 33.0개월로 출산 순위가 높아질수록 출산 간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과 2006년의 출산 간격 변화를 보면 첫 번째 출산의 경우 16.4개월에서 16.8개월로 0.4개월이 증가하였으나, 두 번째 출산은 29.1개월에서 34.1개월로 5.0개월 증가하고, 세 번째 출산은 33.0개월에서 48.3개월로 15.3개월 증가하며,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출산 간격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표 5-4 참조).

〈표 5-4〉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출산 간격(1988, 2006)

(단위: 개월, 명)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대상자수)
1988년								
결혼~첫 번째 출산	13.1	13.8	15.0	16.6	17.8	22.7	16.4	(7,215)
첫 번째~두 번째	24.2	27.3	27.7	29.0	30.3	32.3	29.1	(5,824)
두 번째~세 번째	28.0	29.9	31.4	34.2	32.8	33.5	33.0	(2,969)
2006년								
결혼~첫 번째 출산	12.9	16.1	17.8	17.7	16.2	15.8	16.8	(6,701)
첫 번째~두 번째	28.4 ²⁾	28.2	32.3	34.2	35.8	34.0	34.1	(5,201)
두 번째~세 번째	-	28.7 ²⁾	40.2	49.9	51.9	47.3	48.3	(869)
1988~2006년 증감								
결혼~첫 번째 출산	-0.2	2.3	2.8	1.1	-1.6	-6.9	0.4	-
첫 번째~두 번째	-	0.9	4.6	5.2	5.5	1.7	5.0	-
두 번째~세 번째	-	-	8.8	15.7	19.1	13.8	15.3	-

주: 1) 첫 번째 출산 간격은 결혼에서 첫 번째 출산까지의 기간(개월)이고, 출산 간의 간격이 180개월(15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2) 사례수가 20명 미만임.

자료: 〈표 5-1〉과 동일.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결혼시점에서 첫 번째 출산까지의 기간을 보면 1988년의 경우 15~24세는 13.1개월, 25~29세 13.8개월, 30~34세 15.0개월, 35~39세 16.6개월, 40~44세 17.8개월, 45~49세 22.7개월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간격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출산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6년 결과에서 15~24세는 12.9개월, 25~29세는 16.1개월, 30~34세는 17.8개월, 35~39세는 17.7개월, 40~44세는 16.2개월, 45~49세는 15.8개월 등으로 30대 연령층의 출산 간격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출산은 1988년과 유사하게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 간격이 더 증가하였다.

〈표 5-5〉에서 초혼연령별 출산 간격을 보면 1988년 조사결과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출산 간격에서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두 번째 출산 간격은 초혼연령이 많을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조사결과에서는 첫 번째 출산 간격은 초혼연령 20~22세 계층은 6.4개월, 23~25세 계층은 16.8개월, 26~28세 계층은 16.6개월, 29~31세 계층은 17.3개월, 32세 이상 계층은 17.4개월 등으로 초혼연령이 많을수록 조금씩 더 길어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출산 간격은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 5-6〉에서 교육수준별 출산 간격을 보면 첫 번째 출산의 경우 1988년은 초등 이하 22.0개월, 중학교 18.9개월, 고등학교 15.8개월, 대학 이상 14.7개월 등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간격이 감소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출산 간격도 비슷한 경향이며, 세 번째 출산은 일정한 경향성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 첫 번째 출산의 경우 초등 이하와 중학교는 16.2개월로 동일하고, 고등학교는 16.4개월, 대학 이상은 17.6개월 등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간격이 더 증가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출산 간격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5-5〉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출산 간격(1988, 2006)

(단위: 개월, 명)

구분	19세 이하	20~22세	23~25세	26~28세	29~31세	32세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88년								
결혼~첫 번째 출산	20.1	16.5	14.9	15.7	15.9	13.4	16.4	(7,211)
첫 번째~두 번째	32.3	29.2	27.5	27.3	27.2	27.1	29.1	(5,817)
두 번째~세 번째	35.2	32.1	32.2	31.5	38.0	32.0	33.0	(2,964)
2006년								
결혼~첫 번째 출산	17.5	16.4	16.8	16.6	17.3	17.4	16.8	(6,701)
첫 번째~두 번째	35.6	34.8	34.6	32.3	32.7	25.3	34.1	(5,201)
두 번째~세 번째	46.6	49.8	49.7	45.0	36.3 ²⁾	37.4 ²⁾	48.3	(869)
1988~2006년 증감								
결혼~첫 번째 출산	-2.6	-0.1	1.9	0.9	1.4	4.0	0.4	-
첫 번째~두 번째	3.3	5.6	7.1	5.0	5.5	-1.8	5.0	-
두 번째~세 번째	11.4	17.7	17.5	13.5	-1.7	5.4	15.3	-

주: 〈표 5-4〉와 동일.

자료: 〈표 5-1〉과 동일.

〈표 5-6〉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출산 간격(1988, 2006)

(단위: 개월, 명)

구분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88년						
결혼~첫 번째 출산	22.0	18.9	15.8	14.7	16.4	(7,212)
첫 번째~두 번째	31.4	30.1	28.6	28.4	29.1	(5,821)
두 번째~세 번째	32.3	33.2	32.2	34.1	33.0	(2,966)
2006년						
결혼~첫 번째 출산	16.2	16.2	16.4	17.6	16.8	(6,692)
첫 번째~두 번째	28.8	32.5	34.0	35.6	34.1	(5,195)
두 번째~세 번째	36.2	46.1	50.2	50.9	48.3	(869)
1988~2006년 증감						
결혼~첫 번째 출산	-5.8	2.7	0.6	2.9	0.4	-
첫 번째~두 번째	-2.6	2.4	5.4	7.2	5.0	-
두 번째~세 번째	3.9	12.9	18.0	16.8	15.3	-

주: 1) 첫 번째 출산 간격은 결혼에서 첫 번째 출산까지의 기간(개월)이고, 출산 간의 간격이 180개월(15년)이상인 경우는 전체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2) 사례수가 20명 미만임.

3)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표 5-1〉과 동일.

한편 교육수준별 출산 간격 변화(1988년과 2006년)를 비교하면 첫 번째 출산 간격은 초등 이하(22.0개월→16.2개월)와 중학교(18.9개월→16.2개월) 계층에서는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15.8개월→16.4개월), 대학 이상(14.7개월→17.6개월) 계층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출산 간격은 중학교 계층 이상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세 번째 출산 간격은 모든 학력에서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폭은 고학력일수록 더 높았다.

제2절 임신종결 형태

임신종결 형태는 15~49세 기혼여성이 경험한 임신 규모와 이들 임신이 어떠한 형태로 종결되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총임신을 정상출산과 현재 임신, 임신소모로 구분하고, 임신소모 형태는 다시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경험 횟수와 첫 번째 및 마지막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임신은 본인이 원한 임신이든, 원치 않은 임신이든 어떤 형태로든 종결될 수밖에 없다. 즉 어떠한 과정을 겪든 모든 임신은 정상출산과 임신소모라고 하는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중 어느 하나로 종결된다. 물론 임신의 종결 형태는 본인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원했던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임신의 종결은 그 사회의 경제수준, 문화적 배경, 보건의료수준, 양성평등의 정도와 부부 또는 출산당사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김승권 등, 2009).

기혼여성들의 총임신 횟수는 큰 변화를 보였는데 1976년 4.70회에서

1988년 3.67회, 1997년 3.03회, 2006년 2.61회, 2012년 2.29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였다(표 5-7 참조). 전체 임신 중 정상출산 수는 1976년 3.48회에서 1988년 2.29회, 1997년 1.92회, 2006년 1.77회, 2012년 1.68회 등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표 4-5> 출생아 수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이다. 임신소모 수는 1976년 1.14회에서 1988년 1.33회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7년 1.07회로 감소하고 2006년 0.81회, 2012년 0.57회 등으로 감소하였다. 임신소모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임신소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976년 0.87회에서 1988년 1.09회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 0.80회로 대폭 감소하고 2006년 0.56회, 2012년 0.30회 등으로 감소하였다.

<표 5-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 횟수 및 임신종결 형태

(단위: 회, 명)

구분	총 임신수	정상 출산수	현재 임신중	임신소모형태				(대상자수)
				소계	자연 유산	인공 임신중절	사산	
1974년	4.42	3.50	0.10	0.83	0.17	0.61	0.04	(5,256)
1976년	4.70	3.48	0.09	1.14	0.24	0.87	0.03	(6,020)
1982년	4.45	2.95	0.07	1.44	0.23	1.18	0.03	(5,371)
1985년	4.13	2.62	0.05	1.46	0.26	1.16	0.04	(8,421)
1988년	3.67	2.29	0.05	1.33	0.22	1.09	0.02	(7,791)
1991년	3.55	2.15	0.05	1.34	0.26	1.07	0.02	(7,461)
1994년	3.18	1.95	0.05	1.17	0.24	0.91	0.01	(6,059)
1997년	3.03	1.92	0.04	1.07	0.26	0.80	0.01	(6,447)
2000년	2.85	1.83	0.05	0.98	0.26	0.71	0.01	(7,955)
2003년	2.87	1.87	0.03	0.97	0.27	0.69	0.01	(8,588)
2006년	2.61	1.77	0.04	0.81	0.24	0.56	0.01	(7,332)
2009년	2.48	1.75	0.04	0.69	0.26	0.42	0.01	(6,719)
2012년	2.29	1.68	0.04	0.57	0.26	0.30	0.01	(6,260)

주: 1) 임신경험이 없는 기혼여성도 포함된 전체부인의 평균 횟수임.

2) 총임신 횟수를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함.

3) 정상출산 수는 쌍생아 분만의 경우 1회 출생으로 간주함. 단, 1976년과 1982년의 경우 출산 수 변수가 없어 출생아 수로 대체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자연유산 횡수는 1976년 0.24회에서 1988년 0.22회, 1997년 0.26회, 2006년 0.24회, 2012년 0.26회 등으로 약간 증가하는 수준이다. 사산 횡수는 1976년 0.03회, 1988년 0.02회였으나 1994년 이후 0.01회로 큰 변화가 없다.

전반적으로 총임신 횡수가 감소하고, 이는 정상출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횡수 등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러나 전체 임신 대비 자연유산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이고,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감소하며, 사산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사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자보건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8〉에서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임신소모 수 변화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고, 1990년 이후부터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15~24세와 25~29세의 경우 1988년에 각각 0.51회, 0.82회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 각각 0.18회로 감소하였다. 35~39세, 40~44세는 1982년에 각각 1.98회, 2.10회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각각 0.51회, 0.64회로 감소하였고, 45~49세는 1988년 1.92회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0.84회로 감소하였다.

〈표 5-9〉에서 초혼연령별 임신소모 수의 변화를 보면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소모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다. 초혼연령 19세 이하와 20~22세의 경우 1988년에 각각 1.66회, 1.44회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각각 0.89회, 0.76회로 감소하였다. 초혼연령 23~25세, 26~28세는 1982년에 각각 1.32회, 1.20회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각각 0.65회, 0.46회로 감소하였고, 초혼연령 29~31세, 32세 이상은 1976년 각각 1.20회, 1.50회로 가장 높았

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각각 0.36회, 0.32회로 감소하였다.

〈표 5-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임신소모수

(단위: 회, 명)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대상자수)
1974년	0.21	0.46	0.77	1.12	1.16	0.97	0.83	(5,256)
1976년	0.33	0.65	1.30	1.62	1.56	1.10	1.14	(6,020)
1982년	0.39	0.91	1.49	1.98	2.10	1.55	1.44	(5,371)
1985년	0.43	0.99	1.51	1.78	1.99	1.84	1.46	(8,421)
1988년	0.51	0.82	1.25	1.65	1.80	1.92	1.33	(7,791)
1991년	0.50	0.82	1.22	1.46	1.80	1.89	1.34	(7,461)
1994년	0.35	0.67	1.10	1.33	1.48	1.68	1.17	(6,059)
1997년	0.35	0.54	0.98	1.22	1.26	1.53	1.07	(6,447)
2000년	0.32	0.40	0.79	1.15	1.25	1.26	0.98	(7,955)
2003년	0.37	0.44	0.77	1.04	1.11	1.22	0.97	(8,586)
2006년	0.30	0.28	0.53	0.82	1.01	1.08	0.81	(7,332)
2009년	0.10	0.27	0.46	0.64	0.84	0.91	0.69	(6,719)
2012년	0.18	0.18	0.34	0.51	0.64	0.84	0.57	(6,260)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5-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임신소모수

(단위: 회, 명)

구분	19세 이하	20~22세	23~25세	26~28세	29~31세	32세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74년	0.88	0.88	0.76	0.70	0.78	0.50	0.83	(5,252)
1976년	1.19	1.13	1.08	1.13	1.20	1.50	1.14	(6,020)
1982년	1.56	1.49	1.32	1.20	0.92	1.04	1.44	(5,371)
1985년	1.78	1.54	1.22	1.19	0.82	0.85	1.46	(8,421)
1988년	1.66	1.44	1.20	0.96	0.88	0.33	1.33	(7,791)
1991년	1.66	1.48	1.22	0.99	1.09	0.94	1.34	(7,458)
1994년	1.38	1.31	1.15	0.85	0.87	0.45	1.17	(6,057)
1997년	1.29	1.25	1.01	0.86	0.74	0.45	1.07	(6,378)
2000년	1.17	1.14	0.98	0.77	0.67	0.73	0.98	(7,936)
2003년	1.17	1.15	0.96	0.80	0.58	0.77	0.97	(8,576)
2006년	1.06	1.01	0.83	0.63	0.54	0.52	0.81	(7,305)
2009년	0.81	0.93	0.78	0.59	0.41	0.42	0.69	(6,715)
2012년	0.89	0.76	0.65	0.46	0.36	0.32	0.57	(6,233)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5-10〉에서 교육수준별 임신소모 수의 변화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신소모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다. 초등 이하 계층의 경우 1985년에 1.60회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 0.86회로 감소하였고, 중학교 계층은 1991년 1.50회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 0.68회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계층은 1982년 각각 1.44회, 1.32회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각각 0.69회, 0.43회로 감소하였다.

〈표 5-1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임신소모수

(단위: 회, 명)

구분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74년	0.74	0.84	1.26	1.15	0.83	(5,249)
1976년	1.05	1.34	1.34	1.31	1.14	(6,020)
1982년	1.47	1.40	1.44	1.32	1.44	(5,370)
1985년	1.60	1.40	1.36	1.24	1.46	(8,416)
1988년	1.49	1.48	1.17	1.02	1.33	(7,791)
1991년	1.48	1.50	1.22	1.07	1.34	(7,452)
1994년	1.38	1.40	1.10	0.81	1.17	(6,054)
1997년	1.34	1.33	1.01	0.81	1.07	(6,444)
2000년	1.18	1.25	0.97	0.76	0.98	(7,950)
2003년	1.11	1.17	1.01	0.75	0.97	(8,579)
2006년	1.10	1.10	0.85	0.62	0.80	(7,323)
2009년	0.87	0.98	0.76	0.53	0.69	(6,718)
2012년	0.86	0.68	0.69	0.43	0.57	(6,255)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5-11〉에서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 및 직종별 임신소모 수의 변화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취업자의 임신소모 수가 비취업자(무직)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비취업자의 경우 1982년에 1.37회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 0.54회로 감소하였고, 취업자는 1985년 1.67회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 0.59회로 감소하였다. 직종별로는 전반적으로 사무직 종사자의 임신소모 수가 적고, 그다음은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등의 순으로 임신소모 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1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취업 여부 및 직종별 임신소모수

(단위: 회, 명)

구분	비취업 (무직)	취업자의 직업					전체	(대상자수)
		소계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1974년	0.85	0.81	1.25	0.91	1.22	0.64	0.83	(5,253)
1976년	1.18	1.09	1.39	0.94	1.48	0.91	1.14	(6,020)
1982년	1.37	1.57	1.75	1.31	2.04	1.25	1.44	(5,371)
1985년	1.36	1.67	1.18	1.41	2.01	1.58	1.46	(8,421)
1988년	1.27	1.42	1.08	0.80	1.66	1.34	1.33	(7,791)
1991년	1.34	1.34	0.86	0.92	1.56	1.25	1.34	(7,461)
1994년	1.11	1.23	0.86	0.78	1.34	1.29	1.17	(6,059)
1997년	1.05	1.09	0.77	0.77	1.21	1.15	1.07	(6,447)
2000년	0.96	1.00	0.72	0.60	1.08	1.12	0.98	(7,955)
2003년	0.96	0.97	0.72	0.69	1.08	1.06	0.97	(8,586)
2006년	0.74	0.86	0.63	0.74	0.99	0.93	0.81	(7,332)
2009년	0.68	0.70	0.55	0.58	0.78	0.84	0.69	(6,719)
2012년	0.54	0.59	0.50	0.42	0.65	0.77	0.57	(6,260)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5-12〉에서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총임신 대비 임신소모율 변화를 보면 1976년 24.8%에서 1991년 38.2%를 정점으로 1997년 35.9%로 감소하고, 2006년 31.1%, 2012년 25.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임신에서 4분의 1 정도는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¹⁴⁾ 특히 임신소모 중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연유산 수는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임신 대비 자연유산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14) 2015년 조사에서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임신종결 상태를 보면 총임신 횟수는 2.38회, 정상출산 1.82회, 임신중 0.05회, 임신소모수 0.52회 중에서 인공임신중절 0.25회, 자연유산 0.27회 등으로 임신소모율은 22.2%임(이삼식 등, 2016).

〈표 5-12〉 연도별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소모율

(단위: 회, %, 명)

구분	총 임신수	정상 출산수	현재 임신중	임신소모수				임신 소모율	(대상자수)
				소계	자연 유산	인공 임신중절	사산		
1974년	4.55	3.61	0.11	0.85	0.18	0.63	0.04	19.6	(5,106)
1976년	4.81	3.57	0.09	1.17	0.24	0.89	0.03	24.8	(5,879)
1982년	4.57	3.03	0.07	1.48	0.24	1.22	0.03	32.9	(5,233)
1985년	4.25	2.70	0.05	1.50	0.26	1.19	0.04	35.7	(8,198)
1988년	3.79	2.36	0.05	1.38	0.23	1.12	0.02	36.9	(7,551)
1991년	3.66	2.22	0.05	1.38	0.27	1.10	0.02	38.2	(7,229)
1994년	3.31	2.04	0.06	1.21	0.25	0.95	0.01	37.2	(5,814)
1997년	3.16	2.00	0.04	1.12	0.27	0.83	0.01	35.9	(6,186)
2000년	2.97	1.91	0.05	1.02	0.27	0.74	0.01	34.9	(7,623)
2003년	2.99	1.95	0.03	1.01	0.28	0.72	0.01	34.1	(8,253)
2006년	2.74	1.85	0.04	0.84	0.25	0.59	0.01	31.1	(6,989)
2009년	2.61	1.85	0.04	0.72	0.27	0.45	0.01	28.0	(6,377)
2012년	2.43	1.78	0.05	0.60	0.27	0.32	0.01	25.2	(5,901)

주: 1)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함.

2) 정상출산 수는 쌍생아 분만의 경우 1회 출생으로 간주함. 단, 1976년과 1982년의 경우 출산 수 변수가 없어 출생아 수로 대체함.

3) 임신소모율(현임신 제외)=임신소모 수÷(총임신 수-현임신)×100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5-13〉에서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976년 38.5%에서 1991년 55.6%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 47.6%로 감소하고 2006년 40.1%, 2009년 32.0%, 2012년 22.7%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이유를 살펴보면 1991년까지는 자녀 불원(단산)의 비율이 약 60%로 매우 높았고, 그다음은 터울조절(16.2~13.2%)의 이유였다. 2000년 이후에는 자녀 불원(단산)의 비율이 40.4~31.5%로 감소하였고, 터울조절 비율이 19.1~13.8%로 약간 상승하였다. 최근에 이룰수록 임신부 건강상 또는 태아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2006년 이후 경제적 곤란이나 직장 문제의 비율이 16.1~11.8%로 상승하였다(표 5-14 참조).

〈표 5-1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횟수

(단위: %, 회)

구분	없음	인공임신중절 경험				계 (명)	평균
		소계	1회	2회	3회 이상		
1974년	68.3	31.7	16.7	7.4	7.6	100.0 (5,105)	0.63
1976년	61.5	38.5	15.9	10.2	12.3	100.0 (5,879)	0.89
1982년	49.6	50.3	19.2	14.1	17.0	100.0 (5,233)	1.22
1985년	45.3	54.7	25.0	14.3	15.4	100.0 (8,198)	1.19
1988년	45.2	54.8	26.7	14.6	13.4	100.0 (7,551)	1.12
1991년	44.4	55.6	26.3	16.8	12.4	100.0 (7,230)	1.10
1994년	47.3	52.7	28.9	14.2	9.6	100.0 (5,814)	0.95
1997년	52.4	47.6	25.4	14.0	8.2	100.0 (6,186)	0.83
2000년	56.6	43.4	23.8	13.1	6.5	100.0 (7,623)	0.74
2003년	55.5	44.5	26.2	12.7	5.6	100.0 (8,252)	0.72
2006년	59.9	40.1	26.7	9.7	3.6	100.0 (6,989)	0.59
2009년	68.0	32.0	22.4	7.4	2.1	100.0 (6,378)	0.45
2012년	77.3	22.7	15.3	5.9	1.5	100.0 (5,902)	0.32

주: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5-14〉 연도별 기혼여성의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이유

(단위: %)

구분	자녀 불원 (단산)	터울 조절	임산부 건강상	태아 이상	혼전(외) 임신	경제적 곤란/ 직장	태아의 성별	기타	계 (명)
1985년	64.4	14.2	4.2	2.5	4.9	3.1	-	6.6	100.0 (4,479)
1988년	56.5	16.2	6.5	1.4	6.3	4.9	2.0	6.3	100.0 (4,079)
1991년	59.2	13.2	15.2	-	5.5	3.4	1.9	1.5	100.0 (4,012)
2000년	40.4	19.1	8.9	3.9	8.6	7.1	9.0	3.1	100.0 (3,302)
2003년	38.0	15.5	9.1	3.8	11.0	9.8	1.6	11.3	100.0 (3,667)
2006년	31.5	16.3	10.6	4.0	7.2	16.1	2.0	12.3	100.0 (2,800)
2009년	34.6	14.7	13.4	10.5	9.0	12.8	1.9	3.1	100.0 (2,036)
2012년	37.5	13.8	16.9	7.3	6.3	11.8	1.0	5.4	100.0 (1,338)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한편 〈표 5-15〉에서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이유도 자녀 불원(단산)의 비율이 1988년 81.6%로 가장 높았고, 1997년 53.0%, 2006년 40.3%,

2012년 43.6% 등으로 감소하였고, 터울조절 이유는 큰 변화 없이 약 10%의 수준이다. 최근일수록 인공임신중절 이유가 임신부 건강상(1994년 9.3%→2012년 18.2%) 또는 경제적 곤란/직장문제(1997년 7.4%→2012년 12.3%)라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5〉 연도별 기혼여성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이유

(단위: %)

구분	자녀 불원 (단산)	터울 조절	임산부 건강상	태아 이상	혼전(외) 임신	경제적 곤란/ 직장	태아의 성별	기타	계 (명)
1982년	73.4	13.1	5.3	-	-	2.1	0.7	5.3	100.0 (2,154)
1985년	86.9	3.3	2.0	1.2	0.9	2.8	-	3.1	100.0 (2,430)
1988년	81.6	4.5	4.3	0.5	1.2	3.2	1.4	3.3	100.0 (2,074)
1994년	61.9	10.1	9.3	4.5	2.9	3.3	2.3	5.7	100.0 (3,052)
1997년	53.0	10.3	10.0	3.2	3.4	7.4	2.8	9.9	100.0 (2,939)
2000년	53.0	11.7	9.1	3.8	4.5	6.8	8.2	2.9	100.0 (3,302)
2003년	48.7	9.7	8.9	3.4	5.7	10.7	1.9	10.9	100.0 (3,666)
2006년	40.3	10.6	10.9	3.8	4.5	16.0	2.5	11.4	100.0 (2,800)
2009년	40.7	10.6	13.2	10.6	6.1	13.4	2.0	3.5	100.0 (2,036)
2012년	43.6	9.9	18.2	6.7	3.9	12.3	1.3	4.1	100.0 (1,338)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제3절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 양상

본 절에서는 개인 조사가 완료된 15~49세 기혼여성 중 피임실천에 관한 질문항목의 응답대상자인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부인 특성에 따른 피임실천 여부 및 피임방법별 실천율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정부 가족계획사업은 1961년 이후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혼여성(남편)에게 소자녀관과 피임 사용방법 등을 홍보·교육하면서 피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출산율이 급

격히 감소되자 1989년부터 정부의 피임 보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6년에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어 정부 차원의 피임 보급은 극히 일부 계층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조남훈 등, 2006).¹⁵⁾

〈표 5-16〉에서 유배우부인(15~44세) 피임실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6년 44.2%에서 1988년 77.2%, 1997년 80.5%로 증가하였고, 2006년 79.5%, 2012년 77.0%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고 인구정책이 인구자질 및 복지정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피임실천은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을 보면 여성불임 시술인 난관수술은 1976년 4.1%에서 1988년 37.2%로 증가하였으나 정부 피임 보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1997년 24.1%, 2006년 10.2%, 2012년 5.7% 등으로 매우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성 불임시술인 정관수술은 1976년 4.2%에서 1988년 11.0%, 1997년 12.7%, 2006년 17.8%, 2012년 16.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영구적 피임방법인 자궁내장치는 1976년 10.5%에서 1988년 6.7%, 1997년 13.2%, 2006년 13.4%, 2012년 10.5% 등으로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조금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먹는피임약은 1976년 7.8%에서

15) 정부에서 보급한 피임방법 중 자궁내장치(루프), 정관수술 및 콘돔은 사업초기부터 보급되었고, 먹는피임약은 1968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함. 또한 피임 실패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대책으로 1974년부터 월경조절술을 도입하였으며, 1976년에는 난관수술을, 그리고 1982년부터는 새로운 자궁내장치인 카파티(Cu-T)를 정부사업에 추가 보급됨. 1962~1976년 기간 중에는 자궁내장치가 정부가족계획사업의 주된 피임방법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난관수술의 수용성이 증가되기 시작한 1976년부터는 불임수술로 전환되었음. 불임수술이 높은 수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불임수술에 역점을 둔 정부의 피임 보급전략이 주요인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부인의 피임실천이 대부분 단산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하기 간편하고 부작용이 없는 피임방법이 부재한 여건 외에도, 불임수술 수용자에 대한 각종 보상제도, 개업의를 통한 양질의 무료시술, 불임수술에 대한 종교적인 무장해(無障害) 등임(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988년 2.8%, 1997년 1.8%, 2006년 1.2%, 2012년 2.3%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¹⁶⁾

〈표 5-16〉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효율

(단위: %)

구분	피임 비실효	현재 피임실효								계 (명)
		소계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질) 정제	기타 ¹⁾	
1974년	67.0	33.0	-	-	8.5	9.4	5.9	-	9.1	100.0 (4,351)
1976년	55.8	44.2	4.1	4.2	10.5	7.8	6.3	-	11.3	100.0 (5,006)
1982년	42.3	57.7	23.0	5.1	6.7	5.4	7.2	0.5	9.9	100.0 (4,348)
1985년	29.4	70.6	31.6	8.9	7.5	4.3	8.0	1.9	8.3	100.0 (6,978)
1988년	22.8	77.2	37.2	11.0	6.7	2.8	10.2	4.7	4.7	100.0 (6,515)
1991년	20.5	79.5	35.3	12.0	9.0	3.0	10.3	1.7	8.3	100.0 (6,268)
1994년	22.6	77.4	28.6	11.6	10.5	1.8	14.3	1.3	9.3	100.0 (5,183)
1997년	19.5	80.5	24.1	12.7	13.2	1.8	15.1	0.8	12.7	100.0 (5,420)
2000년	20.8	79.2	18.4	13.0	13.7	2.0	16.4	0.5	15.2	100.0 (6,407)
2003년	15.9	84.1	15.8	15.3	16.0	1.9	18.3	0.7	15.9	100.0 (6,623)
2006년	20.5	79.5	10.2	17.8	13.4	1.2	19.1	0.2	17.6	100.0 (5,386)
2009년	20.0	80.0	5.9	16.8	12.8	2.2	24.3	0.9	17.1	100.0 (4,868)
2012년	23.0	77.0	5.7	16.7	10.5	2.3	23.7	0.4	17.5	100.0 (4,546)

주: 1) 피임방법을 2개 이상 중복으로 사용할 경우 과학적인 피임방법을 주 사용방법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고, 기타 방법은 월경주기법, 질외사정법 등임.

2) 1974년 자료는 불임수술이 기타에 포함되어 부호화되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남성 피임방법인 콘돔은 1976년 6.3%에서 1988년 10.2%, 1997년 15.1%, 2006년 19.1%, 2012년 23.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살(질)정제 실효율은 0.4%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기타 방법 사용률은 1976년 11.3%에서 1988년 4.7%, 1997년 12.7%, 2006년

16)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 유배우여성(15~49세)의 피임실효율은 79.6%이고,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자의 현재 사용 피임방법(중복응답)은 난관수술 7.6%, 정관수술 23.0%, 자궁내장치 12.4%, 사전경구피임약 2.9%, 사후경구피임약 0.5%, 콘돔 30.2%, 살정제 0.4%, 월경주기법 31.5%, 질외사정법 24.8%, 기타 0.2%임(아삼식 등, 2015).

17.1%, 2012년 17.5%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임방법별 실천율을 종합하면 여성 피임방법인 난관수술 위주에서 탈피하여 남성 피임방법인 정관수술 사용률이 증가하고,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자궁내장치, 콘돔 등 반영구적 피임방법 및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기타 피임방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피임효과가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어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피임실천율의 변화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피임실천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0~40대 연령층은 25~29세 연령층보다 피임실천율이 20% 포인트 이상 더 높았는데, 이는 터울조절 또는 단산의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출산연령층인 25~29세, 30~34세, 35~39세의 경우 1988년 피임실천율이 각각 65.4%, 86.7%, 89.6%에서 2006년에는 51.4%, 74.0%, 87.9%로, 2012년에는 48.4%, 62.4%, 84.1% 등으로 점차 감소하였고, 24세 이하와 40~44세는 1988년 피임실천율이 각각 44.4%, 81.6%에서 2012년에 58.0%, 89.9%로 증가하였다(표 5-17 참조).

연령별 불임수술의 경우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원하는 자녀 수를 출산하고 단산 목적으로 피임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5~29세 연령층은 1976년 4.5%에서 1988년 30.6%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6.3%, 2006년 4.4%, 2012년 2.8%로 감소하였다. 30~34세는 1988년 58.9%로 상승하였으나 2012년은 10.4%로 감소하였고, 35~39세는 1991년 69.4%에서 2012년은 25.0%, 40~44세는 1994년 67.9%에서 2012년은 34.8% 등으로 감소하였다(표 5-18 참조). 20대 및 30대 연령층의 불임수술 감소는 결혼연령 및 출산연

령의 상승 등이 사용 피임방법에 변화를 가져 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17〉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연령별 피임실천율

(단위: %, 명)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대상자수)
1974년	11.1	23.0	36.9	45.5	36.1	33.0	(4,351)
1976년	15.4	32.1	55.3	61.6	45.5	44.2	(5,006)
1982년	22.5	44.6	71.7	79.8	62.3	57.7	(4,348)
1985년	35.9	60.8	84.2	87.3	70.1	70.6	(6,979)
1988년	44.4	65.4	86.7	89.6	81.6	77.2	(6,515)
1991년	45.7	61.5	84.4	93.7	87.2	79.4	(6,269)
1994년	40.6	60.1	81.4	89.6	87.5	77.4	(5,182)
1997년	45.2	60.6	82.5	90.9	89.6	80.5	(5,419)
2000년	43.7	56.9	81.3	89.3	87.7	79.2	(6,408)
2003년	57.5	64.4	80.4	90.5	90.9	84.1	(6,626)
2006년	43.7	51.4	74.0	87.9	90.2	79.5	(5,387)
2009년	39.5	50.1	71.2	88.4	90.4	80.0	(4,869)
2012년	58.0	48.4	62.4	84.1	89.9	77.0	(4,546)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5-18〉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연령별 불임수술률

(단위: %, 명)

구분	15~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대상자수)
1976년	0.8	4.5	11.4	12.9	9.1	8.3	(5,006)
1982년	4.4	14.6	38.5	45.9	33.3	28.1	(4,349)
1985년	7.7	29.2	52.4	57.9	43.1	40.5	(6,977)
1988년	8.9	30.6	58.9	65.1	58.8	48.2	(6,515)
1991년	3.1	18.9	49.4	69.4	65.9	47.3	(6,269)
1994년	2.5	10.2	34.6	62.4	67.9	40.2	(5,184)
1997년	3.3	6.3	26.3	51.5	64.7	36.8	(5,419)
2000년	1.9	5.2	20.2	38.7	57.7	31.3	(6,409)
2003년	3.1	6.9	18.1	35.6	50.0	31.1	(6,630)
2006년	0.8	4.4	17.5	33.7	43.5	28.0	(5,391)
2009년	1.3	3.2	9.4	26.5	36.5	22.7	(4,869)
2012년	-	2.8	10.4	25.0	34.8	22.4	(4,544)

주: 부인 및 남편의 불임수술(정관 및 난관수술)이 모두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5-19〉에서 초혼연령별 피임실천율은 초혼연령이 적을수록 피임실천율이 높고 초혼연령이 많을수록 피임실천율은 낮아지고 있다. 초혼연령 20~22세, 23~25세, 26~28세의 경우 1988년 피임실천율이 각각 81.3%, 75.1%, 66.5%에서 2012년 90.2%, 82.9%, 76.1%로 약 10% 포인트의 증가를 보였으나 29~31세, 32세 이상은 1988년 각각 44.1%, 27.3%에서 2012년 63.3%, 57.3%로 약 20% 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표 5-19〉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초혼연령별 피임실천율

(단위: %, 명)

구분	19세 이하	20~ 22세	23~ 25세	26~ 28세	29~ 31세	32세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74년	35.8	34.3	31.1	29.2	29.0	16.7	33.0	(4,350)
1976년	45.3	45.5	41.4	38.8	32.1	60.0	44.2	(5,006)
1982년	58.4	60.4	54.1	56.7	46.7	55.6	57.7	(4,348)
1985년	76.8	72.3	67.0	67.4	50.6	61.5	70.6	(6,978)
1988년	84.2	81.3	75.1	66.5	44.1	27.3	77.2	(6,515)
1991년	85.8	84.1	79.0	66.0	59.1	40.0	79.5	(6,267)
1994년	82.9	81.3	78.1	68.4	57.1	63.8	77.4	(5,182)
1997년	87.1	85.4	81.1	73.6	61.6	50.0	80.7	(5,366)
2000년	83.1	84.8	81.7	71.9	60.8	58.9	79.2	(6,396)
2003년	88.2	88.0	87.3	79.4	67.4	64.0	84.1	(6,613)
2006년	79.4	84.2	84.4	75.3	68.3	56.3	79.5	(5,386)
2009년	85.4	86.1	87.2	78.1	68.7	61.0	80.0	(4,865)
2012년	82.2	90.2	82.9	76.1	63.3	57.3	77.0	(4,526)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을 보면 1985년 이전에는 대학 이상 계층 피임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나 1988년 이후에는 다른 계층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원하는 수의 출산을 완료한 고연령층에 저학력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의 변화는 초등학교 이하 계층은 1988년 80.7%에서 1997년 88.4%, 2006년 81.8%, 2012년 53.8% 등으로 감소하고, 중학교 계층도 1988년 79.6%에서 1997년

86.3%, 2006년 84.9%, 2012년 78.9% 등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계층은 1988년 74.0%에서 1997년 78.2%, 2006년 81.5%, 2012년 81.2% 등으로 상승하고, 대학 이상 계층도 1988년 73.5%에서 1997년 78.5%, 2006년 76.3%, 2012년 73.7% 등으로 대체로 증가하였다.

〈표 5-20〉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교육수준별 피임실천율

(단위: %, 명)

구분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대상자수)
1974년	32.6	31.2	36.0	39.8	33.0	(4,349)
1976년	42.3	44.1	50.9	51.7	44.2	(5,006)
1982년	59.9	55.5	54.8	64.6	57.7	(4,347)
1985년	74.1	69.1	66.8	78.1	70.6	(6,975)
1988년	80.7	79.6	74.0	73.5	77.1	(6,515)
1991년	86.5	84.7	75.3	72.7	79.4	(6,262)
1994년	85.0	81.7	74.8	74.1	77.4	(5,179)
1997년	88.4	86.3	78.2	78.5	80.5	(5,416)
2000년	85.4	89.0	78.4	75.4	79.2	(6,404)
2003년	87.1	88.9	84.9	81.1	84.1	(6,615)
2006년	81.8	84.9	81.5	76.3	79.6	(5,380)
2009년	75.9	78.6	82.7	77.3	79.9	(4,867)
2012년	53.8	78.9	81.2	73.7	77.0	(4,542)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조사 당시 피임 중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 목적은 모든 조사에서 터울조절이 10% 내외이고 단산은 85% 이상이다. 이는 결혼과 동시에 터울 조절 목적의 피임실천보다는 원하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출산 후 불임시술 등에 의한 피임실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는데, 터울조절 목적으로 피임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는 홍보·교육이 요구된다.

피임실천 목적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터울조절 및 단산 비율이 1988년은 각각 7.3% 및 90.7%이고, 1997년은 9.3% 및 88.7%, 2006년 12.2% 및 87.6%, 2012년 11.9% 및 88.1% 등이다. 최근일수록 터울조

절 목적이 약간 상승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5-21 참조).

〈표 5-21〉 연도별 유배우부인(15~44세)의 피임실효 목적

(단위: %)

구분	터울 조절	단산	건강상 이유	취업상 이유	경제적 이유	기타	계 (명)
1976년	9.2	86.9	0.6	0.0	1.9	1.4	100.0 (2,184)
1985년	5.8	90.8	-	-	-	3.5	100.0 (4,921)
1988년	7.3	90.7	0.1	0.2	0.6	1.0	100.0 (5,019)
1991년	6.3	89.4	1.7	1.7	0.4	0.5	100.0 (4,979)
1994년	11.8	85.8	0.4	0.1	0.3	1.5	100.0 (4,006)
1997년	9.3	88.7	0.4	0.2	0.3	1.1	100.0 (4,361)
2000년	9.3	86.8	0.8	0.2	0.5	3.3	100.0 (5,007)
2003년	11.2	88.5	-	-	-	0.4	100.0 (5,567)
2006년	12.2	87.6	-	-	-	0.2	100.0 (4,281)
2009년	14.6	85.3	-	-	-	0.0	100.0 (3,883)
2012년	11.9	88.1	-	-	-	0.0	100.0 (3,491)

주: 2003~2012년의 경우 터울조절(출산 연기)에 취업상 이유, 경제적 이유, 기타 이유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제4절 소결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출산행태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8년과 2006년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의 출산 시기 비교분석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초혼연령의 상승 등으로 기혼여성의 출산 시기가 2년 정도 더 늦어졌음을 알 수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당시 모(母)의 연령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 간격 변화는 1988년 결과에서는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간격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 결과에서는 30대의 출산 간격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길었다. 2개 연도 결과에서 동일하게 출산 순위가 높아질수록 출산 간격이 증가하고, 그 증가 폭은 고학력일수

록 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의 확충으로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임신종결 형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총임신 횟수는 감소하고, 이는 정상출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사산 횟수 등의 감소로 이어진다. 세 부적으로 전체 임신소모 중에서 자연유산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고,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감소하고, 사산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총임신 대비 임신소모율 변화에서 전체 임신에서 4분의 1 정도는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유배우부인(15~44세)의 피임방법별 실천율에서는 여성 피임방법인 난관수술 위주에서 탈피하여 남성 피임방법인 정관수술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영구적인 피임방법에서 자궁내장치, 콘돔 등 반영구적 피임방법 및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기타 피임방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피임효과가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제 6 장

가족가치관의 변화

제1절 결혼가치관

제2절 자녀가치관

제3절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제4절 소결

6

가족가치관의 변화 <<

제2의 인구학적 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으로 일컬어지는 가치관의 변화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혼 및 출산 행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태현, 2005; 이삼식, 2007; 김나영, 2011; 이삼식 등, 2015). 특히 가족가치관은 가족제도와 관련된 가치관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자녀, 성역할 분담 등 가족과 관련한 주관적 태도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김승권, 2014), 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거시적·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그 주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결혼가치관

일반적으로 결혼가치관은 가족가치관의 일부분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의미한다. 결혼가치관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적정 결혼연령, 그리고 결혼의 다른 현상 또는 형태라 할 수 있는 동거, 이혼, 재혼 등에 대한 가치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결혼가치관이 저출산 연구에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법률혼과 부부간 출산 중심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률혼과 유배우 중심으로 출산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현상은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년도의 출산력 조사에서 결혼가치관에 대한 변수는 결혼 필요성, 이혼 필요성, 재혼 필요성으로 단편화되어 있고, 2000년 이후 5차 년도에 걸쳐서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시계열적 경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90년대 중반까지 1.5~1.7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 1.3명으로 급감하면서 저출산정책의 성격이 제고되는 시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년)에는 인구자질의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 등에 역점을 두었으나 출산율의 급감 현상으로 인해 출산장려정책기(2004년~현재)로 전환되었고, 이 시기부터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00~2012년의 결혼 필요성, 그리고 이혼 및 재혼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되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근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2015년 출산력 조사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 필요성

연도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점차 감소하고 ‘하는 편이 좋다’는 선택적 인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2000년 19.2%에서 2012년 17.8%로 감소한 반면 ‘하는 편이 좋다’는 선택적 인

식은 같은 기간 30.5%에서 42.7%로 증가하였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의 감소와 ‘하는 편이 좋다’는 인식 증가로 두 껍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0년에는 두 인식의 껍이 1.6배 수준인 데 반해 2015년에는 3.3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⁷⁾ 결과적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점차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가치관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표 6-1 참조).

〈표 6-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모르겠다	계 (명)
2000년	19.2	30.5	44.2	5.4	0.8	100.0 (6,295)
2003년	21.5	29.4	40.8	7.8	0.6	100.0 (7,162)
2006년	22.1	31.6	42.4	3.9	0.0	100.0 (7,249)
2009년	22.5	32.5	40.2	4.7	0.0	100.0 (6,221)
2012년	17.8	42.7	34.8	4.5	0.3	100.0 (7,249)
2015년 ¹⁾	11.5	37.7	44.4	6.0	0.4	100.0 (11,009)

주: 1) 이삼식 등(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6-2〉는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을 연령별로 살펴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연령대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과 ‘하는 편이 좋다’는 인식의 껍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2015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29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30~34세는 4.2% 포인트(13.9%→9.7%), 35~39세는 7.6% 포인트

17) 2015년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분포를 살펴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 11.5%, ‘하는 편이 좋다’ 37.7%,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4.4%, ‘하지 않는 편이 좋다’ 6.0%, ‘모르겠다’ 0.4%로 나타남(이삼식 등, 2016).

(17.6%→10.0%), 40~44세는 10.6% 포인트(21.3%→10.7%), 45~49세는 16.9% 포인트(30.8%→13.9%)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2000년에는 25~29세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15년에는 30~34세가 46.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연령대가 조사 연도의 주출산연령인 것을 감안할 때 출산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저하되면서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표 6-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¹⁾
15~24세						
반드시 해야 한다	18.7	26.0	28.6	24.7	29.2	13.2
하는 편이 좋다	33.2	38.6	35.7	42.9	38.5	39.6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2.5	26.0	34.1	31.2	29.2	43.4
하지 않는 편이 좋다	4.7	9.4	1.6	1.3	3.1	1.9
모르겠다	0.9	-	-	-	-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9)	(110)	(122)	(74)	(60)	(53)
25~29세						
반드시 해야 한다	13.9	20.8	25.0	27.2	24.2	14.4
하는 편이 좋다	30.4	32.2	37.8	34.3	44.9	43.5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51.3	41.6	34.8	36.1	28.4	36.8
하지 않는 편이 좋다	3.8	4.9	2.3	2.4	2.3	4.5
모르겠다	0.6	0.4	-	-	0.2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41)	(724)	(634)	(527)	(483)	(487)
30~34세						
반드시 해야 한다	13.9	17.6	18.1	21.4	19.0	9.7
하는 편이 좋다	31.1	30.7	32.3	32.1	43.6	38.0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9.9	45.3	47.1	42.4	33.3	46.9
하지 않는 편이 좋다	4.8	5.9	2.6	4.1	3.9	5.0
모르겠다	0.2	0.5	-	-	0.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59)	(1,463)	(1,452)	(1,046)	(1,334)	(1,724)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¹⁾
35~39세						
반드시 해야 한다	17.6	17.8	16.7	19.5	14.3	10.0
하는 편이 좋다	29.4	28.8	32.2	32.2	42.6	38.2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6.1	44.9	47.1	43.7	37.9	45.8
하지 않는 편이 좋다	5.8	8.1	4.0	4.7	4.7	5.5
모르겠다	1.0	0.5	-	-	0.5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65)	(1,701)	(1,757)	(1,553)	(1,702)	(2,451)
40~44세						
반드시 해야 한다	21.3	22.5	22.2	20.8	15.7	10.7
하는 편이 좋다	30.4	28.0	31.2	32.2	40.8	37.1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0.6	39.6	41.7	42.2	38.8	45.2
하지 않는 편이 좋다	6.7	9.2	4.9	4.7	4.5	6.4
모르겠다	0.9	0.6	-	-	0.2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77)	(1,768)	(1,653)	(1,509)	(1,981)	(3,048)
45~49세						
반드시 해야 한다	30.8	28.9	29.6	26.5	20.1	13.9
하는 편이 좋다	30.9	28.2	28.3	32.6	43.8	36.8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32.1	33.2	37.4	35.1	30.5	12.3
하지 않는 편이 좋다	5.1	8.8	4.8	5.8	5.4	6.9
모르겠다	1.1	0.8	-	-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74)	(1,396)	(1,631)	(1,513)	(1,689)	(3,244)

주: 1) 이삼식 등(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임.

2) 음영처리된 부분은 해당 연도에 우리나라 모의 평균 결혼연령층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별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19세 미만의 이른 나이에 혼인한 기혼여성이 결혼을 필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2 참조).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결혼 필요성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적 가치관을 갖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2009년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는 비율이 초등 이하(29.7%), 중학교(26.7%), 고등학교(22.4%), 대학 이상(2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3 참조). 이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 가치관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가장 최근 실시된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¹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으며, 가치관에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표 6-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반드시 해야 한다	29.5	32.6	30.0	29.7	29.3
하는 편이 좋다	27.9	26.2	26.8	26.9	34.5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32.9	26.9	33.6	33.0	25.9
하지 않는 편이 좋다	8.4	12.9	9.6	10.4	10.3
모르겠다	1.2	1.4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35)	(726)	(280)	(182)	(58)
중학교					
반드시 해야 한다	23.8	24.0	30.8	26.7	22.8
하는 편이 좋다	32.0	26.2	28.9	28.3	44.9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35.2	37.5	34.2	37.2	27.0
하지 않는 편이 좋다	8.0	11.2	6.0	7.7	5.3
모르겠다	1.0	1.2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43)	(1,201)	(695)	(505)	(285)

18)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가치관을 지닌 비율은 중졸 이하(15.1%), 고졸(7.9%), 대졸(4.4%), 대학원졸(2.0%) 순으로 높게 나타남(이삼식 등, 2015).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고등학교					
반드시 해야 한다	16.8	19.7	21.4	22.4	15.6
하는 편이 좋다	29.6	28.3	29.8	30.3	41.3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7.5	43.5	44.3	41.5	36.3
하지 않는 편이 좋다	5.3	8.1	4.4	5.7	6.5
모르겠다	0.8	0.5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947)	(4,272)	(3,801)	(3,291)	(2,956)
대학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17.4	20.2	19.8	21.4	19.3
하는 편이 좋다	32.1	33.9	35.6	36.4	43.9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7.3	41.9	42.7	39.8	34.2
하지 않는 편이 좋다	2.7	3.8	1.8	2.4	2.2
모르겠다	0.5	0.3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46)	(2,385)	(2,515)	(2,739)	(2,943)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결혼가치관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4 참조).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0.6%, 14.6%로 나타났으며,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각각 4.6%, 4.3%로 나타났다. 반면 비취업상태의 여성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취업여성에 비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2012년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각각 32.7%, 37.1%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상태와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적 가치관은 감소하는 반면에 ‘하는 편이 좋다’는 선택적 가치관과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취업					
반드시 해야 한다	20.6	22.9	23.4	22.7	20.6
하는 편이 좋다	29.3	27.4	30.1	31.7	41.7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3.6	40.1	42.1	40.1	32.7
하지 않는 편이 좋다	5.9	8.8	4.4	5.5	4.6
모르겠다	0.6	0.7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88)	(3,853)	(3,856)	(3,077)	(3,795)
비취업					
반드시 해야 한다	18.1	20.0	20.6	22.4	14.6
하는 편이 좋다	31.5	31.6	33.3	33.4	43.8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4.6	41.5	42.7	40.4	37.1
하지 않는 편이 좋다	4.9	6.5	3.3	3.8	4.3
모르겠다	0.9	0.4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304)	(3,300)	(3,393)	(3,143)	(3,454)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취업 유무뿐만 아니라 직종에 따라서도 결혼가치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필수적 가치관을 살펴보면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과 기타 직군의 역전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은 2000년에는 기타 직종(25.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서비스 및 판매직(17.1%)과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17.5%)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에는 이와는 반대로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25.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타 직종(17.6%)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반면 기타 직종은 보다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인다(표 6-5 참조).

〈표 6-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반드시 해야 한다	17.5	24.3	22.5	22.2	25.0
하는 편이 좋다	32.6	33.6	33.2	35.3	40.7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8.3	37.8	41.9	40.0	32.6
하지 않는 편이 좋다	1.6	3.5	2.4	2.5	1.5
모르겠다	0.2	0.7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19)	(537)	(770)	(608)	(961)
사무종사자					
반드시 해야 한다	19.6	22.2	21.1	22.6	21.8
하는 편이 좋다	29.3	30.8	33.6	31.4	42.5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8.2	42.3	41.5	40.9	32.3
하지 않는 편이 좋다	2.6	4.2	3.7	5.0	2.8
모르겠다	0.3	0.4	-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3)	(441)	(532)	(557)	(907)
서비스 및 판매직					
반드시 해야 한다	17.1	20.4	24.1	22.3	18.6
하는 편이 좋다	29.0	25.2	28.3	32.5	41.7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6.8	43.1	42.8	39.5	33.6
하지 않는 편이 좋다	6.5	10.6	4.8	5.7	5.6
모르겠다	0.6	0.7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02)	(1,512)	(1,501)	(878)	(1,274)
기타					
반드시 해야 한다	25.9	25.6	24.5	23.4	17.6
하는 편이 좋다	28.2	26.2	28.4	29.2	41.9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37.1	36.6	41.2	40.0	31.8
하지 않는 편이 좋다	7.9	10.8	5.8	7.4	8.6
모르겠다	0.8	0.8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34)	(1,363)	(1,053)	(1,034)	(653)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한편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직종인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에서는 동일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서비스 및 판매직과 기타 직군에서는 동일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적정 결혼연령

출산력 조사에서 적정 결혼연령이란 기혼여성(15~49세)이 결혼하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연령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조사는 2006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통합DB에는 2006~2012년의 3차년도 자료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보다 최근 경향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출산력 조사의 적정 결혼연령도 함께 제시하였다.

2006~2015년 평균 적정 결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27.3세에서 30.0세로 상승하여 2.7세 증가하였고,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은 29.7세에서 32.3세로 상승하여 2.6세 증가하였다(표 6-6 참조).

적정 결혼연령이 ‘인식’에 해당된다면 초혼연령은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적정 결혼연령과 초혼연령의 변화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초혼연령과 적정 결혼연령의 갭을 살펴보면 그 갭이 감소하여 점차 동일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인식’과 ‘행위’가 점차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¹⁹⁾

19)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가치관만을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표 6-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평균 적정 결혼연령

(단위: 세)

구분	성별	2006	2009	2012	2015 ¹⁾	증감 2006~2015
출산력 조사 적정 결혼연령	여성	27.3	28.2	28.7	30.0	+2.7
	남성	29.7	30.5	31.0	32.3	+2.6
통계청 초혼연령	여성	27.8	28.7	29.4	30.0	+2.2
	남성	31.0	31.6	32.1	32.6	+1.6
초혼연령-적정 결혼연령	여성	+0.5	+0.5	+0.7	+0.0	-
	남성	+1.3	+1.1	+1.1	+0.3	-

주: 1) 이삼식 등(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임.

자료: 1)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6-7〉은 적정 결혼연령을 2세 간격으로 범주화하여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것이다. 2006년에는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을 26~27세(35.3%)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2년에는 30~31세(36.7%)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적정 결혼연령이 점차 상승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4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2.2%)에는 2006년(0.4%)의 약 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²⁰⁾

반면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30~31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세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2006년 50% 수준에서 2012년 80%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평균 취업연령 상승 등과 맞물려 고연령 일수록 사회적으로 안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춘 후에 결혼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²¹⁾

미혼여성의 가치관을 포괄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

20)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 기혼여성이 인식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7세 이하(14.4%), 28~29세(26.4%), 30~31세(44.6%), 32~34세(10.3%), 35세 이상(4.3%)로 나타났다(이삼식 등, 2015).

21)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 기혼여성이 인식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7세 이하(1.7%), 28~29세(6.8%), 30~31세(38.0%), 32~34세(32.3%), 35세 이상(21.2%)로 나타났다(이삼식 등, 2015).

〈표 6-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여성의 적정 결혼연령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		
	2006	2009	2012	2006	2009	2012
23세 미만	1.9	0.9	0.4	0.1	0.1	0.1
24~25세	17.9	9.0	5.4	1.1	0.7	0.3
26~27세	35.3	25.9	18.5	9.8	4.1	2.4
28~29세	27.5	32.0	31.1	30.4	19.0	12.1
30~31세	15.5	27.4	36.7	42.2	46.8	44.7
32~33세	1.3	3.5	5.7	12.0	20.2	25.4
34세 이상	0.4	1.3	2.2	4.4	9.1	1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221)	(6,225)	(7,230)	(7,221)	(6,226)	(7,230)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연령별로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을 살펴 보면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15~24세 연령층이 가장 저연령으로 인식하고, 30~34세 연령층이 적정 결혼연령을 가장 고연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상승할수록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2년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에서 15~24세 연령층은 27.4세로 가장 저연령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30~34세는 29.1세로 가장 고연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인식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표 6-8 참조).

〈표 6-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연령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단위: 세, 명)

연령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2006	2009	2012	2006	2009	2012
15~24세	26.3	26.3	27.4	29.0	29.3	30.2
25~29세	27.5	28.1	28.5	30.2	30.7	31.1
30~34세	27.8	28.7	29.1	30.4	31.1	31.5
35~39세	27.5	28.4	29.0	29.9	30.9	31.3
40~44세	27.1	28.1	28.7	29.4	30.4	31.0
45~49세	26.9	27.8	28.3	29.2	30.0	30.5
전체	27.3	28.2	28.7	29.7	30.5	31.0
(대상자수)	(7,221)	(6,225)	(7,230)	(7,221)	(6,226)	(7,230)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을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정 결혼연령을 늦추어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여성과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초등 이하 학력층에서 각각 27.9세, 30.2세이고, 대학 이상 학력층에서 각각 29.0세, 31.2세로 나타나 대학 이상 학력층의 여성이 초등 이하 학력층의 여성보다 평균 적정 결혼연령을 1세 정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경제상황 등 결혼의 제반요건을 갖추는 기간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6-9 참조).

〈표 6-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교육수준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단위: 세, 명)

교육수준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2006	2009	2012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26.5	27.4	27.9	28.9	29.6	30.2
중학교	26.6	27.6	27.9	29.1	29.9	30.3
고등학교	27.1	28.0	28.5	29.6	30.4	30.9
대학 이상	27.8	28.6	29.0	30.2	30.8	31.2
전체	27.3	28.2	28.7	29.7	30.5	31.0
(대상자수)	(7,212)	(6,225)	(7,230)	(7,212)	(6,225)	(7,224)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2012년 여성과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에 대해서 19세 이하에 초혼한 여성은 각각 28.1세, 30.5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2세 이상 초혼한 여성은 각각 29.3세, 31.6세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결혼한 나이를 이상적으로 보기 위한 일종의 합리화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표 6-10 참조).

〈표 6-1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초혼연령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단위: 세, 명)

연령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2006	2009	2012	2006	2009	2012
19세 이하	26.7	27.6	28.1	29.3	29.8	30.5
20~22세	27.0	27.9	28.4	29.5	30.3	30.7
23~25세	27.3	28.1	28.5	29.7	30.4	30.9
26~28세	27.5	28.3	28.9	29.9	30.6	31.1
29~31세	28.0	28.7	29.2	30.3	30.9	31.3
32세 이상	27.9	28.9	29.3	30.4	31.4	31.6
전체	27.3	28.2	28.7	29.7	30.5	31.0
(대상자수)	(7,221)	(6,225)	(7,230)	(7,221)	(6,226)	(7,230)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반면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취업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는 다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저학력 직종인 기타 직군, 서비스 및 판매직은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전체 평균 이하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학력 직종인 사무종사자,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적정 결혼연령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11 참조).

〈표 6-1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단위: 세, 명)

취업상태 및 직종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2006	2009	2012	2006	2009	2012
비취업(무직)	27.2	28.1	28.7	29.6	30.4	31.0
취업	27.4	28.3	28.7	29.9	30.7	31.1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27.8	28.6	28.9	30.1	30.7	31.2
사무종사자	27.6	28.4	28.9	30.0	30.7	31.2
서비스 및 판매직	27.2	28.0	28.7	29.6	30.8	30.9
기타	26.7	27.7	28.2	29.1	30.4	30.5
전체	27.3	28.2	28.7	29.7	30.5	31.0
(대상자수)	(7,221)	(6,224)	(7,230)	(7,221)	(6,225)	(7,230)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평균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는 출생코호트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각 연도별로 평균 초혼연령대(27~30세)에 해당하는 출생코호트군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초혼연령 코호트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27.1세에서 28.1세로 상승하였으며, 남성의 결혼연령은 29.8세에서 30.8세로 상승하였다. 또한 이는 각 연도별로 33~35세에 해당하는 출생코호트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36세 이후의 여성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12 참조).

반면 출생코호트 1985년 이상에 해당하는 30대 미만 기혼여성들은 평균 적정 결혼연령을 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가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것에 대한 합리화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코호트군에서도 여성의 경우 25.2세에서 28.1세로, 남성의 경우 27.3세에서 30.8세로 상승하여 합리화 효과를 감안한다면 초혼연령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동일 코호트군의 연도별 변화이다. 동일 코호트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평균 적정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61~1963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여성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1.3세(27.0세→28.3세) 증가하였고, 남성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1.1세(29.3세→30.4세) 증가하였다. 반면 1985년 이상 코호트군의 경우 여성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2.9세(25.2세→28.1세) 증가하였고, 남성 평균 적정 결혼연령은 3.5세(27.3세→30.8세) 증가하여 1961~1963년 출생 코호트군보다 더 큰 증가율을 보여준다. 즉 동일 코호트군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정 결혼연령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빠른 출생코호트군보다 늦은 출생코호트군에서 보다 큰 증가율을 보인다. 1985년 이상 코호트군에서 더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앞서

기술한 일종의 ‘합리화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1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출생코호트별 성별 평균 적정 결혼연령

(단위: 세, 명)

출생코호트	여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남성의 평균 적정 결혼연령		
	2006	2009	2012	2006	2009	2012
1955~1957년	26.8	-	-	29.2	-	-
1958~1960년	26.9	27.8	-	29.2	29.9	-
1961~1963년	27.0	27.8	28.3	29.3	30.0	30.4
1964~1966년	27.1	28.1	28.3	29.5	30.2	30.5
1967~1969년	27.4	28.2	28.5	29.9	30.5	30.7
1970~1972년	27.6	28.5	28.8	30.1	30.9	31.1
1973~1975년	27.9	28.5	28.9	30.4	30.9	31.2
1976~1978년	27.6	28.7	29.0	30.4	31.1	31.3
1979~1981년	27.1	28.4	29.1	29.8	30.9	31.5
1982~1984년	26.4	27.5	28.8	29.3	30.3	31.3
1985년 이상	25.2	26.2	28.1	27.3	29.1	30.8
전체	27.3	28.2	28.7	29.7	30.5	31.0
(대상자수)	(7,221)	(6,226)	(7,230)	(7,221)	(6,226)	(7,230)

주: 음영처리된 출생코호트는 각 연도별로 평균 결혼연령에 해당하는 코호트임.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3. 이혼 및 재혼 가치관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2000년 11만9,455건에서 2015년 10만 9,153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혼인 건수가 33만2,090건에서 30만 2,828건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이혼율 자체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재혼 건수는 9만1,502건에서 9만9,13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혼인 건수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7.6%에서 32.7%까지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a). 이러한 이혼 및 재혼의 증가 추세와는 반대로 출산율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혼 및 재혼 가치관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00~2012년 기혼여성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하여 그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를 살펴보면 2000~2012년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13.8%에서 26.2%로 12.4% 포인트 증가한 반면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각각 37.1%에서 30.6%, 10.4%에서 4.1%로 6.5% 포인트, 6.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33.9%에서 36.4%로 2.5% 포인트 미미하게 증가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일부 유입되면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6-13 참조).

〈표 6-1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이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모르겠다	계(명)
2000년	3.5	13.8	33.9	37.1	10.4	1.3	100.0 (6,293)
2003년	3.2	16.4	33.2	35.3	11.1	0.8	100.0 (7,162)
2006년	2.6	12.4	37.9	38.8	7.8	0.6	100.0 (7,251)
2009년	2.3	20.3	35.5	35.3	6.3	0.3	100.0 (6,225)
2012년	2.5	26.2	36.4	30.6	4.1	0.2	100.0 (7,246)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이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큰 경향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주출산연령층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층의 최근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에는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30.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저하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표 6-14 참조).

〈표 6-1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이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6.1	5.5	2.4	2.6	-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6.4	21.3	14.3	20.8	23.1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41.8	33.9	34.9	27.3	33.8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28.2	26.0	36.5	41.6	32.3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6.1	11.8	10.3	6.5	9.2
모르겠다	1.4	1.6	1.6	1.3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9)	(110)	(122)	(74)	(60)
25~29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4.6	2.9	2.3	3.5	4.2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9.8	19.3	14.5	20.2	24.6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8.9	38.8	37.4	38.6	33.1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28.6	30.6	38.5	30.7	35.2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6.5	7.5	6.4	6.8	2.8
모르겠다	1.6	0.9	0.9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41)	(724)	(634)	(527)	(482)
30~34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4.1	3.3	4.1	2.0	3.6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4.1	16.9	12.4	21.3	30.8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6.9	37.6	40.2	37.1	34.2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5.7	31.9	36.2	33.4	27.4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8.3	9.3	6.5	5.8	3.9
모르겠다	0.8	0.9	0.6	0.4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58)	(1,463)	(1,453)	(1,046)	(1,334)
35~39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2.9	3.6	2.1	2.1	2.4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2.3	17.4	13.5	21.8	26.5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2.6	35.0	41.2	35.1	38.0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40.4	34.3	36.5	35.9	29.7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0.2	9.2	6.2	4.8	3.2
모르겠다	1.6	0.5	0.3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65)	(1,701)	(1,758)	(1,554)	(1,701)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40~44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4	2.8	2.1	3.2	2.8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2.5	15.3	10.8	19.3	25.8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2.4	30.6	36.7	35.0	38.5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8.0	39.7	40.7	35.3	29.3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2.4	10.6	9.1	6.9	3.6
모르겠다	1.2	0.9	0.7	0.3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77)	(1,768)	(1,654)	(1,509)	(1,980)
45~49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2.1	3.3	2.4	1.6	1.1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1.2	14.0	11.7	18.8	23.6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27.7	26.8	33.7	34.5	35.3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42.6	37.7	41.9	37.5	33.9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5.1	17.8	9.8	7.4	5.9
모르겠다	1.3	0.5	0.5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73)	(1,396)	(1,630)	(1,515)	(1,689)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이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혼에 대한 태도를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대학 이상(27.4%), 고등학교(25.8%), 중학교(19.2%), 초등 이하(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중학교(37.1%), 초등 이하(36.2%), 고등학교(30.7%), 대학 이상(29.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고학력일수록 이혼을 보다 선택적 차원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표 6-15 참조).

또한 초등 이하, 중학교의 저학력 여성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교 학력 여성은 2006년부터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돌아섰으며, 대학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이보다 이른 2003년부터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아졌다. 즉 추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

겠으나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이혼을 선택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추측된다.

〈표 6-1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이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1	2.6	2.5	2.7	-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9.4	12.7	8.2	20.1	15.5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28.2	22.5	28.4	27.7	34.5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9.8	37.7	46.5	38.6	36.2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7.7	24.2	12.8	9.8	12.1
모르겠다	1.8	0.3	1.8	1.1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26)	(654)	(289)	(175)	(59)
중학교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2.8	3.0	1.9	1.0	1.7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1.0	15.4	10.6	19.8	19.2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2.5	27.8	31.0	31.9	35.7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9.1	38.5	45.4	39.2	37.1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2.6	14.3	10.5	7.7	5.9
모르겠다	2.0	1.1	0.6	0.4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4)	(1,028)	(703)	(460)	(261)
고등학교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4	3.5	2.8	2.2	2.3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3.7	17.1	12.1	20.0	25.8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5.1	34.4	39.0	35.8	37.3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7.1	34.7	37.5	34.8	30.7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9.5	9.5	8.0	6.8	3.8
모르겠다	1.2	0.8	0.6	0.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75)	(3,601)	(3,777)	(2,972)	(3,239)
대학 이상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4.1	3.0	2.4	2.7	2.8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7.5	16.7	13.8	20.6	27.4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4.4	37.0	39.0	36.3	35.6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5.0	34.1	38.2	35.0	29.7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8.2	8.5	6.2	5.2	4.1
모르겠다	0.9	0.7	0.4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35)	(1,872)	(2,473)	(2,617)	(3,681)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는 이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의 긍정적인 의견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2000년 17%에서 2012년 28%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2000년 47% 내외 수준에서 2012년 34%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혼여성의 직종에 따라서도 이혼가치관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큰 경향성을 보이지 않아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부표 2-3~2-4 참조).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에 따라 이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또한 그 경향성은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31세 미만에 초혼한 기혼여성의 경우 이혼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의 긍정적인 의견은 그 증가 폭이 크고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의 부정적인 의견은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31세 이상에 초혼한 기혼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의 증가 폭은 적고 부정적인 의견의 감소 폭은 크게 나타나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32세가 넘어서 초혼한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그 변화가 가장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늦게 초혼을 한 만큼 현재의 결혼 상태를 잘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부표 2-5 참조).

나. 재혼에 대한 태도

기혼여성의 재혼에 대한 가치관은 조사 연도와 무관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6년의 50.2%에서 2012년의 58.9%로 8.7% 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2006~2012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각각

22.0%에서 19.4%, 5.1%에서 2.0%로 2.6% 포인트, 3.1%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하는 것이 좋다’의 긍정적인 의견은 15.8%에서 17.4%로 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에는 재혼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혼인율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의 급증 현상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6-16 참조).

〈표 6-1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되고 안 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	계(명)
2000년	0.6	15.8	50.2	22.0	5.1	6.3	100.0 (6,289)
2003년	0.8	19.1	49.3	20.7	5.2	4.8	100.0 (7,151)
2006년	0.4	16.0	55.8	21.3	3.0	3.4	100.0 (7,242)
2009년	0.5	18.9	52.8	21.4	3.3	3.2	100.0 (6,223)
2012년	0.3	17.4	58.9	19.4	2.0	2.0	100.0 (7,246)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연령별로 재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25~29세 연령층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5~49세 연령층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35세 미만은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35세 이상은 부정적인 의견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2009년의 경우 ‘하는 것이 좋다’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각각 25~29세는 24.0%, 12.5%, 30~34세는 21.1%, 16.8%, 35~39세는 17.2%, 20.6%, 40~44세는 17.6%, 23.7%, 45~49세는 18.2%, 26.2%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장기간 유지했을 45~49세의 여성은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6-17 참조).

〈표 6-1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	2.4	0.8	-	1.5
하는 것이 좋다	14.1	16.5	19.0	22.1	18.5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4.9	53.5	58.7	48.1	56.9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6.9	13.4	14.3	20.8	18.5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8	7.1	3.2	5.2	1.5
모르겠다	10.3	7.1	4.0	3.9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9)	(110)	(122)	(74)	(59)
25~29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3	0.6	0.6	0.5	0.7
하는 것이 좋다	17.4	20.8	18.6	24.0	19.8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8.1	56.0	61.9	56.3	63.7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4.4	13.3	12.2	12.5	11.4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1	3.4	1.7	2.8	1.2
모르겠다	6.7	5.9	5.0	3.8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41)	(723)	(633)	(527)	(483)
30~34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6	0.6	0.3	0.3	0.3
하는 것이 좋다	17.5	20.2	15.5	21.1	15.4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4.3	53.7	62.6	54.9	64.8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5	16.6	15.8	16.8	14.8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4	3.3	2.7	2.2	2.0
모르겠다	6.8	5.6	3.1	4.7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58)	(1,461)	(1,451)	(1,045)	(1,333)
35~39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5	0.4	0.6	0.8	0.4
하는 것이 좋다	14.7	18.0	14.0	17.2	18.2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9.9	51.7	58.6	55.0	59.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3.7	21.9	20.4	20.6	18.0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5.2	3.8	3.0	3.2	2.1
모르겠다	5.9	4.2	3.4	3.2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62)	(1,697)	(1,754)	(1,555)	(1,702)
40~44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6	1.1	0.4	0.5	0.2
하는 것이 좋다	15.3	18.8	16.0	17.6	15.9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6.1	47.0	52.4	52.6	57.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5.6	22.5	24.8	23.7	22.8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6.3	5.7	2.8	3.4	1.9
모르겠다	6.1	4.9	3.6	2.2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77)	(1,766)	(1,653)	(1,508)	(1,979)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45~49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8	1.0	0.4	0.4	0.2
하는 것이 좋다	14.3	19.2	17.4	18.2	19.0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2.6	41.2	47.7	48.2	54.5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8.9	25.4	27.6	26.2	22.7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7.8	9.0	4.2	4.2	2.1
모르겠다	5.5	4.2	2.7	2.8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72)	(1,394)	(1,629)	(1,514)	(1,690)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초혼연령별 재혼에 대한 태도는 2012년의 경우 초혼연령과 무관하게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17% 내외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의견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혼연령이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나이에 초혼하여 비교적 짧은 결혼지속기간을 지나는 여성이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부표 2-6 참조).

재혼에 대한 기혼여성의 의견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긍정과 부정 의견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의 긍정적인 의견은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의 부정적인 의견은 고학력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즉 2012년의 경우 ‘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대학 이상(17.7%), 초등 이하(17.5%), 중학교(17.2%), 고등학교(17.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초등 이하(29.8%), 중학교(26.7%), 고등학교(22.4%), 대학 이상(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의 다소 유보적인 의견은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학력일수록 재혼을 보다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6-18 참조).

〈표 6-1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4	1.5	0.0	0.5	-
하는 것이 좋다	14.8	18.7	16.0	18.6	17.5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33.3	33.6	37.9	42.1	49.1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4.4	29.3	38.3	30.1	29.8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12.0	12.4	4.3	7.7	1.8
모르겠다	5.1	4.4	3.5	1.1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25)	(652)	(289)	(175)	(59)
중학교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6	0.6	0.1	0.6	-
하는 것이 좋다	15.6	17.6	18.3	16.8	17.2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3.3	40.8	42.7	42.6	51.6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6.3	28.2	29.4	32.1	26.7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6.9	8.1	5.3	5.7	3.5
모르겠다	7.2	4.8	4.2	2.2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3)	(1,028)	(702)	(460)	(261)
고등학교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6	0.8	0.5	0.5	0.2
하는 것이 좋다	16.1	19.3	15.3	18.5	17.1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1.4	49.5	54.3	50.4	55.9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0	20.8	23.1	23.3	22.4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4.1	4.6	3.4	3.8	2.5
모르겠다	7.0	4.9	3.4	3.4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72)	(3,595)	(3,769)	(2,971)	(3,237)
대학 이상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6	0.6	0.5	0.5	0.4
하는 것이 좋다	15.6	19.7	16.4	19.6	17.7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8.5	58.1	63.7	58.2	62.9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6.8	14.1	14.4	16.5	15.4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5	2.7	1.8	1.9	1.4
모르겠다	4.9	4.9	3.2	3.2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36)	(1,869)	(2,473)	(2,616)	(3,683)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러한 인식은 현실적인 행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8~2012년 우리나라 여성의 전체 재혼 건수는 6만 2,758건에서 5만 6,488건으로 감소하여 6,270건 감소하였다. 그러나 35~39세 대졸 이상 여성 중 재혼 인구는 7,288명에서 8,982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재혼 건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1.5%에서 15.9%로 증가하여 고학력 여성일 수록 재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b).

재혼 의견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유보적인 의견은 낮게 나타나 재혼에 대해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2012년의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에게서 각각 14.9%에서 17.8%, 16.4%에서 16.9%로 2.9% 포인트, 0.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각각 24.3%에서 19.7%, 20.1%에서 19.0%로 4.6% 포인트, 1.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0년과 2012년 간의 변화에서 취업여성의 긍정적인 의견은 증가 폭이 크고 부정적인 의견은 더 감소하여, 2012년에 이르러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갭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19 참조).

〈표 6-1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취업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5	0.8	0.4	0.5	0.2
하는 것이 좋다	14.9	17.7	16.3	19.5	17.8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7.9	48.4	53.6	51.7	57.9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4.3	22.2	23.0	22.0	19.7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6.1	6.2	3.2	3.2	2.1
모르겠다	6.3	4.7	3.4	3.0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83)	(3,847)	(3,852)	(3,077)	(3,796)
비취업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6	0.7	0.5	0.5	0.3
하는 것이 좋다	16.4	20.6	15.7	18.2	16.9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2.2	50.5	58.4	54.0	60.1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1	19.0	19.3	20.7	19.0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4.3	4.1	2.9	3.4	1.8
모르겠다	6.4	5.0	3.4	3.3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303)	(3,295)	(3,390)	(3,145)	(3,450)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를 조금 더 세부적인 직종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견에서의 경향성은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고학력 직종일수록 부정적인 의견은 낮게, 유보적인 의견은 높게 나타났다. 즉 2000년과 2012년의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17.2%, 15.4%), 사무종사자(17.6%, 15.8%), 서비스 및 판매직(24.2%, 22.1%), 기타(30.9%, 27.2%)의 고학력 직종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58.2%, 59.9%), 사무종사자(54.1%, 65.3%), 서비스 및 판매직(47.9%, 53.7%), 기타(39.7%, 52.3%)의 고학력 직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20 참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적 능력이 보장되어 있는 취업여성,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의 여성이 재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고 불안정한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직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가치관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관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표 6-2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	0.6	0.1	0.5	0.4
하는 것이 좋다	15.0	18.8	16.1	17.9	20.0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8.2	60.3	65.3	60.9	59.9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2	12.3	14.2	15.8	15.4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4.1	3.4	1.3	1.6	1.6
모르겠다	5.5	4.7	3.0	3.3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19)	(537)	(770)	(608)	(962)
사무종사자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9	1.1	1.1	0.4	0.2
하는 것이 좋다	19.7	19.5	17.7	17.4	15.1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4.1	52.2	56.2	60.2	65.3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6	17.5	18.0	16.5	15.8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2.6	4.5	2.3	2.2	1.9
모르겠다	5.2	5.2	4.7	3.4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3)	(441)	(532)	(558)	(907)
서비스 및 판매직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4	1.0	0.3	0.7	0.2
하는 것이 좋다	15.0	18.5	16.4	21.2	19.2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7.9	44.8	51.2	49.1	53.7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4.2	24.4	25.2	22.4	22.1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6.8	7.2	3.5	4.0	2.8
모르겠다	5.7	4.0	3.3	2.6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02)	(1,507)	(1,498)	(878)	(1,274)
기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9	0.8	0.4	0.4	0.5
하는 것이 좋다	14.6	17.0	18.5	20.5	16.2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39.7	42.9	42.2	42.7	52.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0.9	26.8	30.0	29.5	27.2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7.0	7.6	5.5	4.8	2.2
모르겠다	6.9	4.9	3.4	2.1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29)	(1,360)	(1,052)	(1,031)	(653)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 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제2절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은 가족가치관의 하위 개념으로 자녀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 즉 자녀의 필요성, 필요한 이유, 자녀의 성별선호, 성별선호를 하는 이유 등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다.

출산력 조사 DB에서 자녀가치관과 관련된 변수는 자녀 필요성, 아들 필요성과 아들이 필요한 이유 등이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해당 변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만 이 중에서 ‘아들이 필요한 이유’ 변수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해’, ‘경제적 도움

을 받기 위해' 등의 개별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라는 응답을 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별로 경향성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연도별로만 살펴보았다.

1. 자녀 필요성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꼭 있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1985년 80.9%에서 2012년 46.4%로 34.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없어도 상관없다'는 선택적 인식은 같은 기간 각각 9.7%에서 37.6%, 8.9%에서 15.7%로 27.9% 포인트, 6.8% 포인트 증가하여 자녀에 대한 '필수적' 인식보다는 '선택적' 인식이 보다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21 참조).²²⁾ 또한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속해 있는 기혼여성의 인식에 한정된 것으로, 아직 결혼제도에 미진입한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 미혼여성에게 자녀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꼭 있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28.4%로 나타났으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또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선택적 인식은 각각 40.0%, 29.5%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삼식 등, 2015).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이 1985년에는 40~49세 기혼여성(91.4%)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25~29세 기혼여성(68.6%)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22) 2015년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분포는 '꼭 있어야 한다' 60.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29.0%, '없어도 상관없다' 10.6%, '모르겠다' 0.1%임(이삼식 등, 2016).

1985년에는 15~24세 기혼여성(14.9%)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30~34세(11.2%)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22 참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해당 연도에 우리나라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가치관 변화이다.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3년 26.2세에서 2011년 30.1세로 증가하여 최초로 30대에 접어들었으며, 2015년 현재 31.2세까지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b). <표 6-22>에서 평균 출산연령이 30대에 접어들기 직전인 25~29세 기혼여성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이 2009년에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출산연령이 30대 이상으로 접어든 직후인 30~34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수적 인식은 2012년에는 44.5%로 급감하였다. 또한 2015년에 접어들어 58.4%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치이며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평균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자녀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6-2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겠다	계(명)
1985년	80.9	9.7	8.9	0.5	100.0 (5,091)
1988년	83.0	8.2	8.7	0.2	100.0 (7,785)
1991년	90.3	- ¹⁾	8.5	1.2	100.0 (7,368)
1994년	78.4	14.0	7.5	0.2	100.0 (6,045)
1997년	74.4	16.2	9.1	0.3	100.0 (6,436)
2000년	58.1	31.2	10.2	0.6	100.0 (6,293)
2003년	55.2	31.5	12.7	0.5	100.0 (7,156)
2006년	54.7	33.2	12.1	-	100.0 (7,251)
2009년	55.4	33.0	11.6	-	100.0 (6,226)
2012년	46.4	37.6	15.7	0.3	100.0 (7,257)

주: 1) 1991년 조사는 해당 응답항목이 없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6-2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1985	1988	1991 ¹⁾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²⁾
15~24세											
꼭 있어야 한다	70.9	77.1	84.0	67.3	65.0	49.8	60.3	57.9	57.1	56.5	65.4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3.1	10.6	-	16.8	20.8	32.4	24.6	27.8	36.4	30.4	26.9
없어도 상관없다	14.9	12.4	13.6	15.6	13.3	17.8	15.1	14.3	6.5	11.6	7.7
모르겠다	1.1	-	2.4	0.3	0.8	-	-	-	-	1.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41)	(524)	(373)	(306)	(251)	(179)	(110)	(122)	(74)	(65)	(52)
25~29세											
꼭 있어야 한다	76.9	81.2	89.1	74.4	74.1	57.8	55.0	54.0	61.0	51.7	68.6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3.0	9.8	-	16.6	16.5	29.5	31.1	34.4	28.6	32.9	22.6
없어도 상관없다	9.8	8.8	9.1	8.9	8.8	12.7	12.9	11.7	10.5	15.3	8.4
모르겠다	0.3	0.2	1.8	0.2	0.6	0.1	1.1	-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53)	(1,844)	(1,436)	(1,094)	(1,071)	(941)	(723)	(634)	(527)	(483)	(487)
30~34세											
꼭 있어야 한다	79.3	80.8	89.6	78.2	73.9	57.7	54.9	52.7	55.0	44.5	58.4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0.3	9.5	-	15.3	17.0	32.8	32.0	34.6	31.4	40.3	30.3
없어도 상관없다	10.0	9.4	9.7	6.3	8.8	9.3	12.2	12.7	13.6	14.6	11.2
모르겠다	0.4	0.3	0.8	0.1	0.3	0.2	0.9	-	-	0.5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13)	(1,813)	(1,803)	(1,466)	(1,413)	(1,258)	(1,462)	(1,453)	(1,046)	(1,333)	(1,725)
35~39세											
꼭 있어야 한다	80.9	82.3	90.7	79.8	74.1	58.0	52.9	53.0	53.4	43.1	60.3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8.4	8.1	-	12.6	15.7	31.5	32.6	34.3	34.5	36.9	28.6
없어도 상관없다	10.1	9.5	8.3	7.6	10.0	9.6	14.0	12.7	12.1	19.8	10.8
모르겠다	0.6	0.2	1.0	0.1	0.2	1.0	0.5	-	-	0.1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52)	(1,397)	(1,533)	(1,401)	(1,583)	(1,464)	(1,699)	(1,758)	(1,556)	(1,704)	(2,451)
40~44세											
꼭 있어야 한다	85.0	86.3	92.8	81.8	73.3	58.0	53.9	54.0	53.9	45.4	60.9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7.8	5.8	-	12.5	16.7	31.7	32.2	33.3	34.2	38.7	28.6
없어도 상관없다	6.6	7.9	6.2	5.5	9.8	9.8	13.4	12.7	11.8	15.6	10.8
모르겠다	0.5	-	1.0	0.2	0.2	0.5	0.5	-	-	0.4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22)	(1,136)	(1,268)	(986)	(1,219)	(1,377)	(1,767)	(1,654)	(1,508)	(1,983)	(3,049)
45~49세											
꼭 있어야 한다	91.4	90.4	92.5	82.5	80.2	60.6	59.8	59.2	57.0	49.9	59.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4.7	4.1	-	10.6	13.4	29.7	29.4	30.4	32.8	36.5	30.1
없어도 상관없다	3.1	4.9	6.3	6.3	5.9	8.9	10.6	10.4	10.2	13.2	10.8
모르겠다	0.7	0.6	1.1	0.5	0.5	0.9	0.1	-	-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10)	(1,071)	(955)	(792)	(899)	(1,074)	(1,395)	(1,630)	(1,515)	(1,689)	(3,244)

주: 1) 1991년 조사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응답항목이 없음.

2) 이삼식 등(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임.

3) 음영처리된 부분은 해당 연도에 우리나라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층을 의미함. 평균 출산 연령에 대한 통계청 자료는 1993~2015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1994년부터만 표기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별로는 자녀 필요성에 대해서 1985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1997년에서 2000년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자녀 필수적 인식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22세의 이른 나이에 초혼한 기혼여성의 경우 1997년 76.2%에서 2000년 57.5%로 급감하였으며, 32세 이상의 늦은 나이에 초혼한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59.0%에서 44.1%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에 들어서는 29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서 자녀 필수적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경향성은 뚜렷하지 않다(부표 2-7 참조).

이러한 자녀 필요성 가치관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학력일수록 자녀 필수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1985년에는 자녀 필수적 인식이 초등 이하(86.0%), 중학교(79.3%), 고등학교(76.6%), 대학 이상(74.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012년에는 초등 이하의 학력층을 제외하면 자녀 필수적 인식은 4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는 35%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23 참조).

〈표 6-2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1985	1988	1991 ¹⁾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꼭 있어야 한다	86.0	89.5	93.4	86.3	78.5	62.2	67.5	63.0	61.2	67.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7.5	4.5	-	10.4	14.6	30.1	22.4	24.2	30.1	13.8
없어도 상관없다	5.7	5.5	5.3	3.0	6.4	6.4	10.1	12.8	8.7	19.0
모르겠다	0.8	0.5	1.3	0.2	0.5	1.4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247)	(2,499)	(1,755)	(1,156)	(941)	(727)	(653)	(289)	(175)	(58)

구분	1985	1988	1991 ¹⁾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중학교										
꼭 있어야 한다	79.3	82.7	90.9	79.3	75.6	59.3	56.5	62.9	55.4	45.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0.2	8.5	-	13.6	17.1	29.7	30.7	26.9	33.7	39.2
없어도 상관없다	9.9	8.6	8.0	6.9	7.0	10.2	12.1	10.2	10.9	15.0
모르겠다	0.6	0.2	1.1	0.2	0.3	0.7	0.7	-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51)	(2,219)	(1,917)	(1,406)	(1,245)	(1,055)	(1,028)	(703)	(460)	(262)
고등학교										
꼭 있어야 한다	76.6	79.7	89.2	77.9	74.8	57.8	54.8	55.1	56.6	47.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1.6	10.4	-	13.9	15.4	31.4	31.3	32.0	31.7	36.0
없어도 상관없다	11.5	9.8	9.6	8.1	9.5	10.4	13.1	12.8	11.8	16.6
모르겠다	0.2	0.1	1.1	0.1	0.3	0.4	0.8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42)	(2,419)	(2,970)	(2,643)	(3,012)	(3,072)	(3,599)	(3,777)	(2,973)	(3,241)
대학 이상										
꼭 있어야 한다	74.7	75.2	86.1	70.6	70.0	56.3	51.8	50.9	53.5	45.4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2.7	10.4	-	18.2	18.0	32.2	34.9	37.6	34.7	39.4
없어도 상관없다	12.7	14.4	12.3	10.9	11.6	11.0	13.1	11.5	11.8	14.9
모르겠다	-	-	1.6	0.3	0.4	0.5	0.3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8)	(645)	(719)	(835)	(1,234)	(1,436)	(1,869)	(2,473)	(2,617)	(3,690)

주: 1) 1991년 조사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응답항목이 없음.

2)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 가치관은 경제활동 상태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부표 2-8 참조). 반면 직종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88년 자녀 필수적 인식은 관리직·전문직(77.7%), 사무종사자(77.4%), 서비스 및 판매직(82.3%), 기타(88.0%) 순으로 고위직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나 2012년에 들어서는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의 자녀 필수적 인식이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직종 여성들의 자녀 부정적 인식도 10.4%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 필요성을 보다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표 6-24 참조).

〈표 6-2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1985	1988	1991 ¹⁾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꼭 있어야 한다	77.8	77.7	84.5	69.5	72.7	57.0	49.9	52.0	53.5	50.3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6.8	10.1	-	18.0	17.6	29.9	35.4	36.3	36.0	39.1
없어도 상관없다	15.4	12.2	12.8	12.5	9.5	12.5	13.8	11.7	10.5	10.4
모르겠다	-	-	2.7	-	0.2	0.5	0.9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1)	(148)	(151)	(243)	(384)	(418)	(537)	(770)	(608)	(961)
사무종사자										
꼭 있어야 한다	80.0	77.4	86.9	78.5	74.3	55.3	53.8	50.5	48.0	43.3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7.4	9.6	-	13.5	17.0	35.0	30.7	36.3	37.2	38.3
없어도 상관없다	12.6	13.0	11.5	8.0	8.3	9.3	14.8	13.3	14.8	18.3
모르겠다	-	-	1.5	-	0.5	0.3	0.8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1)	(115)	(124)	(148)	(191)	(233)	(441)	(532)	(559)	(908)
서비스 및 판매직										
꼭 있어야 한다	80.5	82.3	89.5	77.2	75.4	55.3	55.2	58.5	54.4	45.7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0.5	8.0	-	14.1	15.7	32.4	29.9	28.9	33.9	37.4
없어도 상관없다	8.8	9.3	9.4	8.6	8.8	11.9	14.3	12.6	11.6	16.8
모르겠다	0.3	0.4	1.1	0.1	0.1	0.4	0.6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92)	(1,113)	(1,099)	(877)	(1,087)	(1,102)	(1,511)	(1,500)	(878)	(1,278)
기타										
꼭 있어야 한다	80.3	88.0	92.6	82.1	76.5	63.3	59.5	56.3	56.2	48.7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0.2	5.5	-	12.7	16.0	27.8	28.4	30.7	33.8	33.1
없어도 상관없다	9.2	6.3	6.8	5.0	7.0	7.9	11.9	12.9	10.0	17.9
모르겠다	0.3	0.2	0.6	0.2	0.4	1.0	0.2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64)	(1,824)	(1,237)	(1,537)	(1,299)	(1,233)	(1,361)	(493)	(1,032)	(644)

주: 1) 1991년 조사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응답항목이 없음.

2)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3)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 아들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근간은 직계가족제도로, 장자를 통해 가계를 전승하는 문화에 따라 남아선호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딸보다는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성감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모자보건법에서 성감별에 따른 불법낙태를 방지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76~2012년간의 아들 필요성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아들 필요성

아들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가족가치관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1976년과 2012년에 완전한 역전현상을 보여준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1976년 60.5%였으나 2012년에는 8.8%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같은 기간 28.4%에서 57.3%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2년 현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10명 중 0.8명만이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4명은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0명 중 5.7명은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희미해졌음을 알 수 있다(표 6-25 참조).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1976년에는 아들 필수적 인식이 45~49세 71.7%, 35~39세 62.3%, 25~29세 52.6%로 나타나 높은 연령일수록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2009년부터는 30대 기혼여성의 아들 필수적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즉 아들 필수적 인식은 2009년 30~34세 7.8%, 35~39세 6.5%로 낮게 나타난 반면 15~24세 15.6%, 25~29세 11.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6-26 참조).

〈표 6-2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겠다	계 (명)
1976년	60.5	10.7	28.4	0.3	100.0 (6,020)
1985년	43.1	20.2	35.5	1.2	100.0 (5,092)
1988년	33.9	19.2	46.5	0.4	100.0 (7,785)
1991년	40.6	30.7	28.0	0.8	100.0 (7,368)
1994년	28.8	33.0	37.6	0.5	100.0 (6,051)
1997년	27.6	33.9	37.7	0.8	100.0 (6,436)
2000년	18.0	42.8	38.2	1.0	100.0 (6,282)
2003년	16.3	40.0	43.0	0.7	100.0 (7,162)
2006년	11.0	39.4	48.9	0.7	100.0 (7,252)
2009년	9.1	40.2	50.7	0.1	100.0 (6,227)
2012년	8.8	33.4	57.3	0.4	100.0 (7,252)
2015년 ¹⁾	5.7	28.8	65.2	0.4	100.0 (11,008)

주: 1) 이삼식 등(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6-2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1976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꼭 있어야 한다	52.0	24.8	15.9	28.0	18.4	22.9	11.8	15.7	13.5	15.6	15.9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9.3	24.0	18.8	29.6	27.3	29.2	38.4	34.6	38.9	41.6	31.9
없어도 상관없다	38.7	50.2	65.3	41.4	54.0	47.5	47.4	47.2	46.8	42.9	49.3
모르겠다	-	1.1	-	1.0	0.3	0.4	2.4	2.4	0.8	-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36)	(441)	(524)	(372)	(306)	(251)	(178)	(110)	(122)	(74)	(65)
25~29세											
꼭 있어야 한다	52.6	28.1	22.8	27.7	17.8	19.1	10.8	14.6	10.9	11.3	13.0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2.8	23.3	20.5	35.3	36.1	33.5	41.2	37.9	38.3	40.3	31.6
없어도 상관없다	34.5	47.6	55.9	36.0	45.7	46.5	46.7	46.8	50.4	48.3	55.0
모르겠다	0.2	1.0	0.7	1.0	0.4	0.9	1.3	0.7	0.5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31)	(1,153)	(1,844)	(1,435)	(1,095)	(1,071)	(939)	(724)	(634)	(527)	(483)
30~34세											
꼭 있어야 한다	56.8	38.9	27.0	34.1	24.3	20.4	12.9	12.8	9.2	7.8	8.6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2.6	22.0	22.7	33.9	37.5	37.9	42.9	41.7	37.8	40.0	35.5
없어도 상관없다	29.9	37.6	49.9	31.3	37.2	40.9	43.1	44.8	52.1	52.1	55.2
모르겠다	0.7	1.5	0.4	0.7	0.9	0.8	1.2	0.6	0.9	0.1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49)	(1,013)	(1,813)	(1,803)	(1,468)	(1,413)	(1,255)	(1,462)	(1,453)	(1,046)	(1,332)

구분	1976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35~39세											
꼭 있어야 한다	62.3	43.3	36.9	41.3	29.4	26.2	17.2	12.2	8.8	6.5	7.6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0.5	21.4	19.4	31.1	33.4	34.0	43.0	41.5	39.5	38.5	29.9
없어도 상관없다	26.9	33.7	43.3	26.6	36.9	39.0	38.6	45.6	51.0	54.9	62.1
모르겠다	0.3	1.6	0.4	0.9	0.3	0.8	1.2	0.7	0.8	0.1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84)	(852)	(1,397)	(1,534)	(1,402)	(1,583)	(1,462)	(1,701)	(1,758)	(1,556)	(1,704)
40~44세											
꼭 있어야 한다	68.7	57.0	44.7	50.4	37.8	32.8	22.2	17.3	11.0	10.4	7.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9.6	17.0	17.3	28.4	29.3	34.6	43.8	41.3	40.3	38.1	33.7
없어도 상관없다	21.2	25.0	37.8	20.6	32.4	31.7	33.3	40.4	47.9	51.4	58.9
모르겠다	0.6	1.0	0.2	0.6	0.5	0.8	0.7	1.0	0.8	0.1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24)	(822)	(1,136)	(1,269)	(986)	(1,219)	(1,376)	(1,769)	(1,655)	(1,509)	(1,980)
45~49세											
꼭 있어야 한다	71.7	70.4	60.5	63.1	46.7	46.2	27.8	24.3	14.9	10.2	10.3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7.8	11.9	12.5	20.5	25.7	27.9	43.2	36.5	40.4	44.2	35.5
없어도 상관없다	20.4	17.0	26.7	16.1	27.0	25.3	28.4	38.8	44.2	45.6	53.9
모르겠다	0.1	0.7	0.3	0.3	0.7	0.7	0.6	0.4	0.4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96)	(811)	(1,071)	(955)	(794)	(899)	(1,072)	(1,396)	(1,630)	(1,515)	(1,688)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는 저연령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추가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 남아선호사상을 고수하고 있을 시부모에 대한 부담으로 일종의 ‘학습된 사회화’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들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별로 살펴보면 1976~2006년에는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초혼연령과 무관하게 10% 내외 수준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2012년에 이러한 인식은 19세 미만 48.8%, 23~25세 56.1%, 29~31세 62.3% 등으로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결혼한 기혼여성의 경우 가임기간의 감소로 성별선택 없이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표 6-27 참조).

〈표 6-2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1976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세 미만											
꼭 있어야 한다	68.9	58.1	50.8	53.6	42.6	37.5	25.3	22.4	15.2	9.3	11.7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8.4	15.1	14.3	23.6	27.5	29.5	41.5	34.0	35.9	44.6	38.8
없어도 상관없다	22.3	25.4	34.6	21.9	29.2	32.5	32.3	42.6	48.2	46.1	48.8
모르겠다	0.4	1.3	0.2	0.9	0.6	0.5	0.9	1.0	0.6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37)	(1,208)	(1,326)	(1,011)	(718)	(663)	(627)	(640)	(481)	(252)	(267)
20~22세											
꼭 있어야 한다	58.2	44.1	36.1	44.3	32.4	34.0	21.8	20.1	14.0	9.9	12.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1.5	20.6	19.4	29.8	30.5	33.4	42.4	41.0	40.9	39.1	35.6
없어도 상관없다	30.0	33.9	44.0	25.4	36.6	31.8	34.9	38.3	44.2	51.0	52.1
모르겠다	0.2	1.4	0.4	0.5	0.5	0.8	0.8	0.6	0.9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62)	(2,040)	(2,907)	(2,593)	(1,996)	(1,862)	(1,671)	(1,805)	(1,596)	(970)	(1,087)
23~25세											
꼭 있어야 한다	52.2	35.0	28.0	36.6	26.0	24.9	17.5	15.9	11.0	10.1	9.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2.6	22.2	21.7	32.7	35.6	35.2	44.0	40.4	40.1	41.3	34.4
없어도 상관없다	34.7	42.0	49.9	29.8	37.8	39.3	37.6	43.1	48.2	48.5	56.1
모르겠다	0.5	0.8	0.4	0.8	0.6	0.6	0.8	0.6	0.7	0.1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27)	(1,462)	(2,711)	(2,792)	(2,322)	(2,683)	(2,501)	(2,777)	(2,761)	(2,102)	(2,506)
26~28세											
꼭 있어야 한다	40.2	32.3	21.6	29.2	21.9	19.7	12.2	11.3	8.2	8.6	6.9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6.4	22.9	18.7	34.5	33.9	35.9	42.4	42.4	39.2	40.4	32.4
없어도 상관없다	43.0	44.0	59.0	35.3	43.8	43.1	43.7	45.6	51.9	50.9	60.1
모르겠다	0.4	0.8	0.6	1.0	0.5	1.3	1.7	0.7	0.6	-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56)	(323)	(722)	(793)	(819)	(935)	(1,161)	(1,435)	(1,703)	(1,895)	(2,130)
29~31세											
꼭 있어야 한다	41.4	25.0	19.5	28.5	17.8	18.5	11.4	12.8	9.4	6.7	8.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7.2	28.1	10.5	34.4	42.0	22.8	41.6	34.5	36.9	38.2	29.1
없어도 상관없다	41.4	46.9	70.0	36.4	40.1	57.4	45.0	50.3	53.6	55.2	62.3
모르겠다	-	-	-	0.7	-	1.2	2.0	2.3	0.2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	(51)	(86)	(142)	(143)	(156)	(221)	(349)	(494)	(676)	(836)
32세 이상											
꼭 있어야 한다	22.2	7.7	24.2	30.8	18.2	22.6	14.2	10.9	6.9	7.4	6.5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22.2	0.0	5.2	33.3	32.7	25.8	31.5	37.0	36.7	36.3	32.4
없어도 상관없다	55.6	92.3	70.6	33.3	49.1	51.6	53.5	51.6	56.4	56.0	60.8
모르겠다	-	-	-	2.6	-	-	0.8	0.5	-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	(8)	(33)	(37)	(53)	(58)	(101)	(156)	(217)	(332)	(409)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혼여성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교육수준별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저학력일수록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고학력일수록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2012년 남아 필수적 인식은 초등 이하(20.7%), 중학교(10.8%), 고등학교(8.8%), 대학 이상(8.6%)으로 저학력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저학력 여성이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희생 또는 열등감을 가졌을 확률이 높고, 아들을 출산하여 교육 등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리만족과 보상심리를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표 6-28 참조).

〈표 6-2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1976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꼭 있어야 한다	68.3	62.7	56.3	62.4	49.0	46.4	34.2	32.0	19.5	13.7	20.7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9.1	15.1	14.8	19.8	27.3	28.3	41.1	36.7	40.1	44.3	32.8
없어도 상관없다	22.3	20.8	28.5	16.9	23.1	24.6	24.0	30.9	38.7	42.1	46.6
모르겠다	0.3	1.4	0.3	0.8	0.6	0.8	0.7	0.4	1.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978)	(2,247)	(2,499)	(1,753)	(1,158)	(941)	(724)	(654)	(289)	(175)	(58)
중학교											
꼭 있어야 한다	48.7	37.0	30.8	42.3	32.9	35.1	23.2	22.8	16.7	11.5	10.8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3.8	21.7	20.7	31.9	31.5	32.5	44.2	36.8	41.4	45.0	31.1
없어도 상관없다	37.1	40.2	48.0	25.1	34.6	31.3	31.4	39.4	41.4	43.6	57.3
모르겠다	0.4	1.1	0.5	0.7	0.9	1.1	1.2	1.0	0.6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20)	(1,452)	(2,219)	(1,917)	(1,408)	(1,245)	(1,053)	(1,029)	(704)	(460)	(262)
고등학교											
꼭 있어야 한다	42.4	26.6	21.1	30.7	23.4	24.2	16.8	14.5	11.3	8.8	9.8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3.5	23.3	20.6	34.2	35.2	34.3	42.2	40.4	39.1	42.1	33.6
없어도 상관없다	43.6	49.2	57.9	34.2	40.9	40.9	39.9	44.3	48.9	49.1	56.2
모르겠다	0.5	0.9	0.3	0.8	0.4	0.6	1.1	0.8	0.7	0.1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39)	(1,142)	(2,419)	(2,972)	(2,645)	(3,012)	(3,068)	(3,601)	(3,777)	(2,974)	(3,239)
대학 이상											
꼭 있어야 한다	37.7	23.1	19.2	26.2	18.3	17.1	11.1	11.2	8.1	8.6	7.3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4.8	30.5	23.4	38.2	34.5	37.7	43.5	42.1	39.3	36.8	33.5
없어도 상관없다	47.5	45.4	56.8	34.7	47.0	44.3	44.5	46.0	52.1	54.5	58.8
모르겠다	-	1.0	0.7	0.8	0.2	0.9	1.0	0.6	0.5	0.1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3)	(248)	(645)	(719)	(835)	(1,234)	(1,434)	(1,871)	(2,473)	(2,617)	(3,687)

주: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남아선호사상은 2009년까지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부터는 반대로 양상을 보인다. 즉 2009년에는 취업여성(9.6%)이 비취업여성(8.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비취업여성(9.9%)이 취업여성(7.8%)보다 낮게 나타났다. 직종에 따른 기혼여성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양상은 교육수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2006년까지는 고학력 직종인 관리직·전문기술직, 사무종사자보다 저학력 직종이 남아선호사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한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경험과 교육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2년에는 기타(9.3%), 서비스 및 판매직(8.2%), 관리직·전문직(7.1%), 사무종사자(6.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부표 2-9~2-10 참조).

나. 아들이 필요한 이유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혼여성을 대상만으로 아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등의 응답항목에 대한 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아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985년에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라는 비율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88년에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하여’라는 응답이 59.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994년부터 최근까지는 가문의 대, 제사 등의 유교적인 사상보다는 ‘심리적 만족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하여’ 등의 심리·정서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아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9 참조).

〈표 6-2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아들이 필요한 이유 비율(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노후생활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심리적 만족을 위하여	가정행복과 조화를 위하여	기타	(대상자수)
1985년	54.4	37.1	12.6	8.9	30.3	24.7	4.5	(3,378)
1988년	40.0	20.5	8.3	2.7	12.0	59.2	2.4	(4,299)
1994년	39.1	8.8	11.8	3.0	72.1	43.1	0.7	(3,825)
1997년	36.5	9.8	10.9	3.5	70.4	40.9	1.4	(4,058)
2000년	25.3	6.8	6.9	3.2	72.5	41.9	0.6	(3,909)
2003년	25.0	7.0	8.7	2.2	75.6	55.7	0.4	(4,073)
2006년	18.9	2.7	4.9	1.3	69.8	49.0	0.1	(3,669)
2009년	14.1	2.6	2.7	0.8	59.6	36.5	0.1	(3,006)

주: 2012년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는 2015년 출산력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들이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심리적 만족을 위하여(61.0%),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25.9%),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10.8%), 기타(2.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이삼식 등, 2015).

제3절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출산력 조사에서 이상자녀수(ideal number of children)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기혼여성 본인이 희망하는 자녀 수가 아니라 일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 기대자녀수(expectant number of children)는 기혼여성 본인의 현존자녀수와 향후 계획한 자녀 수를 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평생 낳을 총 자녀 수와 유사하게 완결출산력(complete fertility rate)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자녀수는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가깝고, 기대자녀수는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념 모두 반드시

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대한 인식은 기혼여성의 출산율 변화를 가늠하고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1974~2012년간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성별선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상자녀에 대한 가치관

가. 이상자녀수

1974~2012년 기혼여성(15~49세)이 인식하고 있는 이상자녀수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이상자녀수를 1~2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반면 3~4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²³⁾ 특히 2명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의 분포는 1974년 23.3%에서 2012년 65.0%로 3배가량 급증하였다. 반면 4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은 같은 기간 32.6%에서 5.5%로 6분의 1가량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30 참조).

결과적으로 현재는 기혼여성 10명 중 6.5명이 2명을 이상자녀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혼여성 중 1명은 1명 이하의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 10명 중 8명 정도가 2명 이하의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2015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0명(0.2%), 1명(7.0%), 2명(65.9%), 3명(19.9%), 4명(5.7%), 잘 모르겠음(1.3%)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상자녀수는 2.25명임(이삼식 등, 2015).

〈표 6-3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명)	평균
1974년	1.3	0.9	23.3	42.0	32.6	100.0 (5,086)	3.19
1976년	0.3	3.9	37.3	36.6	21.8	100.0 (5,819)	2.84
1982년 ¹⁾	0.1	5.4	54.6	30.5	9.4	100.0 (4,348)	2.46
1985년	0.1	13.2	67.4	15.6	3.8	100.0 (5,058)	2.10
1988년	0.2	18.5	65.5	11.4	4.5	100.0 (7,760)	2.05
1991년	0.1	12.8	65.7	15.8	5.7	100.0 (7,369)	2.16
1994년	-	7.5	66.7	19.4	6.3	100.0 (6,018)	2.29
1997년	-	10.1	61.8	20.9	7.2	100.0 (6,382)	2.29
2000년	0.2	9.3	64.0	20.0	6.4	100.0 (6,226)	2.26
2003년	0.4	11.5	58.7	22.1	7.3	100.0 (7,069)	2.26
2006년	0.1	9.8	59.8	23.8	6.5	100.0 (7,180)	2.28
2009년	0.1	11.2	59.3	22.3	7.0	100.0 (6,101)	2.26
2012년	0.0	11.0	65.0	18.6	5.5	100.0 (7,163)	2.22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인식은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4년 15~24세의 43.7%, 25~29세의 41.5%, 30~34세의 46.7%, 35~39세의 42.5%가 3명을 이상자녀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40대 미만의 기혼여성의 절반 정도가 3명을 이상자녀수로 보았다. 반면 40~44세의 45.1%, 45~49세의 39.1%가 4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2명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는 여성이 60% 이상 수준으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1명이라고 인식하는 기혼여성도 10% 내외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70%의 기혼여성이 2명 이하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상자녀수 인식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연령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표 6-31 참조).

174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표 6-3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단위: %)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0명	0.5	0.2	-	-	-	-	-	-	-	-	-	-	-
1명	0.5	7.2	11.7	23.4	23.4	22.6	9.9	10.6	10.9	9.8	6.5	19.5	15.7
2명	38.9	58.4	69.6	70.7	69.1	71.6	79.3	70.3	68.2	66.4	69.9	53.2	67.1
3명	43.7	27.6	17.1	7.8	5.8	5.3	9.2	18.2	19.9	20.5	18.7	19.5	15.7
4명 이상	16.3	6.7	1.6	1.4	0.9	0.5	1.6	0.8	0.9	3.3	4.9	7.8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80)	(627)	(573)	(440)	(524)	(372)	(304)	(248)	(177)	(106)	(119)	(73)	(65)
25-29세													
0명	0.7	0.2	-	-	0.2	-	-	0.1	0.2	-	0.2	-	-
1명	1.6	4.7	7.3	17.0	21.2	17.0	9.0	11.0	10.6	12.0	10.7	11.3	13.5
2명	38.0	51.4	67.5	73.0	67.8	73.3	75.7	68.2	73.1	65.3	67.9	62.7	67.1
3명	41.5	35.2	22.1	8.6	8.5	8.2	13.8	17.3	13.7	18.5	19.1	23.4	18.0
4명 이상	18.2	8.5	3.1	1.4	2.3	1.5	1.5	3.5	2.3	4.3	2.2	2.6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40)	(1,206)	(1,147)	(1,145)	(1,842)	(1,436)	(1,091)	(1,066)	(937)	(719)	(627)	(521)	(475)
30-34세													
0명	0.9	0.2	0.1	0.2	0.1	0.1	-	-	0.2	0.2	0.1	-	-
1명	1.4	3.0	4.2	14.6	20.4	14.3	6.7	10.0	8.4	10.0	9.2	9.8	8.8
2명	24.4	40.3	53.9	71.0	65.8	68.7	67.4	64.7	65.3	61.0	66.3	63.4	69.9
3명	46.7	38.1	33.0	12.1	9.4	13.2	21.1	19.6	21.0	23.5	20.5	20.9	17.7
4명 이상	26.6	18.4	8.7	2.2	4.2	3.8	4.8	5.7	5.0	5.2	3.8	5.9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3)	(1,117)	(996)	(1,009)	(1,806)	(1,802)	(1,457)	(1,404)	(1,252)	(1,444)	(1,439)	(1,023)	(1,322)
35-39세													
0명	1.4	0.3	0.1	-	0.2	-	0.1	-	0.3	0.3	-	0.1	0.1
1명	0.6	3.6	3.2	12.7	17.7	10.1	6.3	10.2	8.9	11.9	9.1	11.7	11.8
2명	19.2	31.5	46.2	66.5	65.4	67.1	64.6	59.5	61.6	59.0	61.2	59.5	64.5
3명	42.5	38.8	36.6	17.0	11.7	17.5	21.6	23.1	23.0	20.6	24.0	21.3	18.5
4명 이상	36.2	25.9	13.9	3.8	5.0	5.3	7.4	7.3	6.2	8.1	5.7	7.4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39)	(1,143)	(801)	(848)	(1,393)	(1,533)	(1,395)	(1,567)	(1,447)	(1,684)	(1,746)	(1,526)	(1,685)
40-44세													
0명	2.3	0.7	0.1	0.1	0.1	-	-	0.1	0.1	0.3	0.1	0.1	-
1명	.3	3.0	1.8	9.2	16.6	9.4	8.0	10.1	9.8	12.7	10.6	11.4	11.4
2명	12.4	22.7	35.6	64.1	62.6	61.8	61.6	59.9	61.4	56.2	56.4	58.3	63.6
3명	40.0	39.9	42.5	21.9	13.9	19.8	20.8	21.0	19.9	23.1	24.8	21.9	18.5
4명 이상	45.1	33.8	20.0	4.7	6.8	9.0	9.7	8.8	8.7	7.6	8.1	8.2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81)	(980)	(831)	(814)	(1,131)	(1,270)	(981)	(1,203)	(1,357)	(1,743)	(1,631)	(1,469)	(1,958)
45-49세													
0명	1.7	0.3	-	-	0.3	0.2	-	0.1	0.2	0.8	0.2	0.1	0.1
1명	0.1	3.2	-	4.7	9.7	8.3	7.6	8.8	8.8	10.9	10.0	11.2	10.4
2명	11.0	20.8	-	57.4	62.2	49.2	56.6	53.5	60.0	55.2	52.2	56.6	62.4
3명	36.4	36.6	-	28.2	20.4	28.4	23.1	24.2	20.9	23.3	27.8	24.4	19.7
4명 이상	39.1	-	-	9.7	13.9	12.6	13.3	10.2	9.8	9.8	7.8	7.4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93)	(746)	-	(802)	(1,064)	(956)	(790)	(894)	(1,056)	(1,373)	(1,618)	(1,489)	(1,658)

주: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상자녀수에 대한 인식을 기혼여성의 초혼연령별로 살펴보면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자녀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혼연령이 가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가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 수를 이상적으로 보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74년에는 19세 미만의 이른 나이에 초혼한 여성은 4명 이상(45.9%)의 자녀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았으며, 20~31세에 초혼한 여성은 3명 이상을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32세가 넘어 늦은 나이에 초혼한 기혼여성들은 2명(38.9%)을 이상자녀수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6-32 참조).

〈표 6-3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이상자녀수

(단위: %)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세 미만													
0명	2.2	0.4	0.2	0.2	0.4	0.1	-	0.3	0.3	0.9	-	-	-
1명	0.3	3.3	3.1	8.6	13.3	10.4	7.3	10.4	9.5	11.3	11.4	13.1	16.6
2명	12.6	25.6	39.6	60.0	64.1	59.2	57.2	57.1	59.3	55.0	54.6	56.4	62.1
3명	39.0	37.8	40.7	24.7	16.9	22.3	26.1	23.0	23.2	25.2	26.6	21.1	18.4
4명 이상	45.9	32.8	16.3	6.5	5.3	8.1	9.4	9.2	7.7	7.6	7.4	9.5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63)	(2,315)	(992)	(1,191)	(1,323)	(1,012)	(712)	(657)	(619)	(626)	(475)	(247)	(264)
20-22세													
0명	0.9	0.2	0.1	-	0.2	-	0.1	0.1	0.1	0.4	0.1	-	-
1명	0.9	3.5	4.7	13.1	17.8	11.2	7.2	9.5	8.9	11.0	9.2	11.6	9.3
2명	22.8	40.0	55.8	68.2	65.8	64.8	65.9	57.8	63.7	58.0	57.5	53.9	62.8
3명	41.5	38.3	30.1	15.4	12.0	17.5	19.6	23.8	19.5	23.0	25.8	25.6	20.8
4명 이상	34.0	18.0	9.3	3.3	4.3	6.5	7.2	9.0	7.8	7.6	7.4	8.9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63)	(2,107)	(1,723)	(2,031)	(2,895)	(2,594)	(1,987)	(1,846)	(1,658)	(1,784)	(1,575)	(944)	(1,074)
23-25세													
0명	1.1	0.1	-	-	0.1	0.1	-	-	0.2	0.4	0.1	0.1	-
1명	0.8	4.8	6.8	15.1	20.3	12.8	7.5	9.4	8.9	10.2	10.1	10.4	10.1
2명	30.6	51.9	62.9	72.6	66.0	69.0	68.2	65.1	64.0	60.2	59.7	59.5	62.9
3명	44.6	33.1	25.3	10.3	9.3	13.4	19.0	19.5	20.8	21.7	22.8	23.2	20.8
4명 이상	22.9	10.1	5.0	2.0	4.3	4.6	5.3	6.0	6.1	7.6	7.3	6.7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33)	(1,103)	(1,271)	(1,456)	(2,707)	(2,791)	(2,310)	(2,663)	(2,485)	(2,737)	(2,739)	(2,059)	(2,480)

17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6~28세													
0명	0.7	0.4	-	-	0.2	-	-	-	0.2	0.2	0.1	0.1	-
1명	1.8	8.2	9.6	19.6	21.0	17.9	8.0	10.5	9.8	12.9	8.5	10.4	10.0
2명	36.0	55.5	62.7	67.0	65.6	67.0	69.8	64.3	66.9	59.0	62.2	60.9	68.7
3명	46.0	29.7	21.0	8.4	8.8	10.6	16.9	19.4	18.6	21.3	23.8	21.5	16.4
4명 이상	15.6	6.3	6.7	5.0	4.4	4.5	5.3	5.8	4.5	6.7	5.4	7.0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50)	(256)	(315)	(321)	(718)	(792)	(816)	(929)	(1,147)	(1,424)	(1,687)	(1,865)	(2,105)
29~31세													
0명	-	-	-	-	-	-	-	-	-	0.2	-	0.1	0.1
1명	6.8	10.3	13.3	23.5	28.5	21.9	9.6	20.3	13.8	15.0	11.6	12.7	12.6
2명	37.3	65.5	46.7	64.7	58.8	59.6	73.7	56.3	62.6	56.3	63.9	62.8	67.3
3명	44.1	17.2	40.0	7.8	10.4	13.9	11.5	15.2	15.5	22.5	21.9	18.6	15.7
4명 이상	11.9	6.9	0.0	3.9	2.4	4.6	5.1	8.2	8.1	5.9	2.6	5.9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9)	(29)	(30)	(51)	(85)	(143)	(142)	(153)	(222)	(346)	(489)	(667)	(825)
32세 이상													
0명	-	-	-	-	-	-	-	-	3.4	0.6	-	-	-
1명	5.6	22.2	11.1	37.5	25.1	25.6	9.4	23.7	10.1	21.8	12.0	15.3	16.0
2명	38.9	33.3	61.1	50.0	70.7	53.8	67.9	54.2	65.5	57.0	62.0	60.3	61.9
3명	33.3	33.3	16.7	12.5	4.2	20.5	17.0	18.6	17.6	15.1	20.8	19.8	17.3
4명 이상	22.2	11.1	11.1	-	-	-	5.7	3.4	3.4	5.6	5.1	4.5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	(9)	(18)	(8)	(32)	(37)	(51)	(56)	(95)	(152)	(215)	(319)	(398)

주: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러한 분포는 2012년에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인다. 초혼연령과 무관하게 2명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는 기혼여성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19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1명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초혼하여 가임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고령임산부 진입으로 인한 난임, 불임 등의 불안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혼화 현상으로 인한 가임기간의 단축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자녀수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1974년에 3명을 이상자녀수로 보는 기혼여성은 초등 이하 42.0%, 중학교

44.8%, 고등학교 40.9%였고, 4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보는 기혼여성은 초등 이하 39.2%, 중학교 16.3%, 고등학교 15.5%로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지는 기혼여성의 50% 이상이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대학 이상 기혼여성의 경우 50% 이상이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인식하여 고학력일수록 적은 자녀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2012년에는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2명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는 비율이 50% 이상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33 참조).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1명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다. 이러한 인식은 1974년에는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나(초등 이하 0.5%, 고등학교 1.6%, 중학교 1.7%, 대학 2.3%), 2012년에는 고학력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초등 이하 15.8%, 중학교 16.3%, 고등학교 11.3%, 대학 9.9%). 즉 교육수준에 따른 직종,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이 이상자녀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 유무에 따라 이상자녀수를 살펴보면 1974년에는 취업 여성은 4명 이상(40.2%)을, 비취업여성은 3명(45.5%)을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라고 인식하고 있어 취업여성이 더 많은 자녀를 이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1985년을 기점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부표 2-11 참조).

기혼여성의 직종별 이상자녀수의 분포는 교육수준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1970년대에 고학력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은 2명 이하를, 저학력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은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1976년에 관리자·전문직은 1명(7.3%), 2명(56.4%), 사무종사자는 1명(23.5%), 2명(35.3%), 서비스 및 판매직은 3명(36.5%), 4명 이상(18.2%), 기타직종은 3명(41.2%), 4명 이상(30.8%)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고 있다. 2012년에는 직종에 상관없

이 60% 이상 수준으로 2명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2-12 참조).

〈표 6-3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이상자녀수

(단위: %)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0명	1.4	0.4	0.1	0.1	0.2	0.2	-	0.3	0.6	0.8	-	-	-
1명	0.5	2.9	2.1	7.4	10.0	7.3	4.4	7.1	9.7	8.9	10.1	7.1	15.8
2명	16.8	29.9	41.0	65.9	65.9	54.6	55.4	53.5	57.5	53.7	51.8	59.6	52.6
3명	42.0	38.5	41.6	21.2	17.4	26.2	27.5	26.0	22.7	23.3	27.5	21.3	21.1
4명 이상	39.2	28.4	15.3	5.4	6.5	11.7	12.7	13.1	9.6	13.3	10.5	12.0	1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626)	(3,811)	(1,898)	(2,225)	(2,485)	(1,753)	(1,154)	(932)	(714)	(639)	(284)	(175)	(57)
중학교													
0명	1.2	0.2	0.1	0.1	0.2	-	0.1	-	0.2	0.7	0.3	-	-
1명	1.7	4.6	6.5	15.8	19.5	12.1	7.6	8.4	6.9	12.9	8.5	11.1	16.3
2명	36.0	49.1	63.5	73.2	67.9	69.8	67.1	60.5	63.9	56.1	57.2	61.0	58.5
3명	44.8	34.6	24.9	9.3	9.4	14.3	19.5	23.0	20.7	23.2	25.7	22.2	21.6
4명 이상	16.3	11.5	5.0	1.7	3.0	3.8	5.8	8.1	8.3	7.2	8.2	5.7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66)	(1,100)	(1,285)	(1,446)	(2,217)	(1,917)	(1,398)	(1,235)	(1,039)	(1,015)	(699)	(448)	(259)
고등학교													
0명	0.7	0.1	0.1	0.1	0.2	-	-	-	0.2	0.3	0.1	0.1	-
1명	1.6	7.4	9.9	23.7	23.9	15.5	8.4	10.9	9.6	12.1	10.2	11.3	11.3
2명	41.3	54.1	67.1	67.2	64.7	69.2	70.8	63.6	64.6	59.9	59.5	57.5	65.1
3명	40.9	31.7	18.7	7.0	8.2	11.2	16.6	19.7	20.2	21.1	23.8	23.4	17.3
4명 이상	15.5	6.6	4.2	2.1	3.0	4.1	4.3	5.8	5.4	6.6	6.5	7.7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60)	(726)	(952)	(1,137)	(2,414)	(2,974)	(2,630)	(2,989)	(3,047)	(3,560)	(3,743)	(2,913)	(3,200)
대학 이상													
0명	-	-	-	-	-	-	-	-	0.2	0.1	0.1	0.1	-
1명	2.3	8.2	8.0	20.4	21.9	16.2	8.1	11.8	10.1	10.6	9.4	11.5	9.9
2명	53.9	55.5	67.0	66.1	59.9	65.6	65.9	63.6	65.4	59.5	62.0	61.2	65.6
3명	28.9	28.6	17.9	9.6	10.4	14.6	19.3	18.6	18.3	23.1	23.0	21.0	19.6
4명 이상	14.8	7.7	7.1	3.9	7.8	3.6	6.7	6.1	6.0	6.6	5.5	6.1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8)	(182)	(212)	(247)	(642)	(718)	(831)	(1,222)	(1,424)	(1,848)	(2,446)	(2,564)	(3,641)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6-34〉는 1974~2012년간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 평균 이상자녀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이상자녀수는 1974년

3.19명에서 2.22명으로 0.9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연령 기혼여성의 급속한 이상자녀수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만혼화 현상의 팽배, 저학력 계층의 급속한 이상자녀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학력 직종 비율 증가로 인한 이상자녀수 감소 현상이 이상자녀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3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평균 이상자녀수

(단위: 명)

구분	1974	1976	1982	1986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74 ~2012 증감
전체 (대상자수)	3.19 (5,086)	2.84 (5,819)	2.46 (4,348)	2.10 (5,058)	2.05 (7,760)	2.16 (7,369)	2.29 (6,018)	2.29 (6,382)	2.26 (6,226)	2.26 (7,069)	2.28 (7,180)	2.26 (6,101)	2.22 (7,163)	-0.97 -
연령														
15~24세	2.80	2.35	2.09	1.84	1.84	1.83	2.03	2.09	2.14	2.17	2.22	2.23	2.06	-0.74
25~29세	2.81	2.48	2.21	1.94	1.92	1.94	2.10	2.15	2.09	2.15	2.13	2.19	2.13	-0.68
30~34세	3.05	2.76	2.47	2.02	2.00	2.07	2.27	2.22	2.24	2.24	2.19	2.23	2.20	-0.85
35~39세	3.27	2.95	2.64	2.12	2.07	2.19	2.33	2.31	2.27	2.25	2.27	2.25	2.21	-1.06
40~44세	3.49	3.17	2.87	2.22	2.15	2.31	2.39	2.33	2.30	2.28	2.31	2.27	2.24	-1.25
45~49세	3.65	3.32	-	2.45	2.30	2.53	2.50	2.50	2.38	2.34	2.39	2.30	2.26	-1.39
초혼연령														
19세 미만	3.52	3.13	2.75	2.31	2.18	2.31	2.45	2.39	2.36	2.31	2.33	2.29	2.19	-1.33
20~22세	3.21	2.75	2.45	2.09	2.06	2.21	2.33	2.37	2.30	2.30	2.32	2.32	2.25	-0.96
23~25세	2.94	2.50	2.29	1.99	2.00	2.11	2.25	2.24	2.25	2.27	2.28	2.28	2.27	-0.67
26~28세	2.80	2.35	2.25	1.99	1.99	2.02	2.22	2.21	2.19	2.22	2.27	2.25	2.21	-0.59
29~31세	2.66	2.21	2.27	1.92	1.89	2.01	2.13	2.18	2.18	2.20	2.16	2.19	2.12	-0.54
32세 이상	2.78	2.33	2.28	1.75	1.84	1.95	2.18	2.02	2.13	2.03	2.20	2.12	2.12	-0.66
교육수준														
초등 이하	3.36	3.03	2.74	2.31	2.24	2.45	2.58	2.53	2.40	2.45	2.41	2.38	2.21	-1.15
중학교	2.79	2.55	2.29	1.99	1.98	2.11	2.27	2.36	2.32	2.25	2.35	2.25	2.19	-0.60
고등학교	2.75	2.38	2.18	1.88	1.91	2.04	2.19	2.21	2.23	2.23	2.27	2.28	2.22	-0.53
대학 이상	2.60	2.38	2.25	1.98	2.07	2.06	2.25	2.20	2.21	2.26	2.25	2.22	2.23	-0.37
경제활동상태														
취업	3.36	2.98	2.62	2.14	2.09	2.23	2.36	2.36	2.29	2.28	2.30	2.27	2.23	-1.13
비취업	2.92	2.75	2.39	2.09	2.02	2.12	2.24	2.22	2.23	2.24	2.25	2.25	2.22	-0.70
직종														
관리직·전문직·술직	2.71	2.47	2.43	1.93	2.16	2.06	2.26	2.23	2.24	2.30	2.32	2.28	2.30	-0.41
사무종사자	2.58	2.18	2.17	2.12	1.92	1.98	2.14	2.24	2.19	2.21	2.21	2.23	2.22	-0.36
서비스·판매직	3.07	2.73	2.49	2.12	2.03	2.13	2.26	2.29	2.24	2.26	2.32	2.24	2.16	-0.91
기타	3.50	3.11	2.76	2.15	2.13	2.37	2.44	2.46	2.36	2.32	2.32	2.30	2.25	-1.25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3)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고,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기기제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또한 기혼여성의 일반특성에 따라 평균 이상자녀수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갭이 점차 감소하여 일반특성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74년 15~24세의 기혼여성은 2.80명을, 45~49세는 3.65명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여 그 갭이 0.85명이었던 반면에, 2012년 15~24세의 기혼여성은 2.26명을, 45~49세는 2.06명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여 그 갭이 0.2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연령뿐만 아니라 초혼연령, 교육수준 등 모든 일반특성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2012년에는 일반특성에 따라 2.06~2.30명을 이상자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의 일반특성과는 무관하게 이상자녀수는 하향 평준화되어 가치관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상자녀수는 일정수준까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상자녀수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인 인식’인 기대자녀수는 더 낮게 나타날 것이며 ‘실질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출산율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출산력 조사에서는 ‘아들의 필요성’ 이외에 이상자녀에 대한 성별선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는 1974~2012년의 13개 연도 모두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974~1982년의 조사에서는 성별선호에 대한 별도의 문항 없이 이상자녀의 아들과 딸의 수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성별 구별해서’가 100%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74~1982년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는 있으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주로 1985~2012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표 6-35〉는 기혼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를 연도 별로 나타낸 것이다. 1985년에는 ‘성별 구별해서’ 이상자녀를 갖고자 하는 기혼여성이 49.0%였으나 2012년에는 22.3%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6년에는 ‘아들 2명, 딸 1명(3자녀)’을 원하는 비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1982년에는 ‘아들 1명, 딸 1명(2자녀)’으로 동일한 성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46.9%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2년 ‘성별 구별 없이’ 자녀를 갖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77.7%까지 증가하면서 성별을 구별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자녀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1985년에는 ‘아들 2명, 딸 1명(3자녀)’으로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아들 1명, 딸 2명(3자녀)’으로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상자녀수와 성별선호의 경향을 종합해 보면 최근 들어 기혼여성의 대다수가 성별 구별 없이 2자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을 구별할 경우에도 ‘아들 1명 딸 1명’의 2자녀를 가장 선호하며, 3자녀를 원하는 경우에도 ‘아들 1명 딸 2명’으로 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성별 구별 없이’ 이상자녀를 원하는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2명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명의 자녀를 원하는 비율은 1985년 27.8%에서 2012년 13.6%로 감소하고 있으며, 3명의 자녀를 원하는 비율은 4.4%에서 16.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6 참조).

〈표 6-3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¹⁾

(단위: %)

구분	성별 구별 없이	성별 구별해서										계(명)
		소계	아들1명	딸1명	아들 2명	딸 2명	아들 1명 딸 1명	아들 1명 딸 2명	아들 2명 딸 1명	아들 2명 딸 2명	기타	
1974년	-	100.0	0.8	-	1.5	0.1	21.7	0.9	40.6	16.8	17.5	100.0 (5,256)
1976년	-	100.0	1.9	0.1	1.9	0.1	29.5	2.4	36.9	15.8	11.5	100.0 (6,020)
1982년	-	100.0	1.4	0.1	1.5	0.1	46.9	2.2	35.0	9.4	3.5	100.0 (5,372)
1985년	51.0	49.0	0.8	0.1	0.3	-	33.9	1.2	9.6	2.5	0.5	100.0 (5,094)
1988년	49.3	50.7	0.7	0.1	0.3	-	35.5	1.8	8.0	3.8	0.5	100.0 (7,792)
1991년	45.6	54.4	1.2	0.1	0.3	-	35.5	3.0	9.1	4.5	0.8	100.0 (7,383)
1994년	54.6	45.4	0.2	0.1	0.3	-	26.9	4.5	7.9	4.9	0.6	100.0 (6,060)
1997년	61.1	38.9	0.3	0.1	0.2	0.1	21.5	4.7	6.4	4.9	0.6	100.0 (6,450)
2000년	56.8	43.2	0.5	0.2	0.4	0.2	25.7	6.3	4.9	4.6	0.5	100.0 (6,349)
2003년	64.8	35.2	0.3	0.2	0.2	0.2	17.3	6.1	5.2	4.9	0.6	100.0 (7,190)
2006년	74.7	25.3	0.2	0.3	0.1	0.4	11.4	5.8	2.8	4.0	0.4	100.0 (7,282)
2009년	72.2	27.8	0.6	0.1	0.1	0.2	14.1	5.9	2.6	3.6	0.6	100.0 (6,227)
2012년	77.7	22.3	0.2	0.2	0.2	0.5	12.6	4.2	1.5	2.6	0.4	100.0 (7,272)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1974~1982년 조사는 성별선호에 대한 문항 없이 이상자녀의 아들, 딸 수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성별 구별해서’의 소계가 100%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6-36〉 연도별 ‘성별 구별 없이’ 자녀를 원하는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¹⁾

(단위: %, 명)

구분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명	27.8	34.7	24.6	13.2	15.6	15.3	17.1	12.5	14.7	13.6
2명	67.1	59.8	66.3	72.7	66.0	67.2	63.8	64.4	62.4	66.6
3명	4.4	4.8	8.0	12.5	15.6	15.1	16.3	20.3	18.9	16.6
4명	0.6	0.7	1.1	1.6	2.7	2.5	2.8	2.8	4.0	3.3
계 (명)	100.0 (2,343)	100.0 (3,765)	100.0 (3,213)	100.0 (3,060)	100.0 (3,759)	100.0 (3,352)	100.0 (4,462)	100.0 (5,319)	100.0 (4,394)	100.0 (5,434)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1974~1982년 조사는 성별선호에 대한 문항 없이 이상자녀의 아들, 딸 수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85년에는 성별 구별을 선호하는 경향이 45~49세(71.4%), 35~39세(49.7%), 25~29세(39.3%) 등으로 저연령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2012년에는 성별 구별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45~49세(76.2%), 35~39세(79.9%), 25~29세(72.6%) 등으로 연령과는 무관하게 70%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연령별로 성별을 구별하는 경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25% 내외의 수준에서 유사하게 낮게 나타났고, '아들 1명, 딸 1명(2자녀)'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6-37 참조).

〈표 6-3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구별 없이	-	-	-	69.8	64.7	54.2	70.7	69.2	65.4	73.4	67.4	62.3	74.3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30.2	35.3	45.8	29.3	30.8	34.6	26.6	32.6	37.7	25.7
아들 1명	0.5	3.6	4.0	0.8	0.8	2.9	-	0.4	0.9	-	1.6	-	2.9
딸 1명	-	0.2	0.6	0.4	-	0.5	-	0.4	0.9	1.6	0.8	-	-
아들 2명	0.8	1.8	2.0	-	-	0.8	0.6	0.4	0.5	-	-	-	-
딸 2명	-	-	0.3	-	-	-	-	-	-	-	0.8	-	-
아들 1명 딸 1명	38.2	49.5	65.5	26.2	30.2	38.0	23.2	20.8	22.1	16.4	19.4	19.5	17.1
아들 1명 딸 2명	1.3	1.8	0.9	0.3	0.4	1.3	1.6	2.9	4.6	3.1	5.4	10.4	4.3
아들 2명 딸 1명	42.4	33.6	23.6	1.9	3.1	1.8	2.2	5.4	4.6	3.1	1.6	1.3	-
아들 2명 딸 2명	9.7	7.0	2.3	0.4	1.0	0.5	1.0	0.4	0.5	2.3	3.1	5.2	1.4
기타	7.1	2.3	0.9	0.3	-	-	0.6	-	0.5	-	-	1.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80)	(440)	(348)	(441)	(524)	(373)	(307)	(251)	(181)	(111)	(125)	(74)	(65)
25~29세													
구별 없이	-	-	-	60.7	59.7	53.8	67.1	67.5	62.2	63.8	71.3	66.6	72.6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39.3	40.3	46.2	32.9	32.5	37.8	36.2	28.7	33.4	27.4
아들 1명	1.5	2.2	2.4	1.3	1.0	2.3	0.2	0.3	0.4	0.2	0.2	0.5	-
딸 1명	0.1	0.1	-	0.2	0.2	0.1	0.1	0.4	0.1	0.1	0.5	-	0.9
아들 2명	1.7	2.3	2.0	0.1	0.3	0.2	0.1	-	0.5	0.2	-	0.3	-
딸 2명	-	0.4	-	-	-	-	-	-	0.3	0.2	0.3	0.2	0.5
아들 1명 딸 1명	36.3	43.4	61.5	30.9	32.6	36.7	24.6	21.5	27.4	22.6	18.9	20.3	20.9
아들 1명 딸 2명	1.3	3.5	2.5	1.1	1.4	1.9	2.6	3.5	3.5	5.5	4.5	6.5	3.2
아들 2명 딸 1명	40.0	36.7	26.9	4.4	4.3	3.9	4.0	4.5	3.5	3.3	2.9	4.0	0.7
아들 2명 딸 2명	11.6	8.7	4.1	1.1	1.6	1.0	1.1	2.1	1.7	3.8	1.5	1.6	0.9
기타	7.4	2.6	0.5	-	0.1	0.1	0.2	0.2	0.4	0.2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40)	(910)	(754)	(1,153)	(1,845)	(1,438)	(1,095)	(1,073)	(946)	(724)	(638)	(527)	(484)
30~34세													
구별 없이	-	-	-	53.2	55.1	49.1	58.1	64.5	61.9	66.2	75.4	72.3	75.5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46.8	44.9	50.9	41.9	35.5	38.1	33.8	24.6	27.7	24.5
아들 1명	1.4	1.0	0.3	1.0	0.7	1.2	0.3	0.4	0.7	0.5	0.1	0.6	0.3
딸 1명	-	-	-	-	0.1	0.2	0.1	-	0.2	-	0.2	0.4	0.3
아들 2명	1.7	1.9	1.8	0.1	0.1	0.4	0.3	0.3	0.1	0.2	0.2	-	-
딸 2명	0.2	-	0.1	-	-	-	0.1	0.1	0.1	0.3	0.4	0.3	0.4
아들 1명 딸 1명	22.5	32.9	47.5	35.7	32.2	35.8	24.4	20.4	22.8	17.5	13.2	14.4	14.9
아들 1명 딸 2명	0.9	1.9	2.7	1.0	1.8	2.9	5.6	4.6	6.5	6.7	5.3	6.1	5.2
아들 2명 딸 1명	45.5	39.1	35.7	7.0	6.1	7.0	7.5	5.4	4.1	4.6	2.4	1.8	1.4
아들 2명 딸 2명	17.9	15.9	10.0	1.9	3.6	3.3	3.6	4.1	3.5	3.3	2.6	3.6	1.9
기타	10.0	7.3	1.9	0.1	0.4	0.2	0.2	0.3	0.2	0.6	0.2	0.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53)	(898)	(732)	(1,013)	(1,813)	(1,804)	(1,470)	(1,414)	(1,265)	(1,467)	(1,458)	(1,046)	(1,337)

184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35-39세													
구별 없이	-	-	-	50.3	47.6	44.6	51.6	62.4	59.1	66.7	75.5	74.4	79.9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49.7	52.4	55.4	48.4	37.6	40.9	33.3	24.5	25.6	20.1
아들 1명	0.6	1.8	0.9	0.7	0.3	0.7	0.1	0.2	0.4	0.1	0.3	0.8	-
딸 1명	-	0.2	0.2	-	-	0.1	-	-	0.2	0.2	0.3	0.1	0.2
아들 2명	1.6	2.3	0.9	0.6	0.8	0.3	0.4	0.4	0.5	0.4	-	0.2	0.4
딸 2명	-	0.1	-	-	-	-	-	0.1	0.2	-	0.3	0.2	1.4
아들 1명 딸 1명	17.6	24.6	39.5	33.6	36.3	35.6	27.6	20.3	22.6	16.1	10.9	12.9	10.2
아들 1명 딸 2명	0.9	2.7	2.2	1.5	2.0	3.6	5.3	4.6	7.7	6.3	6.0	4.6	3.6
아들 2명 딸 1명	40.6	37.2	39.2	9.8	8.1	10.0	8.7	6.7	4.5	4.2	2.7	2.5	1.4
아들 2명 딸 2명	19.2	18.8	12.5	2.6	4.5	4.5	5.6	4.7	4.4	5.6	3.5	3.9	2.6
기타	19.4	12.3	4.7	0.9	0.5	0.5	0.8	0.6	0.4	0.4	0.5	0.4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39)	(949)	(641)	(854)	(1,400)	(1,539)	(1,404)	(1,588)	(1,475)	(1,710)	(1,766)	(1,556)	(1,708)
40-44세													
구별 없이	-	-	-	43.8	39.8	38.8	45.5	56.8	51.8	63.9	76.5	73.7	80.0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56.2	60.2	61.2	54.5	43.2	48.2	36.1	23.5	26.3	20.0
아들 1명	0.2	1.3	0.4	0.5	0.7	0.7	0.2	0.7	0.6	0.6	0.1	0.7	0.2
딸 1명	0.1	0.1	-	-	-	-	-	0.2	0.2	0.2	0.1	0.1	0.1
아들 2명	1.0	0.9	1.0	0.6	0.4	0.3	0.1	0.2	0.3	-	-	0.1	0.2
딸 2명	0.1	-	-	-	-	-	-	0.1	-	0.4	0.3	0.2	0.1
아들 1명 딸 1명	11.2	17.8	27.7	35.7	39.9	36.9	31.0	22.5	28.1	16.9	8.8	12.8	11.2
아들 1명 딸 2명	1.0	2.2	1.9	1.7	2.5	3.8	5.2	5.8	6.6	6.0	6.3	5.7	3.6
아들 2명 딸 1명	38.6	37.8	45.1	13.8	10.1	11.0	9.5	6.8	5.8	6.2	2.4	2.3	1.8
아들 2명 딸 2명	20.1	20.6	15.1	3.2	5.5	7.3	8.1	6.4	6.1	5.2	5.1	3.5	2.3
기타	27.6	19.3	8.7	0.7	1.1	1.1	0.3	0.6	0.5	0.6	0.4	0.9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81)	(865)	(687)	(822)	(1,137)	(1,272)	(989)	(1,222)	(1,394)	(1,772)	(1,657)	(1,509)	(1,986)
45-49세													
구별 없이	-	-	-	28.6	28.1	33.4	38.8	49.4	47.4	62.0	73.4	70.7	76.2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	71.4	71.9	66.6	61.2	50.6	52.6	38.0	26.6	29.3	23.8
아들 1명	0.1	2.3	-	0.3	0.9	0.3	0.3	0.1	0.5	0.4	0.1	0.2	0.3
딸 1명	-	-	-	-	0.1	-	0.1	0.1	0.1	0.2	0.2	0.2	0.1
아들 2명	1.6	1.8	-	0.4	0.2	0.3	0.5	0.2	0.3	0.2	0.1	0.1	0.3
딸 2명	-	-	-	-	-	-	-	0.1	0.3	0.2	0.4	0.1	0.1
아들 1명 딸 1명	9.4	15.0	-	39.6	43.0	29.9	30.8	24.3	29.5	16.6	9.6	14.1	12.0
아들 1명 딸 2명	0.1	1.7	-	1.2	2.3	3.2	3.8	5.8	6.8	6.0	6.1	6.7	4.8
아들 2명 딸 1명	35.8	34.6	-	22.2	17.6	20.0	13.6	9.1	6.8	6.6	3.8	3.1	1.5
아들 2명 딸 2명	19.0	20.5	-	6.1	6.6	10.0	10.2	9.2	7.3	6.3	5.6	4.1	3.8
기타	33.9	24.1	-	1.6	1.1	2.9	1.8	1.6	1.0	1.4	0.7	0.7	0.9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93)	(659)	-	(811)	(1,073)	(957)	(795)	(902)	(1,088)	(1,406)	(1,638)	(1,515)	(1,692)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1974~1982년 조사는 성별선호에 대한 문항 없이, 이상자녀의 아들, 딸 수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성별 구별해서'의 소계가 100%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상자녀에 대한 성별선호 태도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성별 구별 없이' 자녀를 갖는 것을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점차 각 연령층별 갭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85년 19세 미만의 39.8%, 32세 이상의 76.9%로 두 연령층의 갭은

37.1% 포인트였으나 2012년에는 각각 71.6%, 79.8%로 갭(8.2% 포인트)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만혼화로 인한 가임기간의 단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별을 구별하는 경우에는 전 연도에 걸쳐 초혼연령과 무관하게 ‘아들 1명, 딸 1명(2자녀)’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표 2-13 참조).

이러한 패턴은 교육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고학력일수록 성별 구별 없이 자녀를 갖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으나 각 학력층별 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5년 성별 구별을 비선호하는 비율은 초등 이하(35.7%), 중학교(54.1%), 고등학교(65.8%), 대학 이상(67.3%)으로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 이하와 대학 이상 학력층의 갭은 31.6% 포인트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초등 이하(64.5%), 중학교(79.4%), 고등학교(75.7%), 대학 이상(79.8%)으로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했으나 그 갭은 16.6% 포인트로 감소하였다(부표 2-13). 또한 3자녀를 원할 경우에도 1985년대에는 ‘아들 2명, 딸 1명(3자녀)’으로 아들을 더 선호하는 반면에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아들 1명, 딸 2명(3자녀)’으로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2-14 참조). 이는 고학력 여성의 경우 만혼으로 인한 가임기간의 감소로 성별 구별 없이 적은 수의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자녀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취업 유무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직종별로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고학력 직종일수록 성별선호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직에서는 ‘성별 구별해서’와 ‘성별 구별 없이’의 갭이 적은 반면 2012년에는 그 갭이 확연히 증가하여 다른 직종과 유사한 성별선호 양상을 보이고 있다(부표 2-15~2-16 참조).

2. 기대자녀에 대한 가치관

가. 기대자녀수

출산력 조사에서 기대자녀수는 현존자녀수와 추가 희망자녀수를 합하여 산출한 값으로,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1974년의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 산출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74년을 제외하고 1976~2012년의 기대자녀수만을 제시하였다.

기혼여성 기대자녀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6년 4명 이상(44.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82년부터 2012년까지는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1982년 33.7%에서 2012년 62.3%까지 2배가량 급증하였다. 반면 기대자녀수를 1명이라고 응답한 기혼여성은 1976년 4.5%에서 2012년 22.0%까지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자녀를 원치 않는 기혼여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2.3%로 나타났다(표 6-38 참조).

〈표 6-3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1976년	0.9	4.5	24.3	25.5	44.8	100.0 (5,982)	3.52
1982년	1.4	7.0	33.7	26.4	31.5	100.0 (5,367)	3.05
1985년	2.4	13.0	37.3	25.1	22.3	100.0 (5,094)	2.83
1988년	2.2	14.5	44.8	22.0	16.6	100.0 (7,788)	2.46
1991년	1.6	13.0	53.5	21.7	10.3	100.0 (7,377)	2.32
1994년	0.8	11.9	62.5	18.3	6.6	100.0 (6,053)	2.27
1997년	1.3	13.1	65.1	15.9	4.6	100.0 (6,446)	2.16
2000년	2.0	16.8	64.3	14.3	2.6	100.0 (6,334)	2.04
2003년	1.8	15.5	65.1	15.3	2.4	100.0 (7,151)	2.03
2006년	2.9	17.2	65.4	13.0	1.5	100.0 (7,277)	1.94
2009년	2.2	17.9	65.7	12.7	1.5	100.0 (6,224)	1.94
2012년	2.3	22.0	62.3	12.1	1.3	100.0 (7,264)	1.94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표 6-39〉는 기혼여성의 연령별 기대자녀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2명의 기대자녀수를 갖는 여성이 가장 많고, 고연령일수록 높은 비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6년에는 15~24세(59.9%)는 2명, 25~29세(46.2%)는 3명, 30~34세는 (37.1%) 3명을 본인의 기대하는 자녀 수로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아 35세 미만에는 대체로 3명 이하의 기대자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39세 59.8%, 40~44세 73.9%, 45~49세 76.9%가 4명 이상의 자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35세 이상은 대체로 4명 이상을 기대자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2자녀를 선호하는 태도는 점차 감소하고 1자녀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3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기대자녀수

(단위: %)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0명	1.0	1.4	12.5	9.9	5.0	1.9	2.1	5.1	7.1	6.3	1.3	1.4
1명	9.5	14.1	35.9	40.1	32.2	17.3	23.9	31.5	27.8	28.9	35.9	29.0
2명	59.9	68.1	46.5	46.4	57.3	71.2	64.7	55.6	51.6	49.2	44.9	59.4
3명	24.0	14.3	4.6	3.1	5.5	9.6	8.0	6.9	12.7	13.3	14.1	10.1
4명 이상	5.6	2.1	0.5	0.6	-	-	1.3	0.9	0.8	2.3	3.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29)	(573)	(441)	(524)	(373)	(304)	(250)	(180)	(109)	(124)	(74)	(64)
25~29세												
0명	0.7	0.7	3.3	3.4	2.4	0.7	1.6	3.7	4.0	4.8	3.7	5.8
1명	4.3	9.1	24.7	28.4	21.7	16.2	19.4	30.7	25.4	32.6	25.8	30.2
2명	46.2	58.6	57.1	60.8	68.8	73.8	70.3	58.2	61.8	50.2	58.3	54.1
3명	35.9	24.4	13.5	6.5	6.5	8.7	8.4	7.2	8.1	11.6	11.2	9.0
4명 이상	13.0	7.2	1.4	1.0	0.6	0.6	0.3	0.2	0.7	0.8	1.0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27)	(1,153)	(1,153)	(1,844)	(1,435)	(1,092)	(1,072)	(942)	(718)	(638)	(525)	(483)
30~34세												
0명	0.2	2.0	1.1	0.9	1.1	0.3	0.5	1.5	1.4	2.8	3.0	2.2
1명	3.2	5.3	10.2	11.3	15.0	14.0	13.0	17.0	18.6	21.8	22.2	25.9
2명	22.6	39.8	51.9	62.1	68.0	72.9	74.9	70.5	67.2	63.8	61.7	58.8
3명	37.1	36.9	28.2	21.0	14.2	11.6	10.5	10.4	11.8	11.1	11.6	11.6
4명 이상	36.9	16.0	8.7	4.7	1.7	1.3	1.1	0.6	1.0	0.5	1.5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35)	(1,013)	(1,013)	(1,811)	(1,803)	(1,470)	(1,413)	(1,263)	(1,461)	(1,456)	(1,046)	(1,335)

188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35~39세												
0명	1.3	1.2	0.3	0.9	1.1	0.9	1.3	1.2	1.5	1.9	1.2	1.7
1명	3.9	6.5	4.7	6.9	8.4	11.7	12.0	13.0	13.4	14.1	18.2	22.1
2명	10.4	21.7	32.8	41.6	56.9	65.3	70.8	71.0	69.6	69.6	67.1	62.8
3명	24.6	35.6	39.4	35.6	25.8	16.8	13.1	13.3	13.8	13.6	12.5	12.3
4명 이상	59.8	34.9	22.8	15.1	7.7	5.2	2.8	1.5	1.7	0.8	0.9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78)	(856)	(854)	(1,400)	(1,539)	(1,403)	(1,588)	(1,473)	(1,700)	(1,766)	(1,556)	(1,706)
40~44세												
0명	1.1	1.6	1.0	1.0	1.2	1.4	2.0	1.5	1.8	3.0	2.4	2.2
1명	4.0	4.0	3.7	4.0	6.6	7.2	11.7	14.8	13.1	13.5	13.8	21.5
2명	6.8	10.4	13.7	27.2	36.0	49.5	60.6	66.2	66.6	67.1	68.4	62.4
3명	14.2	24.5	35.6	34.7	37.8	30.8	20.5	14.6	16.0	14.6	13.9	12.5
4명 이상	73.9	59.4	45.9	33.2	18.5	11.2	5.2	2.8	2.4	1.9	1.5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18)	(921)	(822)	(1,136)	(1,272)	(989)	(1,222)	(1,390)	(1,764)	(1,655)	(1,508)	(1,984)
45~49세												
0명	1.5	-	0.3	1.2	1.1	0.8	0.8	2.1	1.0	2.9	2.0	2.1
1명	4.4	-	3.4	4.7	3.8	5.3	6.7	9.0	11.9	13.3	14.9	16.7
2명	7.4	-	8.2	10.0	19.5	32.1	39.0	51.4	58.0	67.7	68.0	66.7
3명	9.8	-	24.3	28.1	37.3	36.4	34.6	28.5	23.4	13.3	13.0	13.0
4명 이상	76.9	-	63.7	56.0	38.2	25.5	18.9	9.0	5.7	2.8	2.0	1.6
계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95)	-	(811)	(1,073)	(955)	(795)	(901)	(1,086)	(1,399)	(1,638)	(1,515)	(1,692)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음영처리된 부분은 해당 연도에 우리나라 모의 평균 출산연령층을 의미함. 평균 출산연령에 대한 통계청 자료는 1993~2015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1994년부터만 표기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평균 출산연령층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기대자녀수 변화이다. 다른 연령대의 기혼여성에 비해 1자녀 이하를 선호하는 비율이 30% 내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출산연령층의 기혼여성인 1명을 기대자녀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1994년 16.2%에서 2012년 25.9%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기존에는 고연령 여성의 다자녀출산율의 급속한 감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이삼식 등, 2012) 최근에는 평균 출산연령층에 속하는 여성들의 1자녀 선호 가치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혼연령별 기대자녀수를 살펴보면 만혼화 현상이 출산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연도와 무관하게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2명 이하의 기대자녀를 갖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2년 1명의 기대자녀수를 가지는 비율을 초혼 연령별로 살펴보면 23~25세의 이른 나이에 초혼한 기혼여성이 1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32세 이상의 늦은 나이에 초혼한 기혼여성의 경우 46.1%로 3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무자녀를 선호하는 비율도 8.0%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2세가 넘어 결혼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한 자녀 또는 무자녀를 선호하는 것으로, 만혼화 현상은 출산을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6-40 참조).

〈표 6-4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기대자녀수

(단위: %)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세 미만												
0명	1.0	1.5	0.8	0.9	0.9	0.6	1.2	0.7	1.3	4.0	2.9	0.4
1명	3.7	3.5	5.8	6.2	6.9	6.1	6.2	10.9	8.2	12.4	18.2	26.5
2명	10.7	16.5	20.9	25.0	37.1	41.5	48.5	51.1	53.4	56.8	48.9	50.2
3명	17.0	21.8	25.8	26.7	29.8	30.4	27.7	27.8	28.3	23.1	26.1	17.3
4명 이상	67.6	56.7	46.7	41.3	25.3	21.3	16.4	9.5	8.9	3.8	3.9	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25)	(1,559)	(1,209)	(1,326)	(1,016)	(719)	(665)	(636)	(638)	(479)	(252)	(268)
20-22세												
0명	0.9	0.8	1.4	1.5	1.3	0.6	0.6	1.6	0.9	2.1	1.7	1.1
1명	4.1	6.4	11.3	11.1	9.2	8.4	9.0	12.4	11.1	13.8	13.8	15.6
2명	27.7	34.3	37.8	43.7	50.7	57.6	61.5	62.2	63.6	64.7	66.0	64.3
3명	30.2	29.3	26.8	26.3	25.7	25.0	22.0	20.0	20.6	16.9	15.8	15.8
4명 이상	37.0	29.3	22.7	17.4	13.1	8.5	7.0	3.8	3.8	2.5	2.8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53)	(2,029)	(2,041)	(2,909)	(2,593)	(1,996)	(1,866)	(1,686)	(1,806)	(1,597)	(970)	(1,087)
23-25세												
0명	0.8	1.3	3.9	2.5	1.1	0.6	0.6	1.3	1.2	1.9	1.1	1.0
1명	5.7	9.0	17.5	17.9	15.0	11.9	13.4	15.0	13.5	13.7	12.7	15.0
2명	41.0	48.4	45.3	52.9	59.9	70.1	71.1	70.0	70.0	70.5	69.7	68.3
3명	33.5	28.0	24.2	18.8	19.0	14.0	12.9	12.1	13.9	12.7	14.9	14.7
4명 이상	19.0	13.2	9.2	7.9	5.0	3.4	1.9	1.5	1.4	1.3	1.5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11)	(1,377)	(1,462)	(2,710)	(2,794)	(2,324)	(2,687)	(2,512)	(2,780)	(2,761)	(2,102)	(2,511)

190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6~28세												
0명	-	2.6	4.8	4.6	3.1	1.3	2.1	2.6	2.1	2.3	1.7	2.8
1명	9.4	13.7	19.5	25.7	20.2	18.2	17.7	23.3	21.2	20.0	19.9	22.9
2명	45.9	50.4	50.0	55.7	62.9	69.0	70.7	66.0	67.0	66.8	67.3	62.8
3명	33.3	25.9	19.5	10.5	11.2	9.8	8.6	7.6	9.0	10.3	10.4	11.0
4명 이상	11.4	7.3	6.3	3.6	2.5	1.7	0.8	0.5	0.6	0.6	0.7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55)	(343)	(323)	(724)	(794)	(818)	(935)	(1,166)	(1,430)	(1,703)	(1,894)	(2,134)
29~31세												
0명	-	11.1	7.2	10.5	5.3	3.2	5.6	6.7	6.1	5.6	4.3	3.5
1명	13.8	27.8	39.2	40.7	35.1	34.6	33.3	32.6	30.1	33.4	22.5	32.1
2명	58.6	41.7	27.8	41.9	45.7	57.1	53.7	53.4	55.5	53.9	65.8	57.8
3명	13.8	11.1	16.5	4.7	10.6	3.2	6.2	7.4	7.5	6.4	6.3	6.0
4명 이상	13.8	8.3	9.3	2.3	3.3	1.9	1.2	-	0.7	0.8	1.1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	(36)	(51)	(86)	(143)	(143)	(156)	(223)	(345)	(494)	(675)	(836)
32세 이상												
0명	11.1	13.0	7.7	6.1	25.6	8.9	16.9	12.6	12.2	13.3	8.3	8.0
1명	22.2	39.1	23.1	45.5	30.8	37.5	41.5	44.1	41.1	37.2	41.3	46.1
2명	66.7	13.0	53.8	33.3	33.3	44.6	38.5	34.3	40.6	43.1	44.6	41.1
3명	-	17.4	15.4	9.1	5.1	8.9	3.1	7.0	5.6	5.5	5.0	4.0
4명 이상	-	17.4	-	6.1	5.1	-	-	2.1	0.6	0.9	0.8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	(23)	(8)	(33)	(37)	(53)	(60)	(111)	(152)	(217)	(331)	(410)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한편 기대자녀수는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2명 이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에 2명의 기대자녀수를 갖는 비율은 초등 이하(15.9%), 중학교(36.7%), 고등학교(42.9%), 대학 이상(55.8%)으로 고학력일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2012년에는 초등 이하(54.4%), 중학교(54.5%), 고등학교(62.2%), 대학 이상(63.3%)으로 경향성은 동일하나 그 껍이 확연히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명의 기대자녀를 갖는 비율은 초등 이하가 15.8%인 반면 대학 이상은 23.6%로 고학력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부표 2-17 참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기대자녀수의 분포는 2자녀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으로 유사하게 나타나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 직종별로는 고학력 직종일수록 기대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6년에는 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종사자의 고학력 직종에서는 2명 이하를, 서비스 및 판매직, 기타 직군에서는 2명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에는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자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고학력 직종일수록 1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부표 2-18~2-19 참조).

〈표 6-41〉은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평균 기대자녀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이다. 기대자녀수는 1976년 3.52명에서 2012년 1.94명으로 1.5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증감 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연령의 급속한 기대자녀수 감소, 초혼연령의 만혼화 현상, 저학력 계층의 급속한 기대자녀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일반특성별 평균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76 ~2012 증감
전체 (대상자수)	3.52 (5,983)	3.05 (5,367)	2.83 (5,094)	2.46 (7,788)	2.32 (7,377)	2.27 (6,053)	2.16 (6,446)	2.04 (6,336)	2.03 (7,151)	1.94 (7,277)	1.94 (6,224)	1.94 (7,264)	-1.58 -
연령													
15~24세	2.25	2.02	1.51	1.44	1.62	1.90	1.85	1.69	1.73	1.76	1.89	1.77	-0.48
25~29세	2.58	2.29	1.91	1.73	1.82	1.95	1.90	1.72	1.78	1.71	1.79	1.70	-0.88
30~34세	3.26	2.65	2.42	2.19	2.02	2.02	2.01	1.93	1.94	1.86	1.88	1.91	-1.35
35~39세	3.85	3.14	3.03	2.61	2.35	2.21	2.08	2.04	2.02	1.98	1.93	1.96	-1.89
40~44세	4.44	3.87	3.68	3.10	2.74	2.57	2.23	2.07	2.06	2.06	2.00	1.99	-2.48
45~49세	4.68	-	4.30	3.80	3.31	3.08	2.83	2.44	2.26	2.01	2.00	1.99	-2.69
초혼연령													
19세 미만	4.28	3.90	3.71	3.35	2.88	2.90	2.66	2.48	2.41	2.12	2.16	2.10	-2.18
20~22세	3.23	2.96	2.85	2.55	2.47	2.41	2.33	2.19	2.19	2.05	2.06	2.09	-1.14
23~25세	2.72	2.48	2.28	2.14	2.14	2.13	2.05	2.00	2.02	1.98	2.03	2.04	-0.68
26~28세	2.51	2.24	2.09	1.85	1.90	1.94	1.90	1.80	1.85	1.87	1.88	1.90	-0.61
29~31세	2.31	1.83	1.98	1.49	1.72	1.69	1.59	1.59	1.67	1.64	1.77	1.74	-0.57
32세 이상	1.56	1.96	1.63	1.67	1.35	1.55	1.27	1.46	1.41	1.44	1.49	1.47	-0.09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76 ~2012 증감
교육수준													
초등 이하	3.92	3.65	3.59	3.25	3.00	2.93	2.78	2.55	2.50	2.14	2.14	2.10	-1.82
중학교	2.90	2.58	2.41	2.30	2.32	2.33	2.27	2.20	2.13	2.03	2.00	1.95	-0.95
고등학교	2.57	2.32	2.05	1.94	2.01	2.06	2.02	1.96	1.99	1.96	1.99	1.98	-0.59
대학 이상	2.38	2.25	2.02	1.89	1.93	1.96	1.91	1.83	1.89	1.86	1.86	1.90	-0.48
경제활동상태													
취업	3.84	3.44	2.98	2.66	2.48	2.41	2.26	2.11	2.07	1.96	1.93	1.92	-1.92
비취업	3.32	2.84	2.77	2.32	2.23	2.15	2.06	1.98	1.99	1.92	1.95	1.96	-1.36
직종													
관리직전문직	2.73	2.30	1.80	1.95	1.74	1.98	1.86	1.85	1.90	1.86	1.90	1.89	-0.84
사무종사자	2.00	2.29	1.96	1.59	1.88	1.94	1.88	1.78	1.84	1.81	1.77	1.85	-0.15
서비스판매직	3.41	3.02	2.97	2.52	2.31	2.29	2.16	2.02	2.04	1.97	1.93	1.93	-1.48
기타	4.08	3.83	3.11	2.87	2.79	2.59	2.51	2.33	2.23	2.08	2.04	2.03	-2.05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5)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6)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 노동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이상자녀수와 마찬가지로 일반특성별로 최대 평균 기대자녀수와 최소 평균 기대자녀수의 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상자녀수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일반특성별로 1.47~2.10명까지 넓은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혼연령에 따른 기대자녀수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세 미만에 초혼한 기혼여성은 2.16명의 기대자녀수를 갖는 반면 32세 이상 늦은 나이에 초혼한 기혼여성은 1.49명으로 0.7명 정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만혼화 현상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나.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기대자녀의 성별선호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는 ‘아들 1명 딸 1명

(2자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1명, 딸 1명(2자녀)'을 선호하는 비율은 1976년 13.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37.9%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34.8% 수준이다. 반면에 '아들 1명(1자녀)'과 '딸 1명(1자녀)'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76~2012년 아들 1명 선호관은 5.6%에서 14.1%로 증가했으며 딸 1명 선호관 또한 2.7%에서 11.9%까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아들 2명 딸 2명(4자녀)'은 8.7%에서 0.5%로, '아들 2명 딸 1명(3자녀)'은 13.6%에서 3.4%까지 감소하였다(표 6-42참조).

〈표 6-4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아들 1명	딸 1명	아들 2명	딸 2명	아들 1명 딸 1명	아들 1명 딸 2명	아들 2명 딸 1명	아들 2명 딸 2명	기타	계(명)
1976년	5.6	2.7	6.0	1.5	13.4	8.1	13.6	8.7	40.4	100.0 (5,804)
1982년	8.2	4.4	9.8	2.3	22.1	10.2	14.1	6.0	23.0	100.0 (4,140)
1985년	8.6	5.3	10.4	4.6	21.5	10.2	11.2	4.7	23.5	100.0 (4,872)
1988년	9.9	5.9	13.3	5.0	27.9	9.1	9.3	3.8	15.8	100.0 (7,385)
1991년	9.8	5.8	14.1	6.0	31.0	10.5	8.3	2.6	11.9	100.0 (6,997)
1994년	10.8	6.2	15.0	7.3	35.4	9.3	6.1	1.4	8.6	100.0 (5,729)
1997년	10.2	6.8	17.4	8.2	36.5	8.2	5.1	1.1	6.6	100.0 (6,003)
2000년	11.7	8.2	17.2	9.4	36.1	7.9	3.9	0.4	5.1	100.0 (5,946)
2003년	10.4	7.0	17.4	9.9	37.4	8.5	4.0	0.4	5.0	100.0 (6,751)
2006년	11.7	8.5	17.2	10.5	37.9	6.9	3.3	0.3	3.8	100.0 (6,755)
2009년	12.0	9.0	17.0	11.4	37.1	6.5	3.1	0.4	3.6	100.0 (5,797)
2012년	14.1	11.9	14.7	11.3	34.8	6.1	3.4	0.5	3.2	100.0 (6,788)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기대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대자녀수의 성별선호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76년에는 고연령일수록 3자녀 이상을 포괄하는 기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다자녀관을 의미하는 기타 의견은 15~24세(2.7%), 25~29세(8.8%), 30~34세(32.3%), 35~39세(54.7%), 40~44세(66.6%), 45~49세(71.4%)로 고연령일수록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에는 25~29세를 제외하고는 ‘아들 1명, 딸 1명(2자녀)’을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43 참조).

〈표 6-4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아들 1명	19.2	25.4	27.2	25.6	24.4	23.5	30.7	27.0	32.5	23.8	22.8	26.8
딸 1명	9.7	10.8	20.2	20.2	14.0	14.7	22.1	25.7	26.5	25.0	31.6	32.1
아들 2명	6.3	5.7	8.3	6.4	2.7	2.0	7.9	8.8	3.6	2.4	-	-
딸 2명	1.1	1.3	4.4	2.3	3.5	2.9	-	4.7	6.0	4.8	-	5.4
아들 1명 딸 1명	34.6	39.5	33.1	40.7	48.8	47.1	31.4	27.7	22.9	33.3	29.8	33.9
아들 1명 딸 2명	3.2	3.6	3.7	2.8	2.3	4.4	4.3	1.4	3.6	7.1	10.5	1.8
아들 2명 딸 1명	19.9	9.5	2.0	1.0	3.5	5.4	2.9	2.7	4.8	2.4	1.8	-
아들 2명 딸 2명	3.2	0.6	0.2	0.3	0.4	-	-	1.4	-	-	-	-
기타	2.7	3.6	0.7	0.8	0.4	-	0.7	0.7	-	1.2	3.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57)	(473)	(332)	(391)	(255)	(206)	(148)	(126)	(72)	(82)	(52)	(52)
25~29세												
아들 1명	8.1	12.4	17.3	20.6	19.4	21.7	21.1	25.2	18.0	24.5	21.9	20.8
딸 1명	4.8	7.1	10.5	10.9	12.4	11.7	16.3	18.5	18.7	20.5	20.4	34.0
아들 2명	11.2	12.4	13.2	13.8	11.5	10.5	10.9	9.0	9.1	8.1	9.9	2.6
딸 2명	2.9	4.5	7.9	7.6	7.5	6.4	7.5	8.5	9.4	5.1	7.0	7.9
아들 1명 딸 1명	26.2	33.6	35.4	39.2	42.2	40.8	36.8	31.5	35.0	32.8	31.3	27.1
아들 2명 딸 2명	5.4	2.6	0.4	0.2	0.3	0.1	0.1	-	0.6	0.4	0.5	0.3
아들 2명 딸 1명	18.1	10.4	4.4	1.4	1.3	2.4	3.1	2.8	2.5	3.0	2.4	0.7
아들 1명 딸 2명	14.4	10.8	8.0	4.4	4.8	4.8	3.4	3.1	5.5	4.9	5.5	5.6
기타	8.8	6.1	3.0	1.9	0.6	1.5	0.8	1.4	1.2	0.6	1.2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78)	(1,078)	(1,078)	(1,664)	(1,274)	(958)	(859)	(746)	(562)	(466)	(385)	(338)
30~34세												
아들 1명	2.7	3.9	7.0	8.0	11.4	11.8	10.5	12.7	13.4	15.0	17.7	19.4
딸 1명	1.3	2.8	3.3	4.2	6.9	7.3	6.8	10.3	9.4	13.9	14.5	17.9
아들 2명	8.0	13.9	16.3	18.2	17.9	17.8	20.4	15.8	15.7	14.5	12.4	11.9
딸 2명	1.9	2.5	7.0	7.6	9.0	10.0	9.4	12.2	11.2	11.0	12.9	9.3
아들 1명 딸 1명	13.0	23.4	28.8	35.9	38.7	41.8	42.4	38.6	38.6	34.7	31.6	30.0
아들 1명 딸 2명	12.5	13.7	11.9	11.0	9.0	6.6	5.9	5.5	5.4	4.8	5.1	5.2
아들 2명 딸 1명	17.9	17.2	12.6	6.5	2.9	2.9	1.7	2.6	3.1	3.8	3.1	3.5
아들 2명 딸 2명	10.4	4.8	2.1	1.6	0.4	0.1	0.1	0.2	0.2	0.2	0.5	0.9
기타	32.3	17.9	11.0	7.0	3.7	1.6	2.8	2.2	2.9	2.0	2.1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22)	(974)	(992)	(1,767)	(1,746)	(1,423)	(1,357)	(1,204)	(1,369)	(1,316)	(922)	(1,188)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35~39세												
아들 1명	2.9	3.4	2.6	4.3	6.7	8.6	8.1	8.5	8.1	9.4	11.6	13.2
딸 1명	1.1	1.8	2.2	2.5	2.5	4.3	4.4	5.5	6.0	6.9	8.4	10.8
아들 2명	4.3	8.3	10.7	14.4	17.9	19.4	20.1	20.3	20.9	18.2	17.1	14.8
딸 2명	0.5	1.4	4.0	2.9	6.9	9.2	10.1	10.0	11.0	12.1	13.5	13.4
아들 1명 딸 1명	5.5	12.3	18.0	24.6	32.1	36.4	41.3	40.7	38.4	39.2	36.9	34.7
아들 1명 딸 2명	6.6	12.6	15.5	13.5	12.9	9.1	8.4	8.0	7.4	7.2	5.5	5.6
아들 2명 딸 1명	13.1	16.9	16.2	15.0	9.2	4.3	2.6	3.2	3.8	3.3	3.4	4.2
아들 2명 딸 2명	11.2	9.1	5.1	3.7	1.3	0.7	0.5	0.2	0.3	0.2	0.2	0.2
기타	54.7	34.1	25.8	19.0	10.5	8.2	4.5	3.6	4.2	3.5	3.5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58)	(791)	(850)	(1,381)	(1,521)	(1,380)	(1,552)	(1,443)	(1,649)	(1,700)	(1,500)	(1,638)
40~44세												
아들 1명	2.6	2.2	3.5	2.5	4.5	4.1	7.4	10.0	9.0	9.0	7.9	12.6
딸 1명	1.4	1.6	0.9	1.5	2.1	2.9	4.3	5.0	4.1	5.5	6.0	9.6
아들 2명	1.9	5.1	5.3	10.5	13.9	14.4	19.0	19.3	19.3	19.5	19.3	16.8
딸 2명	0.8	0.5	1.2	2.5	2.9	5.7	8.8	9.6	9.6	10.1	11.7	11.1
아들 1명 딸 1명	4.1	4.8	6.8	14.3	19.7	30.1	34.2	38.5	39.5	39.2	39.5	35.6
아들 1명 딸 2명	4.5	6.8	10.8	10.4	16.2	15.8	10.8	8.5	10.1	7.7	6.9	5.7
아들 2명 딸 1명	7.5	15.4	16.8	18.7	15.7	10.0	6.6	3.3	3.3	3.8	3.5	3.8
아들 2명 딸 2명	10.7	11.8	9.7	9.0	5.1	3.0	1.0	0.3	0.3	0.4	0.4	0.5
기타	66.6	51.8	45.0	30.5	19.9	13.9	7.9	5.4	4.8	4.8	4.8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06)	(819)	(814)	(1,122)	(1,255)	(973)	(1,193)	(1,365)	(1,718)	(1,603)	(1,457)	(1,922)
45~49세												
아들 1명	3.8	-	1.9	3.0	1.7	3.6	3.6	5.3	8.1	9.6	10.0	11.1
딸 1명	0.9	-	1.3	1.7	2.3	1.7	3.1	3.8	3.7	4.2	5.2	5.9
아들 2명	2.7	-	3.9	4.6	7.8	12.1	13.6	18.5	16.5	19.4	19.8	17.3
딸 2명	1.4	-	0.5	0.8	1.8	2.7	3.7	6.4	8.1	10.8	9.6	12.0
아들 1명 딸 1명	3.4	-	3.8	4.7	10.0	17.7	22.1	27.3	34.1	39.7	40.1	38.9
아들 1명 딸 2명	2.9	-	6.8	8.7	12.2	13.7	13.2	14.7	12.4	7.9	8.2	7.9
아들 2명 딸 1명	4.6	-	12.4	13.7	17.5	15.7	15.1	8.5	6.5	2.5	2.7	2.7
아들 2명 딸 2명	8.8	-	11.4	11.7	9.2	4.9	5.1	1.4	0.6	0.3	0.4	0.5
기타	71.4	-	58.0	51.1	37.5	27.8	20.7	13.9	9.8	5.6	4.1	3.7
계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83)	-	(806)	(1,060)	(946)	(789)	(894)	(1,062)	(1,381)	(1,588)	(1,481)	(1,650)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기대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그러나 특이할 만한 것은 2012년에 접어들어서는 1자녀 선호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저연령일수록 1자녀 선호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1자녀 선호에 있어서도 아들 1명, 딸 1명의 선호비율을 살펴보면

15~24세는 26.8%, 32.8%, 25~29세는 20.8%, 34.0%로 29세 미만에서는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34세는 19.4%, 17.9%, 35~39세는 13.2%, 10.8%, 40~44세는 12.6%, 9.6%, 45~49세는 11.1%, 5.9%로 30세 이상에서는 아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임기간의 잔여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자녀를 낳는다면 대를 이어줄 아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6-44〉에서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는 초혼연령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1976년에는 22세 이하의 나이에 초혼한 기혼 여성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관을 의미하는 기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19세 미만 60.1%, 20~24세 32.8%), 23세 이상의 나이에 초혼한 기혼여성은 ‘아들 1명, 딸 1명(2자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25세 23.5%, 26~28세 26.4%, 29~31세 29.6%, 32세 이상 28.6%).

그러나 2012년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25세 이하의 나이에 초혼한 기혼여성의 경우 ‘아들 1명, 딸 1명(2자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6세 이상 연령에 초혼한 기혼여성은 2자녀를 가장 선호하고는 있으나, 그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오히려 1자녀 선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2세 이상의 늦은 나이에 초혼한 여성의 경우 2자녀보다는 ‘딸 1명(27.6%)’, ‘아들 1명(30.2%)’의 한 자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큰 기저에는 혼인율의 상승과 함께 혼인연령을 낮추기 위한 제반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4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기대자녀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세 미만												
아들 1명	3.7	4.4	3.7	3.8	4.1	5.5	5.5	6.9	6.9	7.1	12.0	20.7
딸 1명	1.3	1.8	2.5	2.5	3.5	2.3	1.6	5.0	3.2	6.5	6.8	7.1
아들 2명	3.0	5.3	7.6	7.8	12.6	12.1	15.4	15.9	19.0	17.4	12.4	16.1
딸 2명	0.8	1.1	2.0	2.3	4.9	3.3	4.1	5.2	5.9	8.0	5.6	8.9
아들 1명 딸 1명	6.0	13.3	11.0	14.4	18.9	24.3	28.5	29.2	27.7	33.9	33.1	25.7
아들 1명 딸 2명	5.2	8.1	8.5	8.5	11.5	12.8	10.5	10.0	12.8	12.1	15.0	7.1
아들 2명 딸 1명	9.1	15.1	13.1	13.3	13.0	11.3	10.9	12.8	9.9	7.8	7.1	5.4
아들 2명 딸 2명	10.7	10.2	9.0	8.4	6.2	5.3	3.6	1.8	1.2	0.2	0.8	1.4
기타	60.1	40.6	42.5	38.9	25.5	23.1	19.9	13.1	13.4	6.9	7.1	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83)	(967)	(1,196)	(1,302)	(993)	(703)	(648)	(622)	(625)	(449)	(243)	(265)
20-22세												
아들 1명	6.3	8.3	8.0	7.2	6.9	7.1	7.1	9.5	7.8	10.1	8.8	10.5
딸 1명	3.3	3.8	4.2	4.5	4.0	4.3	4.1	5.2	4.5	5.8	6.0	7.0
아들 2명	6.3	9.3	11.1	13.4	14.4	15.7	19.3	18.1	18.1	18.7	19.5	17.6
딸 2명	1.4	1.8	4.1	4.6	5.5	5.6	6.4	7.9	8.1	8.5	10.7	10.2
아들 1명 딸 1명	15.1	20.8	21.5	25.3	29.4	32.9	34.7	35.0	37.5	37.9	37.1	36.3
아들 1명 딸 2명	9.3	11.5	10.0	10.7	12.0	12.5	10.0	11.4	12.0	8.8	8.4	8.3
아들 2명 딸 1명	16.6	15.2	12.6	11.2	10.0	8.8	7.7	5.0	5.0	4.0	3.2	4.2
아들 2명 딸 2명	8.8	6.2	4.5	4.6	3.7	1.5	1.7	0.7	0.4	0.5	0.7	1.1
기타	32.8	23.2	24.0	18.3	14.0	11.5	9.0	7.2	6.5	5.8	5.6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85)	(1,650)	(1,980)	(2,819)	(2,511)	(1,926)	(1,800)	(1,647)	(1,762)	(1,540)	(932)	(1,064)
23-25세												
아들 1명	7.5	9.3	11.6	12.0	11.8	11.7	11.1	10.9	8.9	9.2	8.2	9.8
딸 1명	4.0	6.6	7.4	6.7	6.3	7.1	7.0	7.3	6.5	6.7	7.3	8.4
아들 2명	10.3	13.3	11.6	14.6	15.2	16.2	18.1	18.4	18.0	18.4	17.5	15.5
딸 2명	2.2	3.9	6.2	5.5	6.5	9.0	9.0	10.5	11.2	11.9	10.8	12.3
아들 1명 딸 1명	23.5	28.2	27.1	32.8	35.2	39.0	39.6	39.1	40.1	40.3	40.6	39.5
아들 1명 딸 2명	12.3	10.0	12.1	8.9	9.9	7.9	7.8	7.3	8.0	7.0	7.6	6.8
아들 2명 딸 1명	16.9	12.3	8.9	7.4	6.6	3.7	3.4	2.5	3.2	2.7	3.7	3.9
아들 2명 딸 2명	6.0	3.1	2.6	2.6	0.9	0.6	0.5	0.2	0.2	0.2	0.3	0.4
기타	17.5	13.3	12.6	9.4	7.7	4.8	3.5	3.8	3.8	3.4	4.1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0)	(1,191)	(1,354)	(2,530)	(2,650)	(2,217)	(2,509)	(2,386)	(2,665)	(2,642)	(2,034)	(2,438)
26-28세												
아들 1명	7.9	13.1	11.9	19.3	16.7	16.6	13.6	16.3	14.5	14.1	14.2	14.8
딸 1명	6.6	5.8	10.6	8.7	11.1	9.4	12.1	11.2	9.8	9.9	9.5	12.8
아들 2명	11.2	12.4	11.0	12.9	13.0	13.5	14.8	15.0	16.3	15.9	16.3	14.8
딸 2명	4.5	2.4	7.6	6.2	6.7	9.0	11.6	12.2	12.1	11.9	13.0	12.4
아들 1명 딸 1명	26.4	33.7	30.6	37.0	37.8	40.1	39.0	36.8	37.6	38.1	36.7	33.8
아들 1명 딸 2명	9.1	11.0	7.7	5.3	7.7	4.8	5.2	4.5	4.4	4.6	4.9	5.5
아들 2명 딸 1명	17.4	13.1	9.2	3.9	2.9	3.2	2.0	1.9	2.5	3.1	2.5	3.0
아들 2명 딸 2명	1.2	2.4	2.3	0.6	0.8	0.4	-	0.1	0.2	0.2	0.1	0.3
기타	15.7	6.2	9.0	5.9	3.3	3.0	1.9	2.1	2.5	2.2	2.7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2)	(291)	(290)	(641)	(697)	(728)	(819)	(1,019)	(1,307)	(1,545)	(1,750)	(1,981)

198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9-31세												
아들 1명	11.1	26.9	31.8	19.4	28.9	33.6	19.7	23.5	21.8	23.4	17.5	20.1
딸 1명	7.4	15.4	7.1	22.4	10.9	10.9	21.3	22.7	14.2	19.2	13.6	21.1
아들 2명	18.5	15.4	3.5	10.4	6.3	8.6	15.0	12.0	14.5	11.2	18.3	10.0
딸 2명	3.7	-	10.6	6.0	9.4	9.4	10.2	8.0	7.0	8.3	11.9	10.7
아들 1명 딸 1명	29.6	23.1	17.6	32.8	28.9	33.6	26.8	28.7	33.4	31.9	32.5	31.3
아들 1명 딸 2명	3.7	3.8	9.4	3.0	4.7	0.8	5.5	3.6	5.5	2.9	2.7	3.9
아들 2명 딸 1명	11.1	7.7	1.2	1.5	3.9	1.6	0.8	0.8	1.2	1.2	2.0	1.4
아들 2명 딸 2명	-	-	1.2	-	0.8	0.8	-	-	-	0.2	0.5	0.2
기타	14.8	7.7	17.6	4.5	6.3	0.8	0.8	0.8	2.3	1.7	1.1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7)	(26)	(45)	(67)	(120)	(117)	(125)	(188)	(277)	(406)	(583)	(711)
32세 이상												
아들 1명	28.6	13.3	9.1	30.8	14.8	28.6	34.1	19.1	27.6	25.5	27.3	30.2
딸 1명	-	20.0	18.2	15.4	29.6	14.3	22.0	34.5	23.1	26.8	20.7	27.6
아들 2명	28.6	13.3	-	7.7	3.7	9.5	2.4	11.8	5.2	10.8	9.5	11.1
딸 2명	14.3	-	18.2	3.8	3.7	-	7.3	2.7	7.5	5.1	12.0	6.0
아들 1명 딸 1명	28.6	6.7	36.4	23.1	33.3	35.7	29.3	21.8	29.1	24.8	26.5	21.0
아들 1명 딸 2명	-	13.3	-	-	7.4	-	4.9	2.7	2.2	3.8	1.8	1.9
아들 2명 딸 1명	-	13.3	18.2	3.8	-	7.1	-	3.6	2.2	0.6	1.1	1.0
아들 2명 딸 2명	-	13.3	-	3.8	-	-	-	0.9	-	0.6	-	-
기타	-	6.7	-	11.5	7.4	4.8	0.0	2.7	3.0	1.9	1.1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	(15)	(7)	(26)	(26)	(38)	(37)	(84)	(115)	(156)	(255)	(316)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기대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교육수준별로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고학력일수록 기대자녀수가 적게 나타났다. 1976년 초등 이하, 중학교의 저학력 기혼여성은 3명 이상의 기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대학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은 2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2012년에는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아들 1명, 딸 1명(2자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학력일수록 '아들 2명(2자녀)' 또는 '아들 1명(1자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아선호 경향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부표 2-20 참조).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는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직종에 따라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직종과 무관하게 1976년에는 기대자녀수로 3명 이상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2자녀 이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자녀 선호 비율의 증가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특히 2012년에는 1자녀 선호는 고위직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아들 1명(1자녀)’을 선호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관리직 및 전문직(20.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및 판매직(13.2%)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일반적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위직일수록 높은 만혼화로 인해 한 자녀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부표 2-21~2-22 참조).

3.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

1976~2015년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상자녀수는 2.84명에서 2.25명으로 0.59명 감소하여 그 감소 정도가 미미한 반면 기대자녀수는 3.52명에서 1.94명으로 1.58명 감소하고 현존자녀수는 3.19명에서 1.75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45 참조).

〈표 6-4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

(단위: 명)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¹⁾	1976 ~2015 증감
이상자녀수	3.19	2.84	2.46	2.10	2.05	2.16	2.29	2.29	2.26	2.26	2.28	2.26	2.22	2.25	-0.59
기대자녀수	-	3.52	3.05	2.83	2.46	2.32	2.27	2.16	2.04	2.03	1.94	1.94	1.94	1.94	-1.58
현존자녀수	3.31	3.19	2.79	2.70	2.31	2.12	2.03	1.95	1.87	1.88	1.76	1.75	1.75	1.75	-1.44

주: 1) 이삼식 등(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임.

2)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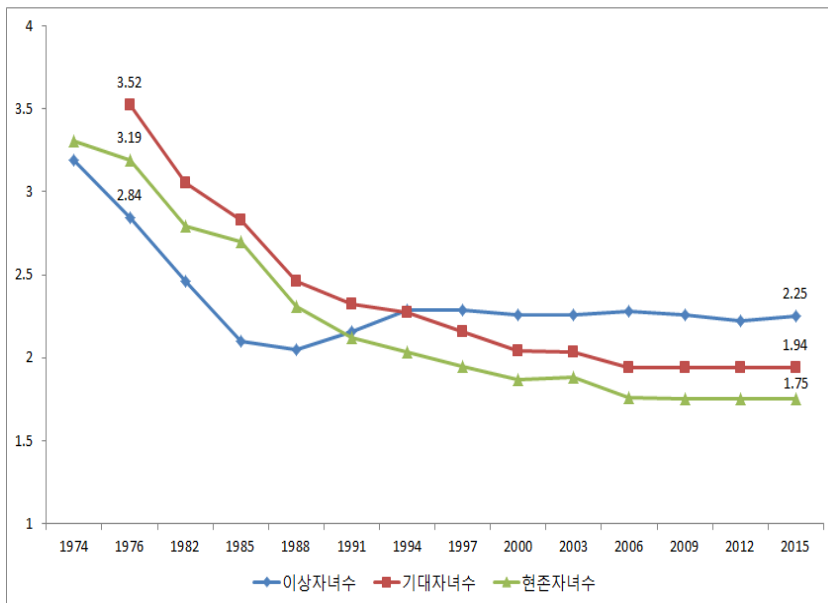
3)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4)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1991년까지는 이상자녀수가 기대자녀수와 현존자녀수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1994년부터는 이상자녀수가 기대자녀수와 현존자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추이를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인식’이라 할 수 있는 이상자녀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는 기대자녀수와 ‘실질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현존자녀수는 출산장려정책기인 현재에도 여전히 2명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추이
(단위: 명)



-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기대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제4절 소결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혼 및 출산 행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법률혼과 유배우 중심으로 출산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결혼, 출산, 자녀, 성역할 분담 등 가족과 관련한 주관적 태도를 의미하는 가족가치관은 출산율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가치관은 1974~2012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가치관에 있어서 결혼 필요성 인식은 점차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가치관 인식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30세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연도별로 평균 초혼연령층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 가치관은 2015년에 접어들어 긍정적 인식에서 부정적 인식으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적령기 여성의 결혼 인식이 결혼 행태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시기이며 가치관은 동년배, 사회문화적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인식’에 해당하는 적정 결혼연령과 ‘행위’에 해당하는 평균 초혼연령 간의 갭이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 이르러서는 동일해졌다는 것이다. 즉 ‘인식’과 ‘행위’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결혼가치관에 있어서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가치관 또한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여 기혼여성의 결혼관이 보다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력, 고위직의 기혼여성은

다른 일반적 특성을 지니는 기혼여성에 비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고학력화, 고위직 진출 등의 사회적 현상과 함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가치관은 보다 급속하게 개방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자녀가치관에 있어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필수적’ 가치관에서 ‘선택적’ 가치관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아들에 대한 필요성은 기혼여성의 가치관 변화 중 가장 극적인 형태를 보이며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녀 필요성 가치관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모의 평균 출산연령층에 해당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이 집단에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2009년 61.0%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44.5%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자녀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들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1970년 60.5%에서 8.8%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가문의 대, 제사 등의 유교적인 사상보다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 등 심리정서적 만족감을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는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선호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2자녀 선호가치관은 감소 추세에 있고, 1자녀 선호가치관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의 가치관 변화에 있어서 고연령 기혼여성의 급속한 이상·기대자녀수 감소,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만혼화 현상의 팽배, 저학력 계층의 급속한 이상·기대자녀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고위직 진출 등이 출산율 감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선호에 있어서도 기존의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자녀수에서 3자녀를 원하는 경우에도 ‘아들 1명, 딸 2명 (3자녀)’으로 딸을 더 선호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자녀수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의 가치관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에 접어들어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유사한 수준(이상자녀수는 2.06~2.30명, 기대자녀수는 1.49~2.10명) 내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기혼여성의 자녀 수에 대한 가치관이 일반적인 특성과는 무관하게 유사한 가치관으로 수렴화·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7 장

결론

제1절 인구정책과 출산행태 변화와의 관계

제2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인구정책과 출산행태 변화와의 관계

1.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대학졸업부터 출산종결까지 평균적 삶의 모습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대학졸업부터 임신종결까지 평균적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에 대학에 입학하여 22세에 졸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5년이고, 이후 1년 동안 취업준비를 하여 24세에 취업하고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30세에 결혼하지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결혼 후 1년인 31.4세에 첫째아를 출산하고, 둘째아를 출산하고자 하는 여성은 약 2년의 터울을 두고 34.2세에 둘째아를 출산한다. 이후 41.9세에 불임수술을 통해 임신·출산을 종결하는데, 결혼 후 출산종결에 이르기까지 0.57회의 자연유산 또는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다. 결혼 후 불임수술까지 실제 가임기간은 11.9년에 불과하고, 첫째아 출산 후 10.5년은 둘째아를 출산할지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7-1 참조).²⁴⁾

24) 초혼연령별 출산간격은 차이가 적으나,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은 크게 벌어지고 있음. 1988년과 2006년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결혼~첫째아 출산은 0.4개월(16.4개월→16.8개월), 첫째아~둘째아 출산은 5개월(29.1개월→34.1개월), 15.3개월(33.0개월→48.3개월)로 출산간격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추가출산 선택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표 5-5 참조).

〈표 7-1〉 한국 여성의 출산종결까지의 평균적 삶

구분	대학졸업	취업준비	취업 ¹⁾	초혼	첫째아 ²⁾	둘째아 ²⁾	불임수술 ³⁾
연령	22세	23세	24세	30세	31.4세	34.2세	41.9세

주: 1) 대학 학령기는 만 18~21세, 4년제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0.4개월, 첫 취업 소요기간은 11.0개월임(2015. 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 2006년 조사에서 첫째아 출산은 결혼 후 16.8개월, 둘째아 출산은 첫째아 출산 후 34.1개월 소요됨(표 5-4 참조).

3) 2012년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불임수술률을 토대로 추정 계산함(15~44세는 〈표 5-18〉 참조, 45~49세는 39.5%).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 인구정책과 출산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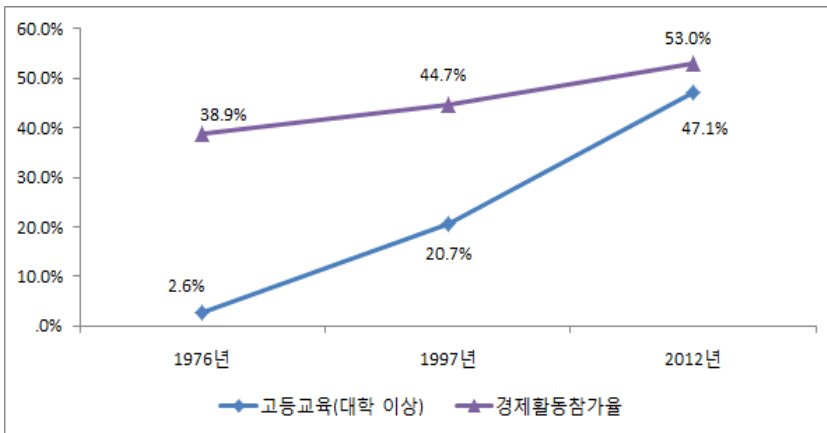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를 거쳐 출산장려정책기에 이르고 있다. 각 정책기에 해당하는 1976년, 1997년, 2012년 출산력 조사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출산행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초기 인구정책은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실시되었다. 과도한 인구증가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경제개발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출산억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명에 달하던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1.5~1.7명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이후 인구자질향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고,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시 전환하여 출산율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교육수준도 급격히 향상되었다.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 70.5%에서 0.9%로 급감하는 대신 고학력 계층이 급증하였는데, 특히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기혼여성은 2.6%에서 47.1%까지 상승하였다.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경제활동도 고급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혼 취업여성의 직종은 농업 등 기타 직종이 41.9%에서 10.5%로 감소하는 대신 관리자 및 전문직이 1.6%에서 11.8%로, 사무종사자가 0.7%에서 12.5%로 상승하는 등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감소 후 반등하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이는 1차산업에서 2차, 3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덧붙여 IMF 외환위기의 영향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7-1]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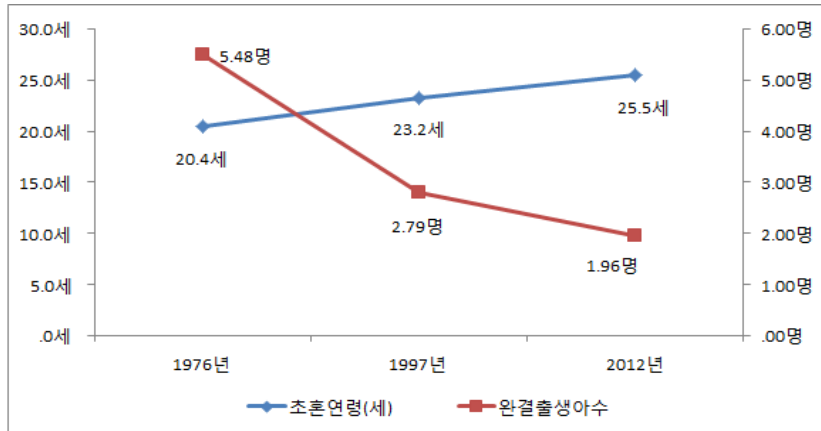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교육수준의 향상은 양질의 직업·직종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임금상승에 따른 경제적 독립성의 증가는 결혼의 효용을 감소시켜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비혼을 선택하게 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초혼연령은 20.4세에서 23.2세, 25.5세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불과 36년 만에 5.1세가 늘어난 바, 교육수준의 향상이 초혼연령을 늦추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한편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임기간의 단축, 난임·불임 등 생식능력 약화로 이어져 출생아 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완결(45~49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수가 5.48명에서 1.96명까지 감소

한 것은 초혼연령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표 7-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결혼 후 불임수술까지 실가임기간은 11.9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2]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 변화와 출산완결부인(45~49세)의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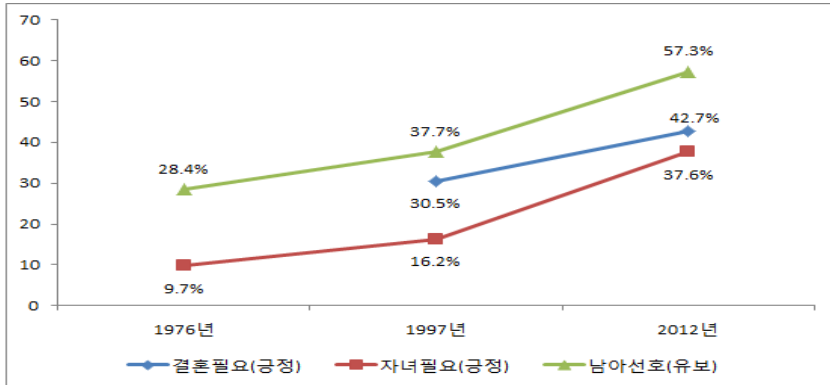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출산을 저하의 이면에는 가치관의 변화도 한몫을 했다. 인구억제정책기를 거치는 동안 결혼관, 자녀관, 남아선호사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결혼관과 관련하여 결혼은 필수(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큰 변화가 없지만(2000년 19.2%, 2012년 17.8%), 유보(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적 입장은 44.2%에서 34.8%로 감소한 반면 긍정(하는 편이 좋다)적 입장은 30.5%에서 42.7%로 증가하였다. 비록 선택적 입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보적 입장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태도가 바뀐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가정의 날, 양성평등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7-3]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필요성 및 자녀 필요성, 아들 필요성



주: 1) 결혼필요(긍정) 30.5%는 2000년 결과이고, 자녀필요(긍정) 9.7%는 1985년 결과임.

2) 결혼필요(긍정)는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고, 자녀필요(긍정)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응답이며, 남아선호(유보)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임.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자녀관과 관련해서는 자녀는 필수(꼭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80.9%에서 46.4%로 하락한 반면 긍정(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적인 응답은 9.7%에서 37.6%로 상승하였고, 유보적 입장(없어도 상관없다)도 같은 기간 8.9%에서 15.7%로 소폭 상승하였다. 자녀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하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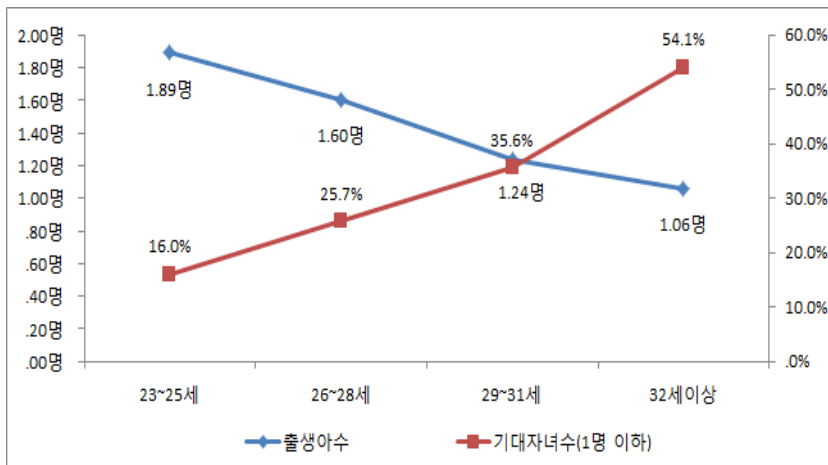
한편 남아선호사상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아들이 필수(꼭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60.5%에서 8.8%로 대폭 감소한 반면 유보적 입장(없어도 상관없다)은 28.4%에서 57.3%까지 상승하였고, 긍정적 입장(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역시 10.7%에서 33.4%까지 상승하였다. 결국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10명 중 6명 정도는 아들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아 남아선호사상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실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결혼 및 가족 가치관 변화를 위한 홍보·교육의 강화

초혼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초혼연령별 출생아 수는 23~25세 1.89명, 26~28세 1.60명, 29~31세 1.24명, 32세 이상 1.06명 등이다. 결혼 후 임신·출산, 태울 등을 감안할 때 결혼이 늦어질수록 실가임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기대자녀수(1명 이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3~25세 16.0%, 26~28세 25.7%, 29~31세 35.6%, 32세 이상 54.1% 등 연령이 올라갈수록 1명 이하 자녀를 기대하는 비율이 급증한다. 따라서 초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그림 7-4 참조).

[그림 7-4]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출생아 수 및 기대자녀수 1명 이하 비율(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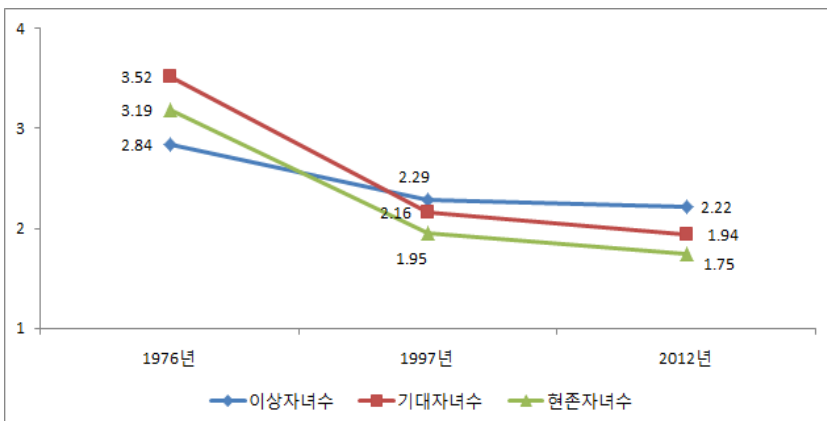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한편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과거 출산억제정책기에 실시하던 KAP와 대비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은 K(knowledge; 인식), A(Attitude; 태도), P(practice; 실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상자녀수는 사회적 인식 또는 가치관과 관련되고, 기대자녀수는 개인의 자녀에 대한 태도이며, 현존자녀수는 실제 출산행동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개개인의 KAP 변화 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책기별로 이상자녀수는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기대자녀수와 현존자녀수는 정책기를 거치면서 역전되고 있다. 출산억제정책기에는 이상자녀수(2.84명)보다 현존자녀수(3.19명) 및 기대자녀수(3.52명)가 높았으나, 인구자질향상정책기에 접어들어 이상자녀수(2.29명)에 비해 기대자녀수(2.16명) 및 현존자녀수(1.95명)가 낮아졌고, 출산장려정책기에는 이상자녀수(2.22명)에 비해 기대자녀수(1.94명) 및 현존자녀수(1.75명)가 더욱 낮아지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림 7-5]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현존자녀수

(단위: 명)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의 간격이 더 벌어진다는 것은 우려를 낳게 하는 현상이며, 이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자녀에 관해서는 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보임으로 자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출산행위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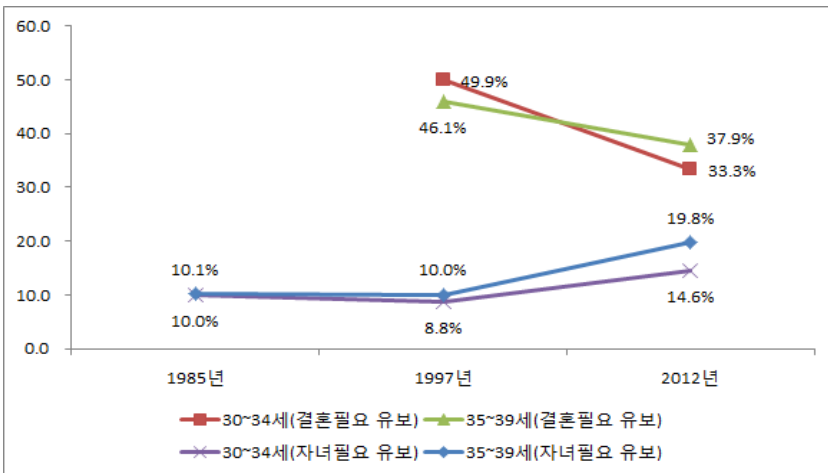
결혼관 및 자녀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을 차별화하여 접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면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지도층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초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중기 접근방법으로서 가임기 여성, 특히 결혼 및 출산 주도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는 빠른 시일 내에 결혼 및 출산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초혼연령과 첫째아 출산 시기를 감안할 때 결혼 및 출산 주도 연령층은 30~34세 연령층이라 할 수 있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하면 35~39세 연령층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령층 내에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이 차이가 나는 계층보다는 또래집단의 결혼·출산에 대한 KAP의 전파 효과가 더 클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30~34세, 35~39세 연령층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다소 희망적이다. 결혼은 필수(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긍정(하는 편이 좋다)의 응답이 유보(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유보적 입장이 각각 49.9%에서 33.3%로, 46.1%에서 33.3%로 감소

하고 긍정적 입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비율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긍정적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7-6]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 결혼 필요성 및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주: 30~34세(결혼필요 유보) 49.9%와 35~39세(결혼필요 유보)는 2000년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30~34세, 35~39세 연령층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다소 우려스럽다. 유보적 입장(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이 각각 10.0%에서 14.6%로, 10.1%에서 19.8%로 강화되었다. 이 역시 긍정적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긍정에서 유보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든 KAP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저출산대책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홍보·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임신소모율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기혼여성의 총임신 횟수가 감소하고 전체 임신 중 정상출산 비율은 증가하고 임신소모율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약 80%의 높은 피임실천율의 유지에도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가 존재하고, 총임신수 대비 자연유산수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비과학적인 피임방법의 실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유산은 연도별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체 임신수의 감소 추세와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여성의 만혼화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출산연령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건강위험 행위나 직업 환경에서 겪는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환경 등이 자연유산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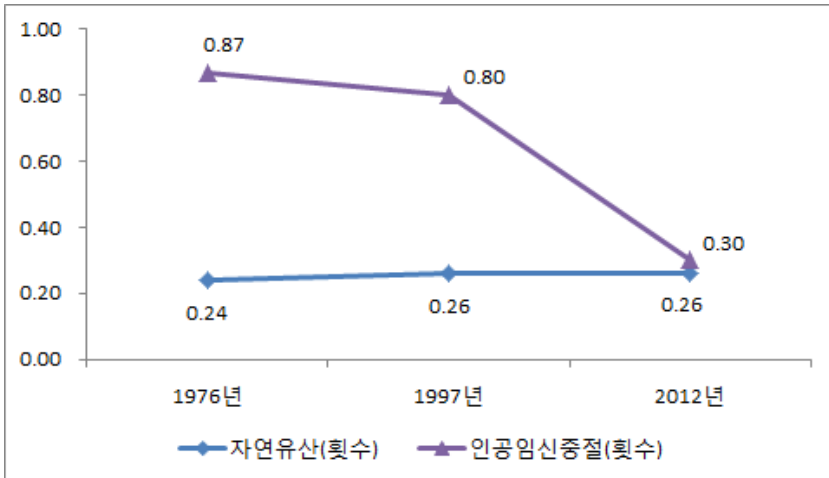
한편 인공임신중절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임신소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가임기 여성의 생식능력은 그 대로지만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원임신의 예방을 위한 효과가 높은 피임방법의 사용과 취약 계층에 대한 올바른 피임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적인 임신 전 및 산전 관리로 가임기 여성들의 생식건강을 보호하고 원하는 임신이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는 개인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임신의 4분의 1 정도는 임신소모(25.2%)로 종결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인공임신중절이 차지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가 이유의 24.2%(임산부 건강상 16.9%, 태아이상 7.3%)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녀불원(37.5%), 터울조절(13.8%), 경제적 곤란/직장(11.8%), 혼전(외) 임신(6.3%) 등 스스로 선택한 인공임신중절에 해당한다. 그러므

로 이를 줄일 수만 있다면 초저출산 현상의 고착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7] 기혼여성(15~49세)의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 횟수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3. 보편적 가족가치의 발굴을 통한 정부와 가계와의 간극 좁히기

출산억제정책기에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별가계의 지향점이 서로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높은 인구성장률을 억제해야만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고, 개별가계 입장에서는 자녀를 적게 낳아야만 필요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통해 자녀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 간 상호 일치하는 의사로 국가는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가계는 고학력 자녀를 사회로 진출시켰다. 즉 국가가 처한 상황과 가계가 처한 상황이 동일시될 수 있는 정도의 상호 밀접한 관계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출산장려정책기인 현 상황은 조금 다르다. 국가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는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나, 가계 입장에서는 자녀 수 감소는 자녀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가정의 경제적 풍족을 안겨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와 가계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0년간의 저출산대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당초 기대한 출산율 상승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정부와 가계 간 엇박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홍보 문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뒹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등의 슬로건으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던 표현이었던 반면, 현재는 ‘작은 배려, 큰 감동, 2009년 새로워진 저출산대책이 찾아옵니다’ 등의 국민정서에 잘 와 닿지 않는 내용의 홍보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열된 정책을 알리는 것보다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가치를 발굴해 홍보해야 한다. 즉 자녀가 없는 노후 삶의 질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외로움이나 다른 부작용으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않을 것인가? 가족이 함께하는 삶과 가족 없이 사는 삶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등 가족과 자녀가치를 부각시켜 국가정책과 가계지향성을 동일한 방향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홍보의 예를 들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등 구체적·긍정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국민에 대한 지속적 노출로 심리적 각인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만혼화 해소를 앞당길 수 있는 실효적 인센티브 제공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TFR)이 1.3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표 4-9>에서 45~49세 기혼여성의 완결출산수준이 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 추세는 만혼화 또는 비혼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법률혼과 유배우 중심의 출산문화가 보편화되어 있고 혼외 출산이 미미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수성하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은 실질적인 가임기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수준의 향상, 결혼의 효용 감소(경제적 독립성 증가), 초혼연령 상승(가임기간 단축, 난임불임 증가), 출산 간격 확대(첫 출산, 둘째 터울), 자녀 필요성 감소, 두 차례의 경제위기(실직증가, 소득감소, 경기침체) 등이 모두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 요인들은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요하는 것들이고,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다만, 초혼연령의 감소는 인센티브를 활용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이다. <표 4-6>에서 2012년 초혼연령별 출생아 수를 보면 23~25세 1.89명, 26~28세 1.60명, 29~31세 1.24명, 32세 이상 1.06명 등으로, 연령계층별로는 출생아 수가 각각 0.29명, 0.36명, 0.18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 26~28세와 32세 이상 간에는 출생아 수가 0.54명 차이를 보이는데 초혼연령을 앞당기면 상당한 수준의 출생아 수 증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신혼부부와 관련된 현행 저출산대책(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으로는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대학생부부 전세임대 공급 확대, 예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편의 제고, 결혼 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부여),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신혼부부 전세임대 확대, 행복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정책유인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초혼연령에 비례하여 결혼비용 세액공제, 공공주택 분양 및 은행융자 우선권 부여 등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중점 정책대상 기반의 포괄적인 가족지원정책 개발

결혼 필요성 태도에 있어서 평균 초혼연령층과 자녀 필요성 태도에 있어서 평균 출산연령층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이 가치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혼연령층(25~29세)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 태도의 변화를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2012년 24.2%에서 2015년 14.4%로 감소한 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2012년 28.4%에서 2015년 36.8%로 증가하였다. 한편 주출산연령층(30~34세)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의 자녀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필수적 인식은 2000년 57.7%에서 2012년 44.5%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결혼 필요성과 자녀 필요성이 부정적 인식으로 변화한 것은 자녀 양육 등의 일·가정 양립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 주출산연령층에 해

당하는 30~34세 연령층의 태도를 보면 2012년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30.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초점화된 정책 대상을 기반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등으로 추가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회제도를 확충·실행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정책 추진의 일관성·지속성 확보

정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과학적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미래의 활동지침”으로 정의되고 있다(권기현, 2010). 따라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동참하게 된다. 과거 출산억제정책기의 정책들은 인구증가 억제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었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출산장려기의 정책들은 1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온갖 정책수단들이 총동원되었음에도 정책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인구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가치관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통일된 정책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목표 실현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언제 폐기될지 모르는, 즉 미래 정책추진 방향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국민적 동참 여부는 불투명하고 중국에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인구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7. 연구의 제한점

전국 출산력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횡단면 조사로, 동일 표본이 아니고 조사항목의 분류체계도 통일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분류체계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임신력에 관한 조사는 예산 또는 조사 상의 어려움 등으로 매 조사마다 파악이 어렵다. 그러므로 조사표 설계시 기혼여성의 출생년월 및 초혼년월, 출생아의 출생년월(첫째아~셋째아)이 잘 정리된다면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출산 시기 및 출산 간격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현재 조사내용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사항목 개발이 필요하고 미혼여성의 가치관을 포괄하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 경제기획원·가족계획연구원. (1977).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1974): First Country Report.
- 공세권, 조애저, 김승권, 손성희. (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기현. (2010). 정책학. 박영사.
- 김나영. (2011). 미혼남녀의 출산력 가치관과 이상적인 자녀수의 인과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26, pp.5-24.
- 김두섭, 차승은, 송유진, 천희란, 김정석. (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2014).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보건복지 Issue&Focus, 2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이삼식, 김유경, 송인주.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진우.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진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김연우, 이가은, 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 이삼식, 김동희. (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김태현. (2005). 가치관 변화와 출산. 보건복지포럼(2015.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브릿지플랜 2020).

- 문현상, 함희순, 신성희. (1982).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문현상, 조대희, 이임전, 조남훈, 고갑석, 김응석, 이시백, 계훈방, 신성희, 오영희. (1985).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문현상, 이임전, 오영희, 이상영. (1989).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박병태, 최병욱, 권호연. (1978). 1976년 출산력 및 가족계획 평가조사. 가족계획연구원.
-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 (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 70년사. (2016). 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각 연도.
- 신창우, 이삼식, 박종서. (2011).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 DB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창우, 이삼식, 이난희, 최효진. (2012). 출산력 시계역 자료 구축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 김경래, 유혜영. (2008).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12).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과정: 출생코호트별 및 교육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1), pp.151-179.
- 이삼식, 이지혜. (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2007).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2), pp.95-140.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 (2013).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 33(4), pp.39-71.

- 이혜원. (2015).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변화. 재정포럼. 2014(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2016). 한국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 김승권, 조애저, 장영식, 오영희. (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훈, 김태현, 이삼식, 오영희, 김용현, 김정석, 구성열, 선우덕, 은기수, 장혜경, 정경희, 김승권, 강혜규, 이숙진, 김경래, 유혜영. (2006).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통계청. (2015). 2015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2016.4.7).
- 통계청. (2007).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 통계청. (2013a).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분석 보도자료.(2013.11.18).
- 통계청. (2013b). 우리나라의 이혼·재혼 현황:지난 30년간 이혼·재혼 자료 분석 보도자료.(2013.12.10.).
- 통계청. (2016a).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2016.6.28).
- 통계청. (2016b). 2015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2016.3.23).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우리나라의 인구현황과 전망.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한국의 인구문제와 정책전망.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오영희, 계훈방. (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ongo Kye. (2015). Cross-Sectional Average Fertility(CFA), 한국인구학, 38(3), pp.119-139.

부록 1. 출산력 조사자료 연도별 기존변수 수정 및 신규변수 생성방법²⁵⁾

연도	변수	변수 수정 및 생성방법
1974년	w10 (부인직업)	• 0 → 19(무직) • 67~199 → 02(전문기술직) • 310~399 → 03(사무종사자) • 410~599 → 04(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 611~649 → 05(농축어업 종사자) • 711~985 → 06(기능 및 생산종사자) • 999 → 07(단순노무종사자)
	w17 (남편직업)	• 0 → 19(무직) • 010~199 → 02(전문기술직) • 201~219 → 01(관리자) • 300~399 → 03(사무종사자) • 400~599 → 04(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 600~649 → 05(농축어업 종사자) • 700~989 → 06(기능 및 생산종사자) • 999 → 07(단순노무종사자)
	w189 (추가 자녀 희망여부)	• 6(1974년 정보 불확실) → 98(비해당)
	w191 (추가 자녀의 성별구별 여부)	• 6 → 8(비해당)
	w199 (현재 사용 피임방법)	• 77 → 98(비해당)
	w221 (피임중단 이유)	• 70(불쾌감, 부작용 두려움) → 98(비해당) • 72, 73, 74, 76 → 99(무응답)
	w221 (피임 무경험 이유)	• 72, 73 → 88(불확실)

25) 본 연구를 위한 출산력 통합파일(1974~2012년)은 2012년에 작성된 출산력 시계열 자료(1974~2009년)를 기반으로 2012년 출산력 자료가 추가되고, 일부 변수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신창우 등(2011)와 신창우 등(2012)를 참고 바람.

228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연도	변수	변수 수정 및 생성방법
	w227 (현존자녀수_계)	• 77 → 98(비해당)
	w228 (현존 자녀 중_남아수)	• 77 → 98(비해당)
	w229 (현존 자녀 중_여아수)	• 77 → 98(비해당)
	w230 (총 임신 횟수)	• w258(현재임신 여부)=1(현임신)이면, w230(총임신 횟수)+1 • w258(현재임신 여부)=2 또는 9이면, w230(총임신 횟수)은 동일
	w234 (정상출생아수)	• 77 → 98(비해당)
	w235 (정상 출생아중_남아수)	• 77 → 98(비해당)
	w236 (정상 출생아중_여아수)	• 77 → 98(비해당)
	w238 (사망 아들수)	• 77 → 98(비해당)
	w239 (사망 딸수)	• 77 → 98(비해당)
	w240_1 (임신소모 경험 횟수)	• 77 → 98(비해당)
	w241 (인공유산 횟수)	• 77 → 98(비해당)
	w247 (자연유산 횟수)	• 77 → 98(비해당)
	w248 (사산 횟수)	• 77 → 98(비해당)
1976년	w190 (추가 예정 자녀수)	• 0(원치 않음) → 8(비해당)
	w212 (피임 도구 구득처)	• w199(현재 사용 피임방법)에서 1(난관수술), 2(정관수술), 3(자궁내장치), 7(월경주기법), 97(기타) → w212에서 모두 8(비해당)
	w426 (인공유산 수용_건강에 해로움)	• 0 → 9(무응답)
	w431 (인공유산 수용_경제적 이유)	• 0 → 9(무응답) • 9 → 4(모르겠다)

연도	변수	변수 수정 및 생성방법
1982년	w26 (부인 결혼횟수)	• 0, 8 → 9(무응답)
	w68 (출생 당시 모의 연령)	• 91 → 99(무응답)
	w199 (현재 사용 피임방법)	• 04(여성불임) ⇒ 01(난관수술) • 05(남성불임) ⇒ 02(정관수술)
	w212 (피임 도구 구득처)	• w199(현재 사용 피임방법)에서 3(자궁내장치), 7(월경 주기법), 8(질외사정법), 81(주사법), 89(질외+기초제 온법), 97(기타) → w212에서 모두 8(비해당)
1985년	w241 (인공유산 횟수)	• 2회 이상을 실제 횟수로 변경
1991년	w204 (불만족 이유)	• 10(불만족 없음) → 98(비해당)
1994년	w429 (인공유산 수용 _불원임신시)	• 8(비해당) → 9(무응답)
	w431 (인공유산 수용 _경제적 이유)	• 9(모르겠다) → 4(모르겠다) • 무응답 → 9
1997년	w10(부인직업)	• 07(가사, 무급가족 종사자) → 19(무직) • 99 → 98 • 98 → 99
2000년	w240 (임신소모 경험유무)	• 8 → 9
2003년	w240 (임신소모 경험유무)	• w240_1(임신소모 경험 횟수)=1~23이면, w240=1 • w240_1(임신소모 경험 횟수)=0이면, w240=2
2006년	w22 (부인_초혼연령)	• w23(부인_현재 결혼의 초혼 여부) = 1(초혼)일 때, w22(부인_초혼연령)이 98(비해당)일 경우 → w18(부인의 결혼 당시 연령) 값으로 대체
	w188 (현피임목적)	• 1(단산) → 2(단산) • 2(출산연기) → 1(터울조절) • 3(기타) → 7(기타) • 3(비해당) → 8(비해당) • 9(무응답) → 9(무응답)
	w190 (추가예정 자녀수)	• blank, 8(비해당) → 0(0명)
	w258 (현재 임신여부)	• w230(총 임신횟수)=0이면, • w258(현재임신 여부) → 8(비해당)로 리코딩

230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연도	변수	변수 수정 및 생성방법
	w189 (추가자녀 희망여부)	• 원자료 m4(향후 자녀를 낳을 계획) → w189
	w190 (추가예정 자녀수)	• 원자료 m44(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지 문항) → w190
2009년	w10(부인직업)	• 11(무급가족 종사자) → 19(무직) • 99 → 98 • 98 → 99
	w43 (사별, 이혼, 별거 이유)	• 30 → 03(성격 차이) • 49, 69, 87(코드 없음) → 99(무응답)
2012년	w6 (부인 출생년)	• 2012-w8(부인 만나이)
	w9 (부인 교육수준) w16 (남편 교육수준)	• R77(부인 교육정도)와 R88(남편 졸업 여부), M_A22(남편 교육정도)와 M_A23(남편 졸업 여부)를 조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생성함. 08(무학+졸업) → 01(무학) 11(초등학교+졸업) → 11(초등학교 졸업) 13(초등학교+중퇴) → 13(초등학교 중퇴) 14(초등학교+재학) → 14(초등학교 재학/휴학) 15(초등학교+휴학) → 14(초등학교 재학/휴학) 21(중학교+졸업) → 21(중학교 졸업) 23(중학교+중퇴) → 23(중학교 중퇴) 24(중학교+재학) → 24(중학교 재학/휴학) 25(중학교+휴학) → 24(중학교 재학/휴학) 31(고등학교+졸업) → 31(고등학교 졸업) 33(고등학교+중퇴) → 33(고등학교 중퇴) 34(고등학교+재학) → 34(고등학교 재학/휴학) 35(고등학교+휴학) → 35(고등학교 재학/휴학) 41(전문대+졸업) → 41(전문대 졸업) 42(전문대+수료) → 42(전문대 수료) 43(전문대+중퇴) → 43(전문대 중퇴) 44(전문대+재학) → 44(전문대 재학) 45(전문대+휴학) → 44(전문대 휴학) 51(대학교+졸업) → 51(대학교 졸업) 52(대학교+수료) → 52(대학교 수료) 53(대학교+중퇴) → 53(대학교 중퇴) 54(대학교+재학) → 54(대학교 재학/휴학) 55(대학교+휴학) → 54(대학교 재학/휴학) 61(대학원+졸업) → 61(대학원 졸업) 62(대학원+수료) → 62(대학원 수료) 63(대학원+중퇴) → 63(대학원 중퇴) 64(대학원+재학) → 64(대학원 재학/휴학) 65(대학원+휴학) → 64(대학원 재학/휴학) 78(미취학+수료) → 02(미취학) 99(무응답) → 99(무응답)

연도	변수	변수 수정 및 생성방법
	w10 (부인 직업) w17 (남편 직업)	- R79(부인 취업 여부)와 R80(부인 직종), M_A24(남편 취업 여부)와 M_A25(남편 직종)를 조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생성함. 101(취업+관리자) → 01(의회의원 고위직 관리자) 102(취업+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02(전문기술직 관련 종사자) 103(취업+사무종사자) → 03(사무종사자) 104(취업+서비스종사자) → 04(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105(취업+판매직종사자) → 04(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106(취업+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05(농축임수산업) 107(취업+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 06(기능원 및 종사자) 108(취업+조립종사자) → 06(기능원 및 종사자) 109(취업+단순노무종사자) → 07(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 110(취업+기타) → 08(가사, 무급종사자, 학생, 군인 및 기타 분류 불가능) 298(비취업+비해당) → 19(무직) 999(무응답) → 999(무응답)
	w13 (남편 출생년)	2012-w15(남편 만나이)
	w19 (부인 결혼년도)	2012-w18(부인 결혼 당시 만나이)
	w22 (부인 초혼연령)	- w22(부인 초혼 여부)=1(초혼)이면, w18(부인의 결혼 당시 만나이)값 사용 - w22(부인 초혼 여부)=2(재혼)이면, 재혼이상 부인의 초혼시 만 연령값 사용
	w32 (남편 초혼연령)	- w35(남편 초혼 여부)=1(초혼)이면, w32(남편의 결혼 당시 만나이)값 사용 - w35(남편 초혼 여부)=2(재혼)이면, 재혼이상 남편의 초혼시 만 연령값 사용
	w43 (이혼, 별거 이유)	01~02(남편, 부인의 외도) → 01(외도) 11~13(남편, 부인 기타 가족의 학대) → 02(학대 또는 폭력) 28(성격차이) → 03(성격차이) 31~32(남편, 부인의 가족부양 의무 불이행) → 04(가족부양의무 불이행) 41~42(시댁, 친정식구와의 가족간 불화) → 05(가족간 불화) 51~54(남편, 부인, 시댁식구, 친정식구의 경제적 문제) → 06(경제적 문제) 61~64(남편, 부인, 자녀, 기타 건강상의 이유) → 07(건강상 이유) 78(기타이유) → 08(기타) 99(무응답) → 99(무응답)

232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연도	변수	변수 수정 및 생성방법
	w44 (이혼, 별거, 학대 폭력 대상자)	• 11(남편의 학대 또는 폭력)→1(남편) • 12(부인의 학대 또는 폭력)→2(부인) • 13(기타 가족의 폭력)→5(생성)
	w45 (이혼, 별거 _가족부양 의무 불이행자)	• 31(남편의 가족부양의무 불이행자)→1(남편) • 32(부인의 가족부양의무 불이행자)→2(부인) • etc→8(비해당) • 99→9(무응답)
	w46 (이혼, 별거 _가족간 불화 대상자)	• 41(시댁식구와의 가족간 불화)→1(시댁식구) • 42(친정식구와의 가족간 불화)→2(친정식구) • etc→8(비해당) • 99→9(무응답)
	w188 (현피임목적)	• 1(단산) → 2(단산) • 2(출산연기) → 1(터울조절) • 3(기타) → 7(기타) • 9(무응답)→ 9(무응답)
	w198 (현재 피임실천 여부)	• 0(안 한다)→2(안 한다) • 1(한다)→1(한다) • 8(비해당)→8(비해당) • 9(무응답)→9(무응답)
	w199 (현재 사용 피임방법)	• 09(기타) → 97(기타) • 35(자궁내장치+콘돔) → 03(자궁내장치) • 65(살정제+콘돔) → 56(콘돔+살정제)
	w219 (바꾸려는 피임방법)	• 09(기타) → 97(기타-질외세척, 호르몬주사 및 인공유산)
	w220 (피임중단시 최종피임방법)	• 09(기타) → 97(기타-질외세척, 호르몬주사 및 인공유산)
	w225 (향후 사용할 피임방법)	• 09(불임수술) → 12(난관수술+정관수술) • 10(기타) → 97(기타)
	w226 (계속 피임하지 않으려는 이유)	• 11~17(자궁적출_자궁근종,내막증, 경부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기능성 자궁출혈, 기타 → 11(자궁적출) • 21(자연불임_10년 이상 임신 안 됨) → 21(동일) • 22(자연불임_5~10년 미만 임신 안 됨) → 22(동일) • 23(자연불임_3~5년 미만 임신 안 됨) → 23(동일) • 24(자연불임_1~3년 미만 임신 안 됨) → 24(동일) • 38(기타) → 31(기타) • 88(비해당) → 98(비해당) • 98(무응답) → 99(무응답)
	w234 (정상 출생아수)	• w230(총 임신 횟수)=0이면, w234(정상출생아 총수) → 0

연도	변수	변수 수정 및 생성방법
	w235 (정상 출생아중_남아수)	w230(총 임신 횟수)=0이면, w235(정상출생 남아수) → 0
	w236 (정상출생아중_여아수)	w230(총 임신 횟수)=0이면, w236(정상출생 여아수) → 0
	w236 (임신소모 경험횟수)	0(없다)→2(없다) 1(있다)→1(있다) 9(무응답)→9(무응답)
	w248 (사산 횟수)	8(비해당) → 98(비해당)
	w258 (현재 임신 여부)	w230(총 임신 횟수)=0이면, w258(현재임신 여부) → 8(비해당)
	w409 (이상자녀_수)	0(0명) → 69(원치 않음) 8(비해당) → 98(비해당) 9(무응답) → 99(무응답, 모름)
	w411 (이상자녀 남아수)	8(비해당) → 98(비해당) 9(무응답) → 99(무응답, 모름)
	w412 (이상자녀 여아수)	8(비해당) → 98(비해당) 9(무응답) → 99(무응답, 모름)
	w414~w420 (아들 필요 이유_가문의 대, 노후생활, 제사,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행복, 기타)	1(그렇다) → 1(그렇다) 0(아니다) → 2(그렇다)
	w487 ²⁶⁾ (결혼의 필요성)	(신규) 1. 반드시 해야 한다 2. 하는 편이 좋다 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 하지 않는 편이 좋다 5. 모르겠다 9. 무응답
	w488 (이혼에 대한 의견)	(신규) 1.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2.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3.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4. 이혼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5.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6. 모르겠다 9. 무응답

234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연도	변수	변수 수정 및 생성방법
	w489 (재혼에 대한 의견)	• (신규) 1.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2. 하는 것이 좋다 3.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4.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6. 모르겠다. 9. 무응답
	w490 (적정 결혼나이_여성)	• (신규) 15. 15세 16. 16세 ⋮
	w491 (적정 결혼나이_남성)	⋮ 97. 적령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 99. 무응답

26) 새롭게 추가된 결혼의 필요성,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의견, 적정 결혼나이 등의 변수는 원자료의 값을 동일하게 사용함.

부록 2. 부표

〈부표 2-1〉 기혼여성(15~49세)의 연령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5-24세													
초등 이하		26.2	21.5	*	*	*	*	*	*	*	*	*	*
중학교		*	21.3	*	29.9	*	*	*	*	*	*	*	*
고등학교		*	*	*	21.0	24.7	24.4	23.0	25.6	*	*	*	*
대학 이상		*	*	*	*	*	*	*	*	*	*	*	*
(대상자수)	(139)	(105)	(55)	(126)	(107)	(72)	(59)	(52)	(32)	(37)	(21)	(20)	
25-29세													
초등 이하		33.1	25.6	24.1	38.6	*	*	*	*	*	*	*	*
중학교		27.6	23.3	23.4	35.9	25.5	30.1	*	*	*	*	*	*
고등학교		15.2	16.2	17.0	23.6	19.2	24.6	28.5	28.2	34.9	39.6	25.5	25.5
대학 이상		*	*	*	28.2	37.5	38.9	37.8	34.8	49.1	46.0	46.0	44.4
(대상자수)	(343)	(258)	(247)	(550)	(349)	(335)	(340)	(285)	(286)	(274)	(195)	(201)	
30-34세													
초등 이하		41.6	42.4	35.4	50.1	51.0	51.5	60.9	*	*	*	*	*
중학교		31.1	29.1	31.1	45.4	36.1	46.3	52.0	45.5	51.7	*	*	*
고등학교		21.3	19.8	25.7	29.5	23.9	36.3	34.4	36.6	43.1	38.0	28.8	32.7
대학 이상		*	*	*	39.0	33.8	34.8	44.3	39.1	38.3	45.2	35.5	51.9
(대상자수)	(408)	(318)	(293)	(717)	(583)	(602)	(592)	(484)	(628)	(607)	(350)	(563)	
35-39세													
초등 이하		51.8	49.8	44.0	61.8	50.1	66.1	70.9	64.9	67.8	*	*	*
중학교		29.6	36.3	34.8	48.8	41.3	57.2	57.9	61.9	59.8	58.1	*	*
고등학교		*	25.7	31.0	34.3	26.9	41.3	45.6	45.4	49.7	53.3	41.7	53.7
대학 이상		*	*	*	32.8	24.8	39.9	38.9	42.7	48.0	50.7	38.7	51.4
(대상자수)	(531)	(361)	(302)	(675)	(578)	(747)	(818)	(746)	(895)	(930)	(613)	(886)	
40-44세													
초등 이하		54.9	53.2	46.1	59.4	56.9	67.0	72.1	69.2	76.8	65.5	*	*
중학교		33.1	39.0	36.3	47.7	42.0	59.5	59.1	66.8	70.7	75.5	56.5	*
고등학교		*	*	*	37.5	34.1	43.3	41.6	47.1	58.3	61.0	51.0	58.4
대학 이상		*	*	*	*	*	*	42.3	51.8	48.5	54.5	49.0	53.1
(대상자수)	(521)	(443)	(318)	(579)	(575)	(579)	(694)	(825)	(1,110)	(1,016)	(759)	(1,105)	
45-49세													
초등 이하		52.1	55.2	38.1	55.9	56.3	69.4	70.1	65.6	69.5	71.6	46.5	*
중학교		*	30.9	32.8	43.1	33.0	54.5	47.5	58.6	71.1	67.3	50.0	63.9
고등학교		*	*	*	33.7	24.6	43.0	35.2	41.3	57.2	57.8	49.9	63.3
대학 이상		*	*	*	*	*	*	*	36.9	49.5	51.5	46.2	56.9
(대상자수)	(397)	(417)	(269)	(558)	(433)	(493)	(526)	(624)	(918)	(1,002)	(722)	(1,035)	

주: 1) “*”는 해당 출생코호트의 사례수가 30개 미만인 자료임.

2)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19세 이하					
반드시 해야 한다	23.9	29.6	27.8	25.4	19.8
하는 편이 좋다	30.0	24.6	24.9	27.1	39.6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37.8	33.7	39.1	37.5	30.7
하지 않는 편이 좋다	7.3	11.4	8.2	10.0	9.5
모르겠다	1.0	0.7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30)	(640)	(481)	(252)	(268)
20~22세					
반드시 해야 한다	22.0	24.4	24.8	21.6	19.3
하는 편이 좋다	28.9	29.4	28.5	28.2	43.2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0.9	37.3	41.8	43.4	30.9
하지 않는 편이 좋다	7.4	8.7	4.9	6.8	6.2
모르겠다	0.8	0.3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675)	(1,805)	(1,595)	(969)	(1,089)
23~25세					
반드시 해야 한다	18.5	21.0	21.9	22.3	18.0
하는 편이 좋다	31.2	28.5	32.3	33.8	41.2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5.8	42.4	42.7	39.1	36.2
하지 않는 편이 좋다	3.8	7.1	3.1	4.7	4.3
모르겠다	0.6	0.9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504)	(2,776)	(2,760)	(2,102)	(2,511)
26~28세					
반드시 해야 한다	15.9	16.8	18.6	23.5	16.3
하는 편이 좋다	32.0	32.4	35.1	33.5	44.2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6.8	44.1	43.4	39.6	35.7
하지 않는 편이 좋다	4.4	6.4	3.0	3.4	3.4
모르겠다	0.8	0.3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63)	(1,436)	(1,703)	(1,894)	(2,135)
29~31세					
반드시 해야 한다	16.7	19.8	21.4	22.5	19.1
하는 편이 좋다	28.4	30.0	31.3	32.8	40.8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6.5	43.5	43.5	41.3	36.9
하지 않는 편이 좋다	7.4	6.3	3.8	3.4	3.0
모르겠다	1.0	0.5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22)	(349)	(493)	(674)	(837)
32세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15.7	16.8	21.2	19.6	15.5
하는 편이 좋다	24.4	31.9	34.1	35.3	48.8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8.8	39.5	39.2	41.9	30.8
하지 않는 편이 좋다	9.4	10.8	5.5	3.3	4.8
모르겠다	1.6	1.1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1)	(156)	(217)	(330)	(409)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이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취업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5	3.5	2.9	2.7	2.7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3.9	15.4	12.6	20.6	26.2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2.9	31.8	37.5	35.0	36.4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7.2	36.1	38.0	35.3	30.3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1.3	12.5	8.4	6.0	4.3
모르겠다	1.2	0.8	0.6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86)	(3,853)	(3,857)	(3,077)	(3,793)
비취업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4	2.9	2.2	1.9	2.3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3.8	17.4	12.1	19.9	26.3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4.7	34.9	38.3	36.0	36.4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7.1	34.4	39.7	35.4	30.9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9.6	9.6	7.2	6.6	3.9
모르겠다	1.4	0.7	0.6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304)	(3,300)	(3,394)	(3,147)	(3,453)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이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4.6	2.7	3.4	2.8	3.0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6.3	15.6	14.0	21.1	29.1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3.2	37.3	38.3	36.1	30.4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6.3	33.7	35.9	33.6	34.2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8.8	10.2	7.8	5.9	3.1
모르겠다	0.9	0.6	0.5	0.5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19)	(537)	(770)	(608)	(961)
사무종사자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5.1	2.9	4.1	3.5	2.1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22.1	16.3	14.5	19.8	25.3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2.1	35.1	37.0	37.3	35.5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3.3	34.9	36.5	35.3	30.4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6.4	10.3	7.6	4.0	6.5
모르겠다	1.0	0.6	0.4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3)	(441)	(532)	(558)	(906)
서비스 및 판매직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3	4.2	2.7	3.6	2.9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3.6	17.8	11.4	23.4	27.2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5.4	31.7	38.6	35.5	38.5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5.9	34.5	38.4	31.6	27.2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0.9	10.7	8.2	5.6	4.1
모르겠다	0.9	1.1	0.7	0.3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02)	(1,511)	(1,501)	(878)	(1,274)
기타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0	3.3	2.3	1.6	2.6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1.1	12.1	12.3	18.4	22.1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0.2	28.2	35.5	32.7	40.6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9.9	39.3	39.9	39.6	31.3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4.1	16.4	9.6	7.5	3.2
모르겠다	1.7	0.7	0.5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32)	(1,364)	(1,054)	(1,033)	(652)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
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이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19세 이하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4.5	3.2	3.1	2.8	2.5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3.1	17.7	12.1	16.7	25.9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2.1	28.7	37.7	37.0	33.7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5.9	33.3	36.7	37.4	32.3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2.8	16.0	10.4	6.0	5.3
모르겠다	1.6	1.1	0.0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29)	(640)	(481)	(252)	(268)
20~22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2.6	4.2	3.3	2.9	2.4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1.3	15.2	11.7	20.5	24.3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5.2	31.9	35.6	33.9	35.2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7.3	35.0	39.5	36.9	31.5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2.4	13.0	9.1	5.5	6.4
모르겠다	1.2	0.7	0.8	0.3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675)	(1,804)	(1,596)	(970)	(1,089)
23~25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6	2.7	2.1	1.8	2.4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3.7	16.3	11.9	19.9	25.7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3.5	33.8	37.8	36.2	37.0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8.3	36.4	40.1	35.3	30.2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9.6	10.2	7.4	6.6	4.5
모르겠다	1.3	0.7	0.6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504)	(2,777)	(2,761)	(2,100)	(2,511)
26~28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3	2.9	2.4	2.5	2.9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6.0	17.5	13.8	20.2	27.4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4.2	35.8	39.1	35.8	36.0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5.9	34.4	37.6	35.3	30.7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8.9	8.6	6.8	5.9	2.8
모르겠다	1.5	0.8	0.3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62)	(1,436)	(1,702)	(1,895)	(2,131)
29~31세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5.7	2.8	3.2	2.7	2.6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17.2	15.6	13.1	20.7	27.2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3.0	32.1	39.6	35.3	38.2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3.3	36.5	36.6	32.8	28.3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0.4	12.1	6.4	7.8	3.5
모르겠다	0.3	0.9	1.2	0.8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22)	(349)	(494)	(676)	(837)
32세 이상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3.1	6.0	2.8	2.2	1.0
이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24.4	16.3	11.5	24.1	25.9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31.5	33.2	40.8	32.9	36.2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5.4	34.2	35.8	35.1	33.4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4.7	9.2	9.2	5.5	3.0
모르겠다	0.8	1.1	-	0.3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1)	(156)	(217)	(332)	(410)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40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부표 2-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재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2000	2003	2006	2009	2012
19세 이하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5	1.3	0.4	1.2	0.4
하는 것이 좋다	13.2	19.7	16.7	18.7	17.2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2.3	38.8	48.3	36.9	50.4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1.5	27.2	26.7	32.5	27.2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7.0	9.7	5.2	8.3	3.0
모르겠다	5.6	3.3	2.7	2.4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85)	(713)	(479)	(281)	(282)
20~22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7	1.3	0.3	0.3	0.4
하는 것이 좋다	16.1	18.9	16.7	20.5	17.3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6.4	46.3	50.1	47.3	54.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5.3	23.0	24.9	25.9	21.8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5.9	5.9	4.3	4.1	4.0
모르겠다	5.6	4.7	3.8	1.9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12)	(2,118)	(1,585)	(1,045)	(901)
23~25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6	0.5	0.5	0.3	0.3
하는 것이 좋다	15.9	19.0	14.9	18.7	17.1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9.4	49.6	57.1	51.6	58.6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2.6	20.9	21.1	22.7	20.2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4.4	4.9	3.0	3.7	2.0
모르겠다	7.0	5.1	3.3	3.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239)	(3,359)	(2,787)	(2,279)	(2,125)
26~28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3	0.6	0.4	0.8	0.3
하는 것이 좋다	16.7	19.0	16.8	18.5	17.6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5.5	54.3	58.6	55.0	60.9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6.8	17.3	18.9	19.4	17.6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4.9	4.4	2.0	3.1	1.5
모르겠다	5.8	4.5	3.4	3.2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30)	(1,776)	(1,724)	(2,004)	(1,742)
29~31세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0.9	0.9	0.6	0.4	0.6
하는 것이 좋다	18.5	23.0	16.0	19.1	18.6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55.0	50.9	61.3	59.5	61.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8.0	16.7	17.4	15.8	15.5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2	3.7	1.2	1.3	1.3
모르겠다	4.5	4.9	3.4	3.8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9)	(429)	(501)	(748)	(795)
32세 이상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	1.3	0.5	-	0.7
하는 것이 좋다	21.0	28.8	18.4	20.5	17.4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	43.0	46.8	58.1	57.8	62.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0	14.1	16.6	16.9	15.4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5.0	3.2	2.8	2.1	1.5
모르겠다	11.0	5.8	3.7	2.7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7)	(183)	(217)	(365)	(400)

〈부표 2-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세 미만										
꼭 있어야 한다	83.4	86.6	89.8	81.1	77.2	57.0	61.4	58.2	54.6	48.6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8.1	5.6	- ¹⁾	11.3	12.3	30.2	25.3	26.3	35.0	32.1
없어도 상관없다	8.0	7.5	8.7	7.4	9.6	12.4	12.2	15.4	10.4	18.9
모르겠다	0.4	0.3	1.6	0.2	0.8	0.4	1.1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07)	(1,326)	(1,013)	(716)	(663)	(630)	(639)	(481)	(252)	(267)
20~22세										
꼭 있어야 한다	80.1	83.5	91.6	79.3	76.2	57.5	55.5	58.5	52.9	47.8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0.3	7.9	- ¹⁾	12.6	15.7	31.5	31.2	28.9	34.2	37.0
없어도 상관없다	8.8	8.4	7.6	7.9	7.8	10.3	12.9	12.6	12.9	15.1
모르겠다	0.8	0.3	0.7	0.3	0.3	0.6	0.4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40)	(2,907)	(2,592)	(1,994)	(1,862)	(1,675)	(1,804)	(1,596)	(970)	(1,087)
23~25세										
꼭 있어야 한다	80.3	81.8	90.7	78.7	74.3	59.1	55.7	53.6	56.1	46.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9.7	9.4	- ¹⁾	14.6	17.0	31.1	31.7	34.7	31.9	38.7
없어도 상관없다	9.6	8.7	8.1	6.6	8.5	9.4	12.1	11.6	12.0	14.9
모르겠다	0.4	0.1	1.2	0.2	0.2	0.5	0.5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62)	(2,711)	(2,790)	(2,321)	(2,683)	(2,504)	(2,776)	(2,761)	(2,101)	(2,508)
26~28세										
꼭 있어야 한다	80.7	80.2	87.7	75.3	72.8	58.6	53.1	52.2	57.5	47.4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1.2	8.8	- ¹⁾	16.0	16.6	31.2	33.8	36.3	31.9	36.4
없어도 상관없다	8.1	10.8	10.3	8.4	10.2	9.5	12.5	11.4	10.6	15.7
모르겠다	-	0.2	2.1	0.2	0.4	0.7	0.5	-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23)	(722)	(793)	(818)	(935)	(1,161)	(1,433)	(1,702)	(1,895)	(2,133)
29~31세										
꼭 있어야 한다	75.3	77.5	83.6	73.9	68.9	57.0	52.8	54.1	53.3	43.7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0.3	7.1	- ¹⁾	17.8	14.9	32.6	30.4	34.0	35.7	38.9
없어도 상관없다	14.4	14.1	15.1	8.3	16.1	10.4	15.9	11.9	11.0	17.1
모르겠다	-	1.3	1.3	-	-	-	0.9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1)	(86)	(143)	(143)	(156)	(222)	(348)	(494)	(676)	(837)
32세 이상										
꼭 있어야 한다	92.3	77.7	76.9	61.8	59.0	44.1	47.5	53.9	51.5	45.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	10.6	- ¹⁾	23.6	23.0	32.3	33.9	32.7	35.1	38.3
없어도 상관없다	7.7	11.8	17.9	14.5	18.0	22.8	18.0	13.4	13.4	16.3
모르겠다	0.0	-	5.1	-	-	0.8	0.5	-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	(33)	(37)	(53)	(58)	(101)	(156)	(217)	(332)	(408)

주: 1) 1991년 조사는 해당 응답항목이 없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취업										
꼭 있어야 한다	80.2	85.2	90.5	79.0	75.4	58.5	55.7	55.4	53.7	46.7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0.1	6.8	0.0	13.8	16.2	30.6	30.3	31.9	34.9	37.1
없어도 상관없다	9.4	7.8	8.5	7.1	8.2	10.3	13.5	12.6	11.4	15.9
모르겠다	0.3	0.2	1.0	0.2	0.3	0.6	0.5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84)	(3,200)	(2,621)	(2,823)	(3,028)	(2,986)	(3,852)	(3,856)	(3,079)	(3,801)
비취업										
꼭 있어야 한다	81.2	82.8	90.2	77.9	73.6	57.7	54.8	53.9	57.0	46.0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9.5	8.5	-	14.1	16.2	31.8	32.7	34.6	31.2	38.0
없어도 상관없다	8.7	8.5	8.5	7.8	9.8	10.0	11.9	11.6	11.8	15.6
모르겠다	0.6	0.2	1.3	0.2	0.4	0.5	0.6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606)	(4,584)	(4,741)	(3,217)	(3,406)	(3,304)	(3,295)	(3,395)	(3,146)	(3,456)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76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취업											
꼭 있어야 한다	65.3	44.3	41.4	45.0	31.8	31.2	19.7	17.8	11.7	9.6	7.8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9.1	20.8	18.7	29.4	33.9	33.3	42.0	39.0	39.2	39.2	34.1
없어도 상관없다	25.1	34.1	42.8	24.8	33.8	34.7	37.3	42.5	48.4	51.1	57.7
모르겠다	0.5	0.8	0.3	0.8	0.5	0.8	1.0	0.7	0.7	0.1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39)	(1,484)	(3,200)	(2,622)	(2,826)	(3,028)	(2,981)	(3,853)	(3,857)	(3,079)	(3,798)
비취업											
꼭 있어야 한다	57.5	42.6	33.1	38.2	26.6	24.6	16.5	14.5	10.3	8.6	9.9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1.7	19.9	19.3	31.4	32.3	34.4	43.5	41.3	39.7	41.3	32.7
없어도 상관없다	30.6	36.2	47.2	29.6	40.5	40.2	38.9	43.4	49.3	50.1	56.9
모르겠다	0.2	1.3	0.4	0.7	0.6	0.8	1.1	0.8	0.6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681)	(3,607)	(4,584)	(4,740)	(3,220)	(3,406)	(3,298)	(3,300)	(3,385)	(3,147)	(3,454)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1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76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꼭 있어야 한다	41.1	24.8	23.6	22.1	14.4	19.3	11.3	10.7	6.5	8.6	7.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4.3	30.8	25.7	43.0	39.5	34.9	42.8	42.5	40.7	34.0	33.6
없어도 상관없다	42.9	44.4	50.7	34.2	46.1	44.9	44.9	45.9	52.3	57.4	59.2
모르겠다	1.8	-	-	0.7	-	1.0	1.1	0.9	0.5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6)	(61)	(148)	(151)	(243)	(384)	(419)	(537)	(770)	(608)	(961)
사무종사자											
꼭 있어야 한다	27.8	23.7	22.6	22.3	17.9	22.3	11.3	13.3	9.7	9.5	6.6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1.1	26.9	16.5	33.1	42.6	35.9	40.2	43.1	36.4	37.4	30.6
없어도 상관없다	61.1	47.3	59.1	44.6	39.5	40.3	47.9	43.5	53.5	52.8	61.8
모르겠다	-	2.2	1.7	-	-	1.5	0.6	0.2	0.4	0.3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	(51)	(115)	(124)	(148)	(191)	(233)	(440)	(532)	(559)	(907)
서비스 및 판매직											
꼭 있어야 한다	49.8	42.5	33.6	38.4	33.1	30.9	18.6	17.3	12.3	9.3	8.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2.2	23.0	22.1	33.0	29.8	32.6	40.9	36.0	40.1	40.1	36.9
없어도 상관없다	37.0	33.9	43.9	27.6	36.7	36.0	39.4	46.0	46.6	50.4	54.7
모르겠다	1.0	0.7	0.4	1.0	0.3	0.5	1.1	0.7	1.0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83)	(392)	(1,113)	(1,100)	(878)	(1,087)	(1,097)	(1,512)	(1,500)	(878)	(1,279)
기타											
꼭 있어야 한다	73.3	47.6	48.8	56.1	36.1	37.4	26.7	23.1	15.6	10.3	9.3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7.6	18.8	14.9	24.2	34.4	33.0	43.2	39.5	38.2	42.3	33.9
없어도 상관없다	18.8	32.8	36.0	18.9	28.7	28.8	29.3	36.6	45.6	47.4	56.5
모르겠다	0.3	0.8	0.2	0.7	0.8	0.8	0.8	0.8	0.6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82)	(980)	(1,824)	(1,247)	(1,557)	(1,366)	(1,232)	(1,364)	(1,055)	(1,034)	(651)

주: 1)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2)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44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부표 2-1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취업													
0명	1.4	0.3	0.1	0.1	0.2	0.1	-	0.1	0.3	0.5	0.2	0.1	-
1명	0.8	4.2	4.2	15.0	15.7	12.5	7.3	9.8	9.1	11.8	10.5	11.4	10.8
2명	18.0	29.7	45.5	66.1	64.9	61.9	64.3	59.5	63.3	56.9	57.6	58.4	64.2
3명	39.7	39.4	37.0	14.8	14.3	17.9	20.5	21.9	20.1	23.0	24.2	23.1	19.8
4명 이상	40.2	26.4	13.1	4.0	4.9	7.6	7.8	8.8	7.2	7.7	7.6	7.0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66)	(2,239)	(1,347)	(1,446)	(3,193)	(2,620)	(2,814)	(3,008)	(2,948)	(3,804)	(3,816)	(3,010)	(3,751)
비취업													
0명	1.0	0.3	0.1	0.1	0.1	-	-	-	0.2	0.2	-	-	-
1명	1.0	3.7	5.9	15.0	18.4	12.9	7.7	10.3	9.5	11.2	9.0	11.1	11.1
2명	31.4	42.2	58.7	69.5	65.8	67.8	68.6	63.7	64.6	60.7	62.4	60.2	65.9
3명	45.5	34.9	27.6	12.4	11.1	14.6	18.5	20.1	20.0	21.2	23.4	21.5	17.2
4명 이상	21.1	18.9	7.7	3.0	4.5	4.7	5.2	5.9	5.7	6.8	5.2	7.1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17)	(3,580)	(3,001)	(3,591)	(4,566)	(4,743)	(3,199)	(3,372)	(3,275)	(3,256)	(3,364)	(3,091)	(3,412)

주: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1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관리자 및 전문기술직													
0명	-	-	-	-	-	-	-	-	0.2	0.4	-	0.2	-
1명	1.3	7.3	5.7	27.8	20.4	16.3	7.4	12.3	9.5	8.5	8.5	8.9	6.9
2명	41.3	56.4	60.4	60.0	57.8	67.3	68.4	62.7	63.6	58.6	59.5	61.9	64.0
3명	45.3	23.6	18.9	7.8	10.2	10.2	16.9	16.9	20.4	25.7	25.5	22.0	24.3
4명 이상	12.0	12.7	15.1	4.3	11.6	6.1	7.4	8.1	6.3	6.7	6.5	7.0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5)	(55)	(53)	(60)	(147)	(150)	(243)	(382)	(416)	(529)	(760)	(597)	(951)
사무종사자													
0명	-	-	-	-	-	-	-	-	-	0.4	0.4	0.2	-
1명	-	23.5	13.3	20.4	21.7	21.5	5.6	6.3	9.8	13.3	11.9	12.5	10.5
2명	57.6	35.3	60.0	61.3	65.2	63.8	77.2	68.0	66.3	57.4	61.5	57.3	66.1
3명	30.3	41.2	23.3	12.9	12.2	13.8	15.4	19.9	19.9	22.9	19.9	22.0	18.7
4명 이상	12.1	0.0	3.3	5.4	0.9	0.8	1.9	5.8	3.9	6.0	6.3	8.1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3)	(17)	(30)	(51)	(115)	(124)	(148)	(191)	(228)	(438)	(526)	(545)	(897)
서비스 및 판매직													
0명	1.6	0.5	0.2	0.3	0.4	0.1	-	0.1	0.4	0.4	0.3	0.1	0.1
1명	0.8	5.8	5.3	14.1	17.6	14.9	9.1	11.0	9.7	13.3	10.4	12.5	11.9
2명	25.7	39.1	52.7	67.8	65.9	65.1	65.8	59.8	64.9	57.4	56.5	59.3	65.3
3명	44.2	36.5	31.7	13.5	11.8	13.7	17.7	21.6	18.2	21.1	25.0	22.3	16.5
4명 이상	27.8	18.2	10.1	4.2	4.3	6.2	7.5	7.6	6.7	7.8	7.8	5.7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95)	(655)	(562)	(386)	(1,112)	(1,100)	(875)	(1,075)	(1,083)	(1,491)	(1,482)	(849)	(1,256)
기타													
0명	1.4	0.3	-	-	0.1	0.1	0.1	0.1	0.3	0.9	0.1	0.1	0.2
1명	0.7	3.2	2.8	14.2	13.8	8.9	6.3	8.3	8.2	11.0	11.3	11.2	13.7
2명	13.7	24.5	38.0	66.0	64.9	58.0	61.0	56.6	60.7	55.4	55.4	56.2	60.0
3명	38.0	41.2	43.3	16.0	16.3	23.2	23.9	24.4	21.9	24.1	24.3	25.0	21.8
4명 이상	46.1	30.8	15.8	3.9	5.0	9.8	8.7	10.7	8.9	8.6	8.8	7.5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63)	(1,512)	(702)	(969)	(1,819)	(1,246)	(1,548)	(1,360)	(1,221)	(1,346)	(1,048)	(1,019)	(647)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3)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4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부표 2-13〉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초혼연령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19세 미만													
구별 없이	-	-	-	39.8	36.7	34.5	42.5	57.0	50.4	63.9	71.4	70.8	71.6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60.2	63.3	65.5	57.5	43	49.6	36.1	28.6	29.2	28.4
아들 1명	0.3	1.7	0.9	0.6	0.7	1.0	0.2	0.2	0.7	0.4	0.2	0.4	0.7
딸 1명	0.1	-	-	0.1	0.1	0.2	-	0.5	0.4	0.3	-	-	-
아들 2명	1.0	1.3	1.5	0.6	0.7	0.4	0.2	-	-	0.1	-	0.4	-
딸 2명	-	-	-	-	-	-	-	0.3	-	0.3	0.8	-	-
아들 1명 딸 1명	11.6	20.6	31.9	34.8	40.4	37.2	29.3	22.3	29.7	16.7	12.7	16.4	19.9
아들 1명 딸 2명	0.5	2.0	1.6	1.3	2.9	2.5	5.6	4.5	5.3	5.8	6.3	3.9	4.3
아들 2명 딸 1명	38.0	36.2	44.1	17.4	13.1	16.2	13.4	8.5	7.7	6.5	3.3	2.8	1.8
아들 2명 딸 2명	18.5	20.0	12.3	3.7	4.6	6.1	7.7	5.9	4.6	4.6	4.4	5.3	1.1
기타	30.1	18.3	7.6	1.7	0.9	2.0	1.1	0.8	1.1	1.4	0.8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63)	(2,019)	(811)	(1,209)	(1,326)	(1,016)	(719)	(665)	(637)	(643)	(481)	(252)	(268)
20~22세													
구별 없이	-	-	-	49.2	46.7	42.4	52.3	55.6	52.5	62.4	73.7	70.0	75.9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50.8	53.3	57.6	47.7	44.4	47.5	37.6	26.3	30	24.1
아들 1명	0.8	1.9	1.0	0.6	0.6	0.8	0.2	0.6	0.5	0.2	0.1	0.4	0.2
딸 1명	0.1	0.2	-	0.1	-	0.2	0.1	0.1	0.1	0.2	0.1	-	0.2
아들 2명	1.7	2.2	1.4	0.3	0.3	0.2	0.4	0.3	0.3	0.3	-	-	0.3
딸 2명	0.1	0.2	0.1	-	-	-	-	-	0.1	0.2	0.2	0.3	1.0
아들 1명 딸 1명	21.0	30.9	48.3	36.6	37.6	37.1	28.1	22.9	28.7	18.4	12.2	14.0	13.2
아들 1명 딸 2명	0.8	2.7	1.9	0.8	1.3	2.8	3.7	5.3	6.4	5.9	5.4	6.3	4.4
아들 2명 딸 1명	40.3	39.0	34.6	9.9	9.1	10.7	8.9	7.9	5.0	6.8	3.5	3.5	1.9
아들 2명 딸 2명	19.1	14.4	1-	2.3	3.8	5.3	5.7	6.4	5.8	4.8	4.2	4.3	2.3
기타	16.2	8.5	2.6	0.2	0.5	0.6	0.7	1.1	0.4	0.8	0.6	1.2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63)	(1,673)	(1,259)	(2,041)	(2,910)	(2,596)	(1,998)	(1,867)	(1,691)	(1,812)	(1,597)	(970)	(1,089)
23~25세													
구별 없이	-	-	-	58.3	54.9	49.9	57.3	62.8	56.0	64.1	74.3	71.1	78.6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41.7	45.1	50.1	42.7	37.2	44	35.9	25.7	28.9	21.4
아들 1명	0.8	1.7	2.1	1.4	0.9	1.4	-	0.1	0.5	0.3	0.2	0.4	0.1
딸 1명	-	0.1	0.2	0.1	0.1	-	-	-	0.2	0.1	0.4	0.1	0.2
아들 2명	1.7	2.1	1.5	0.2	0.1	0.3	0.3	0.3	0.4	0.2	0.1	0.3	0.5
딸 2명	0.1	-	0.1	-	-	-	-	0.1	0.2	0.3	0.4	0.2	0.1
아들 1명 딸 1명	28.8	45.0	56.9	31.4	32.6	34.2	26.0	22.0	25.4	18.1	11.2	14.2	11.2
아들 1명 딸 2명	1.4	2.5	2.9	1.7	1.8	3.5	4.7	5.0	7.3	6.7	5.9	6.8	4.4
아들 2명 딸 1명	42.8	35.0	28.9	5.3	5.4	6.4	6.9	5.1	5.2	4.3	2.5	2.8	1.6
아들 2명 딸 2명	14.9	10.2	5.6	1.4	3.7	3.7	4.1	4.3	4.4	5.5	4.6	3.5	2.9
기타	9.5	3.4	1.7	0.2	0.4	0.5	0.4	0.3	0.5	0.4	0.4	0.6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33)	(824)	(861)	(1,462)	(2,713)	(2,797)	(2,327)	(2,687)	(2,516)	(2,787)	(2,762)	(2,102)	(2,511)
26~28세													
구별 없이	-	-	-	60.3	58.0	53.3	59.5	66.8	63.7	67.3	74.9	72.5	77.1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39.7	42.0	46.7	40.5	33.2	36.3	32.7	25.1	27.5	22.9
아들 1명	1.8	3.3	2.1	0.3	0.7	1.9	0.2	0.3	0.3	0.3	0.1	0.5	0.1
딸 1명	-	0.5	0.5	0.3	0.1	0.1	0.1	0.4	-	0.3	0.2	0.1	0.4
아들 2명	1.6	3.3	2.1	-	0.3	0.6	0.1	0.1	0.5	0.2	0.1	-	-
딸 2명	0.2	-	-	-	-	-	-	0.1	0.4	0.3	0.3	0.1	0.9
아들 1명 딸 1명	34.2	45.6	55.2	29.2	30.7	33.0	25.5	18.1	21.7	15.6	10.8	14.7	13.0
아들 1명 딸 2명	1.6	3.3	2.6	1.0	1.8	2.4	5.2	3.9	5.7	5.8	7.0	5.5	4.1
아들 2명 딸 1명	44.0	35.2	26.8	4.0	4.8	4.9	5.1	6.1	3.8	4.8	2.6	2.3	1.3
아들 2명 딸 2명	9.3	7.1	10.8	4.6	3.2	2.9	3.9	3.6	3.6	4.8	3.6	3.7	2.7
기타	7.3	1.6	-	0.3	0.4	0.8	0.3	0.6	0.3	0.5	0.3	0.4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50)	(182)	(194)	(323)	(724)	(794)	(820)	(935)	(1,170)	(1,439)	(1,704)	(1,895)	(2,135)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9-31세													
구별 없이	-	-	-	63.5	72.1	47.4	59.4	70.6	64.9	68.2	79.5	74.9	79.9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36.5	27.9	52.6	40.6	29.4	35.1	31.8	20.5	25.1	20.1
아들 1명	6.8	6.3	-	2.1	-	2.0	0.6	-	1.0	0.7	0.2	1.1	0.4
딸 1명	-	-	-	-	-	-	-	-	1.0	-	0.2	0.5	0.3
아들 2명	1.7	12.5	-	-	-	0.7	-	-	-	0.2	0.2	-	-
딸 2명	-	-	-	-	-	-	-	-	0.3	-	0.6	0.1	0.4
아들 1명 딸 1명	35.6	43.8	47.6	24.0	22.1	36.2	26.5	18.8	23.1	16.9	11.9	13.4	12.8
아들 1명 딸 2명	1.7	6.3	4.8	-	2.3	2.0	1.9	1.9	2.7	5.8	2.8	5.2	3.1
아들 2명 딸 1명	42.4	18.8	47.6	7.3	2.3	7.2	5.8	3.1	2.3	4.6	3.2	1.3	0.9
아들 2명 딸 2명	8.5	12.5	-	3.1	1.2	3.9	5.2	5.6	4.7	2.8	1.4	2.9	2.0
기타	3.4	-	-	-	-	-	0.7	0.6	-	-	0.7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9)	(16)	(21)	(51)	(86)	(143)	(143)	(156)	(224)	(350)	(494)	(676)	(837)
32세 이상													
구별 없이	-	-	-	76.9	63.6	56.4	64.3	73.0	75.5	77.7	78.4	78.9	79.8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23.1	36.4	43.6	35.7	27	24.5	22.3	21.6	21.1	20.2
아들 1명	5.6	14.3	6.3	-	-	2.6	-	3.2	1.4	2.1	0.5	1.4	-
딸 1명	-	-	-	-	-	-	-	-	0.7	-	0.9	-	-
아들 2명	-	-	6.3	-	-	-	-	-	-	-	-	-	-
딸 2명	-	14.3	-	-	-	-	-	-	-	-	-	0.5	0.5
아들 1명 딸 1명	38.9	14.3	56.3	15.4	33.3	30.8	23.2	15.9	18.9	10.1	11.9	11.0	10.7
아들 1명 딸 2명	-	-	6.3	-	-	-	1.8	3.2	2.1	3.7	4.1	2.7	5.2
아들 2명 딸 1명	33.3	42.9	12.5	7.7	3.0	10.3	5.4	4.8	0.7	1.6	1.4	2.7	1.5
아들 2명 딸 2명	16.7	14.3	6.3	-	-	-	3.6	0.0	0.7	4.3	2.8	2.2	2.2
기타	5.6	-	6.3	-	-	-	1.8	-	-	0.5	-	0.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	(7)	(16)	(8)	(33)	(37)	(53)	(60)	(111)	(159)	(217)	(332)	(410)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1974~1982년 조사는 성별선택에 대한 문항 없이 이상자녀의 아들, 딸 수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성별 구별해서'의 소계가 100%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48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부표 2-14〉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택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구별 없이	-	-	-	35.7	31.6	29.6	36.4	47.7	44.1	53.1	70.7	64.5	63.2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64.3	68.4	70.4	63.6	52.3	55.9	46.9	29.3	35.5	36.8
아들 1명	0.5	1.7	0.7	0.5	0.6	0.4	0.2	0.4	0.5	0.3	-	0.5	-
딸 1명	-	-	-	-	-	0.2	-	0.1	0.4	0.4	-	-	-
아들 2명	1.5	1.8	1.3	0.5	0.6	0.3	0.3	0.1	0.1	0.1	0.3	-	-
딸 2명	0.1	0.1	0.1	-	-	-	-	0.3	0.1	0.4	-	0.5	-
아들 1명 딸 1명	15.3	23.8	33.9	39.6	44.0	36.4	31.3	25.4	32.4	21.5	11.5	18.0	21.1
아들 1명 딸 2명	0.6	2.3	1.6	1.3	2.1	2.6	3.7	5.0	5.0	5.3	6.6	6.0	10.5
아들 2명 딸 1명	40.9	37.1	44.2	17.3	14.5	19.2	16.0	10.0	9.0	7.8	3.5	4.9	1.8
아들 2명 딸 2명	19.6	18.5	12.7	4.2	5.6	9.6	10.4	9.4	6.6	9.0	5.6	4.9	3.5
기타	21.6	14.7	5.5	0.9	1.0	1.7	1.7	1.6	1.7	2.2	1.7	0.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626)	(3,298)	(1,574)	(2,248)	(2,502)	(1,761)	(1,160)	(946)	(734)	(662)	(295)	(175)	(59)
중학교													
구별 없이	-	-	-	54.1	52.4	43.7	51.6	56.8	49.1	62.9	70.4	68.3	79.4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45.9	47.6	56.3	48.4	43.2	50.9	37.1	29.6	31.7	20.6
아들 1명	1.6	1.9	1.6	0.5	0.8	1.1	0.3	0.3	0.4	0.7	0.3	0.4	1.4
딸 1명	0.1	-	0.1	-	0.1	0.1	-	-	0.1	0.1	-	-	-
아들 2명	1.3	1.6	1.5	0.2	0.4	0.4	0.4	0.2	0.3	0.2	-	-	-
딸 2명	-	-	-	-	-	-	-	-	0.2	0.2	0.6	-	0.3
아들 1명 딸 1명	34.7	41.0	56.9	36.3	35.7	40.6	29.0	23.1	30.2	18.0	14.0	18.0	11.5
아들 1명 딸 2명	0.9	1.9	2.9	1.0	1.9	3.0	5.6	5.8	7.1	5.6	5.2	6.3	3.8
아들 2명 딸 1명	43.5	38.0	29.3	6.4	5.8	7.8	8.2	7.7	6.1	6.9	3.9	2.8	1.4
아들 2명 딸 2명	10.8	10.4	6.2	1.1	2.7	2.5	4.5	5.3	6.4	4.6	5.2	3.8	1.7
기타	7.0	5.2	1.5	0.4	0.2	0.8	0.4	0.9	0.2	0.9	0.6	0.4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66)	(807)	(871)	(1,453)	(2,220)	(1,920)	(1,410)	(1,247)	(1,065)	(1,031)	(705)	(460)	(262)
고등													
구별 없이	-	-	-	65.8	61.0	52.7	59.3	62.9	57.8	64.9	75.1	71.9	75.7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34.2	39	47.3	40.7	37.1	42.2	35.1	24.9	28.1	24.3
아들 1명	1.6	3.2	2.3	1.6	0.7	1.7	0.1	0.3	0.5	0.2	0.2	0.4	0.1
딸 1명	-	0.6	0.3	0.3	-	0.1	0.1	0.1	0.2	0.1	0.3	-	0.3
아들 2명	1.6	2.2	1.7	0.3	0.1	0.3	0.2	0.3	0.3	0.3	0.1	0.2	0.3
딸 2명	-	0.2	-	-	-	-	-	-	0.2	0.2	0.3	0.2	0.5
아들 1명 딸 1명	39.6	44.7	64.4	25.3	29.9	33.5	26.4	21.6	25.5	17.9	11.1	14.4	14.1
아들 1명 딸 2명	2.9	3.6	2.5	1.1	1.5	3.0	4.2	4.7	6.5	6.2	5.8	6.1	3.9
아들 2명 딸 1명	38.0	35.4	22.0	3.8	4.0	5.1	6.1	5.7	4.7	4.9	2.8	2.5	1.9
아들 2명 딸 2명	8.9	8.0	5.0	1.6	2.4	3.3	3.3	4.0	3.9	4.8	4.1	3.6	2.7
기타	7.3	2.2	1.7	0.2	0.4	0.2	0.3	0.4	0.4	0.5	0.4	0.7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00)	(503)	(596)	(1,142)	(2,421)	(2,975)	(2,649)	(3,017)	(3,100)	(3,613)	(3,792)	(2,974)	(3,251)
대학 이상													
구별 없이	-	-	-	67.3	62.7	57.3	63.8	68.8	64.5	69.3	75.8	73.8	79.8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32.7	37.3	42.7	36.2	31.2	35.5	30.7	24.2	26.2	20.2
아들 1명	2.3	1.8	3.3	0.8	0.6	1.5	0.3	0.3	0.6	0.4	0.1	0.8	0.1
딸 1명	-	0.9	-	0.4	0.2	-	0.1	0.3	0.1	0.2	0.4	0.3	0.2
아들 2명	3.1	2.7	3.3	-	-	0.4	0.1	0.3	0.5	0.2	-	0.1	0.1
딸 2명	-	0.9	-	-	-	-	-	0.2	0.3	0.3	0.4	0.2	0.5
아들 1명 딸 1명	50.8	47.8	57.5	23.7	23.2	28.4	21.0	17.6	20.6	14.6	11.3	12.8	11.0
아들 1명 딸 2명	0.8	3.5	3.3	1.8	1.4	3.4	4.3	3.8	6.0	6.4	6.0	5.5	4.4
아들 2명 딸 1명	27.3	30.1	20.8	2.5	5.1	5.7	4.8	4.3	3.0	4.0	2.5	2.5	1.1
아들 2명 딸 2명	10.2	8.8	10.0	3.1	6.2	2.8	5.2	4.1	4.0	4.2	3.4	3.5	2.4
기타	5.5	3.5	1.7	0.4	0.6	0.5	0.4	0.1	0.4	0.4	0.2	0.5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8)	(113)	(120)	(248)	(646)	(720)	(836)	(1,236)	(1,446)	(1,877)	(2,481)	(2,617)	(3,694)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1974~1982년 조사는 성별선택에 대한 문항 없이 이상자녀의 아들, 딸 수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성별 구별해서'의 소계가 100%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15〉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취업													
구별 없이	-	-	-	49.2	45.2	41.8	50.5	60.3	55.4	64.0	74.9	72.3	78.2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50.8	54.8	58.2	49.5	39.7	44.6	36.0	25.1	27.7	21.8
아들 1명	0.8	2.0	0.9	0.6	0.6	1.0	0.2	0.2	0.6	0.4	0.2	0.6	0.2
딸 1명	-	0.1	0.1	-	0.1	0.2	-	0.2	0.2	0.2	0.4	0.1	0.2
아들 2명	1.4	2.0	1.5	0.3	0.2	0.3	0.3	0.2	0.3	0.2	-	0.1	0.2
딸 2명	0.1	0.1	0.1	-	-	-	-	0.1	0.2	0.3	0.4	0.1	0.5
아들 1명 딸 1명	16.5	23.1	37.1	33.9	37.7	35.3	27.9	20.2	26.0	16.5	10.7	14.4	11.9
아들 1명 딸 2명	0.8	2.1	1.6	1.2	1.8	3.3	4.2	4.9	6.3	6.4	5.5	5.7	4.3
아들 2명 딸 1명	38.3	39.4	41.5	11.0	9.9	11.1	9.9	7.0	5.3	5.9	2.8	2.8	1.6
아들 2명 딸 2명	19.7	17.2	12.1	2.9	3.9	5.8	6.2	6.2	5.1	5.3	4.6	3.5	2.5
기타	22.5	14.1	5.0	0.8	0.5	1.3	0.8	0.7	0.5	0.8	0.5	0.5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66)	(1,916)	(1,031)	(1,484)	(3,205)	(2,628)	(2,829)	(3,032)	(3,017)	(3,871)	(3,872)	(3,079)	(3,809)
비취업													
구별 없이	-	-	-	51.8	52.1	47.5	57.8	61.8	58.0	65.7	74.5	72.1	77.2
구별해서(소계)	100.0	100.0	100.0	48.2	47.9	52.5	42.2	38.2	42.0	34.3	25.5	27.9	22.8
아들 1명	0.9	1.8	1.6	0.9	0.8	1.4	0.2	0.4	0.5	0.3	0.2	0.5	0.2
딸 1명	0.1	0.1	0.1	0.1	-	0.1	0.1	0.1	0.1	0.1	0.1	0.2	0.3
딸 2명	-	0.1	-	-	-	-	-	0.1	0.1	0.1	0.3	0.2	0.5
아들 2명	1.6	1.8	1.5	0.3	0.4	0.4	0.3	0.3	0.3	0.2	0.1	0.1	0.2
아들 1명 딸 1명	29.7	33.9	51.6	34.0	34.0	35.6	26.2	22.5	25.5	18.2	12.2	13.9	13.3
아들 1명 딸 2명	1.1	2.6	2.4	1.2	1.8	2.8	4.7	4.6	6.4	5.9	6.1	6.1	4.0
아들 2명 딸 1명	44.2	35.2	31.9	9.0	6.7	8.0	6.4	5.8	4.5	4.4	2.8	2.5	1.3
아들 2명 딸 2명	12.5	14.8	8.0	2.3	3.7	3.8	4.0	3.9	4.2	4.6	3.2	3.8	2.6
기타	9.8	9.7	2.8	0.4	0.5	0.5	0.4	0.5	0.4	0.5	0.3	0.7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17)	(2,805)	(2,131)	(3,609)	(4,586)	(4,749)	(3,226)	(3,416)	(3,328)	(3,309)	(3,410)	(3,147)	(3,463)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1974~1982년 조사는 성별선호에 대한 문항 없이, 이상자녀의 아들, 딸 수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성별 구별해서'의 소계가 100%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비취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50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부표 2-16〉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이상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74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관리직 및 전문직													
구별 없이	-	-	-	62.4	58.1	55.4	61.5	70.2	64.0	67.5	77.2	75.9	79.1
구별해서(소개)	100.0	100.0	100.0	37.6	41.9	44.6	38.5	29.8	36.0	32.5	22.8	24.1	20.9
아들 1명	1.3	2.8	-	1.7	-	1.4	-	-	0.4	0.3	0.1	0.3	0.3
딸 1명	-	-	-	-	-	-	-	0.2	0.7	0.1	0.6	-	0.3
아들 2명	2.7	8.3	6.9	-	-	0.7	0.4	-	-	0.4	-	0.2	0.3
딸 2명	-	2.8	-	-	-	-	-	-	0.2	0.6	0.6	0.2	0.4
아들 1명 딸 1명	38.7	36.1	34.5	24.8	26.4	29.1	22.3	16.4	20.3	13.7	8.8	12.2	9.2
아들 1명 딸 2명	5.3	8.3	-	0.9	-	1.4	4.4	2.9	6.3	6.9	6.0	4.4	6.2
아들 2명 딸 1명	38.7	22.2	31.0	6.0	8.1	6.1	5.1	4.6	3.4	4.6	2.7	2.7	1.3
아들 2명 딸 2명	9.3	8.3	27.6	4.3	6.8	5.4	6.2	5.4	4.6	5.3	3.9	3.8	2.8
기타	4.0	11.1	-	-	0.7	0.7	-	0.2	0.2	0.6	-	0.5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5)	(36)	(29)	(61)	(148)	(151)	(243)	(384)	(425)	(537)	(773)	(608)	(962)
사무종사자													
구별 없이	-	-	-	70.2	69.0	60.0	60.1	67.1	56.1	65.3	75.9	71.3	80.5
구별해서(소개)	100.0	100.0	100.0	29.8	31.0	40.0	39.9	32.9	43.9	34.7	24.1	28.7	19.5
아들 1명	-	-	5.3	2.1	0.9	1.5	-	0.5	-	0.4	-	1.7	-
딸 1명	-	11.1	-	-	-	-	-	-	0.3	-	0.4	0.2	-
아들 2명	3.0	-	5.3	-	-	-	0.6	1.0	1.0	-	-	0.7	0.1
딸 2명	-	-	-	-	-	-	-	-	1.3	-	0.2	-	0.4
아들 1명 딸 1명	54.5	22.2	52.6	11.7	24.1	28.5	27.6	17.9	26.0	15.6	11.4	12.3	12.2
아들 1명 딸 2명	-	-	5.3	2.1	0.9	1.5	3.1	2.9	8.0	8.6	4.8	7.0	2.9
아들 2명 딸 1명	30.3	66.7	26.3	8.5	4.3	7.7	7.4	5.8	3.5	5.3	2.4	2.5	0.8
아들 2명 딸 2명	9.1	-	5.3	5.3	0.9	0.8	1.2	4.8	3.2	4.6	4.4	4.3	2.8
기타	3.0	-	-	-	-	-	-	-	0.6	0.2	0.6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3)	(9)	(19)	(51)	(116)	(124)	(148)	(191)	(234)	(443)	(534)	(559)	(911)
서비스 및 판매직													
구별 없이	-	-	-	47.2	50.4	47.0	52.3	61.5	58.0	65.6	74.7	72.1	76.3
구별해서(소개)	100.0	100.0	100.0	52.8	49.6	53.0	47.7	38.5	42.0	34.4	25.3	27.9	23.7
아들 1명	0.8	2.6	0.5	-	0.6	1.4	0.2	0.2	0.8	0.7	0.1	0.5	0.3
딸 1명	-	0.2	0.2	-	0.1	0.2	-	0.2	-	0.3	0.3	0.1	0.3
아들 2명	1.9	1.1	1.5	0.1	0.3	0.2	0.2	0.1	0.4	0.3	-	-	0.4
딸 2명	0.1	-	-	-	-	-	-	0.1	0.1	0.3	0.3	0.3	0.7
아들 1명 딸 1명	23.6	33.5	44.3	37.3	35.5	35.3	29.2	19.5	24.7	16.4	10.3	14.6	14.2
아들 1명 딸 2명	1.3	2.5	1.2	0.4	2.0	3.2	4.3	5.6	7.1	5.5	5.9	5.6	3.0
아들 2명 딸 1명	42.6	36.9	37.9	10.5	7.0	7.1	6.9	7.0	4.0	5.2	3.2	3.3	1.4
아들 2명 딸 2명	16.2	13.0	9.9	3.0	3.7	4.6	6.0	5.2	4.5	5.0	4.4	2.8	2.4
기타	13.5	10.2	4.5	1.4	0.4	1.0	0.9	0.6	0.4	0.7	0.8	0.7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95)	(529)	(404)	(392)	(1,117)	(1,102)	(878)	(1,088)	(1,113)	(1,522)	(1,506)	(878)	(1,280)
기타													
구별 없이	-	-	-	48.0	39.5	33.6	45.9	54.4	48.8	60.3	73.1	70.8	77.3
구별해서(소개)	100.0	100.0	100.0	52.0	60.5	66.4	54.1	45.6	51.2	39.7	26.9	29.2	22.7
아들 1명	0.7	1.7	1.0	0.7	0.7	0.4	0.3	0.3	0.6	0.1	0.4	0.4	0.2
딸 1명	-	-	-	0.1	0.1	0.2	0.1	0.1	0.2	0.1	0.2	0.1	0.3
아들 2명	1.2	2.2	1.0	0.4	0.3	0.3	0.3	0.3	0.2	0.2	0.1	-	-
딸 2명	-	-	0.2	-	-	-	-	0.1	0.2	0.3	0.5	0.1	0.2
아들 1명 딸 1명	12.5	18.7	31.8	34.3	40.7	36.8	28.1	22.8	29.9	18.2	12.4	16.5	10.7
아들 1명 딸 2명	0.5	1.9	1.9	1.5	1.9	3.8	4.1	5.3	4.9	6.4	4.9	5.7	6.2
아들 2명 딸 1명	36.8	40.6	45.1	11.7	12.2	15.8	13.2	8.2	8.0	7.5	2.5	2.5	3.2
아들 2명 딸 2명	21.5	19.2	13.1	2.7	4.0	7.4	7.1	7.6	6.3	5.7	5.6	3.4	1.8
기타	26.8	15.8	5.9	0.7	0.6	1.7	0.9	1.0	0.8	1.1	0.3	0.5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63)	(1,342)	(579)	(980)	(1,824)	(1,251)	(1,560)	(1,369)	(1,245)	(1,369)	(1,059)	(1,034)	(656)

주: 1)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2) 1974~1982년 조사는 성별선호에 대한 문항 없이 이상자녀의 아들, 딸 수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성별 구별해서'의 소개가 100%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차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17〉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0명	1.0	1.4	0.9	0.9	1.5	1.0	1.5	2.4	1.4	3.8	6.5	3.5
1명	3.2	4.0	4.8	5.8	5.9	6.0	6.9	9.8	8.4	15.3	15.8	15.8
2명	15.9	17.9	21.7	25.9	29.5	37.4	41.3	43.9	47.3	53.3	54.3	54.4
3명	22.6	27.1	28.6	28.6	34.5	33.9	30.5	30.9	31.4	21.6	16.3	17.5
4명 이상	57.3	49.6	44.1	38.9	28.6	21.7	19.8	12.9	11.6	5.9	7.1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958)	(2,680)	(2,248)	(2,501)	(1,759)	(1,159)	(945)	(733)	(657)	(295)	(175)	(58)
중학교												
0명	0.6	1.3	2.4	1.4	1.2	0.9	1.3	1.2	1.6	4.6	3.0	2.4
1명	5.8	7.9	14.6	13.7	9.6	9.4	11.0	12.0	13.0	13.4	19.0	21.0
2명	36.7	46.6	43.7	50.2	55.3	59.0	59.5	62.9	62.3	61.3	57.1	54.5
3명	31.2	27.6	27.1	25.3	25.9	23.1	21.8	19.6	20.0	17.1	18.2	18.5
4명 이상	25.7	16.6	12.3	9.4	8.0	7.6	6.4	4.4	3.1	3.6	2.8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09)	(1,424)	(1,453)	(2,219)	(1,919)	(1,410)	(1,247)	(1,062)	(1,024)	(703)	(460)	(261)
고등학교												
0명	1.0	1.4	3.8	3.8	1.8	0.7	1.1	2.1	1.9	2.4	1.7	2.1
1명	8.6	12.4	21.8	21.5	17.2	14.0	13.6	17.3	14.9	15.7	15.5	20.6
2명	42.9	51.8	49.5	56.5	63.7	69.3	70.5	66.9	68.6	67.6	67.0	62.2
3명	32.7	23.8	18.0	14.2	13.9	13.4	13.5	12.7	13.1	13.3	14.2	13.5
4명 이상	14.9	10.6	6.8	4.0	3.4	2.5	1.4	1.0	1.5	1.1	1.6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34)	(1,034)	(1,142)	(2,419)	(2,972)	(2,646)	(3,015)	(3,093)	(3,593)	(3,789)	(2,974)	(3,247)
대학 이상												
0명	0.6	2.2	4.9	3.6	2.0	1.0	1.4	2.2	1.9	3.0	2.5	2.5
1명	8.8	11.0	18.3	24.3	20.5	15.4	17.7	21.4	20.0	20.8	20.7	23.6
2명	55.8	57.0	49.9	55.7	62.0	72.6	71.9	67.7	65.5	64.6	66.4	63.3
3명	24.3	22.4	23.8	13.5	13.2	9.5	7.7	8.0	11.8	10.6	9.6	10.0
4명 이상	10.5	7.5	3.1	2.9	2.3	1.6	1.3	0.7	0.8	1.0	0.7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1)	(228)	(248)	(646)	(720)	(833)	(1,235)	(1,442)	(1,871)	(2,481)	(2,614)	(3,692)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18〉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취업												
0명	1.0	1.7	1.7	1.7	1.7	1.1	1.6	2.1	1.7	2.8	2.5	2.4
1명	4.2	6.1	11.7	13.0	13.1	11.4	13.2	16.1	15.8	16.5	18.2	23.0
2명	16.6	23.2	31.7	38.2	45.3	57.1	60.5	62.5	63.1	65.9	65.5	62.4
3명	23.2	25.4	28.5	25.0	24.3	20.9	18.1	15.6	16.6	13.1	12.3	11.0
4명 이상	55.0	43.5	26.4	22.1	15.5	9.6	6.7	3.7	2.8	1.8	1.5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22)	(1,885)	(1,484)	(3,205)	(2,624)	(2,826)	(3,030)	(3,011)	(3,850)	(3,868)	(3,078)	(3,803)
비취업												
0명	0.8	1.2	2.7	2.5	1.5	0.6	1.0	1.9	1.9	2.9	1.9	2.2
1명	4.7	7.5	13.5	15.5	12.9	12.3	13.0	17.4	15.1	18.1	17.6	20.9
2명	29.1	39.5	39.7	49.3	58.0	66.6	68.9	65.8	67.3	64.8	66.0	62.2
3명	27.0	26.9	23.6	19.8	20.3	16.3	14.1	13.3	13.7	13.0	13.1	13.4
4명 이상	38.4	24.9	20.5	12.8	7.4	4.2	2.9	1.7	2.0	1.2	1.4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660)	(3,468)	(3,609)	(4,582)	(4,747)	(3,222)	(3,414)	(3,319)	(3,291)	(3,409)	(3,145)	(3,461)

-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19〉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관리직 및 전문직												
0명	1.8	-	6.0	2.0	2.0	0.7	2.2	1.2	1.5	2.9	2.2	2.0
1명	7.1	14.3	35.0	25.0	29.1	18.9	20.4	22.4	20.9	20.3	19.7	26.5
2명	41.1	51.8	44.4	56.1	61.5	66.7	69.6	68.0	64.9	65.8	67.2	61.7
3명	28.6	23.2	11.1	11.5	6.8	11.1	6.6	8.3	12.2	10.0	9.7	9.3
4명 이상	21.4	10.7	3.4	5.4	0.7	2.6	1.2	-	0.6	0.9	1.1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6)	(56)	(61)	(148)	(151)	(241)	(384)	(424)	(537)	(773)	(607)	(961)
사무종사자												
0명	5.6	0.0	7.4	3.4	1.5	1.8	2.4	4.2	2.1	4.0	4.7	2.4
1명	33.3	14.3	31.9	40.5	24.6	17.2	18.9	24.3	23.7	22.0	22.9	23.0
2명	22.2	54.3	30.9	50.0	61.5	67.5	68.9	62.6	63.4	64.4	64.3	66.1
3명	33.3	20.0	20.2	5.2	10.8	12.9	9.2	8.3	10.2	8.8	7.8	8.2
4명 이상	5.6	11.4	9.6	0.9	1.5	0.6	0.5	0.6	0.6	0.7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	(35)	(51)	(116)	(124)	(148)	(191)	(234)	(438)	(534)	(559)	(909)
서비스 및 판매직												
0명	1.5	2.0	0.9	2.3	1.8	1.2	2.3	2.9	2.1	2.6	2.5	3.1
1명	6.7	7.5	9.6	11.2	15.2	11.4	13.5	15.6	14.1	15.2	17.7	23.0
2명	22.1	30.2	29.7	41.7	49.1	59.0	60.6	64.6	65.9	66.6	65.5	60.5
3명	26.4	28.3	33.7	29.1	23.1	20.8	19.0	14.4	15.6	13.9	12.8	11.5
4명 이상	43.4	32.0	26.1	15.7	10.8	7.5	4.7	2.5	2.3	1.6	1.6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75)	(735)	(392)	(1,117)	(1,099)	(878)	(1,087)	(1,110)	(1,512)	(1,506)	(878)	(1,279)
기타												
0명	0.8	1.7	1.5	1.1	1.6	1.0	0.5	1.2	1.2	2.2	1.6	1.7
1명	2.7	4.4	9.8	11.5	8.2	9.2	9.4	11.9	12.9	12.8	12.4	15.2
2명	13.4	15.9	31.7	33.9	38.2	52.6	55.6	57.9	58.9	65.7	65.2	61.9
3명	21.5	23.8	28.0	24.9	28.9	23.8	22.9	21.8	22.0	16.5	15.6	15.3
4명 이상	61.7	54.2	29.1	28.7	23.1	13.4	11.7	7.2	5.1	3.2	2.4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73)	(1,073)	(980)	(1,824)	(1,250)	(1,559)	(1,368)	(1,243)	(1,363)	(1,055)	(1,034)	(654)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54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부표 2-20〉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교육수준별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초등 이하												
아들 1명	4.2	4.1	3.4	3.9	4.2	4.1	5.4	6.8	5.3	10.6	8.2	16.7
딸 1명	1.5	2.3	1.8	2.4	2.4	2.2	1.8	3.7	2.9	4.4	8.2	3.7
아들 2명	4.3	7.4	6.5	9.2	10.4	14.7	13.8	15.2	15.3	15.8	18.2	13.0
딸 2명	1.0	0.7	2.2	1.9	2.6	3.0	4.1	5.4	5.3	6.2	11.8	14.8
아들 1명 딸 1명	9.0	12.0	12.7	14.4	16.5	19.9	23.6	23.9	27.6	33.7	27.6	25.9
아들 1명 딸 2명	6.8	10.0	9.2	9.3	13.3	13.4	11.8	16.0	16.1	10.6	11.2	11.1
아들 2명 딸 1명	12.2	16.8	14.5	14.3	15.2	15.2	14.1	10.9	8.4	7.3	4.1	3.7
아들 2명 딸 2명	10.3	9.6	8.7	9.0	7.3	4.9	5.5	2.3	1.5	0.7	1.8	1.9
가타	50.7	37.1	41.1	35.6	28.1	22.6	20.0	15.9	17.5	10.6	8.8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881)	(1,846)	(2,219)	(2,467)	(1,727)	(1,140)	(926)	(716)	(644)	(280)	(165)	(55)
중학교												
아들 1명	8.1	10.0	9.9	8.6	7.7	7.6	7.6	8.7	8.6	9.0	11.3	14.3
딸 1명	5.0	5.4	6.1	5.9	4.0	3.3	4.3	3.9	4.4	4.9	7.9	8.1
아들 1명 딸 1명	19.1	27.8	24.0	29.6	31.7	34.6	33.7	39.0	39.2	37.0	37.0	37.0
아들 2명 딸 2명	7.1	3.2	2.7	2.6	1.9	1.3	1.3	0.4	0.4	0.6	0.4	1.1
아들 2명 딸 1명	17.3	13.1	11.5	9.7	9.1	5.8	6.7	5.3	6.0	3.8	3.3	4.4
아들 1명 딸 2명	9.8	11.4	12.1	11.7	12.9	12.8	10.6	10.7	10.8	10.2	11.1	5.1
아들 2명	8.9	10.9	13.8	14.9	15.9	16.1	18.5	17.0	17.7	19.3	15.2	11.0
딸 2명	1.8	3.5	5.0	4.9	6.2	7.6	7.3	7.1	6.8	8.5	7.1	7.3
가타	22.9	14.7	14.8	12.1	10.6	10.8	10.0	7.9	6.0	6.7	6.7	1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6)	(1,207)	(1,385)	(2,130)	(1,873)	(1,377)	(1,210)	(1,049)	(993)	(665)	(437)	(248)
고등학교												
아들 1명	8.2	13.3	14.7	14.8	13.3	13.1	10.9	12.3	9.9	10.8	10.0	12.5
딸 1명	5.5	7.3	9.0	8.0	8.2	7.6	7.4	8.5	6.8	7.2	7.1	10.9
아들 2명	9.7	12.3	12.1	14.6	15.0	14.6	18.7	18.5	18.5	17.2	17.5	14.5
딸 2명	3.3	3.0	6.9	6.8	7.3	8.2	8.6	10.0	11.1	10.9	11.7	11.1
아들 1명 딸 1명	24.5	31.9	30.1	36.1	38.0	40.2	39.8	37.1	39.0	40.0	38.8	36.3
아들 1명 딸 2명	13.2	9.8	8.3	7.0	7.6	7.5	7.7	7.0	7.9	6.8	6.7	7.1
아들 2명 딸 1명	15.8	10.5	7.1	5.3	4.7	4.3	3.2	2.8	3.0	3.3	3.6	3.8
아들 2명 딸 2명	3.8	3.2	1.7	1.3	0.8	0.3	0.3	0.2	0.3	0.3	0.4	0.6
가타	16.1	8.7	9.9	6.0	5.1	4.2	3.4	3.7	3.5	3.6	4.2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91)	(887)	(1,044)	(2,210)	(2,752)	(2,460)	(2,766)	(2,886)	(3,391)	(3,576)	(2,830)	(3,098)
대학 이상												
아들 1명	10.8	12.1	11.7	16.7	15.0	16.7	14.3	14.5	14.1	13.9	14.9	15.8
딸 1명	6.0	5.0	7.8	7.8	9.0	10.9	11.2	12.3	10.1	11.9	11.6	13.5
아들 2명	10.8	13.6	11.5	13.0	14.4	14.7	15.6	15.4	15.8	16.7	16.5	15.4
딸 2명	3.0	6.0	8.5	7.3	8.4	8.6	10.6	11.5	11.0	11.1	11.8	11.8
아들 1명 딸 1명	34.9	36.2	30.6	36.7	36.5	39.5	39.6	37.0	36.7	35.3	35.5	33.3
아들 1명 딸 2명	7.8	6.5	13.7	6.8	9.2	4.3	4.9	4.8	6.0	5.6	5.1	5.0
아들 2명 딸 1명	12.0	11.6	5.6	4.9	3.1	1.8	1.9	2.4	3.3	2.9	2.4	2.8
아들 2명 딸 2명	1.8	1.5	1.1	0.5	0.2	0.6	0.1	0.2	0.1	0.3	0.2	0.3
가타	12.7	7.5	9.5	6.3	4.3	3.0	1.8	1.9	2.9	2.4	1.9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66)	(199)	(221)	(575)	(638)	(748)	(1,097)	(1,292)	(1,718)	(2,225)	(2,364)	(3,382)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기대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5) 교육수준별로 졸업과 재학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21〉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상태별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76	1982	1986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취업												
아들 1명	4.2	5.4	8.0	8.2	9.3	8.8	9.4	10.4	10.4	10.3	11.2	15.4
딸 1명	2.2	3.0	3.3	4.1	5.4	5.5	6.0	7.1	6.2	8.0	8.5	9.9
아들 2명	4.4	9.0	9.4	11.8	12.6	15.1	17.3	15.9	18.1	17.6	18.1	14.5
딸 2명	1.1	1.3	4.0	3.3	5.2	6.5	8.0	9.0	9.3	10.4	10.7	11.4
아들 1명 딸 1명	9.0	15.7	18.2	23.2	25.3	32.7	33.7	37.2	36.2	38.7	37.8	36.6
아들 1명 딸 2명	6.4	8.7	10.4	9.3	10.8	10.3	9.1	8.0	9.5	7.2	6.7	5.8
아들 2명 딸 1명	13.2	16.0	13.5	11.7	10.3	7.6	6.5	5.0	4.6	3.2	2.8	3.2
아들 2명 딸 2명	10.3	8.8	5.8	5.7	4.7	1.9	1.7	0.7	0.4	0.4	0.3	0.5
기타	49.2	32.2	27.3	22.6	16.3	11.5	8.3	6.6	5.4	4.1	3.9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270)	(1,283)	(1,433)	(3,049)	(2,477)	(2,685)	(2,830)	(2,821)	(3,629)	(3,569)	(2,827)	(3,524)
비취업												
아들 1명	6.5	9.4	8.9	10.4	10.1	12.4	10.8	12.8	10.5	13.2	12.9	12.7
딸 1명	3.1	5.0	6.1	6.5	6.0	6.7	7.4	9.0	7.9	8.9	9.4	14.0
아들 2명	7.0	10.2	10.8	13.4	14.9	15.0	17.5	18.2	16.6	16.7	15.8	15.1
딸 2명	1.7	2.7	4.9	5.6	6.4	7.8	8.3	9.8	10.6	10.6	12.1	11.3
아들 1명 딸 1명	16.3	24.9	22.9	29.7	34.0	37.5	38.7	35.2	38.8	37.0	36.4	32.9
아들 1명 딸 2명	9.2	10.9	10.1	9.0	10.4	8.5	7.5	7.9	7.5	6.5	6.3	6.4
아들 2명 딸 1명	13.8	13.3	10.2	8.0	7.1	4.9	3.9	3.1	3.4	3.4	3.4	3.5
아들 2명 딸 2명	7.7	4.7	4.2	3.1	1.5	1.0	0.6	0.2	0.3	0.2	0.4	0.5
기타	34.7	18.9	21.9	14.2	9.6	6.3	5.1	3.9	4.4	3.4	3.3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534)	(2,857)	(3,438)	(4,335)	(4,516)	(3,039)	(3,171)	(3,122)	(3,112)	(3,186)	(2,969)	(3,264)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기대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25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부표 2-22〉 연도별 기혼여성(15~49세)의 직종별 기대자녀의 성별선호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관리직 및 전문직												
0들 1명	5.9	10.2	25.3	18.7	21.3	17.3	16.0	13.8	15.2	13.5	12.3	20.1
딸 1명	7.8	10.2	7.1	6.7	12.3	11.8	12.2	10.8	9.0	11.8	11.1	12.6
0들 2명	15.7	10.2	3.0	13.4	13.1	13.9	16.3	13.4	17.8	14.6	17.9	15.1
딸 2명	3.9	2.0	14.1	6.0	10.7	8.4	11.7	10.2	11.9	11.0	12.9	14.1
0들 1명 딸 1명	17.6	34.7	32.3	36.6	33.6	35.9	35.9	42.0	33.9	38.9	35.8	29.0
0들 1명 딸 2명	5.9	8.2	9.1	6.0	3.3	6.8	3.8	5.1	6.7	4.5	5.4	3.7
0들 2명 딸 1명	13.7	14.3	5.1	6.0	0.8	2.5	2.6	3.1	3.0	3.0	1.8	2.9
0들 2명 딸 2명	5.9	4.1	2.0	0.7	-	0.8	-	-	0.2	0.3	0.4	0.4
기타	23.5	6.1	2.0	6.0	4.9	2.5	1.5	1.6	2.2	2.4	2.5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1)	(49)	(50)	(134)	(127)	(211)	(322)	(383)	(493)	(683)	(536)	(885)
사무종사자												
0들 1명	23.1	14.3	21.8	22.8	16.5	18.0	15.9	15.8	13.1	12.9	17.3	14.2
딸 1명	15.4	3.6	17.2	10.9	8.2	8.2	11.0	11.6	12.0	11.2	9.5	10.7
0들 2명	7.7	14.3	6.9	12.0	10.3	11.5	12.4	13.3	16.7	17.0	13.6	13.3
딸 2명	-	7.1	-	7.6	4.1	4.1	13.1	9.5	10.8	10.9	14.2	11.3
0들 1명 딸 1명	-	32.1	20.7	39.1	45.4	41.0	37.9	40.2	36.1	38.6	37.5	42.2
0들 1명 딸 2명	-	7.1	8.0	2.2	5.2	9.8	6.2	4.6	6.3	4.7	3.9	4.3
0들 2명 딸 1명	30.8	7.1	9.2	4.3	5.2	4.9	2.1	0.8	2.7	2.0	2.7	2.8
0들 2명 딸 2명	7.7	3.6	1.1	1.1	1.0	0.8	-	-	-	0.7	0.2	0.1
기타	15.4	10.7	14.9	-	4.1	1.6	1.4	4.1	2.3	2.0	1.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	(28)	(46)	(92)	(97)	(113)	(137)	(182)	(379)	(440)	(479)	(809)
서비스 및 판매직												
0들 1명	5.9	6.0	5.7	6.8	10.6	8.2	9.1	9.1	9.2	9.0	9.3	13.2
딸 1명	3.3	2.8	2.5	4.3	6.8	5.8	6.2	7.8	5.6	7.4	8.6	10.1
0들 2명	6.2	11.4	9.3	12.4	12.7	16.7	17.1	16.1	18.4	18.5	18.5	13.7
딸 2명	1.5	2.1	2.9	4.0	7.3	7.3	7.2	10.4	8.9	10.7	10.4	10.1
0들 1명 딸 1명	12.0	19.6	18.0	25.6	27.4	33.3	36.5	38.8	39.6	38.6	38.6	38.7
0들 1명 딸 2명	9.7	10.3	13.7	11.3	10.4	11.5	10.2	7.2	9.5	7.9	6.8	7.5
0들 2명 딸 1명	13.7	16.0	15.6	12.8	8.6	6.8	5.8	4.1	4.0	3.2	3.0	3.0
0들 2명 딸 2명	9.1	5.2	6.5	4.9	3.8	1.7	1.4	0.4	0.3	0.2	0.1	0.7
기타	38.5	26.7	25.8	17.9	12.2	8.8	6.6	6.1	4.5	4.5	4.6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59)	(536)	(383)	(1,066)	(1,050)	(840)	(1,031)	(1,040)	(1,429)	(1,427)	(821)	(1,199)
기타												
0들 1명	3.2	4.2	7.2	7.5	6.4	6.8	6.9	9.4	8.8	8.5	9.2	15.2
딸 1명	1.4	2.5	2.7	3.4	3.1	4.0	3.3	4.0	4.1	4.9	6.6	5.7
0들 2명	3.2	6.7	10.0	11.3	12.6	14.5	18.4	17.2	18.2	18.8	19.9	16.3
딸 2명	0.9	0.4	4.0	2.5	2.8	5.9	7.0	7.0	8.1	9.5	8.1	10.5
0들 1명 딸 1명	7.5	10.6	17.4	19.9	20.9	31.0	29.9	33.0	33.4	38.7	38.4	34.9
0들 1명 딸 2명	5.1	7.5	9.3	8.7	12.4	10.2	10.2	10.8	11.5	9.2	8.6	7.1
0들 2명 딸 1명	12.9	16.4	13.4	11.9	13.3	9.4	8.9	7.5	6.4	4.2	3.3	4.4
0들 2명 딸 2명	10.9	12.2	6.0	6.9	6.3	2.3	2.7	1.5	0.8	0.5	0.5	0.5
기타	54.9	39.4	30.1	27.9	22.1	15.9	12.9	9.6	8.8	5.7	5.5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47)	(670)	(954)	(1,757)	(1,203)	(1,521)	(1,340)	(1,216)	(1,328)	(1,019)	(991)	(631)

주: 1)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2) 1982년 조사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4) 기대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5) 기타에는 농·축·임·수산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립 종사자, 생산 및 단순노무종사자가 포함됨.

자료: 본 연구에서 구축한 기혼여성 출산력 시계열 자료 DB임.

〈부표 2-23〉 평균 초혼연령 추이(1990~2015)

(단위: 세)

연도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
1990	27.79	24.78
1991	27.91	24.84
1992	28.01	24.93
1993	28.09	25.01
1994	28.21	25.14
1995	28.36	25.32
1996	28.40	25.45
1997	28.59	25.71
1998	28.83	26.02
1999	29.07	26.29
2000	29.28	26.49
2001	29.55	26.78
2002	29.77	27.01
2003	30.14	27.27
2004	30.53	27.52
2005	30.87	27.72
2006	30.96	27.79
2007	31.11	28.09
2008	31.38	28.32
2009	31.61	28.71
2010	31.84	28.91
2011	31.90	29.14
2012	32.13	29.41
2013	32.21	29.59
2014	32.42	29.81
2015	32.57	29.96

자료: 통계청(공공누리). 2015년 혼인·이혼통계. 2016.4.7.

〈부표 2-24〉 연령별 여자혼인율의 추이(1990~2015)

(단위: 해당 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건)

연도	일반 혼인율*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1990	24.9	8.4	92.1	70.9	11.7	4.9	2.9	2.0	1.1	0.7	0.2
1991	25.6	8.6	94.2	73.9	12.6	5.4	3.0	2.0	1.2	0.7	0.2
1992	25.3	8.8	91.6	75.5	13.3	5.8	3.3	2.1	1.3	0.7	0.2
1993	23.5	8.4	80.3	72.7	12.5	5.9	3.4	2.2	1.3	0.8	0.2
1994	22.6	7.5	75.1	73.5	12.6	6.0	3.5	2.3	1.3	0.8	0.2
1995	22.5	6.8	73.6	76.1	13.7	6.7	4.2	2.6	1.6	0.8	0.2
1996	24.2	7.4	78.7	84.5	15.8	7.4	4.6	2.8	1.7	0.9	0.2
1997	21.3	5.7	66.9	78.7	14.8	7.0	4.4	2.9	1.7	0.9	0.2
1998	20.1	5.1	60.2	78.2	15.7	7.4	5.0	3.2	2.0	1.0	0.3
1999	19.2	4.9	52.5	78.4	16.8	8.3	5.6	3.7	2.3	1.2	0.3
2000	17.5	4.4	44.8	74.9	17.4	7.8	5.0	3.4	2.0	1.0	0.3
2001	16.6	3.9	37.9	74.5	18.5	8.4	5.5	3.6	2.1	1.1	0.2
2002	15.8	3.5	33.1	73.9	19.5	8.3	5.4	3.6	2.1	1.2	0.2
2003	15.5	3.3	29.6	75.3	21.4	8.5	5.9	4.1	2.4	1.3	0.3
2004	15.7	3.3	27.6	76.4	23.8	9.5	6.9	5.1	3.2	1.5	0.3
2005	15.8	3.9	26.2	76.9	26.3	10.2	7.4	5.4	3.6	1.7	0.3
2006	16.5	5.1	28.1	81.8	29.7	10.3	6.6	4.6	3.0	1.5	0.4
2007	16.9	3.9	27.2	85.6	33.6	11.1	6.8	4.6	3.0	1.7	0.4
2008	16.0	4.1	24.1	79.0	35.4	11.3	6.6	4.8	3.2	1.8	0.4
2009	14.9	3.3	20.4	74.3	37.0	11.3	6.4	4.9	3.2	1.8	0.4
2010	15.5	3.5	21.5	79.1	42.0	12.2	6.4	5.0	3.3	1.9	0.4
2011	15.5	3.1	20.4	81.2	46.4	12.6	6.1	4.8	3.3	2.0	0.5
2012	15.2	2.9	18.5	80.3	50.0	13.4	6.2	4.8	3.4	2.1	0.5
2013	14.9	2.7	17.6	79.9	51.7	14.0	6.2	4.6	3.3	2.1	0.5
2014	14.0	2.4	16.0	73.6	50.3	14.9	6.3	4.7	3.5	2.2	0.5
2015	13.7	2.2	15.5	72.9	51.8	15.7	6.5	4.5	3.5	2.3	0.6

주: 일반혼인율=(총 혼인 건수÷15세 이상 여자인구)×1,000
 자료: 통계청(공공누리). 2015년 혼인·이혼통계. 2016.4.7.

〈부표 2-25〉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1981~2015)

(단위: 명, 가임여자 1명당 명)

연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1981	867,409	2.570
1982	848,312	2.390
1983	769,155	2.060
1984	674,793	1.740
1985	655,489	1.660
1986	636,019	1.580
1987	623,831	1.530
1988	633,092	1.550
1989	639,431	1.560
1990	649,738	1.570
1991	709,275	1.710
1992	730,678	1.760
1993	715,826	1.654
1994	721,185	1.656
1995	715,020	1.634
1996	691,226	1.574
1997	668,344	1.520
1998	634,790	1.448
1999	614,233	1.410
2000	634,501	1.467
2001	554,895	1.297
2002	492,111	1.166
2003	490,543	1.180
2004	472,761	1.154
2005	435,031	1.076
2006	448,153	1.123
2007	493,189	1.250
2008	465,892	1.192
2009	444,849	1.149
2010	470,171	1.226
2011	471,265	1.244
2012	484,550	1.297
2013	436,455	1.187
2014	435,435	1.205
2015	438,420	1.239

자료: 통계청(공공누리). 2015년 출생·사망통계(확정). 2016.8.24.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